

瑞山の傳説

최 주 연 엮음

瑞 山 文 化 院

瑞山の傳説

최 주 연 엮음

瑞 山 文 化 院

發 刊 辭

제고장마다 고유한 전설(傳說)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전설속에도 그 고장의 얼과 꿈과 낭만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향토사료(鄉土史料)로서의 가치가 있어 지금 우리가 살고 앞으로 살아갈 그리고 영원히 이 고장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사료가 됨을 인식하여 아동문학가이시며 한때 우리 문화원보『서산의 숨결』편집을 맡았던 최주연(崔周淵)선생으로 하여금 엮어낸 3권의 전설집(傳說集)이 각계인사들의 적극적인 호응속에 널리보급되었던것을 수요(需要)에 충당코져 합본재판(合本再版)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재미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선인(先人)들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이야기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것이 무엇인가 찾아 보는것도 이 책이 지니는 참뜻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펴낼수 있도록 도와주신 충청남도 심대평(沈大平)지사님과 서산시 김기흥(金基興)시장님 그리고 인쇄를 맡아주신 서산인쇄공사 한흠(韓洽)사장님께 각기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1995. 8.

서산문화원장 김 현 구

효자와목마 1~171

효자바위 183~351

효자와집터 373~541

우리고장(서산) 전설집

효자와 목마

최 주연 엮음



서산문화원

차 례

효자와 목마

미련한 장사	1
청룡을 쏘아라	29
효자와 목마	47
질그릇 갓	71
나라를 지킨 일곱 섬	85
못이룬 사랑 용이되어	101
이상한 우물	111
중매 할머니 바위	123
딸을 죽인 구두쇠 어부	131
여덟 마리 학의 무덤	147
노루땡이 마을	157
울고간 용마	171

미련한 장사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소원면 철마산에
얹힌 이야기

미련한 장사

소원면에 있는 철마산. 이 철마산은 나무가 무성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예쁜 꽃이 피고 새들의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아 아름답고 산입니다.

산 속에 들어가면 다람쥐가 춤추며 토끼들이 도토리를 따는 모습도 볼 수 있는 산입니다.

이 철마산을 끼고 서쪽에는 바다가 출렁이고 남쪽에는 그림같은 마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마을을 소근리라고 부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오래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따스한 봄 날, 소근리의 어떤 초가집에서 금방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세차게 들려왔습니다.

“응애 응애!”

“응애 응애!”

울음소리로 보아 남자 아기가 틀림없었습니다.

“여보, 남자예요?”

“그래요, 고추가 달렸어요!”

해산하느라 힘겨운 것도 잊고 산모는 남편에게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부터 묻고 있었습니다.

“이놈, 아주 푹푹하게 생겼구려!”

남편은 아들을 얻은 기쁨에 넘치는 듯, 함박꽃 같은 웃음을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랐습니다.

“여보, 아기 이름을 지어야지요?”

“암, 지어야지!”

“누구라고 할까요?”

“주남이, 주남이가 어떨까?”

“주남이요? 좋군요, 성이 조가니까 조 주남이네요, 조 주남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는 조 주남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남이 나이가 일곱 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여보 주남이도 이제 일곱 살이 되었으니 서당에 보내야겠어요?”

“아무렴, 서당에 보내 공부하도록 해야지!”

주남이는 동네 서당에 들어갔습니다.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는 훈장(선생님)은 수염이 길고 눈이 크고 긴 담뱃대를 입에 물고 큰 소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늘 천”

“하늘 천”

“따 지”

훈장 선생님을 따라 학생들은 큰 소리로 글을 읽었습니다.

“자, 조 주남이 어디 읽어 봐!”

선생님이 주남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천 ………”

“그 다음 또 읽어 봐!”

“…………”

“못 읽어?”

“…………”

“아니, 왜 못 읽겠느냐?”

그러나 주남이는 하늘천뿐, 그 다음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놈 집에가서 공부를 하지 않았구나? 이

리와서 회초리를 맞아! ”

주남이는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로 세 번이나 맞았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글썽하도록 아팠습니다.

이렇게 주남이는 공부를 못하였습니다. 공부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못하니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에이 바보! ”

“주남이 바보! ”

아이들은 주남이를 바보라고 하면서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주남이는 서당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공부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놀리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놈아 공부를 그렇게 못해서 무엇에 쓰겠니.

네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게을러서 그래, 열심히 노력하면 왜 공부를 못하니, 그렇게 공부하기가 싫으면 산에 가서 나무나 해 와! ”

아버지는 호령호령 주남이를 나무라셨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남이는 지계를 지고 철마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때는 봄이라 산에는 진달래와 할미꽃이 방긋
방긋 웃고, 나비들이 꽃잎에 앉아 꽃잎에 입맞춤
을 하고 있었읍니다.

주남이는 양지 바른 곳에 치계를 내려 놓고 해
바라지를 하고 앉았읍니다. 따듯한 해님의 입김
이 주남이의 얼굴에 닿았읍니다. 햇빛의 따사로
움이 솜처럼 포근하였읍니다 스르르 잠이 왔읍
니다

“에라, 낮잠이나 잘까!”

주남이는 쏟아지는 잠을 주체하지 못하고 잔다

발에 벌떡 눕고 말았습니다 .

얼마쯤 잤을까 …… .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주남이 곁에 흰 수염을 길게 느리고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남아 ! ”

“주남아 ! ”

“예 , 할아버지 .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 ”

“나 말이나 ? ”

“그래요 할아버지 ! ”

“나는 철마산의 산신령이다 ! ”

“예 , 철마산의 산신령이세요 ? ”

“그렇다니까 ”

“그런데 산신령님께서 웬일이세요 ? ”

“주남이 널 만나러 왔단다 ”

“저를요 ? ”

“그래 ”

“왜요 ? ”

“너에게 선물을 줄까해서다 ! ”

“선물ियो ? 야 . 신난다 무슨 선물을 주시겠어요 ?

“선물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만 골라라 하나는 재주(지혜)이며 또 하나는 힘이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지혜와 힘이요? 무엇이 좋을까?”

주남이는 생각하였습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언뜻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남이는 서당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였습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놀리고 구박을 주고 때리던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힘만 있으면 때려주고 싶었는데 힘이 약해 때려주지도 못하고 구박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아이들이 미웠습니다.

“그래, 힘이 있어야 해!”

이런 생각을 한 주남이는 산신령님에게 말하였습니다.

“산신령님!”

“오냐, 그래 무엇을 줄까?”

“힘을 주세요!”

“힘을?”

“예, 힘이요!”

“힘이라…… 힘 보다 지혜가 좋지 않을까?”

“아니어요, 힘이 좋아요!”

“그렇담 할 수 없지, 힘을 주지, 자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이렇게 말한 산신령은 주남이의 뺨을 세 차게 때렸습니다.

“아야!”

주남이는 잠에서 깜작놀라 깨었습니다.

“참 이상한 꿈도 꾸었네!”

눈을 비비고 쳐다보니 벌써 해가 한나절이 훨씬 기우렸습니다.

“큰 일 났네 언제 나무를 한짐 한담”

주남이는 부시시 일어나 나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낫자루가 쑥 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남이는 빠진 낫을 낫자루에 다시 박아 나무를 하려고 하였지만 낫자루는 자꾸만 빠졌습니다.

“에이, 이놈의 낫자루가 왜 자꾸만 빠진담!”

화가 난 주남이는 앞에 있는 소나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우지직 ……”

소나무는 힘없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주남이는 자기가 지금 한 일이 너무 놀라와 눈만 크게 뜨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꿈인가?”

주남이는 자기의 뺨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야!”

분명,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소나무를 부러뜨릴만큼 힘이 세단 말인가! 꿈에 할아버지가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내가 힘이 장사란 말인가!”

주남이는 다시 앞에 있는 소나무를 뽐아 보았습니다. 소나무는 힘없이 스프르 뽐히고 말았습니다.

“야! 내가 힘이 세구나. 할아버지께서 주신 게 분명해 나는 장사가 됐어!”

주남이는 기뻐,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자, 이제 누구도 나한테 까불지 못해, 까불기만 해 봐라 이 주먹으로 때려 줄테다”

주남이는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나무하는 것도 까맣게 잊은채 말입니다.

“참, 나무를 해야지, 그런데 낮이 없으니 어

떻게 한담! ”

그러나 주남이는 낮이 없어도 나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손으로 나무를 뜯어서 하기로 하고 부지런히 나무를 뜯었습니다. 나무는 뜯기기 보다 뽑아지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주남이의 힘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나뭇짐이 산만큼 커졌습니다.

“야, 이만하면 됐다! ”

나뭇짐을 지고 주남이가 집으로 왔을 때입니다. 방에 계시던 아버지가 창 밖이 갑자기 컴컴해 지니까 구름이 낀줄 알고 비가 올 것 같아 문을 열고 나오시며, 밖에 비에 젖을 물건이 없나 살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창 밖이 컴컴해 진 것은 구름이 낀 것이 아니라 주남이의 나뭇짐이 하도 커서 해를 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주남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큰 나뭇짐을 지고 왔느냐? ”

“이까짓 것 가벼워요, 아버지 ”

“뭐야 가벼워? 이렇게 큰 나뭇짐인데도? ”

“그래요 ”

“그럼,이 나무도 네가 다 한 것이냐?”

“그래요,아버지”

“.....!”

주남이는 아버지에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나무하러 갔다가 꿈을 꾸 이야기며,꿈에 할아버지께서 힘을 주랴 지혜를 주랴 하시기에 힘을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며 꿈을 꾸고 나니 이렇게 힘이 솟아 소나무도 뽑았다는 이야기며 낫자루가 빠져 손으로 나무를 뜯어 이처럼 큰 나뭇짐을 잠간 사이에 했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랬구나! 철마산 산신령님이 네게 철마산 정기를 불어 넣어준 거야,이렇게 고마울 데가 있나,그런데 네가 선물을 잘 못 받았구나!”

“잘 못 받다니요?”

“힘 보다는 지혜가 더 좋은 거야,사람이 힘만 세고 미련하면 무엇에 쓰겠니?”

“무엇에 쓰다니요 보श्य요,내가 이렇게 힘이 세니까 철마산만큼이나 큰 나뭇짐을 지고 올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보고 까부는 아이들도 그냥 놔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지혜가 힘보다 좋은 거란다! 그러나
저러나 어서 그 나뭇짐을 내려 놓아라”.

“예, 아버지!”

주남이는 나뭇짐을 내동댕이치듯 마당가에 있
는 돼지우리 쪽으로 던졌습니다. 아뿔싸! 나뭇
짐은 돼지우리를 깔고 넘어져 그 안에 있던 돼
지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이것 봐라, 네가 지혜가 없
고 미련하기 때문에 돼지도 죽인 거야 그래서
힘보다 지혜가 더 좋다고 한 거란다.”

주남이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힘도 더 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것은 더해만 잤습니
다. 주남이 나이가 스므 살이 되고 설흔 살이 되
었으나 미련한 짓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흐르는 그런 날이었
습니다.

사람들은 논에 김을 매다가 더위를 쫓기 위해
「한티재」라는 조그마한 언덕 위에 있는 정자나
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 때 , 이 한티재 언덕을 누가 커다란 짐을 지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척 더운 듯 이마에서 구슬같은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 그런데 그 사람이 지고 올라오는 짐을 보고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짐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

“ 무슨 짐이 저렇게 커 ? ”

“ 누가 아니래 ”

“ 도대체 무슨 짐이야 ? ”

“ 소금가마니 같은데 ”

“ 소금가마니 ? 그형군, 소금이 가득 담긴 가마니야 ! 그런데 몇 가마니나 지고 오는 거야 ? ”

“ 한 설혼 가마니는 돼 보이는 데 ! ”

“ 더 많은 것 같아 ! ”

“ 누구야 , 저 많은 짐을 지고 오는 사람이 ? ”

“ 주남이 아닌가 ! 미련한 장사조 주남이 같은 데 ! ”

“ 맞았어, 주남이가 틀림없구먼 ! ”

사람들이 이야기를 주고 받는 동안 주남이가 가까이 왔습니다 .

“이사람 주남이, 소금가마니 몇 개나 지고 가는 거야?”

“예, 쉰 가마니구먼요”

“뭐야, 쉰 가마니라구?”

“그래요, 소금 쉰 가마니를 졌더니 더웁네요.”

“그래, 그 소금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는 건데 땀을 흘리나?”

“저 너머 동네까지 가지고 가는구먼요.”

“그러나 저러나 좀 쉬어 가게 땀이 그렇게 나셔야 되겠나. 무거우면 쉬어가야지 그대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나, 참 미련하기는 …….”

동네 사람들의 말에 주남이는 그제서야 소금 짐을 내려 놓고 쉬었습니다. 한참을 쉬고 난, 주남이는 다시 소금가마니를 지고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보게 주남이 가다가 무거우면 쉬어 가라구, 바보처럼 쉴 줄도 모르고 땀만 흘리지 말고 …”

“알았구먼요.”

주남이를 보내고 동네 사람들은 나무 그늘에 그대로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야기는

주남이 이야기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놈 참 미련하기는 곰이야. 암 곰이지, 힘만 세다뿐이지 생각하는 것은 꼭 세 살 먹은 어린애 같단 말이야.”

“누가 아니래, 아무리 힘이 세면 무엇하나 미련하니까 아무 쓸모가 없구먼!”

“그러기에 사람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는 거여, 배움이 없으면 큰 일을 못한다구!”

사람들이 이렇게 주남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쪽 산비탈에서 ‘누가 다시 짐을 지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쳐다보니 주남이가 가던 길을 되돌아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흰 가마니나 되는 소금가마니를 지고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 듯 흘러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사람 주남이, 왜 그냥 돌아오는가?

소금 줄 사람이 없던가?”

“아니예요.”

“그럼, 왜 그냥 오는 거야?”

“더워서요.”

“더워서?”

“ 더워서 쉬어가려구요. / ”

“ 쉬어가다니 ? ”

“ 아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 무거우면 쉬어가라구요 ? ”

“ 그랬지. / ”

“ 그래서 쉬러 왔다니까요. / ”

“ 뭐야 , 그럼 가다가 더웁고 힘들어서 쉬러 왔단 말이지 ? ”

“ 예 . ”

“ 예끼 , 이 못난 사람 , 더웁고 힘들면 그 자리서 쉬어가지 예까지 뺏하러 올라와 ? ”

“ 그럼 저기에도 쉬는 자리가 있나요 ? ”

“ 이 미련한 사람아 쉬는 장소가 따로 있나 , 아무데서나 쉬면 돼지. / ”

“ 그럼 공연히 왔네요 ”

“ 에이 곰같은 사람 저렇게 미련해서야 쫓쫓 ”

사람들은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읍니다 . 오히려 주남이가 측은하기까지 했읍니다 .

이렇게 주남이는 힘만 세었지 미련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남이는 사람들이 흉을 보는지 조롱을 하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운 힘, 천하 장사라 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도 좋은데 한 번 쓰지 못하고 늘 비웃음을 당하는 것은 주남이에게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럴줄 알았더라면, 산신령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어야 옳았을 것을……! 동네 사람들은 철마산에서 산신령의 두 가지 선물을 또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남이가 힘을 나쁜데 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에 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일이면 선뜻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아까처럼 소금을 운반해 준다는지,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노인의 짐을 들어다 준다는지, 힘이 없어 켄켄매는 모습을 보고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대신해 주는 것이 주남이의 성품이었습니다. 미련은 해도 마음씨가 곱고 착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해, 칠마산에 절을 짓게 되었습니다.

산 중턱에 큰 절을 짓기 때문에 절을 짓는데 쓰여질 건축재를 운반하기가 꽤나 힘이 들었습니다.

크고 긴 나무며, 돌이며, 기와며, 무엇하나 쉽게 운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 주춧돌 운반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큰 집을 짓기 때문에 주춧돌도 크고 튼튼한 돌을 써야하기 때문입니다.

“영차 영차!”

사람들은 큰 돌을 운반하려고 여럿이 힘을 합하여 애를 썼지만 주춧돌에 꼭 필요한 돌은 쉽게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주남이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저리 비키세요, 내가 들어다 줄게요.”

주남이가 “끔”하고 힘을 한 번 쓰자. 여럿이 들려고 애쓰던 돌덩이가 솜덩이처럼 가볍게 들렸습니다.

“와 - !”

“야! !”

“정말, 천하 장사다! !”

사람들이 감탄하는 소리를 듣는지 마는지 주남

이는 돌을 들고 꺾충꺾충 걸어 산을 오르고 있었읍니다 .

이렇게 주남이의 큰 힘으로 절을 짓는데 건축 기간을 앞당길 수가 있었읍니다 .

주지 스님도 , 동네 사람도 다시 한 번 주남이의 그 힘에 고마와 하였고 칭찬하였지만 주남이는 그런 칭찬도 듣는둥 마는둥 자기가 할 일을 한 것 뿐이라는 듯이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읍니다 .

이런 주남이의 힘을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좀 더 보람 있는 일에 쓰여지기를 바라고 있을 때 , 태안 어느 절에는 마음씨가 고약한 중이 살고 있었읍니다 . 말로만 중이지 성품이 포악하고 힘이 세어서 감히 누가 건드릴 수가 없었읍니다 . 그러니까 중인 척하는 가짜중이였읍니다 .

이 중이 태안장이 서는 날이면 의례히 나타나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읍니다 .

“이놈들아 , 누가 오늘 장을 보라고 했느냐 이 천하 장사 스님에게 여쭙어 보지도 않고 마음 대로 장을 서게해 . 이놈들 물건을 걸어가지고 가거라 . ” “그렇지 않으면 혼날줄 알아

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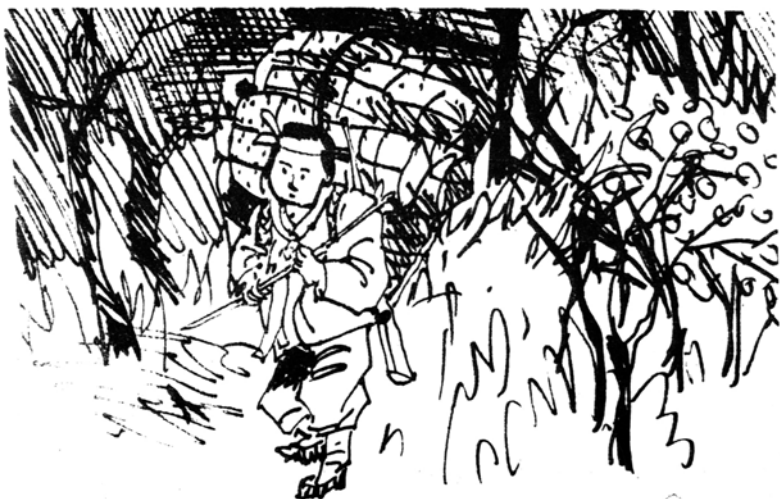
장사꾼들은 벌벌 떨며 아무 말도 못하고 붓따리를 싸가지고 도망가기가 바빴읍니다.

“내일은 장을 보아도 좋다! ”

이런 말이 나오면 장이 서고 .

“내일은 장을 보아서는 안된다! ”

이런 말을 중이 하면 장은 설 수가 없었읍니다. 누구 하나라도 중의 말을 거역하면 그 사람은 매를 맞거나 물건을 다 빼앗기게 되므로 아무 소리 못하고 중이 시키는 대로 했읍니다 .



“저놈의 중 때문에 태안장은 망하게 됐어, 어쩌면 좋아! ”

장사꾼들은 가슴을 치며 안타까와 했지만 뽀죽

한 수가 없었습니다 .

“저 중을 이길 사람이 없을까 ? ”

“있기는 누가 있겠나 , 저 포악한 중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 ! ”

태안장에서 물건을 팔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가짜중 때문에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

물건을 팔아 얻어진 돈을 이 중에게 얼마를 바쳐야 하기 때문에 장사를 해도 들어오는 돈이 없었습니다 . 그것은 물건을 사가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물건을 사는데도 이 중에게 돈을 주어야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

“이러다가는 안되겠어 , 우리 모두 나서서 저 중과 싸우세 , 수 십명이 힘을 합하면 설마 , 저 중 하나 못이기겠나 ? ”

그러나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 그만큼 중이 힘이 세고 사나와 잘못하면 큰 봉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

이때 ,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

“옳지 ! 좋은 수가 있네 ! ”

“좋은 수라니 ? ”

“주남이가 있지 않나?”

“주남이? 조 주남이 말인가?”

“그래, 그 주남이야!”

“그 주남이 보고 중을 혼내주라고 하잖 말이지?”

“응, 그 주남이면 중을 이길 거야. 조금도 쉼 가마니나 지고 다니는데 그 힘만 있으면 중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 게 될까?”

“어쨌거나 한 번 말해보는 거지.”

“좋아, 어디 주남이에게 말해보세.”

사람들은 주남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중에게 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에게 돈을 뜯기는 이야기며 중에게 매를 맞은 이야기며 이러다가는 태안장이 폐지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잠자코 듣고 있던 주남이가 갑자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말하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내가 그놈의 중을 혼내주겠습니다!”

“자네가 정말 할 수 있겠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천하 장사 주남이가 그까짓 가짜중 하나를 못이길 성 있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주남이 자네만 믿겠네!”

이렇게 해서 주남이는 그 중에게 도전장을 보내었습니다.

도 전 장

「듣자하니 네가 가짜중 노릇을 하며 착한 사람을 피롭힌다니 그냥 놔 둘 수 없다. 내가 혼내줄테니 나하고 승부를 가리자!」.

이것이 주남이가 보낸 도전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주남이가 글씨를 쓸줄 모르기 때문에 주남이의 말을 동네 훈장이 써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가짜중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하하하,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더니 네놈이 이 천하 장사 스님을 몰라 보는구나, 좋다. 다음 장날, 쇠장(소를 팔고 사는 장터)에서 승부를 가리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장날이었습니다.

주남이와 나쁜 중이 싸운다는 소리를 듣고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로 쇠장에는 발들여 놓을 틈도 없었습니다 .

이윽고 저쪽에서 나쁜 중이 그 뚱뚱한 배를 내밀고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 누런 이를 보기 싫게 내밀고 히죽히죽 웃는 꼴이 심술궂게만 생겼습니다 .

이어서, 이쪽에선 주남이가 디뎛디뎛 걸어왔습니다 . 걷는 모습이 미련하게만 보입니다 .

“네놈이 주남이냐?”

“그렇다. 네놈이 가짜 중이냐?”

중도, 주남이도 서로 노려보며 식식거렸지만 누구 서로 먼저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동안 눈씨름을 하다가 중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

“자 나간다!”

그러자 주남이도 당당하게 ,

“나도 나간다!”

하더니 어느 결에 서로 어울려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

싸움은 마치 사자와 호랑이의 싸움 같았습니다 .

서로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가 하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기도 하였습니다.

“ 끙끙 . ”

“ 끙끙 . ”

그러나 승부는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종이 밀리는가 하면 어느새 주남이가 밀리고, 종이 넘어질 듯하다가도 주남이가 넘어질 것도 같았습니다.

보는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서도 싸우는 두 장사 못지않게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감이하기를 한 시간이나 지났을 무렵,

“ 좀 쉬었다 하자 ! ”

“ 좋다 쉬었다 하자 ! ”

두 사람은 똑같이 지쳐 비틀비틀하였습니다.

“ 오늘은 기어히 네놈의 나쁜 버릇을 고치겠다 ! ”

주남이가 말하자, 종이 받아 말했습니다.

“ 누가 할 소리냐, 네놈의 버릇도 고쳐놓테다 ! ”

“ 버릇이라고? 내가 무슨 버릇이 있느냐, 네가 착한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돈이나 뜯고

못된 짓을 하니 그 못된 버릇이나 고쳐라.!”

쉬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 이기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좋다.!”

두 사람은 다시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쉽게 승부는 나지 않았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주남이가 이기기를 빌었지만 겉으로 응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주남이가 지는 날이면 주남이를 응원한 사람들은 모두 중에게 혼나기 때문입니다.

서로 밀고 닥치고, 그렇게 하기를 또 한 시간이 지났을까?

“에잇.!”

주남이의 호통과 함께 중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가 했더니 저만치서 쿵.!”하고 중이 나자빠졌습니다.

“야.!” 주남이가 이겼다.!”

보는 사람들이 모두 손뼉을 치고 만세를 부르는데 주남이도 비실비실하더니 그만 풀석 땅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주남이가 풀석 주저앉은 자리가 바로 뽕죽한 쇠말뚝이었습니다. 쇠말뚝이란 소가 달아나지 않도록 소고삐를 매어 놓는 말뚝입니다. 그 뽕죽한 말뚝에 주남이가 주저 앉은 것입니다.

주남이의 항문에서 붉은 피가 흘렀습니다. 애석하게도 주남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미련하다고 놀림을 당하던 주남이! 미련해도 착하기만 하였던 주남이의 일생은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철마산에 올라가면 옛날 주남이가 도와 건축했던 절은 폐허가 됐고 큼직한 주춧돌만이 “부지런히 공부하여 지혜를 쌓으라”라는 교훈을 말하는 듯 묵묵히 비 바람에 씻기어가고 있습니다.



청룡을 쏘아라

자기 재주만 너무 믿어도
안된다는 이북면과 원북면 해안
에서 있었다는 이야기

청룡을 쏘아라

오늘 저녁 밥상 위에는 생선찌개가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침을 꿀꺽 삼키게 하고 식욕을 돋구어 주었습니다.

“야, 맛있다!”

동생은 부지런히 생선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생선 이름이 무엇이에요 어머니?”

훈이가 궁금한 듯이 여쭙어 보았습니다.

“응, 조기라고 한단다”

아버지께서 대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기요? 이 조기는 어디서 잡지요?”

“글쎄, 아마 서해바다에서 많이 잡히지 옛날에는 우리 서산 앞바다에서도 많이 잡혔는데

요즈음은 조기잡이한다는 소리를 못들었거든,
그러나 연평도 근해에서는 지금도 많이 잡힌다
고 한다.”

“그래요, 그런데 전에 잡히던 조기가 왜 요
즈음은 안잡힐까요?”

“모르지, 대륙붕에 오염될만한 공장 폐수도
우리 지방에는 없는데도 고기가 먼데로 간 모
양이다. 어쩌면 서산 앞바다에 조기가 좋아하
는 먹이가 없나보구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게 서산 앞바다에도 고기가 많
았으면 좋겠어요”

“그야 좋은 일이지, 아버지가 어렸을 때에는
조기를 많이 먹었다”

“어떻게요?”

“응, 할아버지께서 잡아오셨지!”

“할아버지께서요?”

“그래, 조그마한 쪽배를 타고 아침 일찍 노
저어 나가셨다가 저녁에 돌아오실 때는 바구니
그득히 싱싱한 조기가 담겨 있었지, 아직도 펄
적펄적 뛰는 놈들이었다!”

“야, 신났겠다. 그때는 서산 앞바다에서 잡아 오셨나요?”

“아니지, 그 때도 멀리 연평도 근해까지 가서 야 잡아 오셨단다.”

“그럼, 그 때도 근처 바다에는 조기가 없었군요?”

“그렇지, 어쩌다 잡히기는 했지만 아주 귀했었다.”

“그러니까, 서산 앞바다에서 조기가 살아진 것은 꽤 오래된 모양이에요?”

“그런가 봐, 그런 일 때문에 조기가 귀하게 됐다고 하기에겐 우습지만 어쨌던 옛날에는 이곳 바다에도 조기가 많이 잡힌 것이 분명해.”

“그런 일 때문이라니요?”

“전해오는 이야기니까 믿을만한 것은 못돼!”

“전설이군요?”

“그렇지 전설이야!”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네?”

“그래, 저녁상을 물린 다음 얘기하기로 하자.”

“나도 같이 들을게요?”

동생이 옆에서 참견을 하였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난 다음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옛날 서산 앞바다에는 조기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학암포에서 부터 이북면 내리에 이르는 바다에 더 많은 조기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바다물에는 조기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많았으며 깊지도 얕지도 않은 대륙붕, 거기다가 알맞은 수온은 조기들이 살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조건이 좋은데다가 이 조기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보호자가 있었는데 그 보호자가 바로 누런 빛깔의 용이었습니다. 이 용을 사람들은 황룡이라고 불렀습니다.

황룡은 조기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늘 보호해 주었습니다. 특히 흉칙한 상어나 사나운 바닷뱀이 조기들을 잡아 먹으려고 하면 이것들을 쫓아주었기 때문에 조기들은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었고 황룡에게 고마와 하며 살아가

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아가는 조기들을 자기가 빼앗아 가려는 용이 한 마리 또 있었습니다.



이 용은 색깔이 청색이어서 사람들은 청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청룡은 서산 앞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연평도 근해에서 살고 있었는데 황룡의 보호를 받는 조기떼들을 빼앗아가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거참, 황룡이란 놈, 건방지게 조기떼를 거느리고 잘난 척한단말야 내 기어이 빼앗아 와야지!”

심술이 난 청룡이 어느날, 황룡에게 왔습니다.

“황룡아, 네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인데?”

“네가 거느리고 있는 조기떼 말이다.”

“조기떼가 어쨌길래?”

“나한테 넘겨다오?”

“뭐라구?”

“뭘 그리 놀래느냐 조기떼를 달라는데?”

“그건 안된다!”

“어째서?”

“몰라서 묻니?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이 조기들은 상어밥이 된다. 그리고 서산 군민들은 생선을 먹을 수가 없어!”

“하지만, 나도 조기떼를 보호하고 서산 사람 대신 다른 사람에게 생선을 먹도록 할 수가 있다.”

“그래도 안된다!”

“좋다. 오늘은 그냥간다. 내일 다시 올터이니 잘 생각하였다가 대답해 주기 바란다.”

“내일 다시 와도 대답은 같다!”

황룡이 생각하니 청룡이 패썹하기가 이틀데 없었습니다. 제가 뭇데 남이 보호하고 있는 조기떼

를 내놓다고 하니 참으로 불쾌했습니다 .

그러나 , 청룡은 다음 날 , 또 왔습니다 .

“ 그래 생각해 보았느냐 ? ”

“ 생각해 보나마나 안되는 일이다 ! ”

“ 그럼 반만 다오 , 네가 반 가지고 내가 반 가지면 공평하지 않느냐 ? ”

“ 그것도 안된다 . 도대체 , 이 조기떼가 누구의 것인데 네가 전방지게 내놓아라 나누어 갖자 하고 떠드는 거냐 , 이 조기들은 이 황룡의 것이다 ! ”

“ 안된다는 말이나 ? 좋다 , 그럼 실력으로 빼앗을 테다 ! ”

“ 마음대로 해라 , 네가 실력으로 나오면 나도 실력으로 막겠다 ! ”

둘이는 옥신각신하다가 청룡이 슬그머니 돌아갔습니다 . 하지만 그렇게 쉽게 물러갈 청룡이 아니었습니다 . 다음 날 , 청룡은 빨을 곤두세우고 쳐들어 왔습니다 .

“ 자 , 너를 죽이고 조기떼를 가져가겠다 . 목숨이 아깝거든 순순히 내놓아라 ! ”

“ 좋다 ,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네놈을 그

냥 두지 않겠다!”

청룡과 황룡은 서로 맞붙어 싸웠습니다. 천하에 가장 힘이 센 용들이 싸우고 있으니 그 싸움은 보기에 무섭고도 굉장했습니다.

청룡이 꼬리를 흔들 때마다 물줄기가 하늘까지 튀어 오르고 서로 엉켜 덩굴 때마다 파도가 일어 근처에는 아무리 큰 배라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황룡의 입에서 붉은 불꽃을 확확 품어 대면 청룡의 입에선 파란 불기둥이 튀어나왔습니다.

청룡의 입에서 휘잉-하고 고함치면 황룡도 휘잉-하고 호령을 하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근처에 있는 섬들어 떨었습니다.

작은 고기들은 무서워 멀리 도망갔으며 두 용이 싸우는 바다는 흙탕물이 되어 바다가 뿌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 싸움 구경을 하였지만 어린이들은 무서워 집으로 도망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룡과 황룡의 싸움은 승부가 쉽게 나

지 않았읍니다. 두 용의 힘과 재주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편이 쉽게 이길 수 없었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우고 있으니 아무리 힘이 센 용들이라고 하지만 기진맥진하였읍니다.

청룡이 먼저 말하였읍니다.

“오늘은 그만 싸우자, 지쳐서 더 못싸우겠다”

“좋다, 나도 그렇다. 쉬었다가 내일 다시 싸우자!”

둘이는 헤어졌읍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어울려 싸웠읍니다. 그러나 승패는 전날과 같았읍니다. 누구도 지고 이긴쪽이 없이 무승부였읍니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 날이 지났지만 둘은 힘만 빠졌지 아무 소득이 없었읍니다.

‘저 놈을 내가 이겨야 하는데!’

‘저 놈을 내가 이겨야 하는데!’

둘의 마음은 같았지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읍니다.

이때,

이북면 내리에는 활을 잘 쏘는 젊은 무사 한 사람이 살고 있었읍니다.

활쏘는 솜씨가 어찌나 뛰어났는지 10 리 밖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높은 창공의 기러기도 쉽게 잡을 수 있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이 무사는, 언젠가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훌륭한 일을 하겠다고 버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무사가 훌륭한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적군을 무찔러 나라를 구한다든지, 세계 궁술대회에 나가서 일등을 한다든지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었읍니다.



어느 날 밤, 이 무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누런 수염을 길게 느린 노인이 나타나
자고 있는 무사를 깨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나요? 나는 황룡이요!”

“황룡이라면?”

“왜 소문도 못들었소, 지금 학ampo 앞바다에
서 청룡과 황룡이 싸운다는 소문말이오, 모르
는 사람이 없을텐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직접 보기
도 했지요. 그렇다면 ……?”

“그 황룡이 바로 나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황룡께서 어떻게 나를
찾아 오셨습니까?”

“부탁이 있소”

“부탁이라면 ……?”

“나를 좀 도와주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청룡과 여러 날을 싸우고 있지만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소 그렇다고 이대로 싸움을
오래 끌 수는 없는 일, 그러니 무사께서 나를

도와 청룡을 이기게 해 주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하십시오”

“당신은 활을 잘 쏘지요?”

“조금 쓸 줄 압니다.”

“당신의 활솜씨라면 됩니다. 내일 우리가 다시 싸우고 있을 때, 당신은 숨어 있다가 청룡을 향하여 활을 쏘시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일이 있소. 우리가 엽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우게 되는데 내가 위로 올라오는 순간 활을 쏘아야 청룡이 맞게 되오 그와 반대로 청룡이 위로 올라올 때 쏘면 내가 죽게 됩니다. 이 말은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위로 올라오는 순간, 활을 쏘아야 하오./”

그리고는, 노인으로 변한 황룡은 사라졌습니다. 무사는 깜작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참 이상한 꿈도 다 꾸었다./”

다음 날 아침, 젊은 무사는 뒷산으로 올라가 숨어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면서 청룡이 황룡이 있는 곳으로 쏜살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싸우려고 오는 것입니다.

이윽고 두 용은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꿈에서 말한대로 들이는 옆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웠습니다.

황룡이 위로 올라오면 청룡이 밑으로 깔리고 청룡이 위로 올라오는가 하면 금방 황룡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싸움이 어찌나 치열한지 보고 있는 젊은 무사의 이마와 손에는 땀이 축축히 배어 있었습니다.

“참, 꿈에 나보고 활을 쏘아 청룡을 죽이라고 했지.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으니 약속한 대로 청룡을 죽여야지!”

젊은 무사는 등에서 활을 뽑아 들고 활에 살을 재어 목표를 향하여 겨누었습니다. 바로 그때 황룡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때다! 무사는 시위에서 손을 떼려고 하다가 언뜻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쏘면 안돼, 황룡은 자기가 위로 올라올 때, 쏘라고 하였지만 지금 쏘면 황룡이 죽게 돼, 아무리 빨리 옆치락 뒤치락한다 해도 내 화살이 빨라. 이래봐도 내 활숨씨는 누구나 알아주는 데 황룡이 내 활 숨씨를 잘못 안 거야, 청룡이 위로 올라오면 쏘야지.”

이렇게 생각한 무사는 다시 활에 살을 재어 청룡이 위로 올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순간, 청룡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이다!”

무사의 입에서 이런 소리와 함께 시위를 떠난 화살은 청룡을 향하여 날아갔습니다.

“명중이다!”

무사는 자기의 활솜씨에 스스로 감탄하며 다시 확인해 보려고 바다를 쳐다보았습니다. 바다는 용이 홀린 피로 금새 붉게 물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 일입니까. 무사의 활에 맞아 죽은 것은 청룡이 아니라 황룡이었습니다.

“아뿔싸! 이거 큰 실수를 했구나!”

무사가 뉘우쳤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무사의 도움으로 황룡을 이긴 청룡은 의기양양하게 조기떼를 몰고 연평도쪽으로 가버렸고 가엾게도 죽은 황룡의 시체만이 물위에 덩그러니 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황룡이 하라는 대로 했더라면…………”

무사는 자기의 실수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 내 재주만 믿고 너무 어리석은 짓을 했어!”

그 뒤로 무사는 그 산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대하기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하겠다던 포부도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던 꿈은 다 살아졌읍니다. 한번 실수가 이 젊고 유능한 무사를 좌절과 절망으로 몰아넣고 말았읍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서산 앞바다에는 조기가 귀하게 되었고 그 젊은 무사가 살던 산의 고개를 「숨은 고개」라고 이름이 지어졌읍니다. 아마 젊은 무사가 숨어 살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혀진 모양입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읍니다.

지금까지 눈을 말뚝이 뜨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던 동생이 말하엿읍니다.

“에이, 무사가 활을 잘 쏘았더라면 맛있는 조기요리를 많이 먹을 수 있었을텐데 —.”

훈이 역시 아쉬운 생각이 들었읍니다. 청룡과

황룡이 싸우는 모습도 젊은 무사가 실망해 하는
얼굴빛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꿈 속의 노인으
로 변한 황룡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자기 재주만 너무 믿는 것도
좋지 않군요?”

“너, 좋은 생각을 하였다. 훌륭한 사람은 남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단다. 듣고 좋은 말이
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그 말대로 따르는 아량
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마음가짐이란다.”
훈이가 다시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나는 또 젊은 무사가 숨어 산 것도
하나의 실수라고 생각해요 실수를 했으면 실수
이상의 좋은 일을 해서 그 실수를 메꾸는 일을
했어야 옳지 않았을까요? 그 젊은 무사가 실수
를 접쳐한 것 같아요!”

“야, 우리 훈이가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하는구
나. 네 생각이 모두 옳아, 한 번 실수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시 분발하는 용기
가 있어야 한단다. 너 칠전팔기라는 말 알지, 일
곱 번 넘어졌다도 여덟 번째 일어난다는 말이
다. 실수를 교훈 삼아 더 좋은 일을 하겠다고

노력하는 용기야말로 훌륭한 것이란다.”

이야기를 주고 받는 동안 짧은 여름밤은 깊어 갔습니다.

동생은 벌써 깊은 잠이 들었는지 이따금 코를
플기도 하고 입을 쯑긋쯑긋하기도 합니다. 어찌
면 꿈 속에서 청룡과 황룡이 싸우는 것을 구경하
는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효자와 목마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의
은총을 입는다는 원복면
방갈리에 전해오는 이야기

효자와 목마

순돌이는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라고 동네 사람들은 칭찬이 대단합니다.

나무로 짐승의 모양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누구든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토막을 들고 조그마한 손칼을 손에 쥐고는 요모조모 다듬노라면 어느새 짐승의 모양이 됩니다.

순돌이 방에는 순돌이가 만들어 놓은 짐승들로 꽉 차 있습니다.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소와 말도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담! 꼭 살아 있는 모양 같아!”

사람들은 순돌이의 손재주에 칭찬을 아끼지 않

습니다.

순돌이는 올해 열 두 살된 소년입니다. 식구
라야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순돌이는 어머니를 도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밭에 나가 김도 매고 뽕 나무도
해오며 어머니 심부름도 잘하는 착한 어린이입니
다. 그러면서도 틈만 있으면 손칼을 쥐고 조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돌이는 밤이면 자기가 만든 짐승들과 이야기
를 하다가 그 중에 하나를 안고 잠이 들곤 했읍
니다. 꿈 속에서도 순돌이는 짐승들과 뛰어놀기
도 합니다.

넓은 들을 마음대로 뛰놀며 신나게 놀다가 잠이
깨기도 합니다.

순돌이가 이렇게 자기가 만든 짐승과 이야기하
며 노는 것은 순돌이에게 친구가 하나도 없기 때
문입니다.

순돌이네 집은 동네에서 외진 곳에 있는데다가
또 순돌이 나이 또래의 아이들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돌이는 친구가 없다고 해서 조금도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조각품 모두

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절로 이야기가 나오고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순돌아, 오늘은 무엇을 했니?”

큰 귀를 쫑긋 세우고 토끼가 물으면 순돌이는
“응, 저 너머 밭에 가서 김을 땀단다.”하고 대답합니다.

“혼자서?”

“아니, 어머니하고.”

“밭에 무엇을 심었지?”

“감자랑, 콩이랑, 보리를 심었지!”

누가 옆에서 들으면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순돌이는 마음 속으로 짐승들이 하는 말을 듣는답니다.

순돌이는 이따금 앞에 있는 바닷가에 나가 고기를 낚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날도 순돌이는 방안에 있는 짐승들에게 바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갈매기가 은빛 날개를 펴득이며 날아다니는 이야기며, 뚝단배가 잔잔한 물결 위를 그림처럼 지나가는 이야기며, 뱃사람들이 고기잡이하러 부르

는 뱀노래가 구성지다는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오늘 잡아온 망둥이니, 놀래미니, 참치 이야기도
합니다.

“망둥이가 어떻게 생겼지?”

“응, 조그마한 물고기야, 머리만 크고 눈도 크
게 생겼지.”

“나보다 더 커?”

“아니, 너는 내가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그렇
지. 굉장이 큰 짐승이야! 나보다도 더 큰 걸!”

“순돌아, 부탁이 있어. 꼭 들어줘야 해 응.”

“무슨 부탁인데?”

“진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아 있는 나 좀
보여주고,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좀 시켜
줘 응?”

순돌이가 만든 목마는 그것이 몹시 궁금했던 모
양입니다. 순돌이에게 진짜 말파, 바다를 구경시
켜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야 어렵지 않지!”

“정말?”

“정말이구 말구.”

다음 날, 순돌이는 목마를 주머니에 넣고 마을

로 갔읍니다. 마을에 말을 기르는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봐, 이것이 진짜 너야”

“야, 평장이 크다. 그리고 씹씹하게 생기고,
그런데 나는 왜 요렇게 작게 만들었어?”

“그야, 너는 늘 내 방에서 나와 같이 놀자고
그랬지”

“고마와, 순돌이가 나를 위해주니까 나는 늘
기쁘거든, 그럼 이번에는 바다 구경을 시켜
줘. 바다가 어떤 곳인데 순돌이가 자랑하는가 보
아야 시원할 것 같아.”

“그럼 지금부터 바다로 가는 거야.”

순돌이는 갹갹갹 뛰여 단숨에 바닷가에 왔
읍니다. 큼직한 바위에 앉아 순돌이는 목마에게
바다를 보이며 이것 저것 가리켜 주었읍니다.

갈매기도 보여주고, 돛단배도 보여주고, 낚시질
하는 모양도, 소라니 고동까지 보여주며 설명을
해 주었읍니다. 그럴 때마다 목마는 눈을 말뚝
히 뜨고 신기한 듯이 순돌이의 이야기를 들곤 했
읍니다.

이렇게 순돌이는 자기가 만든 조각품들과 이

야기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쓸쓸하지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순돌이를 옥이야 금이야
하며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
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크고 귀하다는 것을 순
돌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순돌이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어머니께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몸져 누고 마는 것입
니다.

순돌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
지할 곳이라곤 어머니 한 분 밖에 없는데 어머니
가 앓아 누고 계시니 어린 순돌이의 마음이 얼마
나 안타까웠을까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도, 통 잡수시지 않으시
고 병세는 더욱 악화만 되어 갔습니다.

“어머니, 죽을 쑤어왔어요, 좀 드세요! 그리
고 빨리 일어나세요.”

“그랬으면 좋겠다만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큰 일이구나”

“그래도 조금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운을
차리지요.”

“순돌아 아무래도 이 어미는 죽을 것만 같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도 죽을 꺼예요!”

순돌이의 눈에서도,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읍니다.

순돌이는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였읍니다. 마음을 약하게 먹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느꼈읍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려야겠다고 마음 먹고 순돌이는 다음 날, 동네에 사는 의원을 찾아갔읍니다.

“어떻게 왔니?”

“어머니께서 편찮으세요!”

“많이 아프시냐?”

“일어나시지 못하셔요, 의원님 저의 집에 좀 가셔요.”

동네 의원이 다녀가고 약을 갖다 드렸으나 어머니의 병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없었읍니다. 순돌이는 다시 의원을 찾아갔읍니다.

“어머니 좀 어떻시냐?”

“그냥 그러셔요, 어찌면 좋지요?”

“글쎄다. 어머니의 병이 몹쓸 병이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으로는 안되는구나!”

“좋은 약이 없을까요?”

“한가지 있기는 있는데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게 어디 있는데요? 그리고 무슨 약인데요?”

“바다 가운데 있지. 저기 보이는 섬이 있지 않니? 저 섬에 있단다. 저 섬에 가면 장생초(長生草)라는 풀이 있는데 그풀을 다려서 하루에 한번, 한 달간 먹으면 어머니의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럼 그 풀을 가져오지요. 그까짓게 뭐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 섬에 갈 수가 있어야지, 섬에 가야 약초를 가져올 수가 있지 않겠니?”

“글쎄 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마을에 배들이 있지 않아요. 배를 타고 가면 되지 않아요?”

“너는 아직 모르고 있구나. 그 섬 근처에는 바닷물이 급하게 흐르는 급류가 있어 아무리 큰 배라도 도저히 갈 수가 없단다. 그 섬에 가려던

배는 섬 근처에 가기가 무섭게 모두 파선이 되어 이제는 누구도 그 섬에 가려고 하지 않는단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이다./”

이 소리에 순돌이는 금새 힘이 짝 빠지고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약이 있다고 해서 기뻐했었는데 그 섬에 갈 수가 없다니, 그렇다면 어머니의 병환은 고칠 수 없다는 말인가!

순돌이는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네 배가 있지요 저에게 빌려주세요?”

“왜?”

“저 섬에 가서 약초를 구해가지고 어머니 병을 고쳐드려야 해요.”

“안된다./”

“왜요?”

“네 힘으로 저 섬까지 노를 저어 갈 수도 없지만 간다해도 섬 근처에 가서 배가 전복되고 말아, 그렇게 되면 너도 죽고 마는 거야./”

“그래도 한 번 가보겠어요.”

“안돼, 배를 빌려줄 수가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순돌이가 애원했지만
누구 하나 순돌이의 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
읍니다.

순돌이가 디워서가 아니라 도저히 그 섬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읍니다.

“어쩌면 좋아./”

“무슨 방법이 없을까?”

방에 들어온 순돌이가 눈물을 흘리며 애 타고
있는데 책상 위에 있던 목마가 물었읍니다.

“순돌아 왜 그래?”

“응, 약초를 구해야겠는데 방법이 없어./”

“그 약초가 어디에 있는데?”

“섬에 있대”

“그럼 섬에 가서 가져오면 되지않아 그 걸 가
지고 울고 있어?”

아무 것도 모르는 목마는 순돌이가 울고 있는
것이 애처롭기만 했읍니다.

순돌이는 목마에게 왜 약초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를 말했읍니다.

섬 근처에는 사나운 물결이 있어 배를 타고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빌려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

이렇게 말하는 목마의 눈빛이 반짝 빛났습니다. 밤새 한잠도 자지못하며 궁리하던 순돌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저 섬에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무섭다고 별별 말 것이 아니라 한 번 가보는 거야. 죽더라도 가다가 죽는 거야!”

이렇게 결심한 순돌이는 다음 날 남의 집 배를 몰래 타고 섬으로 노를 저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돌이가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동네 아저씨들이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놈이 안된다고 했는데도 기여히 가는구먼”

“빨리 쫓아가 잡아와야해!”

“아무렴 그냥두면 죽고 말아!”

동네 아저씨들은 다른 배를 타고 힘차게 노를 저어 순돌이를 쫓아갔습니다.

아저씨들이 탄 배는 쏜살같이 달려, 금방 순돌이가 탄 배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놈아, 그곳이 어디라고 어린 네가 가느냐”

“자 빨리 집으로 가자”

“싫어요, 한 번 가보겠어요. 저곳에 좋은 약이 있는 것을 뵈히 알면서도 이대로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 우리도 네가 효성이 지극한 것을 안다. 그러나 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은 것을 알면 어머니도 놀래어 금방 돌아가시게 된다. 그럼 너는 또 불효를 저지르는 거야. 어머니 약은 다른 데서 구해 보고 그냥 집으로 가자!”

아저씨들이 순돌이를 달래는 사이에 배는 어느새 섬 근처까지 왔읍니다.

“이거 조금만 더 가면 큰 일이야 저것 보아라.”

아저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섬 앞에는 물굽이가 사납게 굽이치고 있었으며, 이놈들 어서 와라 내가 금방 삼켜버리겠다는 듯이 출렁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순돌이는 아저씨들에게 끌려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읍니다. 아저씨들의 말씀대로 도저히 저 섬에 갈 수가 없었고 또 자기가 죽으면 그것도 불효가 된다는 것을 알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동안 어머니의 병환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깊습니다.

정성껏 지어드리는 식사도 어머니는 잡수려 하지 않았고 동네 의원에게서 가져다가 다려드린 약도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순돌이의 안타까운 마음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고 걱정애 지친 순돌이의 몸도 수척해 가기만 했습니다.

“아, 장생초, 장생초!”

그러나 그 귀한 약은 좀처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먼둥이 틀 무렵, 순돌이는 잠에서 깨어나 어머니께 미음이라도 끓여드리려고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머리맡에서 향긋한 풀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 향기 어쩌나 좋았는지 순돌이는 코를 뽀름거리며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풀냄새람!”

눈을 비비고 쳐다보니 무성한 풀잎이 싱그러운 모습을 하고 순돌이가 잠자던 벼개 옆에 놓여 있

었습니다. 누군가가 금방 뜯어다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이게 혹시 장생초가 아닐까? 그럴지도 몰라!”

순돌이는 머리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생각에 풀포기를 들고 급히 동네 의원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의원님 제서요?”

“누구냐?”

“순돌이에요.”

“에구, 어머니가 더한 게로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 풀 좀 보아주세요. 혹시 장생초가 아닐까요?”

장생초라는 말에 의원님이 급히 나왔습니다.

“어디 보자”

풀포기를 들고 밝은 곳으로 가서 자세히 보던 의원님의 눈이 둥그렇게 커졌습니다.

“아니 너 이거 어디서 났니?”

“나도 잘 몰라요!”

“모르다니?”

“자고 일어나 보니 벽개 옆에 있었어요!”

“ 뭐야 , 그게 정 말 이 나 ? ”

“ 정 말 이 예 요 ! ”

“ 거 참 , 이 상 하 구 나 아 무 래 도 네 . 효 성 이 지 극 하여 하늘이 감동한 게로구나 . 이 풀이 장생초 니 빨 리 가 서 어 머 니 께 다 려 드 러 라 ! ”

“ 의원님 정 말 이 셔 요 ? 이 풀이 장생초가 틀림 없 지 요 ? ”

“ 틀림 없 단 다 . 네 효 성 이 어 머 니 를 고 치 게 되 겠 구 나 ! ”

순돌이는 너무 기뻐 의원님의 손을 잡고 영영 울었습니다 . 의원님도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셨습니다 .

순돌이는 단숨에 집으로 달려가 장생초를 다려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

“ 어 머 니 , 드 셔 요 , 장 생 초 를 다 린 약 이 예 요 이 제 어 머 니 병 은 나 을 수 가 있 어 요 ! ”

“ 그 래 , 그 런 데 이 귀 한 약 은 어 디 서 났 니 ? ”

순돌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

“ 그 것 참 이 상 하 구 나 . 네 가 하 도 착 하 니 까 하늘이 감동하신 거야 ! ”

어머니도 의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장생초는 더 있어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싱싱한 장생초를 한 달쯤 먹어야 어머니 병은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겨우 한 번,

“이왕에 가져다 줄테면 더 많이 가져다 주지……”

누군지 모르지만 고마운 그 분에게 장생초를 더 많이 가져다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순돌이의 가슴에 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돌이의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보면 그날 먹을 분량의 장생초가 의레젓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맙기도 해라!”

“누가 가져다 놓았을까?”

“거참 이상하다!”

“하늘이 도운 거야!”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는 장생초 이야기로 꽃을 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머니의 병은 점점 나아, 이제

는 바깥 출입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고 식사도 제대로 드셨습니다.

“순돌어머니, 정말 반가와요!”

“효자 아들을 둔 덕이에요!”

“어서 건강을 찾아 전처럼 열심히 살아갑시다!”

동네 사람들의 인사에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생초를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어머니의 건강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그런 어느날, 순돌이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니?”

“아무래도 오늘 밤에는 망을 보아야 하겠어요”

“망을 보다니?”

“장생초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누군가 알아
보아야지요. 그 동안은 혹 잘못 될까 봐, 망을
보지 않았지만 이제 오늘이면 한 달이 되는데.
그 분이 누군가 알아서 감사하다는 인사라도
드려야지요?”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게 하렴!”

그 날 밤, 순돌이는 한잠도 자지 않고 이불
속에서 자는척하며 방문쪽으로 눈을 말뚝이 뜨고
살펴 보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좀처럼 문 밖에
서는 이상한 기척이 없었읍니다.

“오늘은 오지 않으려나?”

순돌이가 졸린 눈을 비비고 있는데 책상 위에
서 ‘달그락’ 하는 소리가 들렸읍니다.

순간, 순돌이의 눈이 책상 위로 쏘렸읍니다.
그리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읍니다. 그것은 순돌이
가 만들어 놓은 목마가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
문이었읍니다.

목마는 송아지만하게 커지더니 머리로 문을 열

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목마가 저럴 수가!”

멍하니 쳐다보던 순돌이는 목마가 다음은 어떻게 하는가 하고 바삐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 위에 오른 목마는 장생초가 있는 섬을 향하여 뒷발로 땅을 힘껏 차며 “휘잉 - ! 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훌쩍 날아갔습니다.

마치 날개 달린 큰 새처럼 가볍게 섬으로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순돌이의 놀란 입과 눈은 다물줄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목마가 장생초를 가져다 놓았던 말인가!

순돌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서 자는척하며 목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목마는 입에 장생초를 물고 들어와 순돌이 머리맡에 놓고는 책상 위로 올라가더니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순돌이는 벌떡 일어나 목마를 덱석 안았습니다.

“너였구나! 우리 어머니 병을 고친 사람이 누

군이 했더니 너였어! ”

순돌이는 목마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돌아, 내가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기어히 들켰구나! ”

“고맙다 목마야! ”

“고맙긴, 너를 좀 도운 것 뿐인데.”

“그런데 어떻게 네 몸이 커질 수가 있었지?”
그리고 어떻게 네가 바다를 뛰어 건널 수가 있
었어? ”

“그건 나도 몰라! ”

“모른다구? ”

“그래, 나도 몰라 날마다 새벽이면 내 몸이
커지면서 힘이 생기고 바다 위를 나를 수 있는
용기가 솟아나,그리고는 장생초를 집까지 가져
오면 힘이 빠지고 전처럼 작아지거든! ”

“그것 참, 이상한 일이구나! ”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

“어쨌거나 참으로 고맙다! ”

순돌이는 다시 목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목마가 장생초를 가져왔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
리를 물고 온 동네에 짹 퍼졌습니다.

“하느님이 목마를 시켜 장생초를 가져오게 한 것이 분명해!”

“아무렴,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나무로 만든 말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나?”

“그것도 그거지만 하느님께서 목마를 시킨 것은 순돌이의 효성 때문이야 순돌이가 효성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옳은 말씀이야 모두 순돌이처럼 효성이 지극하면 집안이 복받는 것은 당연해!”

효도가 사람의 도리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사람들은 새삼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순돌이네 집은 예전처럼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게 일하시고 순돌이도 점점 건강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였습니다.

순돌이는 목마를 가보로 삼고 자손들에게 전해주었으며 이 가문에서는 대대로 효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원북면 방갈리에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누가 순돌이의 후손인지 아무도 모르며 또 목마도 없어진지 오래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거울 삼아 효행의 본보기로
삼고 있으며 이 이야기는 먼 훗날까지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질그릇 갓

어린군수를 업신여기다
벌을 받았다는 태안읍에
전해오는 이야기

“남을 알잡아 보면 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 ”

질그릇 갓

“에이, 물러서라!”

“길을 비켜 서라!”

“군수님 행차시다!”

태안군에 새로 군수가 부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뻑뻑히 물러 든 사람들을 뚫고 사린교에 점잖게
앉은 군수가 환영나온 사람들을 둘러보며 흐뭇해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양반이 군수야?”

“그렇다는구먼!”

“저렇게 나이 어린데도 군수가 됐나!”

“워낙 영특하고 똑똑해서 나이는 어리지만 장
원급제하여 군수가 됐다는구먼!”

“도대체 몇 살이나 됐대?”

“열 다섯이래!”

“열 다섯?”

“그래, 열 다섯!”

“아무리 영특하다 해도 어린 나이로 군살림을 잘 다스릴까?”

“그것도 걱정은 돼!”

사람들은 새로 부임한 군수의 나이가 너무 어린 데 실망하였습니다.

열 다섯 나이로 태안 군수에 부임한 송 관하 군수는 재주와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아직도 노는 일에 정신을 쏟을 나이인데도 송군수는 15세에 과거에 급제를 하고 군수로 임명된 것입니다.

송 관하 군수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다음 이야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송 군수가 태안 군수로 부임하기 전날, 판서로 제시는 외삼촌 최 판서를 찾아가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외숙부님, 저는 내일 태안 군수로 내려갑니다. 외삼촌께 하직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자 최 판서는 어린 조카가 대견스러워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그런가, 장하다. 어린 나이에 군수가 됐으니 지혜롭게 군민을 잘 다스리기 바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최 판서는 어린 조카가 군수 노릇을 잘 할는지 걱정이 되어 군수로서의 할 일을 이것저것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자 송 군수는 데리고 간 하인에게

“너 지금 당장 시장에 좀 다녀오너라 그리고 시장에 가서 짚신 한켠레, 마당비 한자루, 배한개만 사가지고 오너라!”

하고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최 판서는 기분이 매우 흡족해 하며,

“허허허. 됐다 됐어, 그만하면 내가 마음을 놓아도 되겠구나!”

하시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최 판서가 기분이 좋은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신고 다니는 짚신을 사오란 뜻은 남의 갈길을 걱정하지 말고 외삼촌 갈길이나 걱정하시오 하는 뜻이고 마당비를 사오란 뜻은 내 앞길 청소는 걱정 말고 당신 앞길이나 잘 청소하라는 뜻이

고 배를 사오라고 한 것은 남의 제사상에 배 놓아라 감 놓아라 하고 참견하지 말라는 뜻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특한 송 군수였는데도 웬 일인지 군수로 부임한 후로는 군정을 잘 살피지 않고 부하 직원들과 놀기만 좋아하였습니다.

“여봐라, 이방”

“왜 그러십니까?”

“나하고 새를 잡으러 갈까?”

“새를 잡다니요?”

“아따, 그 사람 새사냥을 가자는 말일세, 싫은가?”

“아닙니다.”

이렇게 군수가 철없이 놀기만 좋아하니 육방 관속(지방관청의 벼슬아치)들도 좋아라 놀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군수 알기를 자기 아들이나 동네 아이들 대하듯이 하였으며 결재 서류도 저희들 마음대로 처리하는가 하면 군수가 할 일도 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하는 바람에 백성들의 불평이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송 군수는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놀

기만 좋아하였습니다.

어느날, 송 군수는 관속들을 모아 놓고 청어잡는 것을 구경시켜 달라고 졸랐습니다.

“여봐라 오늘은 청어잡이 구경을 갈까?”

그러자 관속들은 군수를 놀려줄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군수가 똑똑하다는 말은 전부 거짓이고 늘 어리석은 짓만 해왔기 때문에 군수를 우습게 알고 있는데 청어잡이 구경을 가자고 하니까 놀려줄 생각이 난 것입니다.

“청어잡이 구경을 하고 싶습니까?”

“그래, 청어 잡는데를 가 보자”

“청어는 어디서 잡는지 아십니까?”

“바다에서 잡지 어디서 잡아?”

“아닙니다. 청어는 산에서 잡습니다.”

“그래, 청어는 산에서 잡는다고?”

“그래요 청어는 산에서 잡아요 그런데 청어는 어떻게 먹어야 맛이 있는지 아시나요?”

“글쎄, 매운탕을 해서 먹어야 맛이 있나?”

“아닙니다. 청어는 썩혀서 먹어야 맛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참 이상한 고기구나”

송군수는 자기를 놀리는줄 알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듯, 청어가 잡힌다는 안면도 방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군수 일행이 얼마쯤 가다가 지금의 남문리 사략정 근처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송군수는 가마를 멈추게 하고는 평소 자기를 무시하고 알잡아 보던 이방에게 말했습니다.

“이방은 저 밭에 있는 수숫대 하나를 뽑아오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은 ‘군수가 또 무슨 작난을 하려고 저러나’ 하고 생각하며 수숫대 하나를 꺾어 왔습니다.

“수숫대를 대령하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 수숫대를 꺾어지지 않게 네 옷소매 속에 넣어 보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숫대를 꺾지 않고 소매 속에 넣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군수님도 농담이시지 이렇게 큰 수숫대를 어떻게 소매 속에 넣을 수 있습니까?”

하고 히죽히죽 웃었습니다.

송 군수는 다시 다른 관속들에게 수숫대를 소매 속에 넣어 보라고 명령했지만 아무도 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군수가 우습다는 듯이 군수를 비웃는 눈치였습니다.

이것을 보자 송 군수의 얼굴에 갑자기 노기를 띄며 큰 소리로 호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놈들 육방관속은 듣거라, 이까짓 겨우 1년 동안 자란 수숫대 하나도 소매 속에 넣지 못하면서 15년이나 긴 세월 동안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고 이 태안 군수로 부임한 나를 너희들 마음대로 소매 속에 넣고 어린애 다루듯 했느냐?” 하고 호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육방 관속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철부지 군수로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지금까지 영특한 송 군수가 철없는 짓만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방 관속들은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동안 무죄했던 일들은 저희들이 몰라서 저지른 죄이니 군수님께서 너그러히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청했습니다.

관속들이 진정으로 사과하자 송군수는 음성을 부드럽게 하고,

“너희들이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비니 내 큰 벌은 내리지 않겠다. 그 대신 이 명령을 어기면 그 때는 엄히 벌을 내리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사흘 이내에 너희들 모두
질그릇으로 만든 갓 하나와 굽높이가 세자가
되는 나막신 한 켤레를 만들어 가지고 오도록
해라.”

“질그릇 갓과 나막신입니까?”

“그렇다 왜 싫으냐?”

“아닙니다 명령대로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
다.”

육방 관속들은 의아해 하면서도 군수의 명령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군수의 명을 듣지 않으면 무슨 벌이 내
려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는 군수를 업신여기거나 명령을 듣지 않
으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때였음으로 관속들
은 벌벌 떨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질그릇 갓을 뒹하러 만들어 오라는 거지?”

“모르지, 그건 그렇구, 나막신은 또 무엇에
쓰려는 거야? 그것도 굽이 석자나 되는 높은
나막신을 가지고 오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
구먼!”

“하지만 어찌겠나, 만들어 가지고 오라니 만

들어 가야지.”

“암, 만들어 가야지, 만일 명을 어기면 무슨 벌을 받을지 모르잖나.”

“그런데 말야, 군수님이 나이가 어려 얹잡아 보았더니, 그게 아니여, 과연 15세 나이지만 군수감으로 손색이 없는 것 같아!”

“공연히, 어린아이 취급을 했다가는 큰 코 다 치겠어!”

사흘이 지났읍니다. 육방 관속들은 질그릇으로 만든 갓과 석자나 되는 나막신을 들고 등청했읍니다. 질그릇 갓이 깨질까 봐 조심조심 걸어오고 있었읍니다.

관속들이 다 모이자 송 군수는 위엄 있는 목소리로 말하엿읍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 너희들이 쓴 갓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 모두 고개를 숙일줄 모르고 땡땡하게 걸어오는 것을 보면 갓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그래, 그러니 내일부터는 너희들이 만들어진 질그릇 갓을 쓰고 오도록 하여라, 그리고 너희들이 신은 신발도 너무 가벼워서 관청에서 조심스럽게 걸지 않고 거만스럽게 걷고

있는데 너희들 걸음걸이도 고쳐야 되겠으니
은 나막신을 신고 오도록 하여라.” 하고 추상
같은 명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질그릇
갓과 굽높은 나막신을 왜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육방 관속들은 앞이 캄캄하였
습니다. 이 무거운 질그릇 갓을 쓰고 다니다가
는 고개가 부러질 것 같고, 또, 석자나 되는 나
막신을 신고 다니다가는 넘어지기 쉬울뿐만 아
니라, 넘어지게 되면 말목이 부러지고 질그릇이
깨어지기 때문에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명령이라고 저역하겠습니까.
다음 날부터 관속들은 질그릇 갓과 나막신을 신
고 끄끖거리며 관아(관청)에 등청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통일이 아니구먼!”

“나는 발이 온통 부푸렀다네!”

“나는 고개가 아파 죽을 지경일세!”

“어디, 고개뿐인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
프고 이러다가는 몸살이 나겠네!”

“우리, 이러지 말고 군수님께 잘못했다고 용

서를 빌세.”

“그러세, 우리 육방 관속 모두가 동헌 뜰 아래 엎드려 용서해 달라고 빌면 군수님께서 용서해 줄 걸세!”

며칠이 지난 뒤, 관속들은 동헌(지방 관청에서 군수같은 사람이 공사를 처리하던 대청) 뜰 아래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군수님, 그동안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오만하지 않고 군수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송군수도

“좋다, 너희들이 잘못을 깨달았으니 내일부터
는 질그릇 갓과 나막신은 집에 놓고 와도 좋
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뒤로 관속들은 송 군수를 잘 보필했으며 송
군수도 백성을 잘 다스려 군민들에게 칭송을 받
았는데 지금도 태안읍 동문리에는 송 관하 군수
의 선정비가 글씨도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송 군수의 질그릇 갓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 내
려와 높은 사람을 잘 모시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저사람도 질그릇 갓을 씌워야 정신을 차리겠
군」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거나 거만한 사
람은 언젠가는 질그릇 갓을 쓰고 다니는 것 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교훈이 이 이야기 속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지킨 일곱 섬

나라가 위태로운 때는
섬까지 움직여 나라를 지
켰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나라를지킨 일곱섬

우리 민족은 예부터 착한 민족이었습니다.

싸움을 싫어하고 예절이 바르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형제간에는 사랑으로 서로 돕고 이웃끼리도 정답게 지내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동방의 예절 바른 나라」라고 중국에서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는 착한 민족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나쁜 마음을 우리 민족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중국에는 나쁜 임금이 있었습니다. 늘 남의 나라와 전쟁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땅을 빼앗기를 좋아하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은 군대를 훈련 시키고 칼과 활

을 만들고 군마를 기르고 수레를 만들어 힘이 약한 나라가 있으면 언제든지 침략을 해서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임금은 전쟁을 하고 싶어 어디 빼앗을 나라가 없는가 생각하다가 신하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국방대신 게 없느냐?”

“여기 있습니다.”

국방대신이 들어오자 임금은 전쟁을 해서 빼앗을 나라가 없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좋은 곳이 있습니다만 …”

“그래, 있어? 그게 어디고?”

“조선나라입니다.”

“조선이라? 그 나라는 배를 타고 가야하는 나라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군함을 가지고 쳐들어가야 합니다.”

“헌대, 쉽게 이길 수 있을까?”

“걱정 없습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사람들이 마음만 착하지 전쟁을 하겠다고 군사를 훈련시키거나 또 전쟁이 나도 싸울 군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가 없는 나라지요 ”

“ 히히히 , 그 나라 참 미련하구나 아무리 마을이 착해도 다른 나라의 침입이 있을 때는 용감하게 나서서 적을 무찌를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 준비도 없다니 한심한 나라로구나 ! ”

“ 그렇습니다. 유비무환이란 말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

“ 유비무환? 그게 무슨 말이고 ? ”

“ 다시 말해서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평소 준비를 해라 하는 말인데 조선이란 나라는 유비무환이란 말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쳐들어 가면 쉽게 이길 것입니다. ”

“ 좋아 , 우리 군함을 만들어 조선 나라를 빼앗자 ! ”

이날부터 나쁜 임금은 군함을 만든다 군사를 훈련한다 야단법석을 떨며 전쟁 준비에 바빴읍니다.

여러 날이 지나 , 전쟁 준비를 끝낸 임금은 다시 국방대신을 불렀읍니다.

“ 그런데 , 어디로 쳐들어 가야 쉽게 이길까 ? ”

“예, 제가 지도를 보니 서해안 서산 앞바다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곳은 태안반도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가까울뿐더러 「캐시내(원북면 방갈 2 구)」는 중국과 조선이 무역하는 배가 드나드는 곳이어서 뱃길도 좋은 줄로 압니다.”

“그래, 그러면 그 곳으로 쳐들어 가자.”

이렇게 해서 중국의 나쁜 임금인 군함수 백적을 거느리고 잘 훈련된 군사를 이끌고 우리나라로 쳐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꿈에도 모르는 우리 나라에서는 그저 한가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소문이 났는지 중국에서 쳐들어 온다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더니 결국 임금님까지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쳐들어 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그런 줄로 아옵니다!”

“그렇다면 큰 일이 아닌가, 빨리 적을 막을 준비를 하도록 하라!”

“그러나, 이제 무슨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은 벌써 서해 앞까지 접근한 줄로 아옵

니다! ”

“이거, 큰 일이구나, 무슨 방법이 없겠는고?”

“싸워야 합니다. 맨손으로라도 적을 무찔러야 합니다! ”

조정에서는 급히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준비했지만 군사래야 임금님을 모시던 적은 수의 군사만이 무기를 갖추고 훈련을 받았을 뿐, 나머지 군사들은 농사를 짓거나 글방에서 글을 읽던 사람들이었고 무기래야 쇠시랑 아니면 팽이가 고작이었읍니다.

“이래가지고야 어찌 훈련된 적을 무찌를 수 있겠는가! ”

“그래도 싸워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강산에 나쁜 무리들이 다시는 넘보지 못하도록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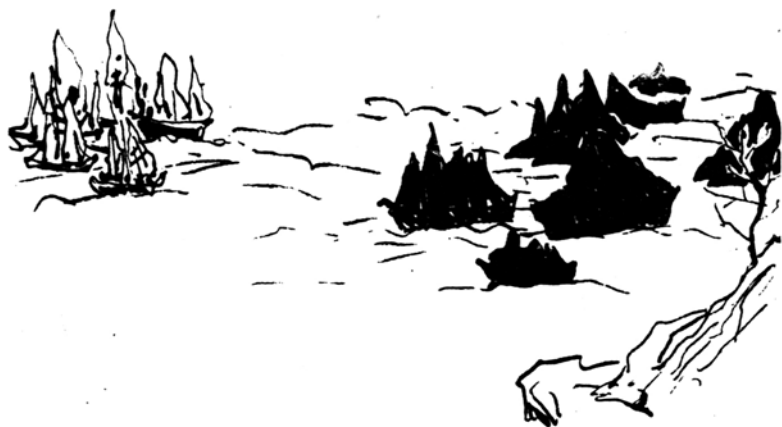
군사들은 비록 무기도 보잘 것 없고 훈련도 받지 않았지만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마음만은 용감하였읍니다.

군사들이 적이 쳐들어 온다는 서해바다 쪽으로 부지런히 가고 있을 때, 적은 벌써 개시내에서 바라보아도 보일만큼 가까이 오고 있었읍니다.

수백척의 군함에 깃발을 꽂고, 북을 둥둥둥 치면서 함성을 지르며 노저어 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적이 쳐들어 오는 것을 걱정한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개시내 앞바다에 있는 섬들도 위태로운 나라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나무가 무성한「대섬」이 옆에 있는「굴뚝섬」을 불렀습니다.「굴뚝섬」은 굴뚝처럼 우뚝 솟아 있어서 그렇게 부릅니다..



“여보게 굴뚝섬!”

“왜 그러나?”

“저것 보게, 중국에서 나쁜 임금이 우리 나라로 쳐들어 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도 싸우세!”

“나는 대나무를 마구 흔들어서 큰 배가 기웃똥거리며 앞으로 가는 시늉을 할테니 자네는 굴뚝에서 연기를 뿜어 마치 큰 군함이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나?”

“그야 어렵지 않지, 중국 오랑캐들이 무서워 벌벌 떨게 할테니 두고 보게”

이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던 「거먹섬」이 말했습니다.

“나도 한 몫 끼겠네 나는 시커먼 배처럼 보이도록 하겠네!”

그러자 건너편에 있던 「돌섬」도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있는 돌을 날려보내서 적들을 놀라게 하겠네!”

이번에는 수레처럼 생긴 「수리섬」과 말안장과 같이 생겼다 하는 「질마섬」이 각각 말했습니다.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자, 나는 내 몸 위에 수레가 많이 실려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마치 물 위에서 떠다니는 수레처럼 보이게 하겠네 그러면 적이 보고 군사들이 탈 수레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도망가지 않겠나!”

“옳지, 좋은 생각이야, 나는 내 몸이 말안장처럼 보이게 해서 군마(싸우는말)가 많이 있는 것처럼 꾸미겠네!”

이렇게 여섯 섬들이 적군을 속이려고 의논하고 있는데,

“나도 한 몫 끼워주소!”

하고 불쑥 물 속에서 큰 섬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섬을 새로 생겼다고 해서 「새섬」이라고 불렀습니다.

적의 군함들이 일곱섬 가까이 왔을 때었습니다. 갑자기 굴뚝섬에서 불꽃이 뿜었습니다. 대섬에서는 대나무 깃발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돌섬에서는 돌이 날아왔습니다. 그뿐인가! 수레섬에서는 군사들이 금방 수레를 타고 달려올 것 같고 이 밖에 섬들도 모두 큰 군함으로 보였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중국의 나쁜 임금이 덜덜 떨

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고?”

“글쎄올씨다, 뭐가 뭔지 아무 것도 모르겠읍니다.”

“조선 나라에는 군사도 없고 아무 준비도 없다고 말하고선 지금와서 무슨 소리인고?”

“글쎄올시다……!”

“글쎄올시다가 뭔가, 저기 보이는 게 없나. 아무래도 저 곳에는 많은 군사가 숨어 있는게 틀림 없다. 여기서 어물 어물하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것이니 빨리 도망가도록 하라!”

“하지만, 한 번 싸워 보지도 않고 도망하기가 억울합니다!”

“무슨 잔소리가 많은고 자 빨리 뱃머리를 돌려 도망가자!”

임금이 명령을 하니 군사들은 뱃머리를 돌려 뺑소니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나라 군사들이 개시내 앞바다까지 왔으나 적의 배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적군의 군함이 까맣게 밀려오는 것이 눈으로 보였는데 하루 사이에 종적을 감추었으니 알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참, 이상하구나.!”

“우리가 뭘 잘못 본 게 아닐까?”

“도깨비에 홀린 것 같애.!”

군사들은 저마다 머리를 갸웃둥거리며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적군이 섬들이 무서워 도망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중국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야, 그때 중국 군사들이 개시내 앞바다에 있는 일곱섬에게 놀래어 도망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때, 일곱 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지, 나라가 오랑캐들에게 짓밟히고 갖은 고생을 하였을지도 ...!”

“참으로 고마운 일이야, 우리 나라에는 천연 요새들이 많이 있어 이것도 복이 아니고 뭐겠는가.!”

사람들은 서해바다 일곱 섬이 고맙기만 하였읍니다.

세월은 흘러, 그런 일이 있는 뒤 여러해가 지

났습니다. 그 동안 세계 정세는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나라도 일본을 비롯한 청나라와 그 밖의 나라들과 국교를 맺고 무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세력이 들어오면서 부터 나라 안은 점점 혼란해 지고 외국의 세력들은 우리 나라 살림까지 간섭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때 , 전라도 땅에서 부터 동학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학은 일본의 내정 간섭과 나라의 관리들의 부패를 항의하고 일어섰습니다. 동학군을 지휘하는 사람은 전 봉준이란 사람이었는데 동학군은 삼시간에 여러곳을 점령하고 점점 그 세력을 퍼나갔습니다. 이것이 1894 년이었습니다.

동학군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나라에서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청나라에게 군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 이미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세력을 펴고 있는 일본이 가만히 있지않았습니다.

서로 미워한 일본과 청나라는 전쟁을 이르게 됐는데 이를 청 , 일 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는 청일 전쟁의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약하면 이렇게 남의 나라 세력이 들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갖은 고생과 수모를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힘을 기르고 튼튼히 해야 다른 나라가 앞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청 일 전쟁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군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청나라는 좋아라 하고 많은 군대를 우리 나라로 보냈습니다. 이유야, 동학군을 진압한다고 하겠지만 청나라는 우리 나라에 와서 저희들이 정치 간섭을 하려는 응큼하고 못된 마음으로 군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한 편, 일본에서는 청나라에서 군대가 오면 한 판 싸우려고 베풀고 있었었습니다.

청나라 군사는 군함 수백척에 나누어 타고 우리 나라를 향하여 진군하고 있었었습니다. 그 때도 청나라와 가까운 서산 앞바다로 오게 됐으며 일곱 섬이 있는 개시내 앞바다로 상륙하려고 하였습니다.

신이난 청나라 군대가 일곱 섬이 가물가물 보이는데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갑판 위에서 망을 보던 군사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적이다! 적군이 나타났다!”

“어디야? 어디?”

“저기야, 저 아물아물 보이는 큰 군함을 보란말이야!”

“그렇구나! 굉장히 큰 군함인데! 모르긴 해도 우리가 탄 이 배보다 수십배 클 것 같구나!”

“맞아, 굉장히 큰 배야! 굴뚝에서 불꽃이 나오는 것을 보면 대포도 있는 모양이야!”

“빨리 대장에게 보고하자!”

보고를 받은 대장이 갑판 위로 급히 올라와 부하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과연, 큰 군함 일곱 척이 이쪽으로 향하여 돌진해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말 군함이구나!”

“일본 군함일까요?”

“그렇지도 모르지, 아니면 조선 군함일지도

모르고!”

“그냥, 나아가 싸울까요?”

“아니야, 다른 길로 가자!”

대장은 부하들에게 명하여 뱃머리를 풍도 쪽으로 돌렸습니다. 풍도는 경기도에 있는 섬입니다.

청나라 군함이 풍도 쪽으로 간다는 정보를 들은 일본 군함들은 바빠 뒤를 쫓아 갔습니다.

그리고, 풍도 앞바다에서 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풍도전쟁으로 이 싸움에서는 청나라 군대가 크게 패하여 일본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 나라 군사들이 직접 싸우지는 않았으나 싸움이 끝나고 일본 세력이 우리 나라 내정 간섭을 더 심하게 하여 나라는 더욱 어지러워졌습니다.

비록 풍도에서 싸우기는 했으나, 하마터면 서산 앞바다가 싸움터로 변하고 또, 우리 고장에 큰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를 큰 전쟁을 일곱 섬이 막아주었다고 사람들은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 일곱섬의 이름을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섬은 「대방이」로, 거머섬은 「거머방이」로 돌섬은 「돌방이」 굴죽섬은 굴죽에서 불꽃이 나왔다 해서 「꽃방이」 수레섬은 「수레방이」 말안장같이 생긴 질마섬은 「질마방이」, 그리고 새로 생겼다 해서 새섬이라 불리는 새섬은 「새방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방이”란 말은 오랑캐를 막았다는 뜻인데 한문으로는 防禦라고 씁니다.

지금도 개시내 앞바다에 있는 이 일곱섬을 원북면 방갈리에 있는 八景(팔경), 즉 관송팔경의 하나로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더우기, 이 섬에는 전복, 소라, 담치, 고동, 굴이 많아서 부녀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 잡아오기도 합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큰 공을 세웠다는 이 일곱 섬은 오늘도 나쁜 무리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두눈을 부릅뜨고 적을 노려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못이룬 사랑 용이되어

의상대사와 당나라 처녀의

애틀한 사랑이 부석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못이룬 사랑 용이 되어

때는, 고려가 망할 무렵, 나라의 망함을 몹시 슬퍼하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에라, 나라 없는 몸 죽어야 하나 살아야 하나, 섬길 임금도 없으니 내 어디에 뜻을 담고 살아가리!”

충신 유 방택은 밤낮 없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문득, ‘한적한 시골에 내려가 글이나 읽으며 남은 여생을 보내리라’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찾아온 곳이 지금의 부석면 취평리에 있는 도비산이었습니다.

“산천이 아름답고 공기가 좋으니 내 이곳에서 글이나 읽으리라!”

유 방택은 도비산 중턱에 집을 짓고 밖에 출입도 삼가하며 글을 읽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를

따르던 중들이 충신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그 집을 절로 만든 것이 오늘의 「부석사」가 됐다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석사가 세워지기까지 얹힌 또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신라 제 26대 임금 진평왕 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천 4백년 전에 「복흥사」라는 절에는 의상대사라는 승려(중)가 있었습니다.

의상대사는 큰 뜻을 품고 당나라에 들어가 공부하고 싶었지만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한 번 먹은 마음 어찌 굽힐 수 있으랴!”

의상대사는 기회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무열왕 8년에야 당나라에 갈 수가 있었는데, 그 때는 벌써 나이가 많았었습니다.

의상대사는 당나라 지상사라는 절의 지엄법사라는 높은 스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나이 많아 시작한 공부지만 얼마나 열심히 공

부를 하였는지 의상대사는 선생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의상대사는 참으로 천재와 다름 없소!”

“너무 과한 칭찬이십니다!”

“아니야, 내 오랫동안 여러 사람에게 글을 가르쳤지만 그대처럼 열심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보지 못했거니와 한 번 이르면 모두 깨우치는 두뇌도 별로 보지 못하였다네!”

선생이 말한대로 의상대사의 이름은 당나라 안에 온통 퍼졌습니다.

“신라의 중이 천재라는군!”

“천리를 깨달도록 영특하대!”

가는 곳마다 의상대사의 이야기는 꼬리를 물고 퍼졌습니다.

이때, 지상사 아랫마을에는 젊고 예쁜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에게도 신라에서 왔다는 의상대사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생긴 분인데 칭찬이 자자하담!”

아가씨는 지상사에 올라가 의상대사를 멀리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늙은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과연, 용모도 선비다웁고 얼굴에는 인자와 위엄이 있는 분이구나!”

아가씨는 날마다 멀리서 의상대사를 쳐다보다가 차츰 의상대사를 좋아하게 되었고 속으로 혼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상대사는 이런 것도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여 마침내 문무왕 11년에 신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의상대사가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들은 아가씨는 떠나기 전 날, 의상대사를 찾아와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대사님, 저는 평소 대사님을 마음 속으로 흠모해 왔읍니다. 저와 결혼하여 주십시오!”

이말을 들은 의상은 깜짝 놀랐읍니다. 난생 처음 보는 여자에게서 결혼해 달라는 청을 받고 보니 말이 막혔읍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꾸짖는 말투로 타일렀읍니다.

“아가씨가 크게 잘못 생각한 것 같소. 불도를 닦는 사람에게는 결혼이란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 아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고 알아듣도록 말했읍니다.



의상대사가 엄하게 말하자 아가씨는 더 말하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의상이 배를 타려고 하자 어제 그 아가씨가 서슴 없이 배에 오르더니 의상을 따라 신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가씨는 어느새 승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깎아 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은 못하더라도 스님 곁에서 나도 불도를 배우렵니다!”

이 말을 들은 의상대사는 다시 점잖게 꾸짖으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습니다.

“그것도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더우기 신라는 가까운 길도 아닌데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간단말리오,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의상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것을 안 처녀는 죽을 것을 결심하고 깊은 바다로 풍덩!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귀한 생명 하나가 죽게된 것을 생각한 의상대사의 마음은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가씨는 용이 되어 의상대사가 탄 배를 따라 신라까지 오는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의상이 가는 곳마다 숨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신라로 돌아온 의상은 당나라에서 배운 불도를 곳곳에 전하는가 하면 이곳 저곳에 절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무왕 16년에 왕의 명령을 받고 순흥에다 「부석사」를 세웠습니다.

의상대사는 어느 날, 자기 때문에 죽은 여인을 생각하고 그 여자의 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절을 세우기로 작정하고 절터를 찾았습니다.

“당나라의 그 처녀를 위해 아담한 절을 창건하여 그의 넋을 위로하리라 그런데 어디다 절을 지울까.”

의상은 이곳저곳 절터를 물색하다가 서산군 부석면 도비산 중턱에 「부석사」를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산수가 수려하고 앞에 바다가 탁 트였으니 그 아가씨가 좋아할 것 같구나!”

의상대사는 좋은 곳에 절을 짓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때가 문무왕 17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 동네 사람들은 도비산에다 절을 짓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비산에 절을 짓지 말라!”

“절을 지으면 헐어버리겠다!”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는 데도 의상은 절짓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거의다 지어가는 집을 쇠스랑을 들고 쫓아와서 부수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 절을 불살라라! ”

“ 절을 부수어라! ”

동네 사람들이 흥분하여 절에 불을 지르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바위가 공중에서 뚱뚱 떠오더니 바위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 모두 듣거라, 너희들이 절 짓는 것을 계속 방해하면 이 바윗돌로 너희들 머리를 부수겠다. 지금 당장 물러들 가거라.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

하고 산이 흔들리도록 큰 소리로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혼비백산 쫓겨가면서도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 저 바위는 당나라 아가씨가 용으로 변히더니 그 용이 다시 바위로 변하여 나를 도와주는 거야! ”

의상대사는 새삼, 죽은 아가씨가 가없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바위는 훌쩍 날아가 절에서 바로 보이는 바다에 떠 있으면서 절짓는 공사를 지켜보고 있었음

니다.

사람들은 이 돌을 물 위에 떠 있다해서 「부석」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며 절 이름도 「부석사(浮石寺)」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바위는 부석면 앞 바다에 있는데 물이 들어와 만조가 됐을 때나 물이 나가 간조가 됐을 때도 돌의 크기가 똑같아 이 돌은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게 보입니다.

부석면이란 이름도 이래서 생긴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부석과 홍성 사이를 가로지르는 큰 둑이 생겨 부석의 운치가 많이 사라졌지만 이 돌을 보노라면 당나라 아가씨의 가룩한 사랑의 이야기가 들려오는듯 하기도 합니다.



이상한 우물

남에게 몸쓸짓을 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성연면
옥동샘에 얹힌 이야기

이상한 우물

아까부터, 아이들이 우물가에 모여서 떠들어
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옥동아!/” 하
고 큰 소리를 치며 좋아라 손뼉을 치는 것이었
니다.

“야!/ 물방울이 올라온다!/”

“정말이다, 물방울이 올라온다!/”

“우리 다시 한 번 해보자!/”

“그러자”

아이들은 다시,

“옥동아!/”

하고 크게 소리를 치고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야!/ 물방울이 아까보다 더 많이 올라온다!/”

“정말이다 더 많이 올라온다!/”

이렇게 아이들은 옥동아! 하고 부르고 발을 동
동 구르는 일을 시간 가는줄 모르고 하고 있었읍
니다.

참, 이상한 우물입니다. 아이들이 발을 구르
며 옥동아! 하고 소리치면 물방울이 우물에서 송
송송 튀어 나오는 것입니다.

서산군 성연면 성왕산 밑에 있는 이 옥동샘에
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옛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부터 수 백 년 전, 성
연면 성왕산 밑에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읍니다.

농사를 지으며 착하게 사는 이 할아버지 할머
니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식이
없어 아들하나 낳는 것이 소원이었읍니다.

“여보, 우리 산신령께 기도나 드려봅시다!”

“기도는 해서 뵈하오, 우리 나이가 지금 몇인
데 아들을 낳겠소.”

“그래도 한 번 해봅시다”

“어디 가서 기도한단 말이오?”

“저 성왕산 밑에 큰 우물이 있지요 그 우물에
가서 기도해 봅시다.”

“그 우물이 무슨 우물인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아들을 낳게 하겠소 공연히 헛수고 하지 맙시다.”

“하지만 누가 알아요. 건너 마을에 사는 누구도 그 썸에 가서 기도하고 아들을 낳았답니다.”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같이 우물가로 가 기도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아들 하나만 갖게 하소서...”

한적한 산골에 간간히 부는 바람따라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소리가 솔잎 사이로 소리없이 퍼져 나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는 매일 같이 이 우물가에 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20 여일,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도 감동한다는 말처럼 70 세 된 할머니는 기도로 마침내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에게 태기가 있다는 소문은 삼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소문 들었는가?”

“소문이라니?”

“저, 성왕산 밑에 사는 할머니 얘기 못들었

어 ? ”

“ 못들었는데 ? ”

“ 사람 참, 귀가 그렇게 이두어서야, 그 할머니
가 태기가 있대 ! ”

“ 뭐야 ? ”

“ 놀래긴, 태기가 있다구 ! ”

“ 예끼 이 사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나 ? ”

“ 거짓말이라구 ? ”

“ 거짓말이 아니면, 아니, 그 할머니 나이가
몇인데 태기가 있어 ? ”

“ 그러니까 기적이지 기적이야 ! ”

동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할머니 얘기로 수근거렸습니다.

그로부터 10 개월 후, 할머니는 어여쁜 옥동자
를 낳았습니다.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얼굴에는
옥처럼 광채가 났습니다.

“ 늦게 얻은 이들이지만 똑똑하게 생겼어 ! ”

“ 보통 애가 아닌 것 같아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거야 ! ”

사람들은 모두 칭찬하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 옥동이 」

라고 지어 불렀습니다.

옥처럼 예쁜데다가 늦게 얻은 아들이 귀여워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옥동이는 점점 자랐습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랐습니다. 재주가 있고 총명하여 서당에 가서 공부할 때도 선생님께서 가르쳐주는 글은 한 번만 듣고도 모두 익혔습니다.

“정성들여 나온 아들이더니 재주도 남 보다 뛰어나, 아마 옥동이는 크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걸!”

“틀림없이 나라의 기둥이 될 거야”

“정승이라도 될 걸세.”

동네 사람들은 옥동이를 칭찬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사촌이 땅만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옥동이의 총명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나쁜 사람들이 이 동네에도 있었습니다.

“쳇, 옥동이가 뭐가 똑똑하다고 야단들이 랍!”

“누가 아니래, 뭐 정승이 될 것이라고? 흥 정승은 아무나 되는가?”

“나는 그 옥동이를 보면 공연히 배가 아파온단말야.”

“나도 그래.”

“우리 그 놈을 없애 버릴까?”

“그러세.”

나쁜 사람들은 옥동이를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읍니다.

옥동이가 열 살 되던 어느 날, 못된 사람들은 기어히 옥동이를 큰 자루에 넣어 옥동이를 낳게 해 달라고 기도하던 우물에 던져 버리고 말았읍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옥동이 부모들은 날마다 옥동이가 돌아오기를 애 타게 기다렸지만 옥동이는 돌아오지 않았읍니다.

다 늦게 얻은 아들, 그것도 큰 인물이 될 것으로 믿었던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옥동이 아버지 어머니는 음식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였읍니다.

“우리. 다시 우물에 가서 옥동이를 찾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옥동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물에 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옥동이를 찾아주소서 - ! ”

이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이 섬에서 이상한 소리와 함께 수많은 물방울들이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다 ! ”

“이속에 우리 옥동이가 죽어있는지도 몰라요 ! ”

“우리 우물을 퍼 봅시다 ! ”

옥동이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 이 우물물을 퍼냈습니다. 그러나 우물물은 아무리 퍼내



도 줄어들지 않고 물방울만 계속 떠오르고 있었
읍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물 푸던 일을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이고
천지를 흔드는 큰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우르릉 쿵쿵!/”

그와 동시에 우물에서 큰 용 한마리가 하늘로
치솟아 올랐읍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옥동이 났이야!/”

“그렇구먼!/ 억울하게 죽은 옥동이 용이 된
거야!/”

사람들이 저마다 한 마디씩 하고 있는데 같이
있던 옥동이를 죽인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것이었
읍니다.

“늘 심술만 부리더니 옥동지도 이 사람들이
죽인 게 분명해!/”

“틀림 없어, 그러니까 그 벌로 이렇게 죽은
거야!/”

“그러니까 남에게 몫쓸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니까!/”

그 뒤부터, 이 우물을 「옥동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옥동이가 나서 옥동이가 죽은 샘이라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혀진 모양입니다.

이런 일로 해서 사람들은 이 옥동샘에 와서 기도하면 아들을 낳는다고 믿었으며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 으레히 옥동샘에 와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며 옥동아!/ 하고 부르면 물방울이 방울방울 올라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옥동샘은 조그마한 웅덩이로 변하여 볼품없이 됐지만 지금도 물방울이 올라와 그 옛날을 말해 주는듯 합니다.

아이들이 이 옥동샘에 모여서 발을 동동 구르며 옥동아!/ 하고 부르던 것도 물방울을 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비록, 흘러간 옛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남에게 억울한 일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과 남이 잘되면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도리이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 복은 스

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중매 할머니 바위

중매 잘하기로 이름난
할머니, 그러나 그 할머니가
해미면 언암리 바닷가에
있는 바위가 될줄이야

중매 할머니 바위

먼동이 부엌에 떠오르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늦봄이라 하지만 아직도 바닷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이따금 물새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수평선으로 번져갔습니다.

이런 이른 새벽, 웬 젊은이가 바위 밑에 앉아서 무슨 말인가 간절히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중신 할머니요, 내 나이가 이제 삼십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노총각이라고 놀려대고 내 나이 동갑네들은 장가들어 아들 딸 낳았는데 나는 아직도 총각으로 있으니 답답합니다. 어머니는 며느리 보기를 날마다 소원하시지만 어디 신부감이 있어야지요, 그러니 중매 할머니께서 중매좀 서 주셔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한 젊은이는 큰 바위를 향하여 넋죽

이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바위를 향하여 중매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우습고 또 바위에게 장가들게 해 달라는 것은 더욱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가 바위를 향하여 장가들게 해 달라고 빌고 있는 것은 이 바위에게 그만한 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미면 언암리 2구 바닷가에 우뚝 선 바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중매 할머니 바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위를 중매 할머니 바위라고 부르는데는 재미나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옛날, 중매를 잘하는 할머니가 해미면 언암리에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이 인자하고 말솜씨가 좋을 뿐아니라 하얗게 센 머리에 웃음면 얼굴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할머니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할머니가 중매를 서면 믿고 딸을 내주고 장가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 할머니는 혼기를 놓친 노총각과 노처녀를 짝지어 주는데 남다른 비상한 수완이 있어

노총각들이 이 할머니를 찾아와 장가들게 해 달라고 졸라대곤 하였습니다.

어느날, 해미면 언암리에 사는 노총각이 이 중매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제가 찾아온 것 다 아시지 않아요?”

“암, 알지, 중매 서달라고 온 거지? 쫓쫓쫓, 아직까지 장가도 못가고 뭘했노?”

“그러니까 할머니를 찾아왔지요!”

“그럼 내가 좋은 배필감을 구해줄까?”

“예, 할머니 그게 정말이세요?”

“아따, 좋긴 좋은가 보군, 금새 입이 떡 벌어지는 것을 보니,”

“그럼 좋지않구요, 그런데 그 처녀가 어디 사는 처녀인가요?”

“응, 저 부석면 지산리에 살고 있지 얼굴이 둥글 넓적하고 하얀 살결에 부잣집 만며느리감이야!”

“헤헤헤, 그래요 그럼 할머니 잘좀 부탁드립니다.”



“그랴, 내, 횡하니 다녀올테니 기다리고 있제”

“그러나, 그게 잘 될까요?”

“잘 될까요가 뭐가, 내가 중매서서 안되는 혼사 봤나?”

“그렇군요, 그럼 할머니 빨리 다녀 오세요!”

이렇게 해서 할머니는 부석면 지산리에 있는 처녀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조그마한 봇짐을 등에 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할머니가 등에 진 봇짐에는 뭐가 들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들어 있는 모양입니다.

할머니는 해미면 언암리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다에는 갈매기며 돛단배가 그림처럼 한가롭고 물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흥겹기만 하였습니다.

얼마쯤 갔을까, 할머니는 다리가 몹시 아팠습니다.

“좀, 쉬었다 갈까, 에구, 나도 이제 많이 늙었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니 중매하는 일도 힘들게 됐구나!”

할머니는 쉬어 갈만한 곳을 찾다가 마침 앞에 우뚝 선 바위를 발견하였습니다.

“웁지, 저기 바위에 좀 걸터 앉았다 갈까.”

할머니는 바위 위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매가 잘 되어야 할텐데’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호호호, 그녀석, 그렇게 좋아하기는 그래 내 꼭 성사시켜주마.”

그러나 할머니의 이번 중매가 성사도 못하고 마지막이 될줄이야!

한참을 쉬는 동안 바닷물은 슬금슬금 들어와

할머니가 쉬고 있는 바위를 감싸기 시작하였읍니다.

“이제 일어나 볼까.”

할머니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일어섰읍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발을 헛딛어 미끄러지면서 침병! 물 속으로 빠지고 말았읍니다.

근처에는 할머니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읍니다. 굴을 따던 사람들도 밀물이 들어왔음으로 모두 집으로 가고 바닷가에는 파도만 넘실대고 있었읍니다.

멀리서 돛단배가 지나가지만 할머니의 죽음을 알 리가 없었읍니다. 다만 갈매기 한 마리가 할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듯, 주위를 빙빙 맴돌고 있었읍니다.

다음 날, 시체가 된 할머니를 동네 사람들이 발견하였읍니다.

“에구, 가엽게도 물에 빠져 죽다니 ”

“중매를 서서 좋은 일을 했는데 이제 중매 설 사람도 없게 됐구먼! ”

“우리, 할머니를 고이 장사 지내 드립시다! ”

사람들은 할머니를 바위 밑에 묘를 만들어 장

사지냈읍니다. 그리고는 그 바위를 “중매 할머니 바위”라고 이름짓고 지금까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혼기를 놓친 젊은이들이 이 중매 할머니바위를 찾아와 절을 하고 구혼을 청하면 사흘 이내에 청혼이 들어와 결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즈음도 노총각, 노처녀들이 몰래 이 바위에 찾아와 자기의 소원을 빌고 가는 일이 있다는데 아까 중신 할머니 바위에게 중매좀 서 달라고 큰 절을 하던 젊은이도 장가 들기 위해서 찾아온 모양입니다.

딸을죽인 구두쇠어부

돈보다는 사람이 귀하고

고집을 너무 부리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

딸을죽인 구두쇠어부

오늘따라 독살(그물 대신 돌을 바닷가에 쌓아 고기를 잡는 것)안에는 여러가지 고기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우럭, 조부락, 망둥이, 놀래미, 실치 등, 많은 고기가 우글거리니 어부 내외는 함박같은 웃음을 웃으며 고기를 망태에 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허허허, 야 신난다 신나, 이렇게 고기가 많이 든 때도 드물지?”

구두쇠로 소문난 어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많이두 들었네요!”

“이 고기를 다 팔면 돈이 몇 백냥은 되겠는걸!”

“여보 이렇게 고기가 많이 들었으니 혼자 먹지 말고 이웃에게도 좀 나누어 줍시다.”

“뭐야? 당신 지금 뭐라고 했소?”

“뭐라긴 뭐래요, 고기좀 이웃에게 나누어 주
자고 했지요.”

“고기를 이웃집에 나누어 줘요? 당신 제 정
신으로 하는 소리요?”

“뭐, 잘못된 말을 했나요?”

“아니, 죽도록 독살을 쌓아 잡은 고긴데 주
긴 누굴 줘, 어림없는 소리 두 번 다시 말아
요!”

“여보, 너무 욕심만 부려도 좋지 않답니다.”

“뭐가 좋지 않아, 나는 한 마리도 남 줄 수가
없으니 그리 알아!”

어부는 화가 나서 아내에게 껍 소리를 쳤습니
다. 워낙 남편이 고집센 구두쇠인 것을 아는 아
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잠자코 고기만 바
구니에 담았습니다.

이처럼 억척스럽고 인정 없는 이 구두쇠 어부
때문에 그의 세 딸이 죽어 삼봉(三峰) 이라는
바위가 되었으니 그 곳이 바로 안면읍 창기리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무리 구두쇠라도 그렇게 많이 잡힌 고기를

웬만하면 형제끼리 한 마리쯤 나누어 먹음직도 하지만 이 구두쇠는 멸치새끼 한 마리도 남에게 주지 않을뿐더러 고기를 팔아 번 돈까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땅을 파고 감추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곳은 부인도 모르고 세 딸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부인이, “여보, 돈은 어디에 가져다 두는 거요?” 하고 물으면 “그건 알아 뭘 해” 하고는 통명스럽게 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부의 아내는 이런 남편이 못마땅하여 마음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부의 부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몹시도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부인이 꾸는 꿈은 이러하였습니다.

부인이 바닷가에서 굴을 따고 있는데 흉칙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눈은 부리부리하고 뿔이 세개나 달리고 키는 하늘을 닿는 듯했습니다.

그 괴물은 땅을 파면서,

“이곳이 구두쇠가 돈항아리를 묻어 둔 곳이지!”

하면서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부인이 잠에서 깨어나니 너무 무서웠던 까닭에 온 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여보! ”

“왜 그래, 자지 않고? ”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

“그까짓 꿈이 뭐가 무서워? ”

“그게 아니라니까요, 꿈에 괴물이 나타나서 당신이 물어 둔 돈항아리를 파헤쳤단 말이에요! ”

“뭐야? 뭐가 어쨌다구? ”

“돈항아리요……”

“이거, 큰 일인데 어떤 놈이 알아차린 게 아닐까? ”

“글쎄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

어부는 부랴부랴 돈을 감추어 놓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괴물도, 사람도 없었고 돈을 물어 논 땅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허 참, 공연히 꿈이야기를 해서 잠만 못 잤네! ”

구두쇠 어부는 투덜투덜하며 집으로 가려고 막 돌아설 때었습니다.

“꽁, 꽁!”

“우르릉!”

갑자기 맑던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히면서 천둥과 번개가 치며 온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구두쇠 어부는 돈항아리가 못믿어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비를 다 맞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이튿날, 어부 내외가 독살에 가보니 지난 밤 비바람에 독살은 허물어 지고 고기는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거 큰 일났네!”

“어쩌면 좋아요?”

“하는 수 없지 다시 쌓아야지”

어부 내외는 그날부터 독살을 다시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차! 영차!”

땀을 뻘뻘 흘리며 어부 내외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독살은 조금도 쌓아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쌓는가 싶으면 큰 파도가 밀려와 허

물어 버리고 또 , 거의 쌓아 놓으면 허물어 버려서 조금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기를 여러 번 , 생각다 못한 이부의 아내는 구두쇠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 아무래도 이상해요 .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독살이 자주 무너지니 용왕이 노했나 봐요 , 우리 , 용왕께 제사 드려요 ”

“ 제사 ? ”

“ 그래요 ”

“ 제사를 지내자면 돈이 들 게 아니요 ? ”

“ 조금 들겠지요 ”

“ 돈뿐이요 , 쌀도 들어야 되지 ... ”

“ 그래도 제사를 들여야 할 것 같아요 ”

“ 안돼 , 돈 들고 쌀 드는 일이라면 할 수 없어 ! ”

구두쇠 영감은 아내의 말을 들은 척도 않았읍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 어부 내외는 밤만 되면 꿈자리가 사나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 꿈에 그 괴물이 나타나 돈항아리를 파헤치는가 하면 무섭게 생긴 뿔을 가지고 대들어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 3형제가 있었는데 그 딸들이 이름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약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구두쇠 아버지가 약값을 한푼도 주지 않고 모른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안되겠네!”

어부의 아내는 자기 혼자라도 용왕께 제사를 지내야겠다고 생각하고 남편 몰래 떡을하고 술을 만들고 고기를 굽고 해서 독살 쌓는 곳으로 가려고 집을 나설 때였습니다.

밖에 나갔던 구두쇠 어부가 들어오다가 이것을 보고 노발 대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 머리에 이고가는 떡시루가 웬거요?”

아빨사! 몰래 한다는 것이 들키고 말았으니 어부의 아내는 더듬더듬 변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살 쌓는데 가서 고사나 지낼까 하고요…”

“고사? 고사가 다 뭐말라 죽은 거야, 당장 그 떡시루 이리 내 봐!”

무섭게 눈을 부라리며 구두쇠 어부는 아내의

머리에 이고 있는 떡시루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딸들의 병은 점점 더해만 갔고 어부의 아내도 몸이 점점 여위어 가기만 했습니다.

어부의 아내는 다시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기회만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구두쇠 어부는 이웃 마을 잔치집에 가고 없었습니다. 내것을 남주기는 별별 떠는 구두쇠이지만 남의 것을 먹거나 거저주는 것은 한 번도 사양해 본 적이 없는 어부였기 때문에 이날도 잔치집에 가는 것을 그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어부의 아내는 이때다 생각하고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떡을 해 가지고 독살이 있는 바닷가로 가려고 떡시루를 이고 막 대문을 나서려고 할 때였습니다.

일이 안될려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하필이면 이때 남편이 돌아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른 때 같으면 저녁까지 끝장을 보고 오는 남편인데 이날따라 일찍 들어오니 이 또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구두쇠 어부는 아내가 이고 있는 것이 떡시루라는 것을 알고는 두 눈에서 불뚝을 튀기며 호령호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없는 새, 쓸데 없는 짓을 하려는 거지? 팬히 집에 오고 싶더니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랬던 모양이구나! 당장 그 떡시루를 내려놓지 못해?”

하더니 옆에 있는 몽둥이를 집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살기등등한 눈빛에 그만 질겁을 한 아내가 떡시루를 놓기가 바쁘게 뒷문으로 도망치는

것을 구두쇠 어부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뒤를 쫓았읍니다.

그 때였읍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괴성벽력이 요란하게 일면서 바닷물이 하늘로 치솟는 것이 었읍니다. 그리고는 그 바닷물은 아내를 돌돌 감아서 돈항아리가 묻어 있는 곳에다 묻어 버리는 것이었읍니다.

삼시간에 되어진 일이라 다른 사람 같으면 무서워 떨겠지만 이 구두쇠는 아내가 죽은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돈항아리가 묻힌 것만 안타깝게 여겨 그날부터 돈항아리가 묻힌 곳을 파기 시작했읍니다.

그러나 땅은 쉽게 파지지 않았읍니다. 딱딱한 바위가 그 위에 덮혀 있기 때문이었읍니다.

구두쇠 어부는 매일 곡괭이로 쪼아내고, 징으로 쪼아냈지만, 바위는 좀처럼 뚫리지 않았읍니다. 거기다가 딸들의 병세는 악화되고 자기도 일에 지쳐 기진맥진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 셋이 땅에 묻어 있는 돈항아리를 훔쳐가지고 바닷물 속으로 달아나는 것이었읍니다.

“이놈들, 돈항아리를 놓고 가거라.!”

어부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세 여자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쫓아가도 여자들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닷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사람살리라는 소리만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후유.!”

어부는 아무래도 돈항아리가 묻혀 있는 곳으로 가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바닷가로 나가 보니 돈항아리가 묻힌 곳은 쏠아져 내린 폭우로 물바다가 되었고 산 위를 쳐다 보니 꿈에서 본 여자 셋이서 손을 흔들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구두쇠 어부는 화가 나서 산꼭대기로 뛰어가 보니 그 여자 셋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의 딸들이었습니다.

“네 이놈들, 왜 여기에 와 있는 거야?”

어부가 호령했지만 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히죽히죽 웃고만 있었습니다. 어부는 딸들을 산 위에 버려둔채 산을 내려왔지만 캄캄한 밤이라 어디가 어딘지 몰라 밤새 헤매다가 그냥 쓰러져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 구두쇠 어부는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

편편하던 산 위에 높은 바위 셋이 덩그라니 솟아 있고 돈항아리가 묻힌 장소는 딱딱한 돌로 덮혀 있었습니다 .

“ 아 ! 내 돈 ! 내 돈을 내봐 ! ”

어부는 어쩔줄을 모르며 팽이를 들어 바위를 힘껏 내리쳤읍니다 . 그러자 땅속에서 “ 평 ” 하는 소리와 함께 구멍이 크게 뚫리고 그 속에서 험상궂은 용이 불을 뿜으면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 그리고는 용이 소리소리 호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

“ 네 이놈 돈만 아는 이놈아 , 내가 너를 잡아 가겠다 ! ”

그제서야 잘못을 깨달은 어부가 용에게 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

“ 용님 , 한번만 용서해 주세요 ! ”

“ 용서를 해달라고 ? ”

“ 예 예 , 그렇습니다 ! ”

“ 안 돼 , 너는 너무 욕심이 많아 , 너는 돈이 많아서 땅 속에 감추고 사는데도 너의 동베에 굶

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본 척 했어. 그 많은 고기를 잡으면서도 이웃이나 형제들에게 한마리도 주지 않았을 뿐더러 사랑하는 딸들이 죽게 됐는데도 약 한첩 사주지 않은 인정머리 없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더니 용은 어부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욕심 많은 어부는 용에게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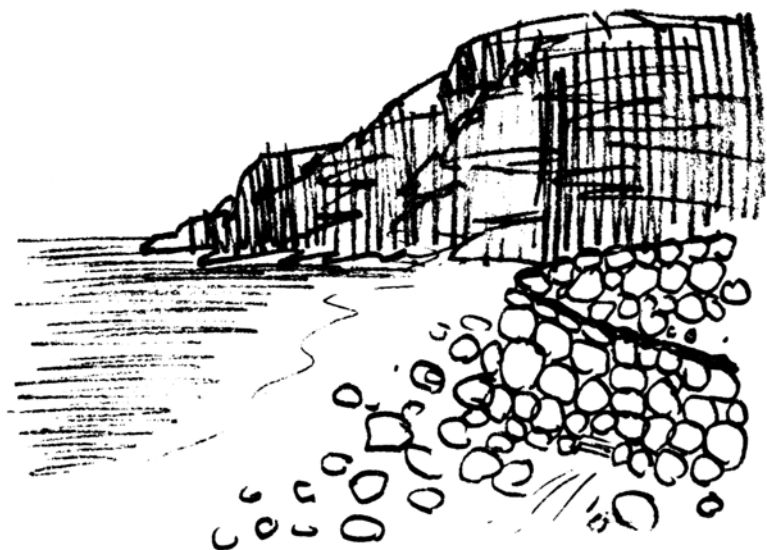
사람들은 어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여겼고, 생겨난 바위 셋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병들어 죽은 딸들의 무덤이고 그 옆에 무덤같은 바위산은 어머니의 영혼이 변화된 것이라고 하며 그곳에 뚫린 커다란 구멍은 용이 나왔다 해서 「용난구멍」이라고 말했으며 지금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이 바위에 부딪히면 목욕하던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다고 하는데 한 맺힌 딸들이 심술을 부리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돈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보다 귀

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덟마리 학의 무덤

동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죽어 느릅 나무가

됐다는 학의 이야기

여덟마리 학의 무덤

따뜻한 봄날입니다.

산과 들에는 여기저기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고 나비들이 꽃잎 위에서 입맞춤을 하며 한가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읍니다.

산들바람따라 풍겨오는 봄의 정갈한 향기가 감미롭기만 합니다.

이곳은 안면읍 승언리 2구, 팔학골이라는 조그마한 어촌의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이 동산 위에는 조그마한 산봉우리 여덟개가 병풍처럼 둘러 있어 그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팔학골이란 여덟마리의 학(鶴)이 옛날에 이곳에서 살았다 해서 지어진 이름인데 팔학골이란 이름이 지어지기까지는 재미있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옛날 이 마을에는 학들이 많

이 살았습니다. 산에 나무가 무성하고 계곡에는 맑은 물이 항상 흐르며 사철 산새들의 노래가 평화롭기만 한 이 동산이 학들은 마음에 들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학들은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알을 낳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속에 살고 있는 사나운 짐승 한 마리가 학들이 알을 낳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슬렁 어슬렁 학이 사는 나무 아래로 왔습니다.

“애, 학아!/”

“누구예요?”

“나다, 이 산의 왕이시란 말이다!/”

“어머! 괴물!/”

“이놈, 괴물이 뭐야 왕이라니까.”

“예예, 왕님 그런데 웬일로 오셨습니까?”

“나 말이냐? 내가 온 것은 다름이 아니고...”

“말씀해 보श्य요?”

“듣자하니 너희들이 알을 낳고 있다면서?”

“그런데요?”

“그 알좀 먹을까 하고 왔느니라!/”

“예!/?”

“왜 놀라는 거냐, 알좀 먹자는데?”

“그건 안됩니다.”

“어째서?”

“생각해 보세요. 이 알은 새끼를 낳기 위하여
낳은 건데 괴물, 아니 왕께서 먹으면 우리들은
자식을 어찌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건, 너희들 사정이고 나는 그 알을 꼭 먹
어야 하겠다. 그러니 잔말 말고 냉큼 이리 던
져라!”

“안됩니다. 그것만은 절대로 안됩니다. 왕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럼 하는 수 없지 네놈들 부터 잡아
먹고, 그리고 알을 먹어야 겠다!”

그러더니 그 괴물은 나무 위에 있는 학을 잡아
먹고 또 알까지 먹어치고는 어슬렁 어슬렁 산 속
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괴물의 행패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알맛을 본 괴물은 다른 학
이 있는 곳으로 가서는 또 알을 요구하는 것이었
습니다.

다른 학들은 괴물의 요구를 거절하면 죽게 되

므로 할 수 없이 울면서 알을 주곤 했습니다

“어쩌면 좋지요?”

“글쎄요, 어쩌면 좋지요?”

“우리 힘으로는 저 흉악한 괴물을 물리칠 수가 없으니 이를 어찌요?”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가 죽게 됐으니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없군요!”

학들은 모여 앉으면 땅이 꺼지게 한숨만 쉬고 있었지 뽀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안타까와 발을 동동 구르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학들의 슬픔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고, 이 아름다운 동산에는 날마다 울음바다를 이루었으며 학의 수효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동네에 혼자 사는 아주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도 사나운 짐승에게 피해를 당하는 학들이 불쌍해서 늘 안타까와 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에그, 몹슬놈의 짐승! 그 순하기만 한 학들을 못살게 굴다니, 저 나쁜 괴물을 잡아가는 사람은 없나!”

아주머니는 마음만 안타까울뿐,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날도 아주머니는 괴물에 잡혀가는 학의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있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얼마쯤 잤을까, 아주머니는 꿈 속에서도 학들이 괴물에게 시달리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괴물의 무서운 발톱에 채이어 가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학의 울부짖음을 듣고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앞에서 머리카락이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아주머니,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찌지요?”

“내 말을 들겠습니까?”

“듣지요, 학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오.”

“어떻게요?”

“이 산에 조그마한 산봉우리가 여덟개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저기 보이는 것이 아녘니까?”

“맞아요, 내일 날이 밝으면 그 산봉우리마다
느릅나무 한 그루씩만 심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학들이 살아 날 수가 있나요?”

“있지요.”

“그럼 그대로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잠에서 깨어 보니 바로 머리맡에
학 한마리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에구, 가엾어라, 너도 그 몹쓸놈의 괴물에 쫓
기어 우리집에 온 모양이구나? 이리 들어온?”

아주머니는 그 학을 안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

“쾅 쾅, 우르릉./”

난데없이 천둥과 비바람이 몰아치며 온 마을을
삼킬 듯이 요란했습니다.

‘아니 웬 비바람이 불어닥친담./’ 아주머니는
밖에 있는 학들이 걱정이 돼 밖으로 나왔습니
다. 그리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바로 발 앞에 학 여덟마리가 죽어 있는 게 아

니겠읍니까!

아주머니는 학들이 불쌍해서 그 여덟 마리의 학들을 여덟개의 산봉우리에 한 마리씩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꿈 속에서 할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산봉우리마다 느릅나무 한 그루씩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느릅나무들은 놀라울만큼 무럭무럭 자랐읍니다. 며칠이 안가 아름답리 나무로 변했읍니다.

그런데 그 느릅나무 가지에서 엉뚱하게도 가시가 돋친 나무가지들이 울창하게 뻗어나가 온 산을 두루 싸아 아무도 산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괴물도 그 산 속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 산에서는 학들이 편안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도 해라, 무슨 나무가 저렇게 빨리 자란담!”

“누가 아니래요? 그리고 가지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게 어디 느릅나무가진가요. 엉뚱한

가지가 생겨나서 온 산을 둘러싸고 있으니 참으로 묘한 일도 다 있군요! ”

“그래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쩌면 저것이 그 학들이 죽은 녀이 변하여된 가지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럴지도 몰라요. 한땀은 학들의 녀이 틀림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이 이상한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로 이 마을을 「팔학골」(八鶴)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덟 마리의 학이 묻힌 곳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른 모양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느릅나무도 찾아볼 수 없고 더구나 학의 모습도 볼 수가 없으며 그 산은 나무가 별로 없는 벌거숭이 산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어쩌면 사람들이 마구 베어버렸거나 아니면, 학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어갔기 때문에 느릅나무들도 스스로 없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나무 없는 산으로 변해버리자 마을 이

름도 「팔악동」(八岳洞)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루땡이 마을

하찮은 짐승도 은혜를
 값을줄 안다는
안면읍 장곡리에
 있었던 이야기

노루 땡이 마을

하얀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온 땅이 하얀 옷으로 갈아입은 것 같습니다.
산에도 들에도 나무 위에도 목화솜같은 눈으로
덮혔습니다.

철이는 잠자리에서 눈을 뜨자마자 밖으로 나
갔습니다.

“야, 눈이다! 눈이 내렸구나!”

철이는 반가운 친구라도 만난 듯이 눈 위를 이
리 뛰고 저리 뛰며 좋아했습니다.

“야, 영수야 눈사람 만들자”

전너 집에 사는 영수를 철이가 부르며 말했습
니다. 영수도 지금 좋아라 눈위를 강아지처럼
뛰어다니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뭐야, 눈사람을 만들자구? 그보다 우리 토

끼몰이를 가자?”

“토끼몰이? 그것 좋지”

“그럼 아침밥 먹고 모두 모이도록 하자. 철이 너는 너희집 개를 데리고와, 뭐니뭐니해도 토끼몰이에는 개가 있어야 하거든”

“알았어, 그럼 너는 동네 친구들을 전부 모이도록 해”

아침밥을 먹고 동네 아이들은 모두 철이네 마당으로 모였습니다. 손에 작대기를 들고, 털모자와 털장갑을 끼고, 발에는 긴 장화를 신은 꼬마 사냥꾼들이 큰 전쟁터에라도 나가는양 제법 으스스한 대기까지 하였습니다.

안면읍 장곡리 노루뎡이(노루뎡)마을 아이들은 모두가 씩씩하고 착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겨울방학이라 모두 노루몰이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돌격! 앞으로!”

철이의 구령에 따라 아이들은 작대기를 어깨에 메고 뒷산으로 진군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 위에는 하얀 눈으로 뒤덮혀 반짝 빛나는 아침 해님의 웃음에 눈부셨습니다.

아이들은 산 중턱에서 옆으로 길게 늘어서 산 꼭대기를 향하여 토끼를 몰며 올라가고 있었읍니다.

“쉬이 쉬이 — ! ”

“워이 — 워이 ! ”

큰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앞으로 올라갔읍니다. 그러나 토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읍니다.

“야, 토끼가 하나도 없는 모양이지 ? ”

“그러게 말야, 공연히 온 게 아니야 ”

“그냥 내려가자 ? ”

“그럴까 ”

아이들은 올라가던 발을 멈추고 웅성웅성 마일로 내려오고 있었읍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읍니다.

“야, 노루다. 노루가 뛰어간다 ! ”

“어디 어디 ? ”

“저 봐, 노루가 뛰어가지 ! ”

“그렇구나 ! ”

아이들은 신바람이 났읍니다. 누런 노루가, 그것도 송아지만한 노루가 산 중턱에서 놀란 눈을 뜨고 저쪽 산비탈로 달아나고 있는 것이었읍

니다.

“잡아라!/”

“잡아라!/”

아이들의 소리소리에 놀란 노루는 있는 힘을 다하여 마을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철이네 개가 쫓고, 앞에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노루가 지나갈 만난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달아나던 노루는 앞에서도 사람들이 물려오는 것을 보고는 뒤돌아 가려고 했지만 뒤에는 아이들과 철이네 개가 사나운 이빨을 들어내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노루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그 때, 마을 노인인 분이 사람들을 헤치고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노루를 그냥 보내자”

“안돼요, 할아버지!/”

“안되긴, 노루가 불쌍하지도 않느냐?”

“뭐가 불쌍해요 잡아요”

“그래요 할아버지, 여태껏 몰았는데 그냥 놓아주기가 아까와요!/”

아이들은 노루 뒤를 바짝 쫓으며 말했읍니다.

“애들아, 그러지 말고 놓아 보내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맛있는 과자랑 연필이랑 공책도 주마!”

“정말이세요?”

“그럼!”

“그렇다면 잡지말자.”

“그러자, 그런데 왜 저 할아버지는 노루를 못잡게 하실까?”

“그러게 말야”

“우리 할아버지께 여쭙어보자”

할아버지가 사주는 맛있는 과자를 먹으며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뺨 둘러싸고 할아버지께 궁금한 것을 여쭙어 보았읍니다.

“할아버지, 왜 노루를 못잡게 하셨어요?”

“그래요, 왜 그리셨어요. 그것도 우리들에게 맛있는 과자를 사주시면서까지 노루를 못잡게 하셨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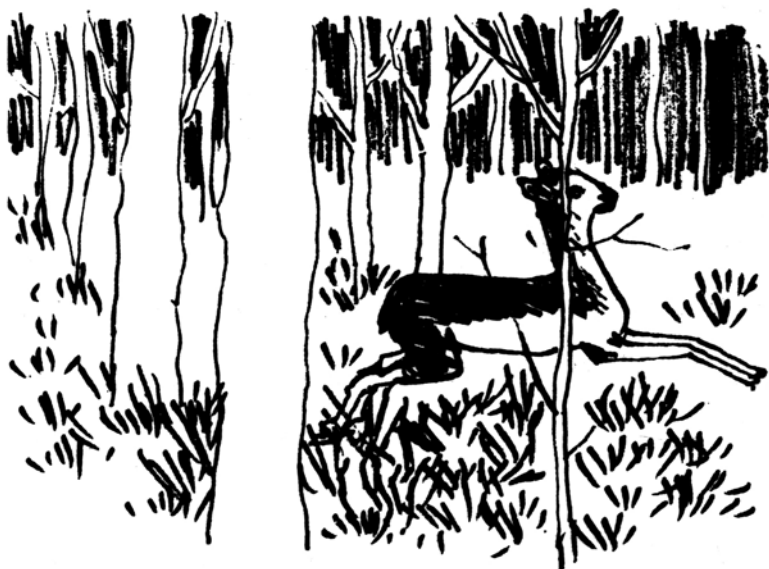
“궁금하냐?”

“그래요 할아버지”

“그럼 내 얘기해 줄까?”

“얘기해 줘요”

할아버지는 큰 기침을 두어번 하시더니 얘기를 시작 하셨습니다.



“옛날 옛날에 말이다”

“와! 옛날얘기다!”

철이가 좋아 손뼉을 쳤습니다.

“얘, 조용히 해”

옆에서 영이가 참견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얘기가 계속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얘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옛날, 안면읍 장곡리 2 구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았습니다. 산에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우뚝우뚝 서있고 여러가지 산짐승이 정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철 피는 꽃, 지저귀는 새소리, 바다에는 갈매기가 너울대고 바다물소리까지 정겨운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씨도 착하고 부지런했습니다. 누구 하나 싸우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남을 헐뜯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곡식도 잘 자라고 바다에 고기도 풍성하여 사람들은 아무 걱정없이 지냈습니다.

조선대 영조임금 중엽, 이 마을에 고씨 성을 가진 할머니 한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뒷산으로 나물을 캐러 갔습니다.

파릇파릇한 새싹이 한치나 자랐고 종달이 노래가 한가로운 봄날이었습니다.

산에는 예쁜 꽃이 피었고 나비들의 고운 춤이 아

름답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흥얼흥얼 옛노래를 코로 부르며 나물을 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때였습니다.

“ 쿵 쿵 ! ”

난데없는 총소리가 고요한 산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 아니 , 이게 무슨 총소리 랐 ! ”

할머니는 총소리에 놀라 나물 뜯던 손을 멈추고 총소리가 난 산등성이를 쳐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 노루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노루는 할머니가 있는 앞까지 오더니 할머니를 애원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는, 할머니 치마폭으로 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 아니 , 이놈의 노루야 왜 이러느냐 ? ”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 그렇구나 , 네가 지금 포수에게 쫓기고 있구나 ! ”

할머니는 그 노루가 불쌍해서 치마를 벗어 가

리워 주고 그 위에 나뭇잎과 나뭇가지를 꺾어 숨겨 주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숨겨줄테니 움직이면 안돼?”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나뭇잎만 뜯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총을 든 사냥꾼 한 사람이 두리번거리며 쫓아와서는 할머니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쪽으로 달아나는 노루를 못 보셨어요?”

“노루라니요?”

“노루도 모르세요?”

“노루는 압니다만 도망치는 노루지 아닌지 방금 저쪽으로 송아지 같은 것이 뛰어갔어요.”

“그래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사냥꾼은 좋아라 할머니가 가리키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사냥꾼이 사라지자 할머니는 노루를 꺼내주면서

“노루야, 이제 안심해도 된다. 사냥꾼은 저쪽으로 갔어. 그러니 너는 반대쪽으로 가거라.”

할머니는 노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

했습니다.

그러자, 노루는 고맙다는 듯이 할머니에게 머리를 숙여 절을 하고는 갈 생각은 않고 할머니의 치마폭을 물고는 끌어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래? 빨리 가라니까 포수가 오면 어쩔려고?”

할머니는 안타까와 노루에게 빨리 가라고 독촉을 했지만 노루는 자꾸 할머니를 끌어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히 생각한 할머니는 노루가 끄는대로 노루를 따라갔습니다. 얼마쯤 갔을까, 노루는 어느 양지 바른 산기슭에 이르더니 걸음을 멈추고는 이상한 몸짓을 하며 앞발로 땅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노루야, 너 지금 뭘하고 있는 게냐?”

“.....”

“여기가 어딘데, 이곳에 뭐가 들어 있니?”

그러나 노루는 할머니의 이야기는 듣는듯 마는듯 땅만 열심히 파고 있었습니다.

“웁아! 이곳에 묘를 쓰란 말이로구나? 노루야 그러냐?”

그때서야 노루는 파던 일을 멈추고 할머니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근덩근덩 흔들고는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기특도 해라. 제 목숨을 구해줬다고 은혜를 갚는구나!”

할머니의 눈에서는 감격에 어린 이슬방울이 맺혔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도 고마워하는 사람이 드문데 이 노루는 은혜를 갚을줄 아는 의리 있는 짐승임에 분명합니다.

할머니는 노루가 일러준 그 자리에 표를 해 놓았다가 남편이 세상을 뜨자 그 자리에 남편의 넋을 묻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노루의 기특한 마음씨에 감격했으며 노루가 잡아준 묘소가 명당이라 하여 이 마을을 노루땡(노루땅)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지금도 전해 불러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얘기는 끝났습니다.

“야, 재미 있다”

“그럼 그 때 그 할머니의 후손들이 지금도 살아제서요?”

“그럼 살아 있지 그 후손들은 지금도 노루는 잡지도 않고 그 고기는 먹지도 않는단다”

“그렇다면, 혹시 할아버지께서도 그 할머니의 후손이 아니세요?”

“그렇게 보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노루를 못잡게 하셨지요?”

“그래 나도 그 할머니의 후손이란다!”

할아버지는 감격 어린 말로 말했습니다.

“야! 우리는 노루뎡 할아버지를 만났구나.

만세!”

아이들은 환성을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허허허”하고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럴때마다 할아버지 흰 수염이 흔들흔들했습니다.

해님도 빙긋이 웃으며 이들을 포근히 감싸주었습니다.

아무리 짐승일망정 은혜를 보답한 노루의 가룩한 마음씨는 사람들도 본받을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울고간 용마

무슨 일이든지 성급하게

처리하면 후회한다는

팔봉산에 전해오는

이야기

울고간 용마

팔봉면에 있는 팔봉산은 우리 서산 지방에 있는, 이름 난 산 중의 하나입니다.

산이 높고 바위와 나무가 많아 산 속에는 호랑이가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뭄이 심할 때는, 군수님이 팔봉산에 올라가 돼지머리를 놓고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때, 기우제를 지내던 기우제 터가 남아 있습니다.

팔봉산에서 동쪽으로 길게 뻗어나간 산줄기가 있는데 이 산줄기 중간쯤에 「장군대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장군이 탄생했다고 해서 「장군대지」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장군대지에는 묘들이 유난히 많이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묘들이 많은지 또 어떤 장군이

탄생하였기에 이런 이름이 붙혀졌는지, 거기에는 재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천 년 전쯤, 이 장 군대지가 있는 산 밑에는 영동 김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씨 집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생겨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아들은 아버지의 병환을 고치기 위하여 좋은 약과 좋은 음식으로 간호하였지만 아들의 극진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울고 난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려고 묘자리를 찾아나섰습니다.

“아버님을 어디에 모실까 팔봉산은 너무 높고 험해서 마음에 안들고 …… 옳지 집 뒤에 있는 산이 좋겠다. 양지 바르고 편편하여 아버님 모시기에 좋은 곳이야!”

아들은 아버지를 양지 바른 곳을 찾아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아들은 결혼할 나이가 돼서 이웃 동네에 사는 예쁜 처녀와 결혼을 하

였습니다.

결혼 첫날 밤, 신랑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하얀 수염을 길게 느린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
더니 신랑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보게 신랑, 결혼을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누구십니
까?”

“나 말인가? 나는 저 팔봉산 산신령이라네”

“산신령님! 그런데 웬 일로 저를 찾아오셨읍
니까?”

“할 얘기가 있다네”

“무슨 얘기입니까?”

“다름이 아니고 자네가 자네 아버님 장례를
모신 자리는 참 좋은 명당이라네, 그 곳에 묘
를 쓰면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은 훌륭한 장군
으로 태어나게 된다네! 그래서 얘긴데, 자네
가 결혼했으니 곧 얘기가 생길 걸세, 그 얘기
가 장차 큰 인물이 될터이니 잘 키우게!”

“장군이 태어난다구요?”

“그렇다니까, 내 말 명심하게나”

이렇게 말한 할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

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신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싫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장군이 태어난다. 기쁜 일인데!”

신랑은 싱글벙글하면서 꿈이야기를 신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게 정말일까요?”

“글쎄, 두고 봅시다!”

이런 일이 있는 후, 신부는 임신을 하였고 열 달 뒤에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는 어찌나 영리하게 생겼는지 총명하게 생긴 눈, 흰한 이마, 둥근 얼굴, 모두가 씩씩한 모습이 남자다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장군감이 생겼다고 칭찬을 했고 신랑과 신부는 꿈을 생각하고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뻐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기가 너무 이상한 짓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사흘이 되던 날, 애기 어머니는 빨래를 하기 위하여 아기를 방안에 잠재워 놓고 집 앞에 있는 냇가로 갔습니다.

이것 저것, 빨래감이 많아 어머니는 부지런히

몇 시간을 빨래를 하고는 아기에게 젖을 주려고 급히 집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자고 있는 아기를 바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깜짝놀랐습니다. 아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기가 어디로 갔담?”

어머니는 방안 이곳 저곳을 살펴보았으나 아기는 어디로 갔는지 없었습니다.

‘이상도 해라, 아기가 어디갔담 혹시 아기가 우니까 이웃집 아주머니가 안아간 것이 아닐까?’

아기 어머니는 이웃집에 가보려고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어머니,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천정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놀란 어머니가 천정을 쳐다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기는 천정에 달라붙어 빙그레 웃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얘야, 네가 어떻게 ……?”

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하고 너무 놀라와 났나

간 사람처럼 멍하니 아기만 쳐다보고 있었읍니다.

이런 어머니를 보고 아기는 천정에서 사뿐히 내려와 방바닥에 오뚝섰읍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어머니 뭘 그리 놀라셔요?”

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정신을 가다듬은 어머니가 아기에게 말했읍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가 있니? 그리고 난지 사흘밖에 안됐는데 말은 어떻게 하지?”



그러자 아기는 싱글벙글 웃으며 어른처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까짓것 아무것도 아니어요 어머니가 더 놀랄일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꼭 도깨비에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걱정까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무엇이 되려는가? 혹시 나쁜 일이라도 저지른다면 ……”

걱정으로 하루를 보낸 어머니는 저녁때,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듣고난 남편도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구려!”

“아무래도 보통 아이가 아니어요!”

“산신령의 말대로라면 큰 장군이 된다고 했는데 ……!”

“하지만 이런 말이 임금님께 알려지면 아기를 그냥 놔 두지 않을 꺼예요, 그리고 우리도 화를 당할데고 ……”

“어째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양반이라면 몰라도

상놈인 처지에 장군이 나온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그래, 상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상놈이 똑똑하면 양반들이 그냥두지 않을지도 모르지!”

그 때는 상사람은 아무리 재주가 있고 뛰어나도 벼슬을 할 수가 없는 때라,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걱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아기를 버려야 할까봐요?”

“버린다면?”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야 있나?”

“하지만, 그 아이가 살아 나중에 역적노릇이라도 한다면 우리 집안은 망하게 될 게 아니어요, 그러니 차라리 죽이도록 합시다!”

두 내외는 의논끝에 아들을 죽이기로 하였읍니다. 아무리 나중 일이 두렵다 하여도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니겠읍니까.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아들을 죽이는 큰 죄를 짓고 말았읍니다. 그것도 다듬이돌로 잠자고 있는 아기를 눌러 죽였으니 사람으



로서 할 수 없는 짓을한 것입니다.

가엿게도 아기는 죽고 말았읍니다. 그런데 아기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이더니,

“우르릉 쿵쿵!”

하는 천둥과 번개가 땅을 뒤흔드는가 하면 집 뒤 산에서는 산이 찢르릉 울리는 “으악!” 소리와 함께 한 마리의 큰 말이 구름에 쌓여 건너편 산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천둥도 번개도 그치고 하늘도 땅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이 잠잠한 때에야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용마가 날아간 곳을 찾아가 보니, 그 곳에는 큰 말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기의 죽음을 슬퍼하며 죽은 아기를 자세히 보니 아기의 겨드랑이에 조그마한 날개가 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천하 장사를 죽인 거야!”

“어쩌면, 자식을 죽일 수 있담!”

“아까운 일이야, 그 부모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거야!”

“그 용마가 아기가 죽으니 슬피 울며 다른 곳으로 갔구먼!”

“생각해 보게, 장차 장군이 된 아기를 태우고 다니려다가 아기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나!”

“하늘이 노한 거야, 천둥 번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

동네 사람들은 아쉽고 슬프고 하여, 헤어질 줄을 모르고 안타까와 하였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부모가 죽으면 이 장군대지에 묘를 썼습니다. 이곳에 묘를 쓰면 장군이 생긴다

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군대지에
묘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군대지 건너 산에는 지금도 용마의 발자욱이
뚜렷이 남아 있어 그 때를 말해주는 듯도 합니
다.

우리고장(서산) 전설집

〈제 2 집〉

효자 바위

최 주연 엮음



서산문화원

차 례

효 자 바 위

어사 박문수와 글방아이들	183
신기한 옹달샘	193
철마가 적을 무찔러	201
오줌 바위	209
여우로 변한 처녀	219
고양이 바위와 쥐 바위.....	229
거북 아가씨	243
효자 바위	251
학의 날개를 덮은 스님.....	257
신령과 스님	267
목화꽃이 곱더이다	281
힘 자랑하는 남매	299
용이 이무기가 되다	307
저기 용이 오른다	315
주먹으로 땅을 파는 청년	325
기생 바위	339
자갈밭 금항아리	351

어사 박문수와 글방아이들

* 글방에 들어갔던 어사 박문수는 아이들의 재판놀이에서 범정을 소란케 했다는 죄목으로 창피를 당했다는 이야기

어사 박문수와 글방아이들

박 문수란 유명한 어사가 있었
읍니다 . 이 박어사는 머리가
뛰어나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부딪쳐도 척척 해결하
는 사람이었습니다 .

암행어사란 임금의 비밀 명령을 받고 전국 각 고을
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살피는
일을 맡은 임금님의 특사인데 아래로는 백성들의 잘
살고 못사는 형편에서 위로는 고을을 다스리는 관리
들이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가 또는 나쁜 일을
하는가 살펴서 나쁜 짓을 한 원님이나 사또 또는 관
리들을 임금님 대신 벌을 내리기로 하고 상을 줄 관
리는 임금님께 말씀드려 상을 주기도 하는, 그러니
까 때로는 임금님 대신 일을 처리하는 권리까지 행세
하는 사람입니다 .

박 문수 어사는 이러한 일을 맡아하면서 모든 일을
슬기롭게 처리하여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임금님의
신임을 받는 훌륭한 어사였습니다 .

박 문수 어사는 우리 서산 지방에도 와서 민정을 살피고 갔다고 하는데 그 증거로는 태안 어느 곳에 박 어사가 직접 쓴 비석이 있었다고 하며 지금은 그 비석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부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어사비가 있었으나 그것이 박 어사가 직접 쓴 비석인지 몰라 버리게 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박 문수 어사가 우리 고을에 와서 민정을 살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박 어사는 산골 마을 글방에 찾아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또 여럿이 모인 곳에는 으레히 고을 사포의 이야기도 듣게 되어 글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글방에는 훈장님(선생님)은 보이지 않고 아이들만 시끄럽게 떠들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박 문수 어사는 생각하기를 아마 선생님은 잠시 일이 있어 나간 사이에 아이들끼리 떠드나 보다 생각하고 조금 기다리면 오겠지 하고 글방 한 구석에 앉아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들어 왔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들끼리 떠들며 놀고 있었습니다.

박 어사가 이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가 가만히 살펴 보니 아이들은 재판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에 똑똑하게 생긴 아이가 원님으로 뽑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으니까 그 옆으로 사령이 된 아이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원님 옆으로 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사령들이 원님 옆에 늘어서자 한 아이가 원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즘 말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고소를 하는 모양입니다.

“원님께 간절한 청이 있습니다.”

“그 청이란 게 무엇인고?”

“예, 다름아니오라 저는 얼마 전에 새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 새를 이웃 사람이 가져가기라도

했단 말인가?”

“아니올쎄다, 새가 산으로 날아갔읍니다!”

“그래서?”

“그 날아간 새를 원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부탁읍니다!”

“날아간 새를 붙잡아 달라?”

“그렇습니다. 원님!”

여기까지 들은 박 문수 어사는 마음이 조마조마 하였읍니다.



‘이거 매우 어려운 재판을 맡게 됐는데, 저 원님은 무어라 대답할까? 그리고 내가 원님이 됐다면 뭐라고 판결을 내려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님이 된 아이가 책상을 탕탕치더니

“새가 산으로 달아났다 이거지? 그렇다면 새를 숨겨논 놈은 바로 산이구나 너는 어서 가서 그 산을 데리고 함께 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산을 꾸짖어 당장 새를 너에게 돌려주도록 하겠다!”

하고 의젓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명재판이었습니다. 판결이 제대로 내려진 것입니다.

박 어사는 이 말에 감탄하여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탁 치며,

“그녀석 참 똑똑하구나!”

하고 진심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박 어사의 이 말을 들은 원님아이는 벼락같은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엄숙한 재판장에서 무례하게 떠드는 저 자는 누구고? 여봐라 당장 저자를 잡아다 옥에다 가두어라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호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어사는 원님의 추상같은 호령에 마음이 뜨끔하면서 ‘아차! 실수를 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명령을 받은 사령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다짜고짜 박문수 어사를 밧줄로 묶어 가지고는 문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박 어사가 생각하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공연히 글방에 들어갔다가 호되게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 문수 어사는 아이들이 하는 놀이가 어찌나 바르고 또 엄격하고 이치에 맞는지 기특하기만 하여 아이들이 하는대로 끌려 나갔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이놈 내가 누군줄 알고 이러느냐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에게 이게 무슨 못된 짓이냐?”

하고 꾸짖기도 했으련만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라 조금도 불쾌한 낯빛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끌려간 곳은 재를 담아 두는 잣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잣간이 감옥인 셈입니다. 아이들은 박 어사를 감옥에 밀어 넣고는 밖으로 문을 잠그고 다시 재판장으로 갔습니다.

“거 참, 기특한 아이들이구나. 내가 잘못했지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으니 허허허, 그런데 그 원님이란

놈 참 똑똑하단 말이야! ”

박어사는 감옥에 갇혀 혼자 껄껄 웃었습니다. 그러나 냄새가 나는 잿간은 그렇게 좋은 곳은 못됐읍니다.

얼마쯤이나 지났을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박 어사에게 원님이 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박 어사 앞에 오더니 정중히 인사를 하고는 밧줄을 풀러주며,

“ 조금 전에는 제가 너무 무례한 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놀이로 하는 재판이지만 그 장소는 엄숙하게 법을 지켜야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용서를 바랍니다! ”

하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나 박어사는 그아이의 말에 감탄을 하며 꾸짖기는 고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칭찬을 하였습니다.

“ 내가 오히려 잘못했다.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란다. 나라의 법은 모든 사람이 잘 지켜야 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잠시 놀이하는 것을 그저 놀이로만 보고 소란스럽게 하였으니 잘못은 내게 있다. ”

하고 칭찬하였습니다.

훗날 박 문수 어사는 이 아이를 서울에 데려다 훌륭한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데 그가 누군지 뒷 얘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



신기한 옹달샘

* 마음 착한 나뭇군에게 신기한 우물을 알려주어 병을 고치게 했다는 온석리의 이야기

신기한 응달샘

서산읍에서 동북쪽으로 약 5리쯤 가면 온석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온석리(溫石里)란 따뜻한 돌마을 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인지 이동네 인심을 따뜻하기만 하였습니다. 동네 입구에 들어서면 아담한 느낌이 드는 마을 풍경이며 들마다 익어가는 곡식과 과일 나무들이 풍성한 마을임을 느끼게도 합니다. 이 온석리가 온석리라는 이름을 얻기까지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백년 전, 이 마을을 굽어보고 있는 성왕산 아래에는 외딴 초가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에는 나뭇군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뭇군은 마음씨가 착하고 동네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지런하여 사람들로 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루는 성왕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아직 이른 봄이라 싸늘한 날씨인데도 양지 바른 쪽에는 민들레가 새파란 싹을 자랑하고 아지랑이가 산 중턱에서

춤추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날씨가 덜 풀린 이른 봄이라, 나무하는 나뭇군의 손이 시리기만 하였읍니다.



한 참을 낮으로 나무를 하던 나뭇군은 멍칫 놀랐읍니다.

독사 한 마리가 나뭇군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읍니다. 나뭇군은 독사를 피하여 한 발자국 뒤로 물러 났으나 어느새 독사는 나뭇군의 손을 물고 말았읍니다.

“아이구!”

나뭇군은 손에 달려 있는 독사를 낮으로 찢어 죽이

고는 상처를 형겅으로 싸맷지만 쑤시고 저려오고 있었읍니다 .

“참 이상도 하다 . 아직 뱀이 나올 때가 아닌데 무슨 뱀이 나와서 물고 간담 ! ”

나뭇군은 이 이른 봄에 뱀이 나온 것이 이상했으나 그보다는 아픈 손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던 나무도 그만 두고 집으로 왔읍니다 .

그러나 아무리 치료를 해도 상처는 조금도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읍니다 .

영한 의원이 다녀 갔고 좋다는 약은 다 발라 보고 침을 맞고 뜸을 뗐지만 뱀에 물린 상처는 여전히 아프고 쑤셨읍니다 .

집안 식구들은 매일같이 나뭇군의 상처 치료에 다른 일도 못하고 매달렸지만 식구들의 정성도 효험이 없었읍니다 .

“그만큼 치료했으면 나올 법도 한데 아무 차도가 없으니 이상도 하다 ! ”

“무슨 뱀의 독이 것처럼 지독하담 ,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발라도 안 나오니 모를 일이구나 ! ”

사람마다 한 마디씩 위로를 하고 돌아갔읍니다 .

그러던 어느 날 , 나뭇군은 꿈을 꾸었읍니다 . 꿈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더니

“아직도 뱀에 물린 상처가 낫지 않았느냐?”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물지 않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럼 내가 약을 일러줄터이니 그대로 하여라!”

“약이 있습니까? 그 약이 무슨 약입니까?”

“너희집 뒤에 웅달샘이 있지?”

“예 있습니다. 물이 늘 따뜻하여 먹을 수가 없어서 그 샘은 그냥 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 샘 물이 약이니라.”

“그 샘물이 약이라구요?”

“그래 그 샘물을 길어다가 네 상처를 씻어라 그리하면 곧 나을 것이다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께서 누구신가요?”

“그건 알 일이 아니니라.”

그 백발의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살아졌습니다.

“뒤에 있는 샘물이 약이라니?”

나뭇군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늘 솟고 있어 이상하다 생각은 하였지만 그 물이 약이 된다니 모를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뭇군은 식구들에게 어제밤 꿈이야기를 하고 뒷샘에 가서 물을 길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로 상처를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상



처는 나왔고 그렇게 아프던 손이 건강한 손이 됐읍니다 .

“신통도 해라 ! ”

“그 물이 보통 물이 아니여 ! ”

“자네가 뱀에 물린 것이 아무래도 산신령이 그 물이 약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뱀보고 물으라고 한 것이 아닐까 ? ”

“그렇지도 모르지 . ”

동네 사람들은 이 신기한 우물 일로 가는곳마다 이야기꽃을 피웠읍니다 .

그런 일이 있는 후 , 여러 해가 지났읍니다 .

나뭇군이 뱀에게 물려 우물물로 고쳤다고 좋아하던 일도 사람들의 머리에서 사라지고 있던 어느 날, 나뭇군이 살고 있는 아랫마을에는 흉년이 들어 굶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면 전염병이라도 돌지 말아야지 어디 사람 살 수가 있나.”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식소리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안되겠네 의원을 불러와야지 누가 의원을 부르러 안갈텐가?”

“의원인들 올려고 할까요. 치료비도 못주는데?”

“그래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치료비가 없다고 그냥 못본척할까?”

“그럼 내가 다녀오지요!”

젊은 농부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농부는 의원을 모시러 웃마을을 지나다가 몇 년 전에 독사에게 손을 물렸던 나뭇군을 만났습니다.

“어디를 가시는 길이요?”

“예, 의원을 부르러 갑니다.”

“누가 아픈가요?”

“온 동네가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

다오. 거기다가 흥년이 들어 굶는 사람이 많은데 병까지 접쳤으니 답답한 일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의원을 부르기 전에 우선 우리집 우물물을 길어다가 한 번 먹여보시지요?”

“우물 물이라니요?”

나뭇군은 농부에게 지난 번 뱀에 물렸다가 꿈에 노인이 나타나 우물물을 길어다 씻으라는 말대로 했더니 금방 나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 참, 신기한 우물도 다 있군요 어디 그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가서 시험해 봅시다!”

농부는 나뭇군에게서 우물물을 얻어다가 앓는 사람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모두 나았습니다.

“거 참 신기하다.”

“하늘이 내려준 물이야!”

마을 사람들은 신비로운 샘이라 하여 이 물을 귀중히 여겼으며 아이들이 상처만 나도 이 물로 씻어 고쳤습니다.

따뜻한 물이 쉴 사이 없이 흘러나오는 이 샘 옆에는 커다란 바위가 솟아 있었고 그 바위에서 이 물이 솟아난다고 해서 마을 이름을 따뜻한 온(溫)자와 돌석(石)자를 붙여 온석리라고 하였다는데 지금도 온석리 어디엔가 파보면 따뜻한 물이 솟아나는 온천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철마가 적을 무찔러

* 나라를 사랑하고 동네를 사랑한 군
센 의지가 담긴 청년의 집념은 결
국 철마까지 움직여 오랑캐를 무
찔렀다는 망일산의 이야기

철마가 적을 무찔러

대산면 에는 망일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높이는 해발 302 m 나 됩니다.

1940 년대만 하여도 산림이 울창하여 이 산 속
깊이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나무
가 많아 들어 갈 수가 없는데다가 또 사나운 짐승이
살고 있어 잘못하다가는 호랑이에게 잡혀갈 위험이 있
었기 때문입니다.

서산군지 (瑞山郡誌) 에 보면 망일산 꼭대기에 망
일사 (望日寺) 라는 절이 있고 그 산에 제일 높은 봉
우리를 국사당이라고 하는데 그 주위에는 돌로 쌓여
진 성이 있었으나 지금은 허물어져 겨우 흔적만이 남
아 있다고 합니다.

옛날, 이 망일사 절에는 늙은 중이 살았는데 절
앞마당에는 길이 다섯치, 높이 두치가량의 철마 (쇠
로 만든 말) 가 가로 놓여 있었읍니다.

이 조그마한 철마가 왜 이 절 마당에 누어 있었는
지는 아무도 모르나 이 철마에 얹힌 재미 있는 이야

기를 들으면 철마가 절 마당에 있었던 까닭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철마는 수년 전까지만해도 있었으나 언제 왜 없어졌는지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랜 옛날, 우리고장 서해바다에서는 늘 오랑캐들이 침입하여 양민을 못살게 굴고 재물을 빼앗아 갔었습니다.

그러나 누구하나 이 오랑캐와 맞서서 싸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무섭게 생긴 오랑캐가 긴 칼을 차고 활을 메고 나타나서 쌀이며 돈이며 보물을 닥치는대로 가져갔지

만 그 앞에서 항의 한 번 못하고 두 눈만 뿔뿔뿔
뜨고 빼앗기는 신세였습니다.

“에구, 몸슬놈의 오랑캐”

“그 놈의 오랑캐를 잡아가는 귀신은 없나!”

“하루도 편하게 살 날이 있어야지”

사람들은 푸념만 할 뿐, 뽀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절에 가서 부처님
께 기도나 하세?”

“그것도 좋겠구먼 정성이 지극하면 하나님도 도우
실지 아는가!”

동네 사람들은 망일산에 있는 망일사에 가서 기도
를 드렸습니다.

“제발,오랑캐가 못오도록 막아주소서.”

“하루라도 편하게 살게 해 주소서.”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의 틈 속에 웬 젊은 청년이
부처 앞에 머리를 숙이며 간절히 애원하고 있었습니
다.

떡 벌어진 어깨며, 초롱초롱 빛나는 눈동자며, 꼭
다무진 입술은 예사 청년이 아닌듯 싶었습니다.

이 청년은 밤에도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
이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소서, 저 못된 오랑캐를 무찌르

게 하소서!”

날마다 절에와서 기도하는 이 청년의 얼굴에는 굳은 의지와 오랑캐를 꼭 무찌르겠다는 신념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막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마당에 누어 있던 철마가 부시시 일어나더니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도령, 나하고 오랑캐를 무찌를까요?”

“아니, 너는 철마가 아니더냐?”

“그럼소, 나는 철마요. 그러나 도령의 그 나라와 동네를 지키겠다는 충성심이 부처님이 감동하셔

서 나에게 명령했소. 도령을 도와 오랑캐를 무찌르라고!”

“그러나, 고맙다!”

청년은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보구나 하고 기뻐하며 철마에게 오랑캐를 무찌를 계책을 의논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오랑캐를 무찌를 수 있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니 어떻게?”

“도령은 지금부터 도리깨를 하나 만드세요!”

“도리깨? 도리깨라면 곡식을 털 때 쓰는 것이 아니더냐?”

“맞았소, 그러나 내가 만들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든 도리깨가 아니고 쇠로 만든 도리깨를 말하는 것이요.”

“도리깨를 쇠로 만들어?”

“그래요”

“그러면 되는가?”

“그 쇠도리깨만 가지면 그 도리깨를 휘둘러 적을 무찔러 버릴 수가 있으니 빨리 가서 만드세요”

“하지만 나는 타작할 때는 도리깨질을 잘 하지만 적을 무찌르는데는 좀 난처한 걸?”

“아니요, 도령은 그 도리깨만 들고 있으면 저절로 힘이 생길 것이요.”

철마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도령은 다음 날 부터 대장간에 가서 쇠로 도리깨를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주일쯤 지났을 때, 오랑캐들이 다시 쳐들어 왔습니다.

“있는대로 물건을 내 놓아라!”

“만일 거역하면 큰 봉변을 당할 것이다!”

호령호령하는 오랑캐들 앞에 동네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물건을 갖다 바쳤습니다.

이 때, 갑자기 철마를 타고 웬 청년이 쇠도리깨를 휘두르며 큰 소리를 치며 오랑캐를 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절 앞마당에 누어 있던 조그마한 철마가 갑자기 커지면서 청년을 태우고 오랑캐를 무찌르러 나타난 것입니다.

“네 이놈들 오랑캐야! 빼앗은 물건을 그대로 놓고 물러가지 못할까!”

산이 찢르릉 울리도록 호령을 한 청년이 쇠도리깨를 휘두르니 오랑캐들은 대항 한 번 못하고 비실비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만세!”



“이겼다!”

이렇게 해서 대산면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동네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 청년의 간절한 소
망은 쇠말이 살아 움직여서 청년을 도왔고 다시 평화
를 가져왔다는 이 이야기는 그저 재미로만 여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철마도 쇠도리깨도 찾아 볼 수 없지만 어찌
다 망일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 옛날 철마를 타고 쇠
도리깨를 휘두르는 늙은 청년의 모습을 보는듯 하여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 줌 바 위

* 착한 사람만 사는 동네에 바위가
오줌을 누어 가뭄을 구했다는
음암면에서 전해진 이야기

오 줌 바 위

음암면 부산리에 가면 부산리를 끼고 있는 산 중턱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바위는 흙 속에 묻히고 나무 숲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오랜 옛날에는 큰 바위가 산 중간을 덮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위는 보통 바위가 아니고 꼭 여자를 닮은 바위라서 사람들은 이 바위를 오줌바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이야기는 바위가 오줌을 누워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고도 하며 누구는 진짜 사람이 바위로 변했다고도 합니다.

이야기는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그 해는 몹시 가뭄이 들어 온 천지가 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논에는 벼가 말라 죽었고 밭에 심어논 곡식들은 모두 말라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가뭄이 이렇게도 심하담!”

“소나기 한 줄기라도 했으면!”

“우리집 샘은 다 말랐다네, 이제 먹을 물도 없으니 죽게 똥구먼!”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파란 하늘만 쳐다보며 땅이 꺼지게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요즈음 같으면야 땅에다 관정을 뚫는다, 저수지를 막는다 해서 가뭄을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 때는 하늘만 쳐다 보고 비만 내리기를 기다릴 때이니 가뭄이 들면 큰 고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하여 기우제를 지냈지만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햇볕만 쨍쨍 내리 쪼였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처럼 기우제를 지냈는데도 비가 올 기미는 보이지 않으니 이제 우리는 모두 죽는가 봐!/”

“아무래도 정성이 부족한 탓인가 봐 그러니까 매일 기우제를 지내는데두 하늘은 더 맑게 빛나지!/”
비가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지쳐서 이제는 굶어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동네 노인 한 분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긴 수염을 날리며 머리에 큰 뿔관을 쓰고 긴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 잠자는 할아버지를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시오 노인장, 잠만 자지 말고 좀 일어나시오!/”

“당신은 누구요?”

“나요 보면 모르겠소 나는 이 앞 산에 사는 산신령이오!/”

“뭐라구요, 산신령이라구요? 산신령께서 어떻게 이같이 누추한 저의집에 찾아오셨습니까?”

“내 보아하니 하도 당신들이 딱해서 찾아왔소.”

“그렇다면 산신령께서도 이 가뭄을 걱정하고 제셨군요?”

“그럼 나라고 걱정이 안되겠소 나도 이 마을 산에

서 사는 산신령인데 . ”

“그래, 저를 찾아오신 까닭은 무엇인가요 ? ”

“잘 들으시요, 내가 사는 이 산 속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소, 아마 노인장도 아실 껍니다 ”

“알다마다요, 꼭 여인네 모양을 한 그 바위가 아니든가요 ? ”

“맞았소 그 바위요 . ”

“그래서요 ? ”

“내일 그 바위를 찾아가 바위에게 기우제를 지내시오 ”

“바위에게 기우제를 지내요 ? ”

“그럼소 . ”

“그러나 바위에게 기우제를 지낸다고 비가 올까요 ? ”

“그런 염려는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오 . ”

그러면서 산신령은 온데 간데 없이 살아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인은 꿈이 하도 이상하여 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비만 온다면야 무슨 짓인들 못하리, 내 날이 밝으면 그 바위에다 기우제를 지내리라 ”

노인은 날이 밝자 며느리에게 좋은 옷을 꺼내 달래서 입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산 속에는 꽃들이 피다 말고, 목말라 애타우고 있고
소나무니 참나무도 축 늘어져 있었으며 산새들마저 노
래도 잇고 힘 없이 앉아 있었읍니다.

“예구, 딱하기도 하지 너희들도 가뭄으로 죽어가고
있구나!”

노인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바위 앞에 다달았읍니
다.

사람 몸둥이 보다 몇 배나 더 큰 바위는 꼭 여자
모양으로 얼굴 모습은 웃음을 담고 있었읍니다.

노인은 가지고 간 돼지 머리를 바위 앞에 놓고 바
위를 향하여 큰 절을 한 다음, 중얼중얼 소원을 얘기하
하였읍니다.

“바위님, 제발 비를 내리게 해 주십시오, 보श्य
많은 생명들이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바위님께서 …… !”

노인의 중얼거림은 간절한 애원이었고 기도였읍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큰절을 여나쁜 번이나 하
고 돌아서서 집으로 내려오려고 할 때였읍니다.

갑자기 바위 다리쪽이 갈라지면서 물줄기가 쿵쿵 쏙
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물, 물이다!”

“물이 나온다!”



노인은 미친 사람 모양으로 춤을 추며 젊은이 못지 않은 걸음으로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물이 나온다, 물이 나와!”

노인은 소리치자, 사람들은 노인이 산에서 내려오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지르는 것이 이상하여 혹시 노인이 미치거나 앓았나 하고 멍청이 노인만 바라보고 있었읍니다.

“아니, 저 노인이 머리가 이상해 진 것이 아닐까, 자나 깨나 물 걱정을 하더니 아무래도 이상해!”

“그도 그렇지, 누군들 이마당에 미치지 않고 견디겠나!”

그러나 노인은 산 쪽을 가리키며,

“아니, 이 사람들아 물이 나온다는데 뿔들 하고 있어 어서 삽을 가지고 나와서 물고를 막고 논에 물을 대라구!”

그제서야 사람들은 노인이 가르키는 산을 바라 보니 아니, 이게 웬 일인가! 물 줄기가 냇물처럼 흘러내리며 어느새 논배미에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은가!

“정말 물이다! 물이 흐른다!”

“아니, 저 게 웬 물이냐!”

사람들은 이 신기한 광경에 처음에는 넋이 나간 사람들 같았으나 잠시 후, 손에 손에 삽을 들고 자기집 논에 물을 대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해 농사는 그럭저럭 풍년이 들었고 다른 지방에는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이 마을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로 부산리 사람들은 가뭄 걱정 없이 지내게 되었는데 해마다 이 바위틈에서는 물이 흘러나왔고 그 흐르는 물로 땅이 패이어 골짜기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바위 아래 움푹 패여진 골짜기는 그 때 바위에서 흐르는 물로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은 부산리 사람들이 착해서 동네 사람들끼리 싸움 한 번 앓고 서로 도우며 살아 왔고 또 이 동네에는 효자가 많고 착한 사람이 많아서 복 받은 것이라고 부러워들 했습니다.

그 후로도 사람들은 해마다 농사철을 앞두고 이 바위에 와서 제를 지냈는데 바위 다리 사이에서 물이 나 나왔다 해서 바위가 오줌을 누 것이 아니냐고 그 바위 이름이 오줌바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우로 변한 처녀

* 그렇게 예쁜 처녀가 여우라니 나뭇
군은 여우에게 홀려 죽었다 .
너무 예쁜 여자는 경계해야 된다
나

여우로 변한 처녀

운산면 용현리, 이 용현리 마을을 따라 서
쪽으로 쪽 올라가다 보면 한적한
마을 어구에 자리한 조그마한 산 중턱에는 큼직한 바
위가 하나 서 있습니다.

이 바위는 사람이 꾸부정하게 서 있는 모습과 흡사
해서 사람들은 이 바위를 사람바위라고 이름을 지었
습니다.

이 바위 옆으로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길이
나 있는데 길 옆에 있는 이 바위는 곧 쓸어질 것 같
이 기울어져 있어 이 옆을 지날 때는 바위가 쓸어지
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아무 쓸모 없는 이 바위도
알고 보면 재미 있는 전설을 몸 가득히 담고 있어 소
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에, 이 용현리에 나뭇꾼이 살고 있
었습니다.

이 나뭇꾼은 효성스럽고 마음이 너그럽고 또 용감

하여 잘못된 일을 보면 기어히 바로잡고 마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이 청년에겐 어머니가 계셨는데 청년은 나무를 해다 팔아서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나뭇군은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읍니다.

“오늘은 산 속 깊이 들어가 나무를 할까”

나뭇군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산 속 깊이 들어가 나무를 하려고 나뭇지계를 벗어 놓고 잠시 쉬었습니다.

깊은 산 속에 들어오니 우거진 숲이 상쾌함을 주고 산새 노래도 흥겨워 나뭇군은 저도 모르게 콧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쯤 노래를 부르던 청년은 이제 나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무를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산 속에는 나무도 많고 또 기분도 좋아서 금방 한 짐을 해 놓고는,

“담배나 한대 피우고 갈까”

하면서 담뱃대에 불을 붙여 막 한모금을 빨아 마시려고 할 때였습니다.

“도령님, 이리좀 와 보세요!”

“이리좀 와 보시라니까요!”

사람도 보이지 않은데 앞의 숲 속에서 누군가가 나뭇군 청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뭇군은 머리가 하늘로 치솟는 것 같은 기분을 가
까스로 참고 용기를 내어,

“게 누구요. 누가 나를 불렀소?”

하고 물었지만 숲 속에서는 아무 댕꾸도 없고 나무가
지만 움직였습니다.

나뭇군은 이상히 생각하고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예쁜 처녀가 긴
머리에 붉은 땀가죽을 길게 느리고는 슬픈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 당신은 누구요?”

“.....”

“당신은 누군데 이 깊은 산 속에 혼자 있는 거요
?”

“.....”

“답답하구려, 말좀 하세요.”

그러나 처녀는 나뭇군만 뻔히 쳐다볼뿐 말이 없었습
니다.

“무슨 어려운 사정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
릴 수는 없나요?”

나뭇군이 거듭 묻자 처녀는 그 제서야 입을 열었습
니다.

“예 저에게는 지금 딱한 사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혹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지금은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요?”

“그 이유도 내일 말씀드리지요, 내일밤 보름달이 둥글게 이 산 꼭대기에 떠 오를 때, 도령께서 이 산 꼭대기로 오십시오, 그러면 그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밤 달이 뜰 때?”

“왜 싫으신가요?”

“아니요, 내일 밤, 꼭 오리다.”

나뭇군의 말을 들은 처녀는 나뭇군을 다정스럽게 쳐다보고는 산 속으로 살아젖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하늘에서 선녀라도 내려온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예쁠 수가 없어!”

나뭇군은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한 동안 멍청이 숲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뭇군은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야!”

자기가 자기를 꼬집고 아프다고 소리친 나뭇군은
기분이 웬지 흐뭇하여 콧노래를 부르며 나뭇짐을 지
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나뭇군은 하루 종일, 어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 시라도 빨리 그 처녀를 보고 싶었
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따라 날씨는 청명하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두둥실 보름달이 떠올랐습니
다.

나뭇군은 걸음을 재촉하여 산 속으로 갔습니다. 숲
속을 지날 때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조금만 더 가
면 그 예쁜 처녀가 기다린다고 생각하니 무서움은 잠시
뿐, 용기와 기쁨만이 넘쳤습니다.

나뭇군은 설레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산봉우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처녀가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닐까?”

나뭇군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무 사이에서
처녀가 나타나며,

“무엇을 그렇게 골돌히 생각하셔요?”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난 아가씨가 오지 않는다고 하고 초조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안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나와주

서서 고마와요.”

“고맙긴요, 그런데 어제는 왜 그리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나요,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어디 그 이야기나 들어 볼까요?”

그러자 처녀는 갑자기 “호호호” 하고 웃더니 정색을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라니요?”

“제가 도령을 속였던 말이에요”

“속이다니요?”

“나는 이 산에서 사는 여우랍니다. 나는 이곳 산신령에게 내가 살 좋은 자리를 하나 달라고 했더니 네가 사람으로 변하여 착하고 용감한 청년 한 사람을 이곳까지 데려오면 명당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이곳까지 유인해 온 거랍니다.”

하고 다시 “호호호” 웃는 것입니다.

순간, 나뭇꾼은 속은 것이 분하여,

“이 요망한 여우야 내가 너를 잡아 가겠다!”

호통을 치며 여우를 잡으려 하였지만 여우는 잡힐 듯 잡힐 듯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여우 뒤를 따라 아무리 쫓아갔지만 처녀 여우는 뒤를 힐끗힐끗 돌아보면서 자꾸 도망갔습니다.

그런 실강이를 몇 시간 동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산을 뱅뱅돌며 쫓아 다니던 나뭇꾼이 겨우
처녀의 치마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르릉 쿵쿵!”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온 산을 뒤흔들더니 그 처
녀는 여우로 변하여 숲 속으로 사라지고 그 나뭇꾼은
그곳에서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꾼이 죽는 순간 나뭇꾼은 바위로 변
한 것입니다. 처녀의 치마자락을 잡으려고 꾸부린 그
모습 그대로 꾸부정한 바위가 된 그 바위를 사람들은
사람바위(人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여우에게 홀리면 죽는대여!”

“암, 여우에게 홀리면 큰일나지!”

“그 여우가 귀신이라는 구먼. 나뭇군도 그 여우
귀신에게 녀을 잃고 죽은 거여”

“너희들도 산중에서 이쁜 여자 만나면 작대기로 두
드려 패라, 홀리면 나뭇군처럼 되는 게여!”

나뭇군의 일로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예쁜 여자는 요
사스러우니 조심하라고까지 훈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산신령이 여우에게 주었다는 명당
자리가 지금도 산 속 어디엔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 바위와 쥐바위

* 남을 속이고 나쁜 짓을 하면 자기
도 남에게 속고 망하게 된다는 백
배교 이야기

고양이 바위와 쥐바위

운산에서 북쪽으로 용장천을 거슬러 한 5 km
쯤 올라가면 높은 산을 끼고 양 옆으로 넓은 분지가 나타납니다. 이곳이 바로 보원사지인데 이곳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보물 102호에서 106호까지 있습니다.

보원사지에는 위에서 말한 보물 102호가 되는 보원사지석조, 103호가 되는 보원사지 5층석탑 그리고 105호가 되는 보원사지법인국사보승탑이 있고 106호가 되는 역시 보원사지법인국사보승비가 있어 이곳이 우리고장의 문화 유산이 얼마나 많은가를 말하여 주기도 합니다.

먼 옛날, 이곳에는 시내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절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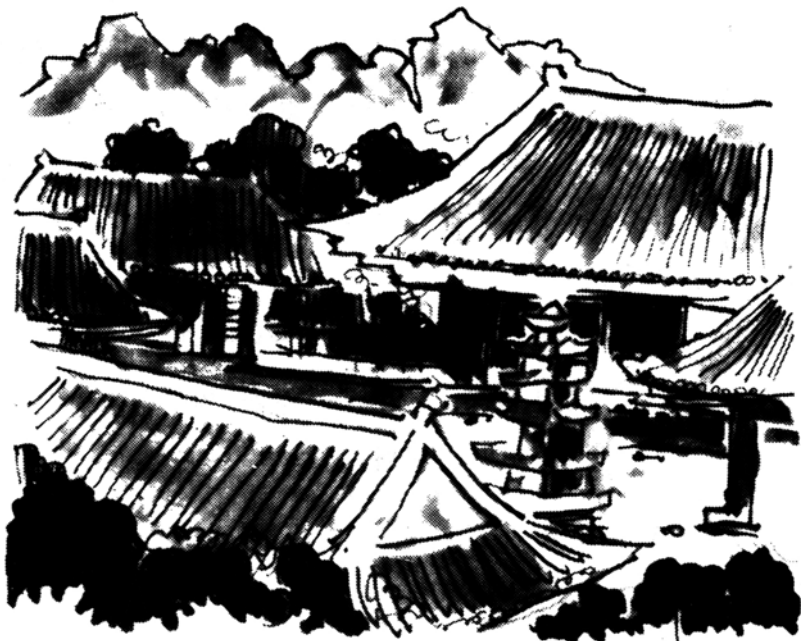
시내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가 고양이 모양과 비슷하다 해서 고양이 바위라 불렀고 이 고양이 바위 옆에 절이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 바위를 용바위, 호랑이바위, 개바위 소바위라고도 불렀다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냥

고양이 바위로 부르겠습니다.

다음, 동쪽으로는 쥐모양과 비슷한 쥐바위가 있었는데 이 쥐바위 근처에도 절이 하나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두 절은 교리(敎理)가 서로 달랐읍니다. 쥐바위가 있는 절은 이름을 백배교(百倍敎)라고 하는데 날이 갈수록 번창하여 수많은 신도가 있는가 하면 고양이 바위에 있는 절은 점점 쇠퇴하여져서 몇 사람의 스님만이 있었읍니다.



쥐바위 절에서 식사 때가 되면 쌀을 씻는 쌀뜨물이 뿌옇게 흘러 내려오는데 신도의 수가 삼천명이나

된다는 소문이 고양이하위 절에까지 들렸습니다.

“거 참, 이상하다. 우리 고양이하위 절은 이처럼 약한데 쥐바위절은 어째서 저렇게 흥왕할까?”

“글쎄올씨다. 쥐보다는 고양이가 힘이 센데 어째서 고양이하위 절이 쥐바위 절보다 못사니 참으로 이상합니다.”

고양이하위 절에서는 스님들이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고 있지만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쥐바위절 백배교는 나날이 왕성해 갔습니다. 수천 명의 신도를 거느린 교주는 임금님처럼 행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쁜짓은 다 하였습니다.

신도들의 재물을 있는 대로 빼앗아 그 돈으로 궁궐처럼 화려한 집을 짓고 부하를 거느리고 명명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하위 스님들은 회의를 갖고 쥐바위절 백배교가 어째서 저렇게 잘 되는지 그 이유를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도 선듯 그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으니 이 지방 산세를 잘 아는 지관을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그게 좋겠습니다. 당장 서울에 가서 훌륭한 지관을 모셔다가 이곳 산세를 연구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여 고양이바위 절에서는 서울에 가서 유명한 지관을 불러다가 그곳 산세를 보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지관은 한참 동안 그 지방을 두루 살피고 나더니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고양이바위 절이 안되는 이유가 있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이곳에 있는 바위는 고양이 바위가 아닙니까? 그리고 저쪽에는 쥐바위가 아닌가요?”

“그래서요?”

“그런데 고양이바위와 쥐바위 사이에 큰 냇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러니 고양이가 쥐를 보고도 냇물에 막혀 건너가지 못하니 배가 고풀수 밖에 없고 반대로 쥐바위 절은 날로 왕성하는 것이라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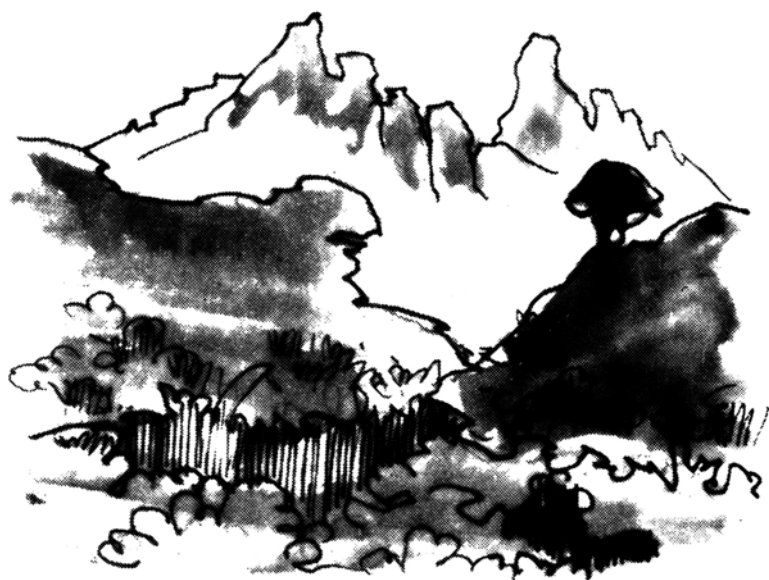
“이곳과 저쪽 쥐바위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으면 됩니다.”

“다리를 놓으면 우리절은 흥하고 저쪽 절은 망하

게 되나요? ”

“그렇습니다 . ”

“그런데 다리 놓는 일이 문제군요. 저쪽 교주가 다리 놓는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니 쉽게 다리를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저쪽 교주를 설득해야 합니다 . ”

“그러나 누가 그 나쁜 교주를 설득할 수 있겠어요 ”

“내가 말지요 . ”

“지관님이요? ”

“그렇습니다 . ”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두고 보십시오 . ”

장담을 한 지관은 다음 날 백배교의 교주를 찾아갔습니다 . 교주는 거만한 얼굴로 지관을 쳐다보더니 투명스럽게 ,

“어디서 왔소 ? ”

하고 물었습니다.

“예 저는 지나가던 사람인데 이곳 지리를 보니 이곳에서 장차 임금님이 나오시겠습니다. 그런데 교주님을 뵈오니 교주님 얼굴에 용안이 어리어 앞으로 임금님이 되실 분이 분명합니다. 저를 부하로 써주십시오. 그리하면 충성을 다하여 교주님을 섬기겠습니다”하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교주는 자기가 임금이 될 상이라는 말에 신이나서 지관을 안으로 들어오라 하고 맛 있는 음식으로 대접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지관은 교주에게 신임을 얻기 위하여 갖은 수단을 써서 교주의 심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관은 교주에게 말했습니다.

“교주님 제가 이곳 산세를 살펴보니 임금이 날 자리가 분명하니 산 위에 올라가 산세를 살펴봄이 어떻하실는지요 ? ”

그랬더니 교주는 즉석에서 좋다고 하여 두 사람은 산 위에 올라 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산세를 설명할 터이니 교주님은
은 잘 들으시요.”

“그래 어서 말하라, 이곳에서 과연 임금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보십시오 저기 교주님이 제신곳이 상
왕봉(上王峰)이니 이곳에서 임금이 나온다면 교주
님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런가, 그리고 다음은?”

“그리고 저기 내려다 보이는 심신산꼭을 보십시오
(지금의 군왕굴을 가르키며) 저기가 바로 임금이
크게 다스릴 땅이요.”

“그리고는?”

“저기 좀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고양이바위는 용
바위도 될 수 있고 호랑이바위도 될 수 있으니 장
차 이곳이 크게 이름이 떨칠 곳이옵니다.”

“다음은 또 어딘고?”

교주는 금방이라도 임금이 된 듯이 말소리도 임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물었습니다.

지관은 다시 동편의 와우리 산봉우리를 가르키며,

“저기를 보십시오. 저 산봉우리는 꼭 암소가 누
워 잠자고 있는 형상이 저기 보이는 모든 바위
는 교주님을 향하여 있으니 이곳 쥐바위와 저쪽 고양이

이바위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으면 지금보다 수백배 이 백배교가 번창할 것이며 교주님께서도 임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교주께서는 군왕굴에 궁궐을 지으면 곧 그곳이 임금님이 계시는 궁전이 될 것입니다.”

지관은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단숨에 여기까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떤 지세가 있는고? 들어 보니 참으로 이곳이 훌륭한 곳이구나!”

교주의 말을 들은 지관은 이제 됐구나 싶어 다시 신이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지관은 지금의 원평리를 손으로 가르키며,

“저기를 보십시오, 저곳은 다른 나라 들이 교주님께 조회를 올리는 원벌입니다. 그리고 저기 덕산을 보십시오. 저 덕산의 산은 교주님을 송덕하는 덕산봉(德山峰)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오, 그렇군, 그럼 다음을 또 얘기해 봐라!”

교주의 말에 지관은 신이 더 났습니다. 자기의 말을 믿고 신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제 고양이 바위와 쥐바위를 연결하는 다리 놓는 일은 쉽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관은 다시 예산을 가르키며 말

하였습니다.

“교주님 저기 보십시오, 저 예산은 예의가 바른 곳이라 교주님께 예의바른 행동을 할 것이며 또 저 해미를 보십시오 저 해미 바다에다 해군을 훈련시킨다면 어떤 나라에서도 쳐들어 오지 못할 것입니다./”

“해군을 훈련시킨다?”

“예 그렇습니다.”

“오, 참 멋진 일이다./”

교주는 점점 신이나서 다음 이야기를 재촉하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딘고?”

“예 저기 저 서산의 뒷산(옥녀봉)을 보십시오 얼마나 상서로운 산인가요 저 산의 정기가 교주님께 모조리 안겨오면 교주님은 더 크게 되고 장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운산을 보십시오. 저 운산에서는 아름다운 경사만 있을 것이니 교주님의 앞날에도 경사로운 일만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이곳이 좋은 곳인줄은 몰랐구나, 내가 이곳에 백배교를 세운 것이 참 잘하였구나.”

“그러나 교주님.”

“또 무엇인가?”

지관은 정색을 하고 말하였습니다.

“교주님께서 왕이 되시기 위하여 한가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고?”

“여기 있는 쥐바위와 저쪽 고양이바위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주께서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다리를 놓도록 하자 내가 왕이 된다는데 무슨 일은 못할까.”



그 날부터 교주는 인부 수백명을 동원하여 고양이바위와 쥐바위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워낙, 여러 사람이 한 공사이니 금방 끝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교주는 다리가 완공되자 직접 나와서 다리가 완공된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고양이 바위에서 독한 독기가 구름처럼 일어나더니 가야산을 덮고 운산까지 덮으니 그 때부터 구름이 산을 덮었다 해서 운산이란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독기가 가득히 덮혀오자 갑자기 그 독기를 맡은 교주는 큰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별 조화도 다 있구먼!”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형국이야 전에는 다리가 없어 독기가 쥐바위에 덮지 못했지만 저 다리가 독기를 건느게 하는 다리가 됐지 뭐가”

“저 백배교 교주는 죽어도 싸,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빼앗고 또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했으니 벌을 받는 것이지!”

사람들의 말대로 백배교는 날이 갈수록 점점 망하였고 대신 고양이바위 절은 날이 갈수록 점점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양이 바위 절도 점점 망하기 시작하였는데 사람들은 고양이가 쥐를 다 잡

☆ 고양이 바위와 쥐바위 ☆

아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고양이바위 절도 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지금은 보원사지에 여러가지 문화재만이 그 옛날을 말해주는듯 묵묵히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거북아가씨

* 무슨 일이든지 침착하고 성실하게
여유를 가지고 하여야 하며 성급하
게 서두르면 그릇된다는 안면을 정
당리에 전해오는 이야기

거북아가씨

옛날 안면읍 정당리에 한 청년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청년은 낚시질을 하여 어머니를 봉양했는데 효성이 지극하여 효자라고 불렸습니다.

어느 해 겨울, 청년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을 얻어 앓아 눕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갖은 약을 다 구해다 드렸지만 어머니의 병은 점점 더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놓고 조기가 먹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얘야, 내가 여러 날을 앓고 있으니 네가 고생이 많구나.”

“아니어요 어머니, 어서 병이나 나으세요!”

“그런데 얘야, 갑자기 조기가 먹고 싶구나 그 조기를 먹으면 병이 나을 것 같아, 하지만 이 추운 겨울에 조기가 어디 있겠니.”

“제가 한 번 구해 볼 게요.”

청년은 이렇게 말하고 낚싯대를 들고 바닷가로 나

왔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 바다는 파도만 거세게 일고 조기가 잡힐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낚싯대를 물에 담그고 행여 고기가 물릴까 하고 종일 기다리며 추위에 떨었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부디, 한 마리만 잡혔으면………….”

“하지만, 이 추운 겨울에………….”

청년은 중얼거리며 낚싯대를 거두려고 하는데 무엇이 묵직하게 매어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고기가 잡혔나?”

청년은 조심스럽게 낚싯줄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고기 대신 큼직한 거북이 한 마리가 끌려 올라왔습니다.

“젠장, 고기는 안물리고 거북이가 웬 거람!”

청년은 그렇게 말하고 거북이를 놓아줄까 하다가 거북이가 약이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고기 대신 거북이를 어머니께 드려야겠다고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고기는 안물리고 거북이만 한 마리 물려서 잡아왔습니다. 거북이가 약이 된다니 어머니 거북이를 고와 드릴까요?”

“아니다, 거북이는 함부로 죽이면 안돼 그냥 갖다 놓아주어라”



어머니의 말씀에 청년은 거북이를 죽이지 않고 물항아리에 넣어 기르려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청년은 낚싯대를 들고 바닷가로 또 나갔는데 그 날은 다행히 고기가 잡혀 헐레벌덕 뛰어와 어머니께 꿔려 드리려고 솔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밥을 지어 놓았는지 하얀 쌀밥에 조기를 끓여 맛있게 해 놓고 상 위에는 여러가지 반찬을 가득하게 차려 놓았습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밥을 지어 놓았을까, 그것도 진수성찬이네!?”

청년은 이상이 여기고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어머니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어머니, 누가 왔다 갔나요?”

“아니다, 왔다 간 사람 없다.”

“그럼 누가 이처럼 음식을 맛 있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글쎄다, 이상한 일로구나!”

어머니와 청년은 이상히 생각하면서도 밥과 고기를 맛 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날도 청년은 낚시를 하러 갔고 갔다와서 보면 으레히 밥을 맛 있게 해 놓아 먹곤 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 생활을 한 청년은 어느날은 누가 밥을 지어 놓는가 하고 망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낚시를 하러 가겠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낚시질을 가는 척하다가 되돌아 와서는 숨어서 망을 보았습니다.

어느덧 점심 때가 가까와 오자 거북이를 넣어 둔 물항아리에서 예쁜 처녀가 나오더니 팔을 걷고 쌀을 씻어 밥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 참 예쁘구나!”

“그럼 거북이가 처녀로 변했다는 말인가?”

청년은 이 기막힌 사실에 어리둥절하다가 슬그머니

일어나 낚시질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낚시질은 전성이고 눈 앞에서는 그 예쁜 아가씨의 모습만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렇게 예쁜 여자도 있나!”

“그 여자는 누굴까?”

“내 아내가 됐으면!”

청년의 생각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다음 날도 청년은 낚시질을 가는 척하다가 또 숨어서 엿보았습니다. 물항아리에서는 어김 없이 예쁜 처녀가 나오더니 밥을 하려고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청년은 더 참지 못하고 부엌으로 뛰어 들어가 처녀의 손을 덥석 쥐고는

“저의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슬픈 얼굴을 하더니 눈물까지 흘리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만 참았더라면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됐을 것이요, 그런데 그 때가 되기 전에 당신이 성급하게 내 몸에 손을 댄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져야 합니다. 며칠만 참지 왜 그리 성급하게 나를 만지셨소!”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냥 살면 되지 않습니까?”

청년은 후회가 됐지만 이 예쁜 처녀를 노치기 싫어서 애원하였습니다.

“안됩니다. 나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야 한답니다!”

말을 마친 처녀는 그 자리에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땅을 치며 울었으나 벌써 처녀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 청년은 매일 낚싯대를 메고 거북이를 낚던 낚시터에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든지 차분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릇치게 된다는 교훈만이 남겨 놓았습니다.

지금도 안면읍 정당리의 동쪽 앞바다를 용해(龍海)라고 부르는데 이 바다에서 거북이가 용이 됐다는데서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효 자 바 위

* 효자는 짐승도 알아 본다는 성연면
말우리재에 얹힌 이야기

효 자 바 위

성연면 에는 “말우리재”라는 산이 있습니다. 성연면 소재지에서 동남쪽으로 시오리를 가면 조그마한 산이 있고 이산을 넘는 고개를 “말우리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 고개를 말우리재라고 불러오는지 그곳에는 이런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부터 오랜 옛날, 누구의 말에는 고려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방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벼슬은 아니지만 시골에서 자란 청년이 관원(官員)이 됐으니 경사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관원은 평소 효성이 지극하여 동네 사람들로 부터 효자라는 칭찬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시골에 부모님을 두고 서울로 가기가 몹시 싫었지만 나라의 일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도 아버님 어머님 강녕하시기 바랍니다.”

“오냐, 여기 걱정은 말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라.”

관원은 서울에 와서 열심히 맡은 일을 하였습니다. 나라의 일이라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성심껏 일하였습니다.

효자 집안에 충신이 난다는 말처럼 이 관원은 충성스럽게 나라의 일을 보았습니다.

관원이 부모의 곁을 떠나 서울에서 관원생활을 몇 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 사람이 말을 몰아 급히 오더니 관원 앞에 섰습니다.

“급한 전갈입니다!”

“급한 전갈이라면 ...?”

관원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다구쳐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위독하십니다.”

“어머니께서?”

“그렇습니다.”

관원은 허둥지둥 말을 타고 시골로 떠났습니다. 먼 길을 쉬지도 않고 밤새 달려 성연면 가까이 다달았습니다. 말도 사람도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자 빨리 가자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 한다!”

관원은 말에게 중얼거리며 더 빨리 말을 물었습니다. 관원이 이 고개에 당도하여 넘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날은 어둡고 말은 지쳐 있던 탓인지 길을 잘못 들어 관원은 말과 함께 낭떨어지에 굴러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낭떨어지에 떨어진 말은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나 죽지는 않았지만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여 밤낮 울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울기를 일주일, 결국 말도 지쳐 주인 곁에서 나란히 죽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말 울음소리를 이상하게 생각한 동네 사람들이 낭떨어지 밑에 찾아왔을 때는 이미 관원도 말도 죽은 뒤였습니다.

“아니 이젠 관원이 아닌가?”

“그렇구먼,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갈을 듣고 오다가 이런 변을 당했구먼 쫓쫓 가겠어라!”

“평소에 효성이 지극하더니 어머니도 못보고 이렇게 죽어 갔구먼!”

“이 말좀 보게 주인하고 나란히 죽었네 그려!”

사람들은 관원을 어머니 묘 근처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개를 말이 울었다해서 「말우리재」라고 부르게 됐는데 그 근처 동네 이름도 말명리, 말우리, 낙우리, 마루터 등으로 말과 관계된 이름을 지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우리재가 있는 예덕리도 예(禮)를 중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그 효성이 지극한 관원의 효성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덕리라고 지었다고도 합니다.

한편 관원의 묘가 자기 어머니 묘 근처에 쓰여진

다음 날, 어머니 묘 앞에는 난데 없는 바위가 하나 우뚝 섰습니다.

그 모양이 꼭 우는 사람 모습과 같아 그 효자 관원이 바위로 변하여 울고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묘도 바위도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없지만 이 말우리재를 넘어가노라면 그 바위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는듯 합니다.

학의 날개로 덮은 스님

* 큰 사람은 짐승도 알아보는 법, 무학대사를 학의 날개로 보호했다는 신비로운 이야기

학의 날개로 덮은 스님

오랜 옛날

그 날은 날씨도 몹씨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온 땅이 흰눈으로 덮혀 있고 바람마져 온갖 것을 다 얼어붙게 하려는듯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인지면 모월리, 바닷바람은 세차게 모월리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때 초라하게 차려 입은 어느 젊은 부인이 군사들의 호송을 받으며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몹씨 지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부인의 몸을 보니 배가 몹씨 불러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아기를 낳을 것 같은 몸이었습니다.

“어서 갑시다, 이렇게 느린 걸음으로 가다가는 현감까지 갈려면 어둡겠소.”

“그러나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몸이 무거우니 잘 걷지 못하겠소 좀 천천히 갑시다.”

“부인도 참 안 됐소, 남편이 나라의 돈을 축내고 숨어 있으니 어찌겠소. 부인이 대신 감옥에 가야



하오.”

“하지만 그 양반이 일부러 나라의 돈을 허비했나
요, 아마 어떤 이유가 있을게요!”

“그 이야기는 서산 현감에 가서 말하시요 자 빨리
갑시다”

그러고 보니 이 부인의 남편은 나라의 돈을 쓰고
빛을 갚을길 없자 숨어 있었고 그 대신 부인이 끌려가
는 모양이었습니다.

일행이 얼마쯤 갔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면
모월리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부인이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씻으며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사령님, 아무래도 아기를 낳을 것 같소
좀 쉬었다 갑시다!”

“그것 참, 이런 산 중에서 집도 없는데 아기는 어
떻게 낳아요?”

“그러나 어찌겠습니까, 아기가 나올 시간이 됐나
봅시다.”

“이거 야단 났군!”

부인을 호송하던 사령은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살펴
보았지만 아기를 낳을만한 곳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
다.

그때, 사령의 눈에 한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산천
모두 눈으로 덮혀 있는데 그곳만은 눈이 없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도 있다. 모두 눈으로 덮혀 있는데
이곳만은 눈이 없으니 이곳에라도 아이를 낳도록 해
야지!”

부인은 그 눈 없는 땅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
나 죄인으로 끌려가는 몸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
었습니다.

아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부인은 울면서 입었던 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주고
는 현감으로 끌려갔습니다. 같이 가는 사령도 참아
안됐던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를 이곳에 버리면 얼어 죽고 말텐데…….”

부인은 울면서 울면서 몇 번이나 아기 있는 곳을 돌아보며 걸었습니다.

현감에 오니 원님은 끌려온 부인이 너무 피로해 있는 것을 보고 사령에게 물었습니다.

“저 부인이 어디 아픈 게 아니냐? 몹시 피로해 보이는 구나?”

“그런 게 아니오라 …!”

“그런 게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나?”

“예, 실은 오다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피로한줄 아뢰오.”

“뭣이, 오는 도중에 아기를 낳았다고? 그럼 그 아기는 어찌했는고?”

“예, 그냥 버리고 왔습니다.”

“뭇라구? 버렸다고? 어디에다?”

“예, 산 속에다 버렸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아무리 죄인이라 해도 어찌 인간의 도리에 벗어나는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빨리 가서 아이를 구해 오도록 해라!”

원님의 명령을 받은 사령들이 아이가 난 곳으로 가 보니 이제 웬 일입니까!

아기가 있어야 할 곳에 아기는 보이지 않고 웬 커다

란 학 한마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아기는 어디에 있담?”

사령이 걱정하고 있는데 학의 날개 사이로 아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가 !”

사령은 이 기이한 일에 한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다시 원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뛰어갔습니다.

“아뢰오!”

“벌써 왔느냐 그런데 아기는 어찌하고 혼자 돌아왔느냐?”

“예, 그게 이렇게 됐사옵니다!”

“이렇게 되다니?”

“아기가 있는 곳에 가 보니 큰 학 한마리가 날개로 아기를 덮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아기는 죽었느냐, 살아 있었느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왔어요.”

“그래, 그럼 다시 가 보자!”

원님과 사령들이 다시 아기 있는 곳에 와 보니 학은 간곳 없고 아기는 아직도 학의 체온이 식지 않은채 끈히 잠들어 있었어요.

“기이한 일이지고!”

원님은 이 신기한 일에 감탄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은 예사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아기도 보통 아이가 아니야 어서 아이를 어머니께 돌려 주고 아기도 어머니도 잘 보살펴 주도록 하여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원님은 아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기 이름은 학이 살려 주었으니 「무학」이라고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학이요? 그럼 그렇게 하지요!”

이 아기가 바로 이태조를 도와 조선조 창업에 큰 일을 한 무학대사였습니다.

뒤에 사람들은 무학 스님이 났던 곳을 「학돌재」라고 불렀습니다.

이곳 간월도와 황도 등은 무학스님이 탄생하던 당시에는 스님들에게 임금님이 내려 주시는 땅이 많아서 스님들이 이 곳에서 불도를 닦으며 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학의 나이 2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무학의 집에 스님이 한 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 시주하시지요, 나무아비타불 관세음 보살!”

그때, 무학이 시주할 쌀을 들고 스님 앞에 왔습니다. 스님은 무학을 찬찬히 살펴 보다가,

“출가하여 스님이 되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텐데 나를 따라 가려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무학은 그 스님을 따라 갔습니다. 그 때가 공민왕 30년쯤 되던 해였고 그 스님은 이름은 나옹스님이었습니다.

무학스님은 간월암에 굴을 파고 그곳에서 열심히 도를 닦던 중, 달을 보고 도를 크게 깨달으니 나옹스님은 더 배울 것이 없다고 하며 법호를 이름 그대

로 무학(舞鶴)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이제 너는 내게서 더 배울 것이 없느니라!”

“아닙니다, 스님 아직도 부족하옵니다!”

“아니야 이제 너는 큰 스님이 된거야 내가 법호를 지어줄터이니 이제부터 무학(舞鶴)이라고 부르도록 하여라!”

“잘 알겠습니다.”

무학스님은 간월도에 암자를 지어 많은 스님들에게 수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 암자가 다 허물어진 것을 지금으로부터 50여년 전 송 만공 스님이라는 분이 무학스님의 뜻을 받들어 다시 크게 암자를 세웠습니다.

무학스님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전해오지만 우리고장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기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큰 인물이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안다는 옛 말이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령과 스님

* 명당자리를 알아내기 위하여 산신령
이 더꺼머리 총각으로 변했다는 이
야기

신령과 스님

지금 으로부터 2백년 전의 일이다. 그러니까
조선조시대의 이야기가 된다.

부석면에 있는 도비산에는 부석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절에 풍수에 통달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풍수(風水)란 지술이라고도 하는데 지리를 살피어
뒷자리나 집터 따위를 골라, 좋고 나쁜 곳을 알아내는
술법으로 조선시대에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이 풍수에 통달한 스님이 어느 날 서울을 가기 위
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마침 봄날이라 스님은 들길의 꽃을 보며 산에서 우
는 뻐꾸기의 노래를 벗삼아 터덕터덕 걸어가고 있었
습니다.

스님은 바쁜 걸음으로 한티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한티고개란 지금의 해미와 덕산 사이에 있는 고개입
니다.

스님이 이 고개를 넘고 있는데 저만치 뒤에서 어떤
더꺼머리 총각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총각의 차림새로 보아 가난한 집안의 총각 같았습니다. 총각은 스님 곁으로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스님은 어디까지 가십니까?”

“나는 서울까지 가오.”

“서울까지 가시려면 고생하시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머니 이곳에서 좀 쉬었다 가시지요?” 하고 쉬어 가기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마침 다리도 아프고 산 속에 예쁜 꽃이며 산새소리가 좋아 쉬어가고 싶던 참인데 총각이 쉬어가자고 하니 반가워서,

“좋소, 나도 마침 쉬고 싶었던 참이요.”

하면서 잔디를 골라 털석 앉았습니다.

스님이 자리에 앉자 총각이 다시 말하였습니다.

“스님께서는 풍수에 능하셔서 땅을 보면 어디가 뭇
자리가 좋고 나쁜지 다 아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총각이 아셨소?”

“왜 모르겠습니까, 고명하신 스님의 이야기는 모두
가 다 알지요.”

“그렇던가요?”

“그러므로, 그래서 애긴데 제가 스님께 꼭 부탁드
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다름이 아니옵고 저의 아버지께서 며칠 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참 안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뭇자리를 잡지 못하여 장례를 모
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오니 스님께서 묘자리
하나 골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각은 어느새 눈에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는 것이었
습니다.

“그것참 안됐군요. 그럼 어디 한 번 산에 올라가
봅시다.”

스님은 총각의 효성에 감동하여 총각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가야산에 올라가 이리 저리 다니다가 스님이 발을 멈추며 말하였습니다.

“여기가 참 좋은 자리요!”

“어떻게 좋습니까?”

“이곳에 산소를 쓰면 자손이 끊기지 않고 또 부자가 될 수 있지!”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갑시다.”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떠꺼머니총각은 웬지 묘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시무룩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총각은 다시 스님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왜 그러시오?”

“이왕에 여기까지 오셨으니 묘자리 한 곳만 더 보아 주십시오?”

“아니 금방 아버지 산소를 쓰면 좋은 자리를 잡아 주지 않았소?”

“그러나,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소인같은 사람도 벼슬을 하고 싶은데 소인이 과

거에 급제할 수 있는 산소자리를 하나 골라 주십시오 . ”

“총각이 과거에 급제할 수 있는 자리를 ? ”

“예, 스님 ! ”

“그런 자리가 있을까 ? ”

“한 번 찾아 봐 주십시오 . ”

“거 참, 길길이 바쁜데 어떻게 한다지 . ”

“스님, 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 ”

그러면서 총각은 땅 위에 넙죽이 엎드려 큰 절을 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이 총각을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기로 하고,



“종소 다시 가 봅시다, 그러나 이번이 마지막이오?”

“예,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가야산에 올라갔습니다. 스님은 좋은 산소 자리를 찾아 보느라고 이리 저리 다니고 있었고 총각은 스님 뒤를 부지런히 따라 다녔습니다. 두 사람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산을 헤매느라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웁지, 여기로구나!”

“여기라니요?”

“우리가 선 땅이요. 이땅이 명당 자리요!”

“그렇습니까, 참으로 고맙습니다!”

총각은 그 자리를 표시하느라고 어디서 큰 돌을 가져오더니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아까 자손이 많이 나고 부자가 된다면 자리에서도 똑 같은 표시를 하더니 이번에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됐지요, 그럼 내려 갈까요 총각?”

“예, 그런데 이곳에 산소를 쓰면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도 하게 됩니까?”

“그럼소, 아무리 못해도 과거에 급제하고 원님 한 자리는 틀림 없이 할 수 있다오.”

“.....”

“자, 내려 가야지?”

스님은 앞장 서서 부지런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서
울까지 가려면 아직도 아득한데 중간에 시간을 너무
빼앗겨 허둥지둥 내려오는 것입니다.

총각도 그 뒤를 따라오지만 총각의 얼굴에는 아까
처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골이 난 사람처럼 따라
오다가 다시 스님의 옷자락을 잡더니 땅에 뱀죽이 꿇
어 앉아 절을 하고는 어디서 났는지 술병을 품 속에
서 꺼내어 술잔에 술을 가득히 따른 후, 스님에게 주
면서 또 간청하는 것입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산소자리 두 군
데나 찾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만 한 번 만
더 보아 주십시오?”

“아니, 이 사람이 누구를 놀리는 거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니까, 안돼요, 나
는 지금 갈길을 바쁘오.”

스님은 약간 화가 났는지 통명스럽게 말하고 그냥
갈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한사코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술을 권하면서 한 번만 더 보아 달
라고 매어달렸습니다.

몇 시간을 산을 헤매였던 탓으로 스님도 지금 배가
고픈데 향긋한 술냄새가 코를 간지럽히니 더욱 더 배

가 고맙습니다. 스님은 슬그머니 주저앉아 못이기는체 술을 받아 마시고는,

“총각, 총각은 참으로 끈질긴 사람이오 그럼 이번에는 무슨 묘자리를 보아 줄까?”

“아이구 스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집 안에서 영의정(領議政)이 나올 명당 하나 골라주십시오?”

“영의정이 나올 자리를?”

“예 스님!/”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이 산에는 그런 좋은 자리가 없을 것 같소.”

“아닙니다. 스님은 천하의 명사이신데 잘 보시면 그런 자리가 있을 것이오니 좀 보아 주십시오!/”

“하는 수 없지 내 술도 얻어 먹었으니 그냥 갈 수야 있나 어디 가봅시다.”

“스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옵니다!/”

총각은 다시 큰 절을 하고는 스님의 뒤를 따라 산으로 올라 갔습니다.

얼마를 다녔는지 모릅니다. 스님도 총각도 지쳐 있었읍니다. 어느덧 해가 한나절이 훨씬 넘었읍니다. 저만치 보이는 논에서는 농사일을 하느라고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읍니다. 산속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고 뻗꾸기 노래는 오늘 따라 더 신나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풍경에는 아랑곳없이 그저 땅만 쳐다보며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산 중턱을 헤매일 때, 스님이 벼란간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다!/ 여기야!/ ”

“예, 여깁니까?”

“그래 여기야.”

“여기에 묘을 쓰면 정승이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틀림 없어!/ ”

“아이구 스님 감사합니다.”

총각은 펄듯이 기뻐하며 다시 큰 돌을 가져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시무룩한 표정이 아니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정승이 나온다는 자리기 때문에 만족한 모양입니다.

“자 그럼, 내려가세 나는 갈 길이 바빠.”

“잠깐만!/ ”

“이번엔 또 무슨 일인가?”

“내 당신의 버릇을 고쳐 놓아야 하겠소.”

“뭐라구?”

갑자기 더꺼머리 총각은 두 눈을 부라리더니 스님에게 달려들어 스님의 목살을 잡고는 주먹으로 스님의 얼굴을 때려 땅 바닥에 쓸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냐?”

“당신의 버릇을 고쳐 놓아야 겠소.”

“이놈아 내가 잘못된게 뭐야?”

“잘못한 것은 없지만 그 명당 자리를 잘 고르는 버릇을 고쳐 놓아야 내 맘이 편할 것 같소”

“아니 이놈이 은혜를 주먹으로 갚을 셈이냐?”

“이 늙은이가 아직도 정신이 덜 났군 한 번 더 맞아 보아야 정신이 날 모양이야!”



덕꺼머리 총각은 다시 스님을 번쩍 들어 내동맹이 치며 큰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늙은 중아, 잘 들어라. 다시는 이 가야산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만일 이 근처에 얼씬거릴 때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더니 이 총각은 온데 간데 없이 살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쁘게 서을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묘자리를 보아 달래서 세 번씩이나 보아주었더니 그 댓가가 매를 맞고 쓰러졌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님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덕꺼머리 총각은 간곳 없고 스님의 코에서는 코피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그 총각이 사람이 아니던가?”

“사람이 아니면 이 가야산의 산신령이란 말인가?”

스님은 아픈 것도 잊고 그 총각의 신분이 궁금하여 고개를 갸웃뚱거리기만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산신령이야, 그렇다면 내 다시는 이 가야산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아야지!”

스님은 가던 길을 터덕터덕 걸었습니다. 어느덧 해

가 저녁무렵을 가리키고 있었읍니다.

그 뒤 사람들은 그 떠꺼머리 총각은 가야산 산신령
이며 그 명당자리에 대원군(大院君)의 아버지가 되
는 남정군(南廷君)의 산소터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
기지 않으려고, 스님을 다시는 가야산에 오지 못하도
록 엄포를 놓은 것이라고 믿었읍니다. 만일 그 스님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명당 자리를
보여주면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후 스님은 가야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화꽃이 곱더이다

* 시골에서 태어난 정순왕후가 임금과
백성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 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목화꽃이 곱더이다

때는 1745년 음암면 유제리 한적한 외딴집
에 금방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
읍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로 보아 남자가 아닌 여자 아기가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가냘프면
서도 카랑카랑하였습니다.

이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리는 금방 온 동네
에 퍼졌습니다.

“김 한구씨가 첫 딸을 낳았다는구먼”

“그래, 첫 딸은 살림밀천이라는데 살림밀천을 낳았
구먼!”

그러나 김 한구씨가 여자 아기를 낳았다는 것이 이
상한 것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집에는 하
늘에서 부터 환한 빛이 비추어 오더니 온 집을 감싸
고 이름모를 새들이 날아와 아기가 태어난 것을 축하
해 주었다는 것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온 동네에 퍼져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소리로

이야기를 삼고 신기해 하였습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어!”

“남자 아기라면 장군감이 태어났다는 징조인데 여자 아기가 태어났으니 장차 저 아기가 무엇이 될는지?”

“어쨌거나 보통 일이 아니구먼, 아기가 태어날 때 집안에 빛이 비추다니 이전 예사일이 아닌 거여!”

“암, 큰 인물이 될지 모르지!”

김 한구 씨의 첫 딸이 태어날 때, 이상한 빛이 집안에 비추었다는 소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동네에서 동네로 멀리 멀리 퍼졌습니다.



김 한구 역시 이 이상한 일에 기쁘면서도 장차 이 아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감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고 총명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커갔습니다.

초롱초롱 빛나는 눈, 둥글고 예쁜 얼굴, 지나가던 사람까지 아기를 보고는 한 번 안아보고 갈만큼 아기는 예쁘게 커갔습니다.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본 아버지 김 한구씨는 생각하였습니다.

“서울로 가자, 서울로 가서 아기에게 공부도 시키고 또 나도 시골에 사는 것 보다 서울에 가서 큰 일을 한 번 해보리라!”

김 한구씨는 단단히 결심을 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김 한구씨는 사도세자의 장인이 되는 홍 봉한씨 집에서 살면서 글씨를 써 주고 나날을 보냈습니다.

원래, 김 한구씨는 글씨를 잘 썼기 때문에 홍 봉한씨에게 신임을 얻고 대접도 잘 받았습니다.

“자네 글씨는 참 훌륭해!”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까짓 것이 뭐 잘 쓰

는 글씨입니까 . ”

“아니야, 자네 글씨는 명필이야. 거기다가 자네 마음씨마저 착하고 성실하니 자네의 인품은 참 훌륭해 ! ”

홍 봉환씨는 김 한구씨가 꼭 마음에 들어 시골에 있는 김 한구씨의 가족을 이사오도록 주선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어느날,

“여보게 한구, 자네 혼자 서울에 와 있으면 되겠나. 자네 가족도 모두 서울에 와서 살도록 하세 ! ”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

“내가 모든 일을 잘 주선해 줄터이니 자네는 지금 시골로 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오도록 하게 . ”

“감사합니다 ! ”

“감사는 나중에 하고 당장 길을 떠나게 ! ”

이렇게 하여 김 한구씨는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오는 도중에 날씨도 궂고 길도 험하여 고생도 되었지만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진의 한진 나루터에 이르렀을 때는 날씨도 춥고 건너갈 배가 없어 떨고 있는데 시골로 벼슬길을 가던 이사관이란 사람을 만나 나루도 쉽게 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관은 김 한구씨의 딸이 예쁘고 총명한데 귀엽게 보고 자기의 가족옷을 선물로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김 한구씨가 서울로 이사와서 집을 얻은 곳은 남산 밑에 있는 조그마한 집이었습니다. 서울로 와서도 김 한구씨는 홍 봉한씨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고 김 한구씨의 딸은 아름답게 커서 나이 13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여 13세에 벌써 「 춘추좌씨전 」을 줄줄 외울 정도였습니다.

“시골에서 이사온 집 딸이 그렇게 공부를 잘 한다면서?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천재래, 벌써 「 춘추좌씨전 」을 술술 외우고 쓰고 해석까지 한다니 보통 머리가 아니지!”

처음에는 시골뜨기라고 깔보던 사람들도 처녀가 하도 영특하니 이제는 은근히 부러워까지 하였습니다.

그때가 조선 영조 33년, 그러니까 1757년이 된 해였습니다. 바로 그해 영조의 원비가 시름시름 앓더니 기어히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왕비가 돌아가셨대!”

“왕비가?”

“그래 정성왕후가 돌아가셨대!”

궁궐은 온통 슬픔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왕비를 다시 맞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비를 다시 맞아들이는 일을 마침 흥 봉한씨가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흥 봉한씨는 정원을 산책하면서 왕비를 다시 모셔들일 것에 대하여 꼼꼼히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집 서당에서 김 한구씨와 손님과의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구씨, 지금 나라에서는 왕비가 돌아가시고 다시 왕비를 모시려 하는데 한구씨의 따님을 왕비 후보로 세워보시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딸은 비록 총명하다 하나 이제 겨우 13세이고 또 9품도 못되는 미천한 사람이 어찌 1품이 되겠다고 욕심을 내겠소, 그런 말씀은 두 번 다시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내가 점을 쳐 보니 댁의 따님이 왕비가 될 것 같소이다!”

정원에서 산책을 하던 흥 봉한씨는 이 소리를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내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비록 벼슬은 9품에 지나지 않지만 처녀가 똑똑하고 공부도 많

이 했으니 왕비의 자격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은가! ”

홍 봉한은 김 한구에게 찾아가 말을 하였습니다.

“여보게, 자네 딸을 왕비 후보에 오르게 하세! ”

“그러나, 어찌 저 같이 미천한 사람의 딸이 왕비가 되겠습니까?”

“아닐세 자네 딸은 재주가 비범하고 영특하니 나이는 어리지만 왕비의 자격이 있네! ”

이렇게 하여 김 한구의 딸은 왕비 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그야말로 시골뜨기가 왕비 후보에 오르게 됐으니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덕을 쌓으면 아무리 시골에서 태어났어도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비의 후보로 오른 사람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 사람이나 모여들었습니다.

처녀들은 선을 보기 위하여 여자 관원이 안내한 큰 방으로 들었었습니다.

그 방에는 방석이 가즈런히 깔려 있는데 방석마다 처녀들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이 있는 방석을 깔고 앉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처녀들은 모두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방석에 가서 앉아 있는데 김 한구씨의 딸은

그 방석을 깔고 앉지 않고 방석 옆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읍니다. 이것을 본 여자 관원이 물었읍니다.



“다른 처녀들은 모두 방석을 깔고 앉았는데 그대는 왜 깔지 않고 옆에 앉아 있소?”

“어떻게 감히 아버님의 존함이 쓰여 있는 방석을 깔고 앉을 수가 있습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을 깔고 앉는다는 것은 크나큰 불효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오오! 그대는 참으로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오. 내 그대처럼 훌륭한 처녀는 보지 못했소!”

여자 관원은 입가에 웃음을 띠우고 감탄하는 얼굴

이었습니다.

왕비가 되는데는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합격한 사람이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 관원이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넘기 힘든 고개가 무슨 고개요?”

그러자 다른 처녀들은,

“백두산 고개요”

“한라산 고개요”

“제룡산 고개요”

하고 저마다 제일 높은 산의 이름을 말했지만 김규수는,

“제일 넘기 힘든 고개는 ‘보리고개’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보리고개란 봄에 곡식이 떨어져 보리가 나올 때까지 배고픔을 참고 넘어야 하는 고개가 바로 ‘보리고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 관원은 탄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왕비가 될 훌륭한 처녀로구나!”

하고 감탄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은 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꽃은 무슨 꽃이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고 ? ”

여자 관원은 얼굴에 근엄한 빛을 띠우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다른 처녀들은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꽃의 이름을 말하였습니다.

“ 장미꽃이 아름답습니다. / ”

“ 아닙니다. 장미는 가시가 있어 싫고 동백꽃이 곱습니다. / ”

“ 그렇지 않습니다. 백합꽃이 아름답습니다. / ”

“ 국화꽃입니다 ”

“ 봉선화입니다. / ”

모두 꽃의 이름을 말하는데 김 한구씨의 딸 김 규수는 대답하기를 ,

“ 목화꽃이 곱더이다. / ”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소리에 여자 관원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김 규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 어째서 목화꽃이 아름다운고 ? 내 생각으로는 목화꽃은 곱지 않은데 ? ”

“ 하지만, 다른꽃은 아무리 아름다와도 보는데 그치지만 목화꽃은 숨을 만들어 사람들의 의복이 되고 또 따뜻하게 하는 꽃이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 ”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대답이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겠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집은 개와지붕인데 개와풀이 몇이나 되는지 말하여 보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처녀들은 밖으로 나가 지붕을 쳐다보고 몇개라고 알아맞추는데 김 규수는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지붕의 개와풀이 몇개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여자 관원이 물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지붕을 쳐다보고야 개와풀이 몇인가 알았는데 그대는 방 안에 앉아서 그것을 알았는가?”

그러자 김 규수는 대답하기를,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 개와풀의 수가 땅에 패여 있어 그 수와 같기 때문에 방에 앉아 추녀 밑의 빗방울 떨어진 자국을 보고 알았습니다.”

“오! 영리한지고 참으로 영특하구나. 이중에 이만한 규수가 다시 없으니 이 김 규수를 왕비로 삼으리라!”

이렇게 하여 김 규수는 왕비로 간택이 되었고 「정

순왕후」가 되었으니 영조 35년 6월에 왕후가 된 것입니다.

정순왕후는 옛날 당진 나룻터에서 이사관씨로 부터 선물 받은 사실도 마음 깊이 고맙게 여기고 보답하였으며 임금님을 도와 백성을 위한 정치를 잘하도록 도와 주었으며 아버지 김 한구씨는 오홍 부원군이 되었습니다.

정순왕후가 19세 되던 해, 그러니까 1763년이었습니다. 그해에는 흉년이 들어 온 백성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사람의 수가 줄잡아 50만 명이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정순왕후는 임금님께 말씀드려 쌀을 나누어 준 것은 물론, 궁중에 양식을 절약하라고 명령하고 5품이하의 부인들은 아침 저녁 두끼만 먹되 그것도 죽으로 먹을 것이며 남은 쌀은 모아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왕후의 어질고 착한 마음씨에 눈물을 흘리며 쌀을 받아드는 것이었습니다.

“왕비마마 만세!”

“왕비마마 만세!”

백성들은 진심으로 고마와 하였습니다.

영조 임금께서도 이처럼 영특한 왕비를 얻어 마음이 든든하였으며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논하였읍



니다.

어느날 왕후는 임금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전하, 궁중의 여인들이 가발을 하고 다니니 그 긴 머리가 둔하여 활동하는데 민첩하지 못하고 게으릅니다. 가발을 못하게 하시옵소서 또 누에를 많이 길러 비단을 외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시옵소서 그래야 나라가 강하고 부해집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요 내 왕비의 말대로 하겠으니 그리 아시오!”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엔 무슨 말이요?”

“장안성내에 무당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위가 높은 여인들이 무당을 믿고 무당에게 많은 돈을 주고 물자를 허비하니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당을 성 밖으로 쫓아내야 하옵니다!”

“그렇군요, 왕비의 말은 모두 백성을 위하는 말들이니 내 어찌 주저하겠소 당장 시행하겠소!”

이렇게 정순왕후는 임금님을 도와 어진 정치를 하게 함은 물론「임진일기」를 국문(한글)으로 번역하여 책으로 만들어 백성들이 읽음으로 일본의 나쁜 비행을 알려 백성들로 하여금 일본을 싫어하는 운동을 일으켰는가 하면 30세 때는 효도를 잘해야한다는 책을 지어 효도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도리라는 것도 백성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였습니다.

1776년, 정순왕후가 32세 되던 3월에 임금 영조대왕이 죽고 뒤를 이어 정조대왕이 임금에 오르니 정순왕후는 대비가 되어 다시 정조를 도와 좋은 정치를 하도록 힘썼습니다.

어느 날, 대비는 정조임금께 말하였습니다.

“전하!”

“예, 말씀하십시오 대비마마!”

“내가 임금께 두어가지 건의를 말씀 드릴터이니 그 대로 하시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먼저 “탕평책”(蕩平策)을 쓰시오”

“탕평책이라 함은?”

“탕평책이란 지금 조정에 노론과 소론의 두 당파가 있지 않소 이제 임금께선 탕평의 교(敎)를 곧 내리고 두당에서 골고루 사람을 써서 당파 싸움을 막도록 하여 조정이 안정하도록 하시란 말씀이오!”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무엇입니까?”

“또 한가지는 물자를 아끼고 절약하여 굶주리는 백성이 없도록 하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에 정조 임금님은 정조 3년, 11월 10일 그러니까 1778년 탕평의 교를 내리고 두 당에서 골고루 인재를 써 나라에 충성하도록 하니 정부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탕평책을 써서 백성을 잘 다스리던 정조임금도 정순왕후가 56세 되던 해에 승하(임금이 세상을 떠남)하시니 순조임금이 왕위에 올랐으나 나이 겨우 11세밖에 안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정순왕후가 어린 임금을 도와 대왕대비로서 섭정(임금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제일 먼저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사치스런 마음과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는 자가 있으면 큰 벌을 줄 것이며 임금님이 나이가 어리다고 깔보고 잘못 섬기는 일이 있으면 백성들도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없어지니 만일 임금을 어리다고 업신여기면 그사람은 엄벌할 것이니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왕실에 쓸데 없는 기구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고 절약했지만,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면 돈을 많이 써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이렇게 하니 온 백성이 어린 임금이지만 잘 섬기고 나라는 평안하였습니다.

정순왕후가 정치를 잘하여 나라가 부강하니 순조에게 정치를 하도록 하고 섭정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때가 1804년 순조임금 4년이었으며 왕후의 나이 6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이 밖에도 정순왕후는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백성을 위하고 임금을 위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순조 5년 1805년 6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니 온 성안에는 밤낮 없이 우는 소리로 가득하였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그것도 시골구석에서 태어

났지만 학문을 닦고 마음을 착하게 다듬어 후세 사람들의 존경하는 왕후가 됐으니 우리고장의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힘 자랑하는 남매

* 재주와 힘을 너무 자랑하면 화를
당한다는 가야산 석문봉에 얹힌 이
이야기.....

힘 자랑하는 남매

우리고장에서 제일 높은 산은 가야산입니다.

이 가야산은 서산, 당진, 예산, 홍성 등 4개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인데 산이 높고 험하여 옛날에는 호랑이가 살았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또 이 산 밑으로 큰 굴이 뚫어져 그 굴로 물이 흘렀는데 이 물은 배가 다닐만큼 깊어서 가야산 이쪽과 저쪽을 배를 타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야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를 석문봉이라고 하는데 석문봉(石門峰)을 왜 석문봉이라 부르게 됐는지 그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산 밑으로 배가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가야산 근처에 한 부인이 남매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산을 일꾸어서 밭을 만들고 그 밭에 콩과 팥을 심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딸은 머리가 총명하여 지혜가 있고 또 힘이 장사여서 어머니를 도와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힘이 세니까 무거운 나뭇짐도 번쩍 들어 오기도 하고 자갈밭이라도 금방 일꾸어 놓아 힘 안들이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 남매에게 힘이 있다면 서로 힘자랑을 하고 재주자랑을 하면서 싸우기가 일쑤여서 어머니는 그것이 못마땅하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남매는 힘자랑을 하다가 싸웠습니다. 서로가 자기 힘이 세고 자기 재주가 더 좋다고 우기며 싸우다가 이런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좋다, 네가 재주가 나보다 더 낫다고 하니 우리

내기를 하자!”

“좋아요 합시다.”

“무슨 내기를 할까?”

“문달기 내기를 합시다”

“어디다 문을 달지?”

“저 가야산에 배가 지나다니는 굴이 있지요. 그 굴에 문을 달기로 합시다.”

“좋아, 어떻게 문을 달까?”

“나는 돌을 깎아 문을 만들터이니 오빠는 돌문에 달을 돌쩌귀를 사오시오”

“그야, 어렵지 않지.”



“그러나 돌쩌귀는 수원에 가야 있으니 수원까지 가야하고 또 갈때는 높이 한자나 되는 돌로 만든 나막신을 신고 갔다 와야 합니다!”

“돌로 만든 나막신을 신고 갔다오란 말이지?”

“그렇다니까요”

“좋아, 그까진 돌나막신 신고 갔다 오는 것이 뭐 어려운가 그대신 너는 내가 갔다 오는 동안 돌문을 다 만들어 놓아야 한다.”

“염려 말아요, 그런데 지는 사람은 무슨 벌을 받을 까요?”

“무슨 벌을 받을까?”

“저 굴속의 물에 빠져 죽으면 어때요?”

“물에 빠져 죽어야한다고? 좋아 그렇게 하자!”

남매는 이처럼 끔찍한 내기를 하였습니다. 지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자고 하니 내기를 해도 좀 지나친 아니 끔찍한 내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빠는 굽이 한자나 되는 나막신을 신고 수원으로 돌쩌귀를 사러가고 동생은 큰 돌을 갔다 놓고 다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가고 이틀이 가고…… 그러는 사이에 큰 돌은 어느새 돌문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재주가 있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어떻게 저런

큰 힘이 나오는지 큰 돌을 가볍게 들어 이리저리 굴리는 것을 보면 신기하였습니다.

며칠 후, 동생은 돌문을 다 만들어 굴 옆에 세워 놓았습니다. 오빠가 돌쩌귀를 사오면 이제 달기만 하면 이 굴에는 큰 돌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웁지, 아직도 오지 않았으니 내가 이겼지. 이제 오빠는 저 물 속에 빠져 죽어야 해”



동생은 내기에서 이긴 것이 기뻐서 생글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돌문을 만드느라고 배가 고플 것이라 생각하고 팔죽을 쑤어서 딸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

읍니다.

그때 딸은 돌문을 굴 입구에 세워 놓고 오빠가 돌 찌귀를 사오면 문을 달으려고 문을 잡고 있었습니다.

“애야, 이 팔죽을 먹고 하렴”

“팔죽을 쑤었어요. 야 맛이 있겠다”

그러면서 딸은 돌문에서 손을 떼고 팔죽 그릇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돌문이 쓰러지면서 돌문은 그 딸과 어머니에게 덮치고 어머니와 딸은 돌문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갑자기 산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바다같은 굴이 막히고 그 산에 봉우리 하나가 우뚝 섰습니다. 그 산 봉우리에는 돌문 조각이 여기 저기 굴러 있었는데 사람들은 돌문이 산에 있다 해서 이 봉우리를 석문봉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빠의 이야기는 그후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사람들은 남매가 서로 도우며 재주와 힘을 합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지 끔직한 내기를 하다가 하늘의 벌을 받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용이 이무기가 되다

* 용이 이무기가 됐다는 안흥항의 전설...

용이 이무기가 되다

고기 잡이에 나갔던 배가 하나 가득 고기를 싣고 신나게 안흥성으로 들어오고 있었읍니다.

뱃사람들은 고기도 많이 잡고 날씨도 좋아 마음이 흐뭇한 때문인지 뱃노래를 부르며 노를 저었읍니다.

“어기영차 어기영차”

“칠산연평 다벌어 먹고”

“어기영차 어기영차”

“어령도 바다와 농장만 친단다”

“어기영차 어기영차”

“배임자네 아주머니”

“어기영차 어기영차”

“술동이 국동이 뒤집어 이고”

“어기영차 영기영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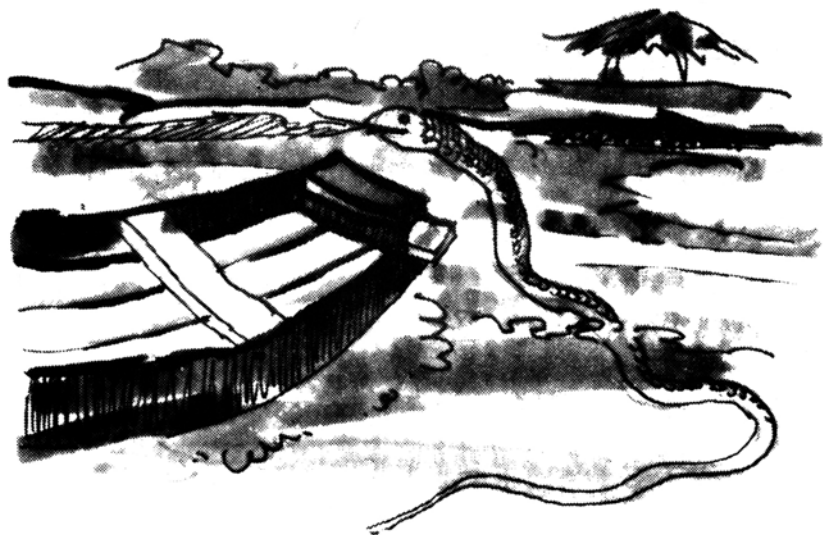
“발판 머리서 아기작거린다”

“여기영차 여기영차”

뱃노래를 신나게 부르며 배가 용오도(안흥성에서 멀리 보이는섬) 가까이 왔을 때였읍니다.

☆용이 이무기가 되다 ☆

갑자기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무엇인지 쏜살같이 배 앞을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괴물의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눈 깜박할 사이에 멀리 사라졌습니다.

뱃사람 하나가 그것을 보고 스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게 뭐야?”

“쉬이—. 조용히 해”

“도대체 저게 뭐야 무슨 괴물이 저렇게 빨라?”

“저게 이무기라네!”

“이무기?”

“그렇다네, 저 이무기가 어찌나 큰지 길이가 쉰자나 된다는 거야!”

“원자나 돼?”

“그럼대두!”

“어디 사는 이무기래?”

“모르지, 그러나 안흥성에 용굴이 있지 그 용굴에서 산다고도 하고 누구말에는 용오도에 산다고도 하는데 어디서 사는지 알 수가 있나”

“야, 참 크기도 하다 저 큰 짐승이 배를 해치려면 금방 해칠 거야!”

“그러나 지금까지 배를 해쳤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어”

“착한 이무긴가.”

“그런 것 같애”

“그건 그렇고 저 이무기가 언제부터 이 바다에 살지?”

“모르지, 아주 오래 전부터 산다니까 몇 백년은 됐을 걸!”

“그렇게나 오래 됐나, 하긴 천년 묵은 뱀도 있다니까 몇 백년은 별 거 아니지”

뱃사람들이 주고 받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큰 이무기가 이 바다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이따금 뱃사람들의 눈에 떠는 이 이무기는 꼭 용오도와 목개도 사이를 오고 간다는데 이 이무기에 얽힌

짤막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랜 옛날,

근흥면 안흥성의 서쪽 문 밖에는 강파른 절벽이 있고 그 절벽 밑에는 큰 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굴은 어찌나 크고 음침한지 그 굴에서 귀신이 나온다고도 하고 도깨비가 불을 켜고 다닌다고도 하는 으스스한 굴입니다.

사람들은 이 굴을 용이 나왔다 해서 용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한나절이 됐을까, 동편 하늘에서 뭉게 구름이 일더니 소나기가 쏟아지며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천지를 분간 못하게 내리는 비 바람은 금방이라도 안흥성을 삼킬 것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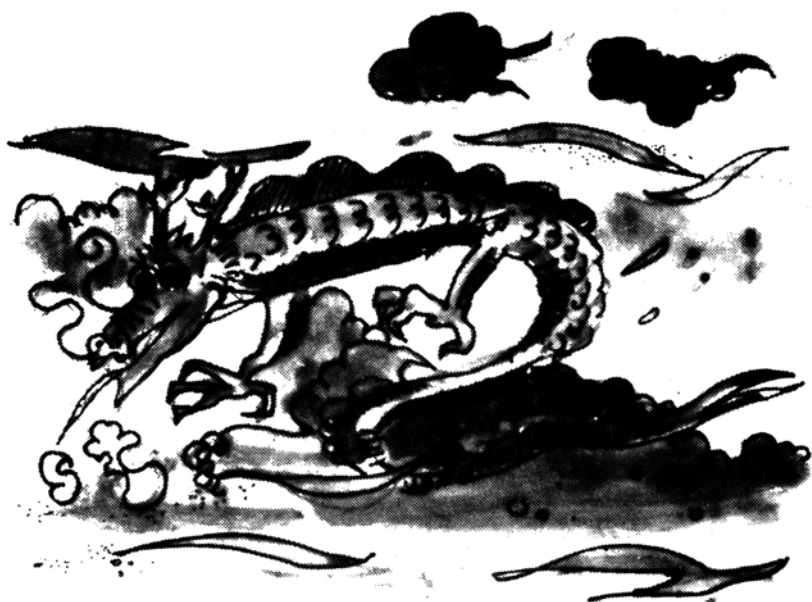
“우르릉 쿵쿵!”

“번쩍 번쩍!”

이때 그 굴 속에서 갑자기 큰 용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용의 색깔은 푸르고 큰 귀와 두눈, 큰 뿔,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였습니다.

용은 큰 소리를 치더니 땅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용이다!”



“용이 하늘로 올라간다!”

무서운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호기심과 두려움 반반으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무슨 변고입니까,

용이 하늘로 올라가려는 찰라, 맞은편 구절봉에서 이상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괴물의 모양이 어찌나 흉칙한지 키는 열자는 되고 몸둥이는 울긋불긋하였으며 머리에는 뿔이 나 있었고 두 눈은 부리부리하여 어린아이가 보면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이 괴물은 하늘로 올라가는 용을 향하여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하도 커서 산이 흔들리고 집이 흔들렸습니다.

“우와왕 —.”

그러자 금방 하늘로 오르던 용이 바다로 침범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차!”

“참 아까운데 ...”

“백년의 도를 닦아야 용이 된다는데 저럴 수가...”
보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그때 떨어진 용은 이무기가 되어 지금도 용오도와 목개도 사이를 왕래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용을 떨어뜨린 괴물은 무엇일까, 그 괴물은 역시 용이 되려고 도를 닦던 뱀이었는데 하늘의 노여움을 사서 괴물로 변해서 용이 되는 뱀을 보면 심술이 나 꾀방을 놓는다고 합니다.

저기 용이 오른다

* 하늘에 오르는 용을 도와주고 복을
받았다는 해미면 산수리에 전해오는
이야기……

저기 용이 오른다

해미면 산수리에 가면 큰 샘이 하나 있는데 이 샘을 “수원용천”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샘에서 용이 나와서 하늘에 올라갔는데 이 용이 하늘에 오르기까지는 한 농부의 도움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옛날 임씨성을 가진 농부 한 사람이 이 수원용천이란 샘 근처에 있는 논에서 김을 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폐약별에서 김을 매던 농부는 아픈 허리를 펴고 좀 쉬려고 논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갑자기 샘에서 큰 소리가 나며 샘물이 하늘로 솟구치더니 그 샘물에 섞여 하얀 용 한 마리가 하늘로 올라가다가는 오르지 못하고 샘으로 풍덩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용이 하늘로 오르다가 떨어지네!”

“용이 하늘에 오른다는 말은 들었지만 직접 보니 굉장한 걸!”

“그러나 저러나 저 우물에서 용이 나올줄 누가 알았나!”

농부는 혼자 중얼거리며 김매던 손을 놓고 멍청이 우물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농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이 석자나 되는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

“여보시오 농부, 나는 저 샘에 사는 용이라오”

“용이라구요?”

“그렇다오”

“용께서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나요?”

“부탁이 있어 찾아 왔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오늘 낮에 내가 하늘에 오르다가 떨어지는 것을 보

았지요?”

“보았습니다!/”

“나는 천년 동안이나 도를 닦았는데도 하늘에 올라가기가 힘이 드는군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니 나좀 도와 주겠소?”

“도와드리지요, 하지만 내게 무슨 힘이 있나요?”

“아니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라면 해 드리지요.”

“다른 일이 아니고 내일도 당신은 논에 나가 김을 매야하지 않소?”

“매야지요.”

“그 때, 내가 다시 하늘로 오를터이니 당신은 그냥 한 마디 말만 하면 되요”

“무슨 말을 할까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하는데요.”

“내가 하늘에 오를 때, 당신은 큰 소리로 「저기 용이 오른다」하고 소리치면 돼요.”

“「저기 용이 오른다」하면 돼요?”

“아니요 「저기 용이 오른다」이렇게 말하십시오.”

“「저기 용이 오른다」그것 참 쉽군요 그렇게 하지요”

“그럼 잘 부탁하오.”

그렇게 말한 용할아버지는 살아졌습니다. 꿈에서 깨

어난 농부는 다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꿈도 다 있다!”

농부는 뜯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 날, 다시 논으로 김을 매러 갔습니다.

그 날도 김을 매고 있는데 어제와 같이 샘에서 우뢰소리가 나며 구름이 일고 샘물이 하늘로 솟구치더니 흰 용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용을 바라보는 일에 정신이 팔려 「저기 용이 오른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용은 다시 우물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차, 내가 실수를 했구나. 꿈에 단단히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이런 잘못이 또 어디 있담!”

농부는 혀를 차며 후회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용과 약속을 어긴 농부는 마음이 개운치 않아 그냥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그날 밤, 농부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역시 어제 밤에 나타난 용이 나타나더니 매우 서운한 얼굴을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하늘에 오르려 하였더니 당신은 약속을 어겼소. 나는 크게 실망했다고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 오르지 못했다고요”

“참으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용님과 약속한 것을 깜박 잊었다고요. 다시 내일 약속을 지켜드리면 안될까요?”

“그럼 내일은 꼭 부탁하겠소. 더도 말고 내가 하늘에 오를 때, 「저기 용이 오른다」하고 큰 소리로 한 마디만 하면 돼요 알겠지요?”

“잘 압니다. 꼭 약속하지요!”

“이건 진정이요!”

내 부탁을 들어주면 은혜는 꼭 갚겠소.”

이렇게 말한 용할아버지는 살아졌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될 걸, 내가 잘못했어, 내일은

꼭 그대로 해야지 ”

단단히 결심한 농부는 다음 날, 일찍 논에가서 김을 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나 저제나 용이 하늘로 올라가기만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우물에서 우르릉 하는 괴성과 함께 용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기 용이 오른다!”

“저기 용이 오른다!”

농부는 있는 힘을 다하여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용은 아무 꺼리낌 없이 하늘로 횡하니 올라갔습니다.

“야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가 지른 한 마디 말이 용을 하늘로 올렸어!”

농부는 기쁘고 대견하여 마음이 흐뭇하였습니다.

그날 밤, 농부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그날도 용은 꿈 속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농부에게 무척 고마와 했습니다.

“감사하오. 내가 천년간 닦은 공이 헛되지 않고 용이 되어 하늘에 올라왔으니 이것이 다 농부, 당신의 덕이요!”

“원,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야 뭐 한 일이 있나요. 그저 시키시는 대로 「저기 용이 오른다」하고 한 마디 했을 뿐인데요. ”



“아니요, 그 한 마디가 내게는 큰 힘이 되었다오,
감사하오, 내가 너무 고마와 은혜를 갚아야 하겠는
데 무엇이 소원이요?”

“글쎄요....”

농부가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용이 이렇게 말하였읍
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것으로 보답하지요, 당신의
가문에는 자손이 번창하겠고 또 훌륭한 문장가도
나오고 부자도 나오게 해 드리지요”

“고맙습니다!”

“그럼 나는 가오”

용은 사라졌습니다.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임씨 가문에는 자손이 번창하고 또 부자도 많고 문장가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기를 도와준 농부에게 은혜를 갚았다는 이 이야기는 산수리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안겨주며 전해 오고 있습니다.

주먹으로 땅을파는 청년

* 재주가 있고 힘이 있을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김 작진 장군에게 있었던 이
얘기..... .

주먹으로 땅을파는 청년

때는 1920년, 싸늘한 초가을 초저녁 아직도 남쪽은 따뜻한 기온이겠지만 이곳 만주의 가을은 초가을이라도 밤이면 추워서 몸을 떨고 있었읍니다.

하늘에는 초승달이 외롭게 밤길을 가고 있었으며 고요한 산 속에는 이따금 산토끼가 지나가는 소리에 숨어서 땅을 보던 군사들의 귀를 놀라게 하기도 하였읍니다.

“가만, 적이 가까이 오고 있다!”

“쉬어 —. 대장님께 보고하자!”

군사들이 뚫어지게 바라 보는 산 밑에서는 꾸물꾸물 많은 군사들이 올라오는 모양이 흐미한 달빛에도 뚜렷히 보였읍니다.

“쥐새끼 같은 왜놈들!”

“빨리 대장님께 보고하자!”

군사 한 사람이 잽싸게 뛰어가 어느 젊은 장교 앞에 가서 보고를 하고 있었읍니다.

“대장님, 적군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전투 준비를 하라!”

“예, 하지만 저 많은 일본놈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 없다. 우리 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다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젊은 장교의 눈빛이 번쩍 빛나면서 기어히 이겨야겠다는 굳은 결의가 국 다문 입술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놈들아 좀 더 가까이 오라!”

장군은 적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공격 개시!”

젊은 장교는 힘찬 소리를 지르며 진두지휘를 하자, 어디에 숨어 있었던 군사들인지 삼시간에 칼과 총을 들고 앞으로 돌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군을 놓치지 말고 모두 잡아라!”

“일본놈은 모조리 죽여라!”

“와와와 ...!”

여기 저기서 고향소리와 총소리가 뒤범벅이 되어 전쟁터는 그야말로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젊은 장교는 칼을 들고 마치 노도와 같이, 성난 표범처럼 등에 번쩍 서에 번쩍 하면서 적군을 무찌르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총소리가 멎은 산 속은 고요만이 감싸였고 여기 저기서 죽어가는 군사들의 신음소리만이 조각달에 실어 애처로이 들리곤 하였습니다.

이 싸움이 바로 저 유명한 청산리 싸움으로 우리 군사가 크게 이겼고 이 싸움을 앞에서 지휘하던 젊은 장교는 바로 독립군의 맹장 김좌진 장군이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기라성같이 일어난 훌륭한 장군들이 있었기에 우리 나라는 그 쓰라린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쓸어지지 않고 오투기처럼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 김 좌진 장군은 홍성군 갈미에서 출생한 분이었는데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인품이 너그러우며 자라면서 무술이 뛰어나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이라고 보는이마다 칭찬이 대단하였던 분이었습니다.

김장군은 청년 때, 홍성 갈미에서 가까운 우리 서산군을 자주 다니셨는데 특히 해미, 운산, 덕산쪽을 많이 다니셨다고 합니다.

장군의 청년 때 이런 재미 있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장군은 해미에 볼 일이 있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홍성과 해미 사이를 버스로 불과 몇 십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며 또 길이 아스팔트로 곧게 뚫여 있지만 그 당시에는 험한 산길을 걸어서 다녀야 했고 시간도 꽤 오래 걸렸습니다.

장군이 다니던 길목에는 가야산이 있어 우리 고장에서 제일 크고 험준한 산으로 나무가 많고 또 무서운 짐승도 살았는데 해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가야산으로 땔나무를 하러 다니곤 하였습니다.

장군이 이 가야산 중턱을 지날 때였습니다. 수 십명의 나뭇꾼들이 가야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오다가

길가에 나뭇짐을 받쳐 놓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상제(喪制)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제란 조부모나 부모가 세상을 떠나 상 중에 있는 사람인데 이곳을 지나는 상제는 나이가 20세가 될까 말까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때, 쉬고 있던 나뭇꾼들이 공연히 이 상제에게 싸움을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 노형, 어디로 가는 사람이오?”

“예, 덕산까지 갑니다.”

“덕산까지는 뭇하러 가오?”

“예, 볼 일이 좀 있어 갑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면서 어찌 그리 뻔뻔스럽게 가오?”

“뻔뻔스럽게 가다니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뭐요, 당신, 몰라서 묻소? 이곳을 지나려면 통행세를 내야 하오.”

“통행세가 뭘니까?”

“아따 이사람 세금도 모르오. 그러지 말고 주머니에 돈이 들었으면 얼른 내고 가시오.”

“나는 통행세가 뭔지도 모르고 또 돈도 없습니다.”

“뭐라구, 그럼 매를 맞고 가야지.”

“아무렴, 매를 맞아야지.”

나뭇군들은 우루루 달려들어 상제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김 좌진 장군은 나뭇군들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 못마땅하여 마음 속에서 의분이 생겼습니다.



평소 나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장군인지라 그냥 본체만체만 하고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시오, 이런 법이 어디 있소. 더군다나 이 양반은 상제가 아니요 상제님이라고 부르고 위로라도 해줘야 할 처지인데 오히려 회롱을 하니 이게 무슨 법이요!”

하고 점잖게 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뭇군들은 오히려 김 장군을 보고 또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벼놈은 웬놈인데 남의 일에 참견이나 너도 한 번 매즘 맞아 볼래?”

하면서 여럿이 대드는 것이었습니다.

김 좌진 장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드는 나뭇군을 번쩍 들어 저만치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놈들아 점잖게 타일렀으면 알아들어야지 되려 싸움을 걸어와!”

그리고는 또 한 사람을 들어 저만치 던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나뭇군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산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김 좌진 장군은 손을 탁탁 털고는 상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상제는 자기를 구해준 김 장군에게 고맙다는 말은 고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만치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 좌진 장군은 패썽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롱당하는 것을 구해 주었는데 말 한 마디 없이 해죽해죽

걸어가는 모습이 미웁기까지 하였습니다.

김 장군은 그 상제를 따라 갔습니다.

“여보시오 상제님 잠깐만 봅시다”

김 장군이 부르니 그제서야 상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왜 그러다니요, 몰라서 묻소,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 주니까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는 실례가 어디 있소?”

“아,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가는 길이 하도 ‘바빠서 실례했소이다.’”

상제는 이말 한 마디 남기고 그냥 갈려고 하였읍니다. 하도 어이가 없는 김 좌진 장군은 그 앞을 가로막으며

“상제님, 보아하니 무식하지도 않은 분 같은데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군요”

하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제는,

“구해준 것은 고맙지만 나도 힘이 아주 없어서 맞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장군은 이 상제가 힘깨나 쓸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 한 번 시험해 보기로 하였읍니다.

“그래요? 그럼 상제님도 힘깨나 쓰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누가 힘이 더 센가 힘자랑좀 해 볼까요?”

“힘자랑이요?”

“그래요, 아무래도 당신은 기운이 좀 세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나하고 한 번 해 봅시다?”

“하지만 힘자랑은 아무데서나 쓸데 없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자랑하는데도 장소나 때가 필요한가요, 자 그
러지 말고 해봅시다”

“그럼 좋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지요, 주먹으로 땅을 뚫는 사람이 이기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먹을 쥐고 땅을 향해 힘껏 내리쳐서 주
먹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란 말이지
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합시다.”

이렇게 하여 김 좌진 장군과 상제는 힘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 좌진 장군이 힘을 썼습니다. 두 주먹을 불
끈 쥐고는 온 힘을 바른쪽 주먹으로 모아가지고는,

“에잇!”

하고 고함소리와 함께 땅을 향하여 힘껏 내리쳤읍니다.

“퍽!/”

둔탁한 소리를 내며 김 장군의 주먹이 반쯤 땅 속으로 들어갔읍니다. 딱딱한 땅이, 그것도 돌이 섞여 있는 땅이 주먹 반이나 들어갔으니 김 장군의 힘이 얼마나 센가 가이 짐작할 수가 있었읍니다.

“이번에는 상제님이 하시오.”

“그러지요, 하지만 노형께서 그런 힘이 있으니 나는 그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소.”

“공연히 그러지 말고 해 보시오.”

“그럼, 내가 한 번 해 보지요.”

상제는 이렇게 말하고 주먹을 쥐더니 땅을 향해 내리 쳤읍니다. 그 모양이 어찌나 유연스럽고 자신만만한지 주먹을 내리치는데도 힘을 하나도 쓰지 않는 모습이었읍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상제의 주먹이, 아니 팔 하나가 땅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상제는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띄운채 서서히 팔을 땅에서 뽑아내는 것이었읍니다.

“아니!/”

“저릴 수가!/”



김 좌진 장군은 이 기막힌 사실에 넋을 잃고 멍하니 그 상제를 바라보고 있었읍니다. 천하장사란 바로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로구나! 나는 저 사람을 따르려면 아직도 멀었어, 김 장군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뭘 그리 놀라시오 노형도 힘이 세던데요” 하면서 빙그레 웃는 것이었읍니다.

“참으로 놀랐읍니다. 그런데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까는 어째서 나뭇군들에게 그냥 맞고 있었소?”

“아, 그거요. 하지만 내가 힘이 좀 있다고 나뭇

꾼들하고 싸울 수가 있나요, 만일 그 나뭇꾼 중에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난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그 나뭇꾼들의 힘을 알지 못했으니 조금 맞고 봉변을 당하는 것이 상책 이러니 하고 그냥 맞았소. 보시오 지금도 노형하고 들어서 힘자랑을 했으니 내가 더 힘이 센 것을 알았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구의 힘이 더 강한지 모르지 않았소. 그렇기 때문에 힘자랑은 아무 때나 아무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아까 그 나뭇꾼들 보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제일인 것 같았으나 노형 때문에 혼줄나고 도망가지 않았소, 그리고 제가 조금 힘이 있다고 뽐내고 거만한 것은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 아니겠소?”

상제는 어른이 아이를 타이르듯 조용 조용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좌진 장군은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 올랐습니다. 힘깨나 쓴다고 주먹을 휘둘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고개를 들어 상제를 바라보기가 언짢았습니다.

“참으로 웅으신 말씀이시오 소생은 그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김 좌진 장군은 이렇게 말하고 그 상제의 늙름한

모습을 보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또 어찌된 일입니까,

조금 전까지 아니, 금방 자기와 대화를 나눈 상제는 눈 앞에 없었습니다.

“상제님”

그러나 상제는 김 장군의 시야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상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벌써 해님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만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그 상제는 사람이 아니던가? 아니라면 가야산의 산신령이란 말인가!”

김 좌진 장군은 꿈을 꾸고 있는 기분으로 가던 길을 갔습니다.

“아무래도 가야산 산신령이 나의 사람 됨이 부족하니까 나를 깨우쳐 주려고 나타나신 게 분명해, 그렇다면 나는 오늘 크게 배운 거야!”

김 장군은 크게 깨닫고 나니 마음이 가벼운 것 같았습니다. 어찌면 김 장군이 홀륭하게 된 것도 그 때 일로 수양을 쌓았던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김 좌진 장군은 정의가 아니면 쓸데 없는 데 힘을 자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 생 바 위

* 억울하게 죽은 기생이 바위가 됐다는 이야기 . 이 이야기는 태안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

기 생 바 위

태안에 우뚝 솟은 백화산 줄기를 타고 서산
으로 가다 보면 태안과 서산 사이에
맑고 깊은 샘이 있습니다.

이 샘은 물이 어찌나 맑은지 거울 같고, 또 물 맛이
좋아서 길을 가던 길손이면 누구나 이 샘에 물을 축
이고 길을 가곤 하였습니다.

이 샘은 아무리 가뭄이 와도 물이 마르지 않아 다
른 샘은 모두 마르지만 이 샘은 언제나 졸졸졸 맑은
물이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어! 물맛 참 좋다!”

“시원하기도 해라!”

“아무래도 이 샘은 바다와 맞닿았는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샘물이 마를줄 모르고 늘 흘러내리지?”

“아따, 이사람 바다와 맞닿았으면 짠물이 나올텐
데 어디 이 샘물은 짜기는커녕 달기만 하네!”

“그렇다면 어디서 이렇게 좋은 물이 아무리 가물
어도 졸졸 흘러나올까, 참 신기한 일이야!”

“천지 조화여!”

“그렇지 않구?”

사람들은 누구나 이 맑은 샘물을 신기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샘 가에는 큰 바위가 하나 우뚝 솟아 있는데 몸둥이는 여자와 비슷하고 얼굴도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어 보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샘을 여기천(女妓泉)이라고 부르는데 기생 우물이란 뜻이고 그 옆에 우뚝 선 바위는 기생바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샘과 바위가 왜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랜 옛날 ,

그날은 몹시도 화창하였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울긋불긋 피었고 종달새의 노래며 아물거리는 아지랑
이가 춤을 추고 꽃과 나비가 어울리는 그런 봄날이었
습니다.

아까부터 동헌 마루 끝에 나와서 이런 화창한 봄날
을 즐기던 이곳 사또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이방을
넌즈시 불렀습니다.

“여봐라 이방!”

“예 사또 마님”

“오늘은 참 일기가 좋구나. 이런 날 그냥 집에서
앉아 있자니 어찌 마음이 한가롭지 못하구나!”

“글쎄올시다. 소인도 들놀이라도 한 번 했으면 좋
겠구나 하고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했단 말이나 ,
그럼 어디 오늘 멋지게 놀다 올까?”

“그렇게 하시지요.”

“어디로 가야 좋을까?”

“글쎄요, 웁지, 좋은 곳이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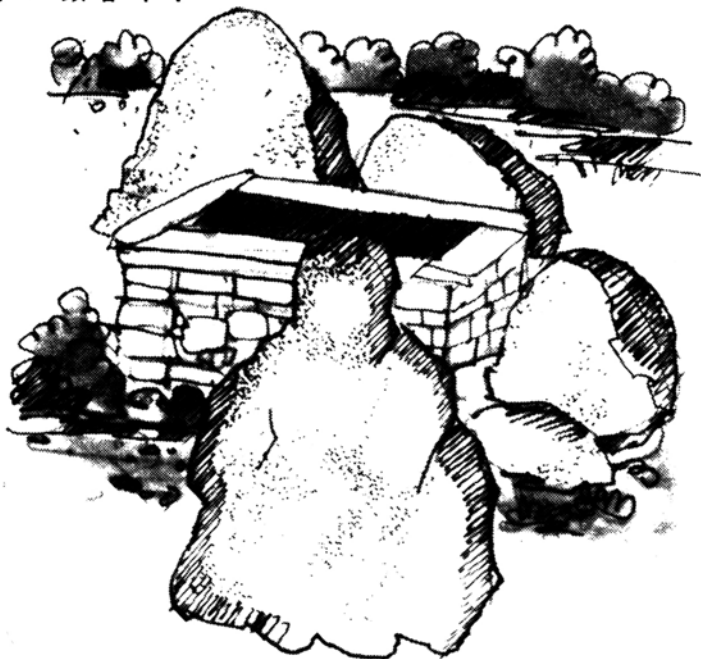
“그곳이 어딘고?”

“저기 백화산 줄기를 타고 가다보면 아주 맑은 물

이 졸졸 흐르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주위는 넓고 편편하여 여러 사람이 놀 수도 있고 또 근처에는 나무와 꽃이 있어 아주 좋은 곳이지요!”

“그래, 그럼 그곳으로 가서 놀고 오도록 하자!”

이렇게 하여 사또는 많은 사람을 청하여 이 샘물 곁에 잔치 자리를 마련하고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며 흥겹게 보냈읍니다.



그런데 이날, 잔치 자리에는 여러명의 기생들도 참석하였읍니다.

모두 예쁜 여자들이었는데 그 중에 눈에 띄게 예쁜 기생 한 사람이 있었읍니다.

이 기생은 춤도 잘 추었고 노래도 잘 불렀으며 시를 잘 읊기도 하였습니다.

사또는 이 기생을 제일 좋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늘 옆에서 술을 따르게 하고 춤도 추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또가 이 기생만 좋아하게 되자 다른 기생들은 그 기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홍, 제가 예쁘면 얼마나 예뻐, 나도 그 정도는 예쁘다구”

“누가 아니래, 나도 그 정도의 춤은 출 수 있다구!”

“아무렴, 누구는 시 한 수 읊을 줄 모르나?”

“기생들의 시기는 대단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 나쁜 한 기생이 있었는데 그 기생은 어느 날, 예쁜 기생을 죽이겠다 생각하고 예쁜 기생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천연스럽게 말하였습니다.

“달이 참 밝구나!”

“정말 밝은데!”

“우리 달도 밝은데 산책이나 하고 올까?”

“좋지.”

“어디로 갈까?”

“글쎄?”

“웁지, 거기가 좋겠어, 왜 며칠 전, 사또와 같이 놀았던 샘이 있지?”

“응, 거기가 참 좋던데.”

“거기까지 갔다 오자?”

“그렇게 하지 뭐.”

그러나 이것이 자기를 죽이려는 제책인 것을 까맣게 모르는 예쁜 기생은 산책을 하자는 꼬임에 따라나섰습니다.

두 기생이 우물 곁에 와서 달을 바라보며 이야기저애기를 하다가 나쁜 마음을 먹은 기생이 우물을 들여다보며 말하였습니다.

“어머, 어쩜 저 우물 속에 있는 달을 좀 봐, 어찌면 저렇게 예쁘지!”

“어디, 정말 아름답구나!”

예쁜 기생은 우물 속의 달이 너무 아름다와 정신 없이 들여다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도 모르고.

이때 갑자기,

“에잇!”

하는 고함 소리가 나쁜 마음을 먹은 기생의 입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예쁜 기생의 몸둥이는 우물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뒤에서 떠밀은 것입니다. 얼마 후, 우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졸졸 졸 맑은 물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히히히, 속이 시원하다, 자나 깨나 그년이 미워 죽을뻔 했는데 이제 내가 사또의 귀염을 혼자 받게 되지 ”

달을 쳐다 보며 히죽히죽 웃는 그 기생의 모습은 정말 추하게만 보였습니다.

다음 날, 동네에서는 그 예쁜 기생이 없어졌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사또의 명을 받은 군사들이 그 기생을 찾아 보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사람들은 또 말을 만들어 헛소문만 퍼트렸습니다.

“그 예쁜 기생이 도깨비에 홀려 바다에 빠져 죽었대 ! ”

“아니야, 도깨비가 아니라 귀신에게 홀렸대 ! ”

“그렇리가 있나, 어쩌면 어떤 총각녀석하고 눈이 맞아 도망친 게 아닐까 ? ”

사람들의 입에서 이러쿵 저러쿵 속덕거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산 밑에 있는 썸 말이야 그 썸이 어쩐지 수상해 그 썸 근처에는 밤에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다는구먼 ! ”

“어째서 ? ”

“썸 속에서 귀신이 나온대 ! ”

“에끼 이사람, 귀신이 무슨 썸에서 나와 ? ”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지.”

“누가 가 봤대?”

“응, 저 아래마을 떠병이녀석이 어제 밤에 그곳을 지나다 혼이 났다는 거야!”

“어떻게?”

“그 우물 옆을 지나는데 머리 풀어 산발한 귀신이 나타나드니 떠병이녀석 보고 자꾸 오라고 하더라나, 그래서 떠병이녀석은 소름이 쭉 기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다는 거야!”

소문은 기생을 죽인 기생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설마 그럴리가 있을까, 하지만 정말 그 기생의 혼이 나타나서 내가 자기를 죽였다고 하는 날에는 큰 일이지.”

그렇게 되면 큰일이라 생각한 기생은 그 우물을 물어 버려야겠다고 밤에 몰래 삽을 들고 그 곳으로 갔습니다. 기생은 어쩐지 무시무시하고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힘을 다하여 삽으로 흙을 듬뿍 떠 그 샘에 넣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히히히, 너 잘 만났다. 네가 나를 죽이고도 또 뭐가 부족하여 우물까지 묻으려 하느냐 너도 죽어봐라!”

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기생은 허겁지겁 도망하려

하였으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귀신 기생에게 잡힌 기생은 목이 졸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기생의 시체는 다음 날, 나뭇꾼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나뭇꾼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우루루 몰려 갔을 때는 기생은 말 없이 죽어 있었고 그 우물 곁에는 전에 보지 못하던 큰 바위가 기생의 모양을 하고 우뚝 솟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 참 이상한 일이군!/”

“정말 이상한 일이야, 어째서 저 기생이 삼을 들고 와서 이 우물 곁에서 죽었을까?”

“그게 이상해, 아무래도 먼저 없어진 기생도 이곳에서 죽지 않았을까?”

“그도 모를 일이지, 그렇다면 이 기생이 먼저 기생을 이곳에서 죽인 것이 아닐까?”

“그렇지도 몰라 이 기생은 먼저 죽은 기생을 놀미워했거든, 자기 보다 사또의 귀염을 더 받는다고 시기하고 미워했거든!/”

“옳아, 이제 무엇인가 알 것 같으네 우리 우물 한번 퍼 볼까?”

사람들의 짐작대로 우물 속에는 예쁜 기생의 시체

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궁금증은 이제 풀린 것 같았습니다.

“거 참, 여자의 질투가 이처럼 엄청난 일을 저질렀군!”

“질투는 아주 나쁜 마음씨지, 남을 미워하면 자기도 미움을 받게 되는 거여!”

“그뿐인가, 남을 죽이면 자기도 죽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해!”

“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죽이면 천벌을 받지!”

“그건 그렇고 이 우물 옆에는 전에 없던 바위가 여자 모양을 하고 생겨났으니 이것도 이상하지 않은가?”

“이상할 것 없지 저 바위는 억울하게 죽은 기생의 화신이야.”

“그렇지도 몰라!”

사람들은 두 기생을 잘 물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때부터 이 우물은 「기생천」이라 부르게 됐고 그 바위는 「기생바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우물에서는 귀신이 나타나 지나가는 사람을 유혹한다고 전하여 졌고 또 그 바위에서는 귀신 우는 소리가 들려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 밖에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우물 곁을 지나갈 때면 으시시한 기분이
들며 곧 기생귀신이 나올 것 같아 걸음을 빨리한다고
합니다.

자갈밭 금항아리

* 마음착한 세째 아들의 극진한 사랑에
형님들이 나쁜 마음씨 고치고 정답게
살았다는 고북면에서 전해오는 이야
기.....

자갈밭 금항아리

옛날 우리 고장 어느 곳에 부자 영감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영감님은 좋은 논이며 밭이 많이 있고 과수원도 있었습니다. 소와 말도 기르고 닭과 염소도 많이 길렀습니다.

사람들은 영감님을 부자 영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영감님을 호랑이 영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영감님은 아이들에게는 호랑이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긴 담뱃대를 뒷집 진 손에 들고 머리에 뿔이 난 모자를 쓰시고 자기집 과수원 근처에 어스렁 어스렁 다니시면서 아이들이 가까이 오면 호령호령 쫓아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언젠가는 돌이가 길가에 떨어진 대추를 주워 먹다가 영감님께 붙들려 그 긴 담뱃대로 종아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돌이 뿐만 아닙니다. 장수도 과수원 근처

에서 사과를 하나 주워 먹다가 영감님께 호되게 야단맞은 때도 있습니다.

“어흠!”

하고 큰 기침을 하면 동네가 찌르릉 울립니다.

울던 아이들도 “저기 호랑이 영감님이 온다” 하면 울음을 뚝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영감님이 있는 곳은 슬슬 피하여 다닙니다.

영감님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마음이 그리 곱지 못합니다.

저보다 힘이 약한 아이들을 때려 울리기도 하고 남의 집 호박에다 말뚝을 박기도 합니다.

저의 집에는 과일이 많은 데도 남의 집 복숭아를 몰래 따 먹기도 하고 남의 집 고구마 밭에 고구마를 캐다가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째 아들은 마음씨가 곱습니다. 얼굴도 그렇게 곱게 생겼습니다.

한 번도 누구하고 싸우지도 않았고 남의 것은 무엇든지 몰래 가져오는 법도 없습니다.

가난한 이웃집 아이를 보면 과일도 갖다 주고 다른 먹을 것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웃집 웅이가 떨어진 옷을 입고 추운 겨울을 지내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사다주신 새 옷을 한 번도

입지 않고 웅이에게 주었습니다.

이 일을 늦게 알고 부자 영감님은 세째 아들을 하루 종일 벌을 세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세째 아들을 천사의 마음씨를 닮았다고 칭찬들 합니다.

부자 영감님도 세째 아들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마음이 나쁜 데다가 점점 커가면서 돈을 아까운 줄 모르고 쓰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헤프게 돈을 쓰다가는 아무리 부자 영감님의 재산이지만 얼마 안가서 망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째 아들은 돈도 아껴쓰고 농사일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세월은 많이 흘러 부자 영감님은 방에서 꿈쩍도 할 수 없는 늙은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눈에서는 눈물 하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째 아들은 음식도 먹지 않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세째 아들이 너무 슬피 우는 바람에 같이 따라 울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누가 더 많이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나 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야 둘째야. 너는 논 닛마지기 밖에 줄 수 없다. 알았냐?”

“그럼 형님은 얼마나 차지해요?”

“나는 논 두십지기에 밭도 다 가져야 하고 과수원도 가져야 한다.”

“어째서 형님만 다 가져요?”

“나는 큰 아들이니까 다 가져야 되는거야. 그러니 잔말 마라!”

“세째는 저 산 너머 자갈밭 있지? 그거나 가지라고 해.”

“그 자갈밭은 곡식이 하나도 안되고 일하기도 힘든 데 그것만 줘요?”

“그것도 세째는 과분해.”

“하지만 내 몫은 작아요. 겨우 논 닷마지기라니 안돼요 열 마지기 주세요.”

“안돼./”

“왜 안돼요?”

“둘째는 그만하면 되는 거야.”

둘이는 싸우다 하는 수 없이 둘째에게는 열마지기를 주기로 했습니다.

옆에서 형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있던 세째의 마음은 서글펐습니다. 자기 몫이 작아서가 아니라 형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몹시 딱하였습니다.

“세째 너 불만 있냐?”

“아닙니다. 형님.”

세째는 아무 말 없이 자갈밭만 차지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고 과수원에는 배꽃이랑 복숭아꽃이랑 사과꽃이 곱게 피었습니다.

농부들은 농사일에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도 농사를 지어야겠는데 게

으른 데다가 농사일도 제대로 배우지 않아 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세째 아들은 자갈밭이라도 일구어서 곡식을 심어야 겠다고 생각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갈밭으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자갈밭은 일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돌을 골라내도 돌은 여전히 나왔습니다.

며칠동안 힘써 일을 했기 때문에 자갈밭도 어느새 반이나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밭 한가운데 큼직한 바위가 하나 있는데 얼마나 큰지 혼자서는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바위는 흙 속에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흙을 파 헤치고는 간신히 바윗돌을 굴러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위를 굴러낸 그 자리에는 조그마한 항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항아리는 깨어진 곳이 하나도 없고 항아리 뚜껑이 단단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세째 아들은 이상히 여기고 그 항아리 뚜껑을 조심스레 열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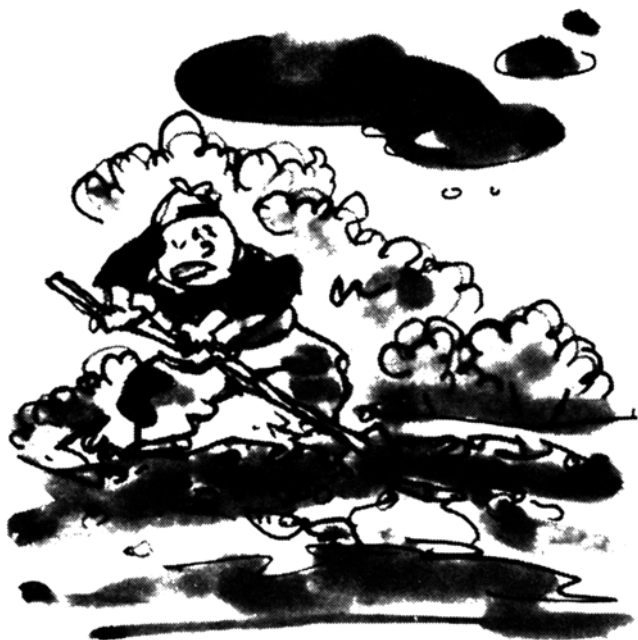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항아리 속에는 은돈이 하나 가득 들어 있는게 아닙

니까? 세째 아들은 잘못 보지나 않았나 하고 자세히 보았지만 항아리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은돈이 틀림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곳에 은돈을 감추어 놓았을까?)

세째 아들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궁금증은 항아리 속에서 발견한 쪽지가 풀어 주었습니다.

종이 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세째야 너는 본래 마음이 착하니 아버지 재산을 많이 분배받지 못했을 줄 안다. 겨우 이 자갈밭 밖에 차지 못할 것 같기에 내가 몰래 이 은돈을 감추

어 놓았으니 이것을 가지고 살아 가거라! 아버지」
이와 같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세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이처럼 사랑해 주는
구나 생각하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더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새 세째 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내
렸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참 동안 울고난 세째 아들은 이 은돈을 어떻게 했
으면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돈이지만 이 많은
돈을 혼자 쓸 수가 있나, 형님들과 나누어 써야지)
이렇게 생각한 세째는 은돈이 들어 있는 항아리를
들고 큰 형님 집으로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둘째
형도 왔습니다.

세째 아들은 이 은돈을 얻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형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참, 아버지도 그럴 수가 있나. 이 많은 돈을
우리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구서 세째에게만 주다니
이전 우리를 무시한 거라구! 야! 둘째야, 안그러
냐?”

“그렇구 말구요! 우리를 무시한 게 틀림없구 말구
요.”

둘째도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내가 압수한다. 이 돈은 당연히 큰 아들인 내가 가져야 해!”

“그렇지만 내게도 얼마는 주어야지요 혼자만 가지면 돼요?”

둘째 아들이 항의하는 바람에 첫째는 둘째에게만 은 돈 몇 냇을 주고는 세째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읍니다.

세째 아들은 형들이 야속 했지만 하는 수가 없었읍니다.

(그럴줄 알았으면 형들에게 보이지 말 걸 그랬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형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읍니다.

빈 손으로 돌아온 세째는 다시 자갈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했읍니다.

세월은 흘러 갔읍니다.

그러는 동안에 형들은 재산이 점점 줄어 들었읍니다.

있는 돈만 헤프게 쓰고 일도 하지 않고 빈둥 빈둥 놀기만 했읍니다. 돈이 떨어지면 논을 팔고 또 그 돈이 다 떨어지면 밭을 팔아 썼읍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지만 놀기만 하고 헤프게 쓰는

돈은 얼마 안가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집까지 팔게 되어 두 형들은 거지가 되어 이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세째는 형들이 그러는 사이에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자갈밭에서 나오는 소출은 얼마 안되어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것 밖에 안됐습니다.

(옳지! 밭을 좀더 키워야 해!)

이렇게 생각한 세째는 자갈밭 주위에 잡초가 무성한 땅을 일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밭 주위만 일구어도 큰 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갈밭 귀퉁이에는 언제 누가 심어 놓았는지 목련꽃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봄만 되면 이 목련꽃 나무는 하얀꽃을 소담하게 피워 주었습니다.

세째 아들은 해마다 이 목련꽃을 바라보며 일을 했습니다. 일하다가 어려우면 이 꽃나무 아래서 쉬면서 땀꾸기소리랑 껌꼬리소리랑 새 소리에 맞춰 흥얼 흥얼 콧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형들은 어디에 있을까? 배가 고파 길에서 쓰러지지나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형들이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잘못된 형들이지만 보고 싶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밭을 일구어 놓고 형들을 찾아야 해! 이 밭만 잘 가꾸면 우리 셋은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세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밭을 키우다 보니 목련꽃나무도 다른 데로 옮겨 심어야 했습니다.

“꽃나무야 미안하지만 너를 다른 데로 옮겨 심어야겠다. 밭을 키우다 보니 네가 밭 가운데 있게 됐구나. 그러니 너를 밭 가운데 둘 수가 있겠니?”

세째는 꽃나무에게 이렇게 중얼거리고 조심 조심 나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참 동안 땀을 흘리며 꽃나무 주위를 파내려 가던 세째는 삽 끝에 무엇인가 걸리는 것 같아 삽질을 멈추었습니다.

처음에는 돌맹이겠지 하고 생각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돌이 아니고 거뭇한 질그릇 항아리였습니다.

세째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지난 번과 같은 돈 항아리는 아니겠지 생각하면서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항아리는 지난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뭇한 거라든지 항아리 입을 단단히 막아 놓는 것도 같았습니다. 세째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번쩍! 하는 찬란한 빛에 세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것은 금이 아니야!”

세째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항아리에는 금돈이 하나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번 처럼 종이 쪽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세째야 은돈도 다 빼앗긴 줄 안다. 이번에는 형들에게 주지 말고 이 돈으로 형들까지 살도록 도와 주어라.”

그리고 끝에는 「아버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째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믿고 돈을 맡긴 것도 기뻐고 이제 형들을 찾아 같이 살 수 있다는 것도 기뻐했습니다.

세째는 너무 기뻐 울면서 금 항아리를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세째는 금돈을 셋으로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마을 동쪽에 아담한 집 세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집 주위에 농사지을 논과 밭을 샀습니다.

삼형제가 하나씩 살아 갈 집과 논과 밭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놓고 세째는 형들

을 찾아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서 형들을 찾을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동네를 다녔지만 형들은 좀처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사철이 되었습니다. 세째는 형들을 찾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동네마다 「방」을 붙이고 왔습니다.

그 방에는 몇 년 전에 집을 나간 두 형을 동생이 찾고 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수 있는 집과 농토도 준비되어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두 형들은 동네에서 쫓겨나와 이곳저곳 떠돌아 다니며 얻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하나 친절히 대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놈들아 몸뚱이가 멀쩡한데 왜 얻어 먹고 다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놀고 먹으려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놈들아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네놈들까지 먹일 것이 어디 있니?”

하기도 했습니다.

두 형제들은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산에 가서 도

토리도 주워 먹고 어떤 때는 구정물 속에 들어 있는
밥알도 건져 먹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돈을 너무 험프게 쓴 것도, 일은 안하고 빈
둥빈둥 논 것도 후회가 됐습니다.

세째에게는 돈 한푼 안 주고 저희들만 욕심을 채운
것도 후회가 됐습니다.

“우리들이 나쁜놈들이야!”

“그래요 세째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자갈밭을 가꾸며 살겠지!”

“그때 그 돈이나 다 주고 세째나 잘 살게할 걸 그
랬지요?”

“누가 아니라니 이제 세째 볼 면목도 없구먼!”

두 형제는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곳저곳 돌아
다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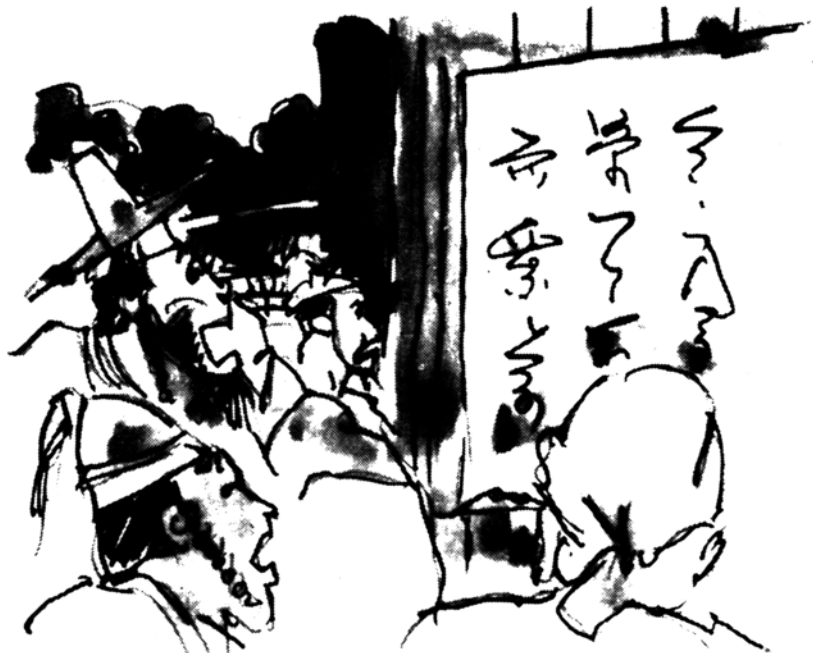
그날도 두 형제는 어느 부자집에 밥을 얻어 먹으러
갔다가 큰 개에게 쫓겨 도망을 했습니다.

한참 달려가자니 숨이 찼습니다. 배가 고파 허기가
졌습니다. 더 도망갈 기운도 없습니다. 다행히 쫓아
오던 개도 오지 않았습다.

두 형들은 어느집 담벼락 밑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
었습니다.

그때 저만치 담벼락 밑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열심히 들여다 보고 있었읍니다.



담벼락에 세째가 붙여 놓은 방을 읽고 있는 중이었읍니다.

“거참 동생이 착하구먼!”

“방에 뭐라고 써 있는가?”

“아, 집을 나간 두 형들을 동생이 찾고 있다는 내용이야.”

“형들이 집을 나간 모양이지?”

“그런가 봐, 거기다가 살 만한 집이며 농토까지 준비해 놓고 있으니 염려말고 오라는구먼!”

“어쩌면 동생의 마음이 비단같은 모양이구먼!”

“아따 이사람! 비단같지 않으면 저의 형들을 공경하겠는가?”

“그전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 사람들은 방을 읽고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건너편에 있던 두 형은 이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동생이 두 형을 찾는다는 데요!”

“혹시 세째가 아닐까?”

“글쎄 말입니다.”

“어디 한 번 가 볼까?”

“그럼시다!”

두 형들은 방이 붙어 있는 곳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세째가 자기들을 찾는 내용이 쓰여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도 장만하고 농토도 장만했으니 빨리 고향으로 돌아 오라는 것입니다.

둘이는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참으로 세째는 마음이 천사야!”

“그래요. 우리들은 저에게 나쁜 짓만 했는데도 우리를 찾고 있으니 어떻게 세째의 얼굴을 볼 수 있

어요?”

“그래,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세째도 우리를 용서해 줄 거야 우리 고향에 가서 세째에게 사과하고 함께 살자!”

“그렇게 합시다!”

두 형은 갑자기 세째가 더 보고 싶었습니다.

두 형들은 고향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 선듯 세째 집을 찾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머뭇머뭇 하고 있는데, 그때 동네 사람이 두 형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사람들 돌아왔구먼!”

“예, 그 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래, 그런데 동생이 잘 산다니까 또 동생 재산을 뺏으려 왔나?”

“그렇리가 있겠습니까?”

“예끼 이사람, 이제 정신들 차리게. 자네들 끌이 뭔가, 자네 동생이 자네들 살집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

“방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랬구먼! 그럼 어서들 가보게!”

세째는 방을 불이고 와서는 매일같이 형들을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형들의 소식은 좀처럼 들을 수가 없었읍니다.

(내가 다시 찾아 나서야 돼!)

그렇게 생각하며 그날도 세째는 아침밥을 먹고 있었읍니다.

그때 마당가에 있는 호도나무 위에서 까치가 짹짹하고 울었읍니다.

(행여 오늘은 무슨 소식이 있으려나! 제발 오늘은 형들의 소식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세째는 논에 나가 일을 했읍니다.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할 때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였읍니다.

집 가까이에서 두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었읍니다. 두 사람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신도 없는 맨발이었읍니다. 얼굴은 야위고 매가 묻어 있었읍니다.

어두어 오는 데다 얼굴마저 검게 보이니 좀처럼 누구인지 알아보기가 힘들었읍니다.

혹시 형님들이!

세째는 걸음을 재촉하여 가까이 가 보았읍니다. 거기에 두 형이 서 있었읍니다.

“형님!”

“세째야!”

셋이는 서로 부등켜 안고 울었습니다.

삼형제는 밤 가는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 형은 객지에서 고생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째가 보고 싶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가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세째는 황금 항아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셋이 똑같은 집과 논과 밭을 사서 살게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도 말했습니다.

“생전에 아버지 어머니 속만 태워 드렸으니, 우리 처럼 나쁜 놈도 없구나!”

“어머니도 우리 때문에 속을 앓으시다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부모님 살아 생전에 잘 모시고 효도해야 하는 건데……!”

두 형들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그만들 두세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형님들이 맘잡고 잘 살면 저 세상에서도 기뻐 하실 거예요.”



“그래, 이제 착하게 살자.”

삼형제는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삼형제는 손을 잡고 산 너머 자갈밭에 갔습니다. 금 항아리가 나온 곳을 보러 간 것입니다.

목련꽃 나무가 심어졌던 자리에는 웅덩이가 덩그러니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금 항아리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 형제는 그 웅덩이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시 굳게 결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나쁜짓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저만치 옮겨 심은 목련꽃 나무가 어느새 하얀 꽃방

울을 터뜨리고 삼형제를 보고 방긋이 웃고 있었읍니다.

그 뒤로 삼형제는 한 동네에서 장가도 들고 서로 사랑하며 오붓하게 살았읍니다.

그러다가 이 삼형제는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삼형제의 무덤이 나란히 큰 산으로 변했고 뒤에 사람들은, 이 산에 산소를 쓰면 꼭 아들 삼형제를 낳는다는 전설을 믿고, 그 산에 산소를 썼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고장에서 전해오지만 그 산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고 이야기만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고장(서산) 전설
제 3 집

호자와 집터

최 주 언 엮음



원

차 례

효자와 집터

술을 지고 빙빙 돈 도둑	373
착한 마음 하늘도 감동하고	387
새가 되어 날아간 복	411
땀 흘리는 부처님	423
장작불에 탄 뱀의 그림	435
효자와 집터	449
도장 바위	469
막대기 장군	481
싸우다 망한 두 스님	497
사람의 욕심은 가족에	507
소탄산이 명산	515
염라 대왕을 고발한 사나이	523
떡 바위	533
두멍골의 두견새	541

술을 지고 빙빙 돈 도둑

■ 돌부처가
도둑을 잡았다는
남면 몽산리에서
전해 오는 이야기

솔을 지고 빙빙 돈 도둑

오랜 옛날, 남면 몽산리 바닷가에 커다란 돌부처가 바닷물에 떠밀려 왔습니다. 부처의 모양이 꼭 석가상과 같은 이 돌부처는 마치 나무로 만든 것처럼 가볍게 둥둥 떠오르는 것입니다.

부처는, 바닷가 모래땅에 와서는 반듯이 누운 자세로 묻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몽산리에 사는 한 젊은이가 바닷가로 낚시질을 하러 왔다가 부처를 발견하고 가까이 갔습니다.

“이상도 하다, 어떻게 이 무거운 부처가 바닷물에 떠밀려 왔을까! ”

청년은 무거운 돌부처가 떠밀려 온 것이 신기하고 이상스러워서 부처를 만져 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디, 얼마나 무거운가 들어 볼까 ”

청년은 허리를 굽혀 부처를 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어떻게 무거웠던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일리가 없지, 이 큰 돌 덩어리를 내 힘으로는 안

때, 동네 사람들을 불러 와야지.!”

청년은 허겁지겁 동네로 뛰어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닷가에 돌부처가 있어요.!”

“무슨 소리야, 돌부처가 있다니?”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바닷물에 떠밀려 온 것 같
아요.!”

“에끼 이사람, 돌부처가 어떻게 물에 떠밀려, 자네가
공연한 소리를 하는 게지?”

“아닙니다. 가 보시면 알게 아니어요, 정말 부처가
밀려 왔어요.!”

“정말인가?”

“정말이라니까요, 내가 움직여 불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가 보세.!”

동네 사람들은 우루루 몰려 바닷가로 갔습니다. 정말,
거기에는 큼직한 돌부처가 모래 속에 반쯤 묻힌 채로 있었
습니다.

“보श्य, 제가 어디 거짓말을 했어요. 진짜지요?”

“그렇군, 거참 이상하다. 이 큰 부처가 어떻게 물에 떠
왔을까.!”

“이건 아무래도 예사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 우리 저
부처를 청계산에 모시고 그곳에 절을 짓세?”



“그렇게 합시다!”

사람들은 여럿이 부처를 들어 육지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들었는데
도 꿈쩍도 하지 않으니 이상하지 않은가?”

“그거 모를 일이구먼!”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부처를 들어 보려고 했지만 아무
도 부처를 들어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씨름 잘하기로 이름난 돌쇠도, 팔씨름의 일인자인 바우
도, 다섯 가마니의 쌀을 짊어졌다는 갑돌이도 모두 부처
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힘을 합쳐 들려고

했지만 부처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안되겠어 그냥 버려두세./”

“그럼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되겠어요./”

사람들은 그냥 뿔뿔히 흩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번 들어 볼까요?”

그렇게 말한 그 청년은 윗마을에 사는 청년인데 얼핏 보기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고 또 생긴 대로 힘도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마음씨가 착하고 효성스러운지 동네 사람들이 그 청년을 효자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이 사람아 힘이 센 이 사람들도 들지 못하는 것을 자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든다고 하는 거야 진작 그만 두게.”

“그래도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야, 자네 마음이지.”

청년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부처 있는 곳으로 가더니 두 손으로 부처의 머리쪽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 일입니까, 그렇게 여럿이 들려고 해도 못들던 부처를 이 청년은 가볍게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들었다. 들었어./”

“아니, 저 사람의 힘이 저렇게 센가 얼핏 보아서는 쓸
한 말도 들지 못할 것 같은데./”

이때, 나이 많은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닐까./”

“아니라니요?”

“저 사람의 힘이 세기 때문에 부처가 들린 것이 아니
야, 부처를 들 수 있었던 것은 저 사람의 효심 때문이
야./”

“효심 때문이라구요?”

“저 사람은 효성이 지극한 효자가 아닌가. 그러니 부처
께서 그 효심에 감동했다는 말일까./”

“그렇군요./”

“효자는 돌부처도 알아보는군요./”

모여 있던 사람들은 모두 탄복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부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 부처
를 청계산 소목골에다 모시고 그곳에 절을 지읍시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자네가 부처님을 지고 가게나?”

사람들은 효자 청년에게 부처를 지고가자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고 가지요.”

청년은 지계에 부처를 지고 일행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청계산을 향해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얼마쯤 가

다가 부처를 지고 가던 청년이 말했습니다.

“좀 쉬었다 갑시다. 좀 무거운데요.”

“그래, 아무리 부처가 효자를 알아본다 해도, 그 돌무게야 어디 가겠나 좀 쉬었다 가세.”

일행은 쉬기 좋은 자리에 앉았고, 청년은 지게를 받쳐 놓고 나무그늘에 가서 쉬었습니다.

한참을 쉬고 나서 나이 많은 노인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야지, 날이 저물겠어.”

“가야지요! ”

“자, 빨리 지게를 지게 다른 사람은 질 수가 없으니 자네가 또 저야지.” “염려 마십시오,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청년은 다시 지게를 지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어찌 된 일입니까, 지금까지 가볍게 지고 오던 부처가 천 근 만 근이나 된 것처럼 꿈쩍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지고 일어나려고 애썼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자네 왜 그러나?”

“글쎄요, 나도 모르겠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가벼웠는데 지금은 무거워 움직일 수가 없어요! ”

“그렇리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한 번 저 볼까!”

그러나 누가 지던지 돌부처는 지계를 꼭 누르고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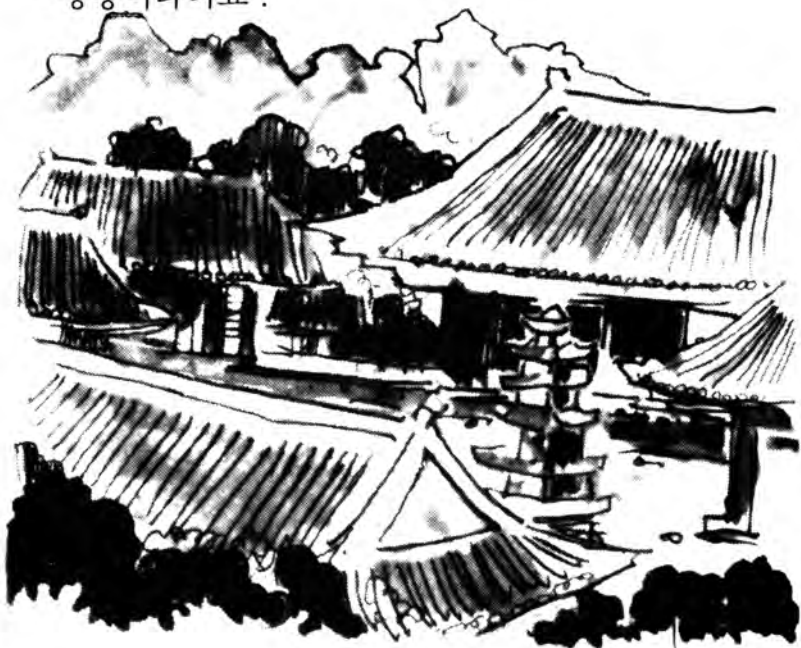
“그것 참 이상하구나!”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먼!”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볍게 지고 온 돌부처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이 이상하여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아해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아무래도 여기가 명당인 모양일세!”

“명당이라니요?”



“여기가 절을 세우기 좋은 곳이니 여기에 절을 세우는 것 같아!”

“그래서 부처가 꿈쩍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군요!”

“틀림 없어!”

“그럼 여기에다 절을 세우지요?”

“그렇게 하세.”

동네 사람들은 다음 날부터 그곳에 절터를 닦고 절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큰 돌을 나르고, 큰 나무를 다듬고, 그렇게 해서 웅장한 절이 세워졌습니다. 절이 세워지니, 바닷가에서 가져온 돌부처는 자연히 절 중앙에 있는 아담한 방에 안치됐습니다.



여러 사람의 스님이 이절에는 살았고, 주민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처에게 절을 하며 소원성취를 빌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절을 「죽사」라고 이름지었는데, 왜 그런 이름이 지어졌는지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은 흘러, 죽사를 지은지 여러 해가 지난 어느 해, 죽사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절 구석구석을 뒤졌으나 별로 가져갈 물건이 없었습니다.

“젠장, 아무것도 가져 갈 것이 없네 이놈의 절에는 쌀도 없나?”

도둑은 아무리 찾아도 가져 갈 것이 없자, 그냥 나가려고 하다가 문득, 부엌에 있는 솔이 눈에 띄었습니다. 솔은 스님들이 식사를 하는데 필요한 것인줄 알면서 그것이라도 가져가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솔이라도 가져다가 팔아야지.”

도둑은 부엌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솔을 번쩍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소나무가 뽕뽕히 들어선 숲속길을 지나고, 험준한 계곡도 넘었습니다.

“젠장, 길이 왜 이렇게 험하담, 날이 새기 전에 빨리

가야 하는데 ”

도둑은 중얼거리며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기를 여러 시간, 동쪽 하늘을 보니 뿌옇게 먼동이 터오고 있었읍니다.

“ 날이 밝아오고 있구나, 이만큼 왔으면 들킬 염려는 없을터이니 좀 쉬었다 갈까.”

도둑은 술을 땅에 내려 놓고 풀 위에 앉아 쉬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피곤하고 졸음이 왔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술을 들고 밤새 걸었으니 피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에라, 조금 자고 가자. ”

도둑은 피곤한 김에 땅에 주저앉아 코를 골며 잠을 잤읍니다. 그렇게 자기를 한참, 도둑은 잠에서 깨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몸이 한결 거뜬했습니다.

“ 어서 가서 이 술을 장에가서 팔아야지 ! ”

도둑은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 × ×

잠을 자던 죽사의 스님들은 날이 밝았음으로 일어나서 아침 염불을 하기 위하여 법당으로 가다가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므로 부엌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둑 한 사람이 술을 들고 부엌을 빙빙 돌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이 들었구나!／ 그렇다면 잡아야지!／”

스님은 다른 스님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요?”

“부엌에서 술을 빼 들고는 부엌을 빙빙 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가서 붙잡읍시다”

“몽둥이를 들고 가야해요!／”

“그럼시다!／”

몽둥이를 든 스님들이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도둑은 여전히 술을 들고 부엌을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 그 술을 놓고 당장 나오지 못할까!／”

스님 한 사람이 큰 소리로 꾸짖자 도둑이 깜짝 놀라며 스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들었던 술을 힘없이 놓고는 어스렁 어스렁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이놈, 절에 무슨 도둑질할 물건이 있다고 왔느냐?”

“도둑질할 곳이 따로 있지, 그래 부처님을 모신 절에까지 와서 도둑질을 해!／”

도둑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는 이사람저 사람만 쳐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의아해 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이놈아 술을 가져갈려면 가지고 갈 것이지 왜 부엌에서 빙빙 돌고 있는 거야?”

스님이 이렇게 다구치자, 도둑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게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나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내가 왜 여기에 그냥 있는지 그것이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놈아, 여기에 도둑질을 하러 왔으니까 여기에 있지 왜 있어?”

“도둑질을 했지요, 저 술을 가지고 갈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데, 술을 들고 바로 나와서 멀리 도망간 것 같은데 내가 왜 부엌에서 빙빙 돌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단 말입니다./”

“뭐야?”

도둑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술을 들고 산길을 걷던 일, 피곤하여 길에서 잠을 잔 일, 먼동이 터오는 것을 보고 멀리 도망왔을 거라는 생각을 한 일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여기에 그냥 있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한 도둑은 한 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

“거참 이상한 일이구나!”

도둑은 이렇게 해서 잡히게 됐고 스님들은 도둑을 훈계하여, 그리고 불기를 세 번 때리고는 놓아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도둑이 밤새 부엌에서 술을 들고 빙빙 돈 것은 영험한 부처가 그렇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신성한 절에 들어와 도둑질을 하니까 부처가 그랬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

죽사도 다 황폐해 졌고, 또 돌부처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전설만이 전해져 오다가 1986년 남면에 사는 문제원씨가 이 돌부처를 발견하여 신고하게 됐으며 문화재 감정반은 이 돌부처가 신라때의 것이라고 판정하여 지방문화재 122호로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남면 어느 분의 밭에 우뚝 서 있는 이 돌부처는 지난날의 이야기를 묵묵히 얘기하고 있는듯 하여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감회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

착한 마음 하늘도 감동하고

■ 착한 옥녀가
부춘산의 신령이 되어
서산지방 주민들의
수호신이 됐다는 이야기

착한 마음 하늘도 감동하고

(1) 눈속에 고사리를 꺾는 소녀

우리고장에는 이름난 산이 많습니다. 그 중에 쉽게 손
꼽을 수 있는, 가야산, 백화산, 팔봉산, 되비산, 소탄산,
성왕산, 상왕산 등, 많은 산이 있습니다.

이런 산들은, 모두가 다 전설을 가지고 있는데, 서산읍
을 감싸고 있는 부춘산의 옥녀봉에 대한 전설은 우리에게
교훈과 감동을 주는 애뜻한 이야기로 얹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 소개하려 합니다.

아득히 오랜 옛날, 부춘산 밑에는 한 젊은 부부가 어린
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딸의 이름은 「옥녀」라고 불렀는
데 이름처럼 얼굴이 예쁘고 총명하여 지나가던 사람들도
옥녀를 보면 한 번씩 안아보고 갈만큼 귀엽게 생겼습니다.

옥녀의 어머니가 옥녀가 날 때, 태몽꿈을 꾸었는데,
꿈에 천사가 내려와 영롱한 구슬 한 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꿈이야기를 들으며, 모르면 몰라도 옥녀

가 크면, 귀한집 며느리가 될 것이라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비록 집안은 가난하였지만 옥녀의 아버지는 부지런하여 열심히 일을 했고 또 마음씨가 착하고 성실하여 동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살았습니다.



옥녀 어머니 역시, 마음씨 곱고 길삼 숨씨가 뛰어나 동네에서 따라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여인들이 부러워들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불행이, 이 행복한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착하고 건강하던 옥녀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옥녀는 갖은 정성을 쏟아 간호를 했지만, 그

정성에도 아무 효험이 없이 어느 따뜻한 봄날, 어머니는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옥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역시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였지만 옥녀의 슬픔은 가늠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왜 일찍 죽는 거여.!”

“누가 아니래나, 맘좋은 사람은 일찍 죽는가 보구먼.!”

“그러나 저러나, 옥녀가 불쌍하여 어찌누.!”

옥녀 어머니의 장례는 이렇게, 동네 사람들의 눈물 속에 치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옥녀의 아버지는 새로 장가를 들었습니다.

새로 얻은 어머니는 마음씨가 곱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술이 사납고 인정이라곤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딸을 하나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딸에게는 사랑을 쏟으면서도 옥녀에게는 구박만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집안 청소는 물론, 논일이며 밭일까지 시키는 바람에 옥녀의 몸은 지칠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녀는 아무 불평 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새어머니는 옥녀에게 엉뚱한 일

을 시키는 것입니다.

“애 옥녀야”

“예, 어머님 ”

“내가 갑자기 고사리가 먹고 싶구나 그러니 너 산에 가서 고사리좀 꺾어오너라.!”



“고사리라니요?”

“고사리도 모르느냐? 산에서 자라는 고사리도 몰라?”

“알기는 압니다만, 지금 산에는 눈이 덮혀 있는데 고사리가 어디 있겠어요,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어머니, 이 일만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힘들지 않는 일이면 내가 하지 너 보고 하라고도

않는다. 잔말 말고 시키는대로 냉큼 꺾어와!”

새어머니는 양칼진 목소리에 눈을 부라리며 바구니를 옥녀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옥녀는 새어머니의 그 서슬에 놀려 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산을 쳐다보니 하얀 눈으로 덮혀 있었고 매서운 바람이 옥녀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고사리가 어디에 있담!”

옥녀는 눈물을 흘리며 부춘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혹시 몰라, 골짜기 어느 양지바른 곳에 고사리가 있을지도 ………”

옥녀는 한가닥 희망을 품고 산에 올라가,혹 양지바른 곳이 있는가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보아도 앙상한 나무와 마른풀만 있었고 그 위에 쌓인 눈만이 버선도 못신은 옥녀의 발을 푹푹 얼려 놓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눈속을 헤매다 지쳐 아무데나 털석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곤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어디 가서 고사리를 꺾는담!”

옥녀가 탄식을 하며 울고 있을 바로 그 때,산골짜기에서 꽃향기가 풍겨나오며 그 향기 따라 풍악과 함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소리는, 옥녀가 세상에 나서 처음 듣는 아름다운 노래였고, 꽃향기 역시, 무슨 꽃인지 알 수 없을만큼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옥녀는 이 뜻하지 않은 일에 정신이 번쩍 들며 노래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래소리는 옥녀가 앉아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않는 곳이었었습니다.

“이상도 해라, 이 추운 날씨에 꽃향기는 웬것이고 저 청아한 노래는 누가 부른담.!”

옥녀는 노래소리에 취해, 자기도 모르게 풍악이 울리는 곳으로 이끌려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는 말할 수 없는 신기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들이 풍악에 맞추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으며, 그 주위에는 갓은 꽃과 이상한 풀들이 따듯한 봄볕에 소담스레 자라고 있었고 꽃잎 위에는 나비가 춤추는가 하면, 새들도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름 모를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어찌나 먹음직스러운지 군침이 돌았습니다.

“아.! 이럴 수가.! 지금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추운 겨울, 이런 곳이 다 있다니.!”

옥녀는 이 별스런 광경에 넋을 잃고 그들의 노래와 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보통사람이 아

닌, 하늘의 선녀들일꺼라고 옥녀는 생각했습니다.

시간 가는줄 모르고 바라보던 옥녀는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옥녀가 찾고 있던 고사리가 꽃나무 사이 사이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고사리./”

그제서야 옥녀는 지금 자기가 해야할 일이 생각났습니다. 고사리를 꺾는 일입니다. 집에서 나올 때, 새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듯 했습니다.

옥녀는 다른 광경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사리가 있는 곳으로 뛰어 들어 한웅큼씩 꺾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정신 없이 고사리를 꺾던 옥녀는, 옆에 누군가가 와 있음을 느꼈습니다. 옥녀는 허리를 펴고 옆을 보았습니다. 아, 그런데, 거기에는 선녀 한 사람이 손에 고사리를 한 줌 들고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착한 옥녀님, 어서 바구니를 채워가지고 집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고사리를 옥녀의 바구니에 담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녀님./”

옥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돌며 목이 콕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젠 또 어찌된 일입니까, 선녀가 담아준 고사리가 바구니에 담겨지는 순간, 바구니는 고사리로 가득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녀의 손에 들려졌던 한 줌의 고사리
바구니에 들어가는 순간 바구니가 가득찬 것입니다.

옥녀는 감사하다는 말을 수없이 뇌이면서 집으로 내려
왔습니다.

“가니, 너 이 싱싱한 고사리를 어디서 꺾어왔니?”

새어머니는 연하고 싱싱한 고사리를 보자, 놀라는 표정
을 지으며 옥녀와 고사리를 번가라 보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지금까지의 일을 자초지종 설명했습니다. 선녀들
의 노래와 춤, 그 노는 장소에 꽃이 피었다는 이야기며, 그
곳에 고사리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며, 선녀가 고사리를 꺾
어 준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가 보자./”

새어머니는 자기가 데려온 딸의 손을 잡더니 옥녀를 앞
세우고 부춘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과연, 거기에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희한한 광경이 벌
어져 있었습니다.

“야, 그것 참 근사하다. 저 사람들이 선녀란 말이지, 오늘
옥녀 덕분에 별 구경을 다하네./”

감탄을 하고 있던 새어머니의 눈에 탐스런 과일이 보였
습니다. 그리고 고사리도 보였습니다. 순간, 새어머니는 욕
심이 생겼습니다.

“야, 옥녀야, 넌 참 미련하구나, 그래 겨우 고사리만 꺾



어 와, 봐라 저기 과일이 많지 않니, 과일을 따올것이
지.!”

이렇게 말한 새어머니는 데리고 온 딸을 재촉하여 과일
나무 밑으로 가더니 과일을 따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
데 바로 그 순간!

“우르릉 쿵쿵.!”

천지가 떠나갈 듯한 뇌성과 함께 눈보라를 동반한 회오
리바람이 일더니 그 바람은 새어머니와 그의 딸을 둘둘말
아 산아래 쪽으로 내동댕이치고 말았습니다. 가엾게도 ,
새어머니와 딸은 심술궂은 마음을 안고 욕심을 부리다가
벌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순간적인 일이었습니다.

매섭게 몰아친 회오리바람은 잠잠해졌고, 선녀들이 놀던 곳은 간곳없이 사라졌으며 그 자리에는 눈이 하얗게 덮혀 있었습니다.

옥녀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니 선녀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어찌된 일이야!”

놀라 떨고 있는 옥녀에게 한 선녀가 오더니 옥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나하고 같이 가자?”

“어디로 가야지요?”

“하늘나라에, 너는 마음씨가 착해서 하느님께서 너를 부른단다. 자 내 손을 꼭 잡아라?”

옥녀가 선녀의 손을 꼭 잡자 선녀는 날개를 저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에 간 옥녀는 하느님 앞에 섰습니다.

“너는 마음씨가 착한 여인이니 내려가서 부춘산의 산신령이 되거라”

“하지만 저같은 여자가 어찌 신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신령이 될 자격을 이미 주었느니라, 넌 내려가 사람들의 재난을 막아주고 사람들이 복받는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어라”

“감사하옵니다./”

이렇게 하여 옥녀는 신령이 되어 부춘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며칠 후, 사람들은 산밑에 죽어 있는 새어머니와 딸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벌을 받았어./”

“마음씨가 나쁘면 나중에는 이렇게 화를 당하는 거야./”

“그러나 저러나, 옥녀는 어찌 됐노?”

“옥녀야, 신령이 됐을 걸세, 그 착한 아이야 신령이 되고도 남지”

“그럴꺼야, 신령이 되어 이지방 사람들을 보살필 걸세./”

그후, 부춘산 상봉은 꼭 여인이 가야금을 타고 있는 형상으로 변해갔고 사람들은 이 봉우리를「옥녀봉」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2) 광산에 흐른 피

세월은 흘러,

그러니까 조선시대, 우리 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받고 갖은 괴로움을 다 겪었습니다.

곳곳에 왜병이 나타나 재물을 약탈해가고 사람을 죽이고 하던 때였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 난리를 「임진왜란」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임진왜란 때의 일입니다.

“옥녀봉에 노다지가 묻혀 있대!”

“부춘산에?”

“그것도 어마어마한 노다지가 묻혀 있는 광산이라는구먼!”

누구의 입에서부터인지 몰라도 이와같은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어느 일본 사람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옥녀봉에 노다지가 있다구, 그럼 내가 캐야지!”

일본 사람은 바로, 노다지를 캐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

나, 하루, 이틀, 한달, 두달, 아무리 땅속 깊이 파들어갔지만 노다지는커녕, 석탄 부수러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있던 재산을 다 투자했지만 금덩이가 보이지 않자 일본 사람은 초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광맥을 잘 본다는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거, 내가 속은 게 아닌가?”

“글쎄요, 금줄기가 보일 것도 같은데 안보이는군요, 조금 더 파 보시지요”

그러나, 아무리 파도 금덩이는 어디에 숨었는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실망한 일본 사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녀를 바쳐야 노다지가 나온대./”

“처녀를?”

“응, 그것도 예쁜 처녀를 생매장해야 금줄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와같은 소문은 또 일본 사람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못할 것도 없지./”

원래가 마음씨가 고약하고,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아무리 나쁜짓을 해도 그것이 죄가 되는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인이라는 권리를 믿고 함부로 날뛰던 때이라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보통으로 생각할 수

도 있었읍니다.

며칠 후, 일본 사람은 예쁜 처녀를 끌고 옥녀봉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느 가난한 집의 딸을 몇 푼 주고는 울고불고 하는 어머니를 떼어 놓고 강제로 끌고 온 것입니다.

“저런 몹쓸 놈, 사람을 생매장시키다니, 저런 놈은 하늘의 벌을 받을 거야!”

“암, 벌을 받지, 금덩이에 눈이 어두워 사람을 죽이다니, 에이 몹쓸 놈!”

사람들이 저주하는 소리도 일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지, 일본 사람은 일꾼을 시켜 땅을 파고 처녀를 땅 속에 묻으려 했습니다.

“자, 빨리 땅을 파거라, 시간이 없다 빨리, 빨리!”

“알겠읍니다”

일꾼들이 괭이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헌데, 땅을 파던 사람이 기겁을 하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피, 피다!”

“피가 나온다!”

“피라니, 무슨 피가 땅속에서 나온다는 거야?”

사람들이 우루루 몰려가, 땅 속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일본 사람도 사람들 틈에 끼여 피가 나온다는 땅 속을 보았습니다. 과연, 거기에는 시뻘건 피가 팔팔 솟아오르고 있

었습니다.

“아아./”

일본 사람이 신음하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제놈이 사람을 생매장 시키려는데 하늘이 가만히 있을려고, 벌을 내리는 거야./”

“암, 벌을 내리는 거지, 그런데, 왜 피가 나오는 걸까?”

“아무래도 이걸 옥녀의 피인지도 몰라, 이 산의 신령인 옥녀의 몸을 건드렸으니 피가 나올 수밖에./”

“그말이 맞는지도 모르지, 이 옥녀봉은 묘만 써도 탈이 나는 곳이 아닌가./”

사람들이 이 기이한 일에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덮히더니, 뇌성이 울리는가 하면, 산봉우리에서 준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 이놈, 너희 나라는 착하고 순박한 조선을 침략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나라까지 빼앗으려는 그 못된 만행도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또, 조선땅에 있는 광산은 조선 사람의 것인데도 네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큰 잘못이거늘 하물며,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길줄 모르고 생매장을 시키려 하니 너는 사람이 아니로다. 너같은 사람은 살려 둘 수가 없어 이 부춘 산의 신령인 옥녀가 네 목숨을 빼앗아 간다./”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놀란 일본 사람이 산봉우리를 쳐다보니 옥녀가 천사들의 호위를 받고 있는데 한 천사가 칼을 들어 일본 사람의 목을 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옥녀가 보이지 않았지만 일본 사람의 눈에는 이 모든 광경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람 살려!”

그러나, 일본 사람은 이 외마디 소리를 했을 뿐, 그 자리에서 기절해 죽고 말았습니다.

“남의 나라를 짓밟고 만행을 자행하는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옥녀의 카랑진 음성이 골짜기를 메아리쳐 멀리 사라졌음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음 직전에서 살아난 처녀는 너무 고마와 산봉우리를 향해 세 번 절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후, 사람들은 옥녀봉을 신성한 곳으로 여겨왔고, 이곳에 묘를 쓰거나 또는 산을 파거나 하면 서산지방에 큰 재난이 닥친다고 믿고 있었으며 또,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옥녀가 서산지방에 사는 모든 주민들의 안녕과 평안을, 그리고 모든 재난에서 보호해 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3) 당을 지으시오

한동안 서산지방에는 아무 탈없이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해마다 풍년이 들고 사람들의 살림도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가뭄이 심하여 농작물이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염병이 번져, 큰 고통을 겪게 되었고 동네마다 병자의 신음소리가 애처로웠습니다.

“이게 무슨 변고야.!”

“아무래도 뭐가 잘못됐나 봐.!”

“무슨 놈의 병이,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담.!”

“약으로 나올 병이 아닌가 봐./”

“왜 이렇게 가름은 오래 가지?”

“기우제라도 지내세 ”

“기우제를 어디 한 두번 지냈나,소용없어./”

흉년과 질병은 모든 사람들의 생기마저 빼앗아 갔고 사람들은 모두 기진맥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즈음, 옥녀봉 아래에는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읍니다.

노부부는 자식도 없이 외롭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노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웬 젊고 예쁜 여자가 나타나 말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 옥녀봉에 당을 지으시오, 그럼 흉년도 질병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요, 나는 옥녀라 합니다”

“옥녀요? 옥녀라면 부춘산의 산신령인, 그 옥녀란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아, 옥녀님, 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면 이곳 주민이 편안히 살게 된단 말이지요?”

“그대로 될 것입니다”

“당을 짓겠소, 이곳 주민이 잘살게 된다면 무슨 일은



못하겠오, 내일부터 당장 당을 짓겠오./”

다음 날부터 노인은 옥녀봉 기슭에 당을 짓기로 결정하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당을 지어야 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여부가 있습니까, 당장 짓기로 합시다./”

“좋습니다./”

며칠 후, 아담한 당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옥녀제를 지냈습니다.

“그냥, 제사만 지내지 말고 큰 굿을 벌려 옥녀를 위로 합시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주민들은 날을 가려 성대한 굿판을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질병이 서서히 사라지고 가뭄도 끝쳤으며 풍년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두가 옥녀의 덕이라 생각했습니다.

“과연, 옥녀는 산신령이야.!”

“아무렴”

“이제는 해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겠구먼.!”

이렇게 해서 옥녀봉의 당제는 해마다 실시됐고, 주민들의 생활도 별 탈없이 평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 년이 지난 어느 해, 서산지방에는 또 다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병은 삼시간에 온 동네에 퍼져 곳곳마다 병자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옥녀가 노했나 봐?”

“제사를 잘못 지낸 게 아닐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

“그럼 왜 병이 돌지?”

“가만, 누가 몰래 옥녀봉에 묘를 쓴 것이 아닐까?”

“그렇지도 몰라, 묘를 쓰면, 묘를 쓴 집안은 잘 되도, 다른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본다고 했거든, 아무래도 누가 몰래 티장을 했나 봐?”

“그럼 우리 산을 뒤져, 묘자리를 찾아 볼까?”



“찾아 보세./”

다음 날, 동네 사람들은 긴 철장을 만들어 옥녀봉 아래서부터 철장으로 땅을 찌르며 티장한 묘를 찾아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기다, 여기야./”

한 사람이 소리치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보니 거기에 아무도 모르게 땅이 파져 있었고 누구의 시체인지 장사돼 있었습니다.

“이 시체 임자를 찾아야 해./”

“찾아야 하고 말고./”

“찾아서 혼을 내줘야 해.!”

“그거 찾기 쉽지, 요 근래 누구의 집에 초상이 있는가
알아보면 돼”

사람들의 말대로 범인은 금방 잡혔고 시체의 주인은 백
배 사죄를 한 후, 다른 곳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후, 각 면에서는 옥녀의 목각을 각각 만
들어 제를 지냈다고도 하는데 지금은 당 안에 목각도 없어
지고 당제도 지내는지 안지내는지 주민들의 기억에 희미해
가고 있지만, 옥녀가 부춘산의 산신령이라는 것과 부춘산
에 묘를 쓰면 (특히 옥녀봉에) 묘 임자는 부귀영화를 누려
도, 주민들에게는 재난과 질병이 온다는 전설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산신각만 초라하게 남아
있습니다. ■

새가 되어 날아간 복

■ 신뢰와 약속이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태안에서 있던 이야기

새가 되어 날아간 복

사람이 은혜를 받고도 모른 척하고 또는, 배반하는 경우가 이따금 있는데 그러한 일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며, 또, 그런 그릇된 일을 하면 언젠가는 꼭 벌을 받게 되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나쁜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태안 고을에 이씨 성을 가진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이 청년은 건강하고, 꿈이 큰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늘 가난하고 직업도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한 번, 부자가 되고, 또 높은 벼슬을 해서 멋지게 살아보나!”

젊은이는 늘 부자가 되고싶은 욕망과 또, 높은 벼슬을 꿈으로 그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날도 젊은이는 추녀 밑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며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한 중이 꾀은이의 집을 찾아 왔습니다. 옷차림이 남루한 중은 꾀은이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더니 부처에게 시주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무아비타불, 부처님께 시주좀 하시지요?”

“하지만, 난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진 것이 없오, 보리쌀 몇 줌이라도 좋습니
다”

“보리쌀 몇 줌이 어디 있나요, 난 아침밥도 굶었어요
!”

“그래요, 그것 참 안됐군요, 그런데 꾀은이는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오, 열심히 일을 하면 되지 않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어요 늘 가난만 하고 언제 부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꾀은이는 선친의 묘를 잘못 쓴 같소, 묘를 이장하면 혹 부자가 될지 모르겠소!”

“그렇습니까, 스님, 그럼 스님께서 저의 아버님 묘자리 좀 잡아 주십시오 부자가 되고 벼슬할 수 있는 자리로 잡아주십시오?”

“그야 어렵지 않지만, 그러나 조건이 있소!”

“무슨 조건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들어주겠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요, 내가 당신의 아버님 묘자리를 좋

은 곳에 잡아주어 부자가 되고 벼슬을 하거든, 그 때 가서 나에게 3백냥만 주시오./”

“좋습니다. 내가 잘되면 삼백냥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겠어요./”

“더도 필요없습니다. 삼백냥이면 되오 자 그럼, 계약서를 씁시다”

스님과 젊은이는 나중에 젊은이가 잘됐을 때, 3백냥을 주기로 하는 계약서를 쓰고 스님은 젊은이의 집 뒷산에다 좋은 묘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스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고 자기 아버지의 산소를 이장했습니다.

그로부터, 수 년 후,

젊은이의 집은 점점 부자가 됐고, 또, 벼슬자리도 얻어 어느 고을의 원님이 되었습니다.

돈이 많고, 권세가 있으니, 젊은이의 마음은 점점 교만해졌고 가난하던 지난날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한편, 묘자리를 잡아준, 스님은 젊은이가 잘산다는 소리를 듣고 젊은이와 약속한 돈 3백냥을 받으러 젊은이가 있는 고을로 찾아갔습니다.

스님이 젊은이가 벼슬하는 곳으로 가보니 관청에는 문지기가 딱 버티고 서서 얼씬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어디서 온 중이요?”

“예, 난 이고을 원님을 만나러 왔으니 만나게 해주시오
”

“안되오, 우리 원님은 아무나 만날 수가 없소./”

문지기는 스님의 초라한 행색을 보자 한마디로 거절했
읍니다.

그러나, 쉽게 물러 갈,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만나게 해주시오, 아주 중요한 일로 왔소
, 만일 내가 오늘 그냥 가면 원님에게 큰 불행이 닥칠
것이오, 그러니 만나게 해주시오./”

스님이 하도 진지한 표정으로 간청하니 문지기도 더 이
상 거절하지 못하고는,



“그럼 여기서 잠깐 기다리시오, 내가 들어가 원님께 말씀드리고 오지요, 그런데 누구라고 말씀드릴까요?”

“예, 나는 옛날부터, 이 원님과 잘 아는 사이인데 원님의 아버지 묘자리를 잡아준 중이라고 말하시오, 그럼 알 것입니다”

“알았소, 잠깐 기다리시오!”

그러면서 문지기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은 밖에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잘살고 벼슬도 높으니 나와 약속한 3백냥은 받을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안으로 들어갔던 문지기가 나왔습니다.

“나 보고 들어오라고 하던가요?”

“아니요, 당신같은 사람은 모른다고 하던데요”

“그렇리가 있소, 나를 모른다니, 당신이 잘못 전한 것이 아니요?”

“아닙니다. 왜 내가 잘못 전했겠어요 옛날, 묘자리를 잡아준 스님이 왔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난 그런 사람 모른다면서 역정만 내셨다오”

스님은 원님이 패심했습니다. 계약서까지 작성하면서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모른다니, 그것은 배은망덕하는 것입

니다.

그러나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문지기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걸 가져다가 원님께 보여주세요, 그것을 보면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어요”

스님은 소매주머니에게 옛날에 받아 두었던 계약서를 꺼
내 주었습니다.

“이것이 뭐니까?”

“당신은 몰라도 됩니다. 원님께 보여 드리면 알거요”

“알았소”

문지기는 귀찮은 생각이 들었던지 통명스럽게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설마, 계약서를 보고도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문지기가 안에서 나왔습니
다.

“어찌 됐소?”

“여보시오 스님, 괜한 심부름만 시켜서 나만 야단맞았
지 뭐요.!”

“왜요? 또 모른다고 하던가요?”

“그래요, 그 계약서 까지 찢어버리면서 당장 쫓아내라
고 합디다. 그러니 빨리 나가시오.!”

이 소리에 스님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좋아, 그렇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은혜을 모르는 사

람은 버릇을 고쳐놓아야 해./”

이렇게 중얼거린 스님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더니 무엇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문지기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저,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이것을 원님께 드리십시오.”

“싫어요, 괜히 나만 또 야단 맞아요, 그러지 말고 빨리 가요./”

“한 번만이요, 자 내가 한냥을 줄터이니 이걸 받고 한 번 더 왔다 오시오./”

문지기가 한냥을 준다는 바람에 쪽지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종이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님, 내가 오늘 원님을 찾아온 것은 옛날 약속한 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원님의 선친 산소를 그곳에서 열 걸음만 더 올려 쓰면 원님은 장차 정승이 될 수 있기에 그것을 알려 드리려고 왔더니 만나지 않겠다니 나는 그냥 갑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원님이 쪽지를 받아 읽어 보니, 하마터면 큰 일을 저지른 뻔 했다고 생각되어 문지기에게 말했습니다.

“그 종이 아직 있더냐?”

“예, 아직 있을 겁니다. 이 쪽지를 주고 문앞에 서 있

는 것을 보고 들어왔으니까요”

“그래, 그럼 너 빨리 나가서 모셔오도록 해라, 아니지 내가 직접 나가 모셔와야지./”

원님은 부랴부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스님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스님, 이거 오랫동안입니다. 왜 들어오시지 않고 여기 계십니까 어서 들어갑시다./”

원님은 호들갑을 떨며 스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스님은 원님의 행위가 꽤심하기 이룰데 없으나 시침이를 딱 떼고는,

“아닙니다. 나는 가 봐야지요, 아까 쪽지에 적은 대로



아버님 산소를 열걸음 올려 쓰도록 하시오, 그러면 원
님께선 정승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묘자리는 스님께서 알려주
셔야지요, 자 그러지 말고 저희 집에서 며칠 묵으면서
날을 가려 아버님 산소를 천묘토록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그건 안됩니다. 스님이 계셔야 합니다./”

원님은, 쉽게 스님을 보내주지 않을 각오나 한듯, 한사코
말렸습니다.

스님은 원님의 간사스런 마음이 못마땅했지만 자기가 생
각한 바가 있어 못이기는 체하고 원님이 말리는 대로 있
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스님이 원님에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이 천묘하기에 좋은 날이니 오늘 하도록 합시
다”

“그렇습니까, 그럼 해야지요./”

원님은 일군 여러 사람과 스님을 데리고 산으로 갔습
니다.

“자, 어디가 좋습니까, 좋은 곳을 알려주십시오?”

“여기입니다. 여기에다 이장을 하십시오 그럼 좋은 일
이 있을 겁니다./”

그러자 원님이 일군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어서 묘를 파거라!”

원님의 말이 떨어지자 일꾼들이 묘를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쯤 묘를 파 들어 갔는데 갑자기 땅 속에서 새 한 마리가 퍼드득 날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묘를 파던 일꾼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새가 아닌가?”

“새야, 그런데 새가 어떻게 땅 속에서 살지?”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던 스님이 갑자기 너털웃음을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하하하, 3백냥이 날아간다. 3백냥이 날아가, 하하하
.....”

스님은 너털웃음을 계속 터트리며 휘적휘적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원님은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옛날, 약속을 어기고 스님을 모른다고 박대한 것을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뒤로 원님의 집안은 점점 망하여 갔고 벼슬자리에서도 쫓겨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무덤자리가 태안 어느 곳에 남아 있다는데, 배은망덕한 자의 결과는 이렇다는 교훈을 안고 쓸쓸히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

땀흘리는 부처님

■ 이마에서 땀이
줄줄 내리던
부처는 마침내
왜병을 물리쳤다는
상왕산 이야기

땀흘리는 부처님

“부처님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 내린대./”

“부처님 이마에서?”

“그래, 그것도 보통 땀이 아니고 빗줄기 같은 땀이래./”

“부처님이 무슨 일을 한 모양이지 땀을 흘리게./”

“그것 참, 이상한 일이야./”

사람들이 둘만 모여도 부처가 땀을 흘린다는 이야기는
빼놓지 않고 꼭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산 사람이 땀을 흘린다면야 아무 이상
할 일이 아니지만 돌로 만든 부처가 땀을 흘린다는 것은
이야기 감이 되고도 남는 사건이었읍니다.

때는,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어지러워 살아가기 힘든 어
느 해 봄이었읍니다.

전쟁과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은 보리고개를 넘
기느라고 산에 가서 칙뿌리를 캐먹고 풀뿌리를 캐 먹는가
하면 농사 지을 씨앗까지도 다 먹어야 하는 안타까운 시절

이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

“먹을 것이 있어야 먹고 살지./”

“글쎄, 돌이네는 먹을 것이 없어 소금에 절인 시래기죽만 먹고 부황이 났다는구먼./”

“이놈의 세상, 언제 끝이 나누./”

“저 왜놈들이나 다 망했으면 오죽 좋아./”

날이 갈 수록 백성들은 살아가기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왜놈들은 닥치는 대로 물건을 빼앗아 갔으니 우리 나라 백성들의 집안에는 쇠붙이 하나 남아나지 못했습니다.

왜놈들은 서울이나 부산같은 큰 도시에서 노략질을 하다가 이제는 시골까지 그 마수의 손을 뻗치고 물건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쌀이며 보리며, 금은보석이며, 집에서 길으는 짐승까지 다 빼앗는 판이었습니다. 만일 거역하면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한마디 반항도 못하고 앉아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몽땅 내놓아라./”

“이것 밖에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왜놈들은 광이고 안방이고 가릴 것 없이 모두 뒤져 탐이

나는 물건은 모조리 가져갔습니다.

어찌다가 의협심이 강한 젊은이가 맨주먹으로 왜놈과 격투를 했지만 언제나 당하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왜놈들의 행패는 우리고장 서산까지 손이 뻗쳐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왜놈들은 대포를 쏘며, 칼을 들고 말을 타고 거드름을 피우며 서산 가까이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침에 짙은 안개가 몹시 끼어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놈들이 몰려온다.!”

“도망가자.!”

“도망은 어디로 가나? 갈 곳이 있어야지.!”

“산으로 가자.!”

“가자.!”

사람들은 뿔뿔히 흩어져 산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왜놈들은 대포를 쏘며 물밀듯이 쳐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리는 운산면 신창리에도 같았습니다.

“우리도 도망가세?”

“어디로 간다지?”

“상왕산 밖에 더 있나 상왕산(象王山)으로 가세.!”

“그래야겠구먼.!”

신창리 사람들은 서둘러, 짐을 챙기고 먹을 것을 챙기어 산으로 피신하려고 했습니다. 멀리서는 왜놈들이 쏘아대는 대포소리가 더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바로 그 때, 갑자기 상왕산에서 천지가 진동할만큼 큰 소리가 났습니다.

“꽁꽁!”

“꽁꽁!”

그 소리는 너무 컸기 때문에 집이 흔들리고 산이 울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대포소리인가?”

“그럼 벌써 왜놈들이 왔는가!”



“아니야, 무슨 대포소리가 저렇게 클 수가 있나!”

“상왕산 속에서 난 소리인데!”

“나가 보자!”

동네 사람들은 방에서 우루루 몰려나와 상왕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상왕산은 안개로 뒤덮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만 높은 봉우리가 안개 속에서 뿔죽이 나와 그 높은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산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어디서 난 소리지?”

그러자 다시, 산에서 대포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우르릉 쿵!”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안개로 덮힌 산 속에서 대포소리가 나다니, 그렇다면 벌써 왜놈들이 산 속으로 들어갔단 말인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아니래!”

“왜놈이 벌써 이곳까지 왔는가?”

“누가, 상왕산에 가 보겠나?”

“내가 한번 갔다 오지요!”

청년 한 사람이 상왕산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상왕산 아래에 사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금방 산에서 대포소리가 났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벌써 왜놈들이 산 속으로 들어 갔나요?”

“아니라네!”

“아니어요?”

“그 대포소리는 왜놈들이 쏜 대포소리가 아니라 문헌봉(석문봉)이 울부짖는 소리라네!”

“산봉우리가 울어요?”

“그렇다니까!”

“설마……!”

“못믿거든 이 위에 있는 강당사(講堂寺) 스님에게 물어보게 ”

청년은 산 위로 올라가 강당사에 사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뭐가요?”

“문헌봉이 울었다는 얘기가요, 그 산봉우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마치 대포를 쏘는 소리 같았는데 그게 사실이나 말이요?”

“그렇다오.”

“하지만, 어떻게 산봉우리가 울부짖을 수가 있어요?”

“다, 부처님이 하신 일이요./”

“부처님이?”

“그렇다오, 부처님께서 왜놈들이 못오도록, 이 고장을 보살피기 위하여 큰 소리를 내게 한 것이라오./”

“그랬군요./”

“요 며칠 전부터 우리 절에 모셔 논 부처의 이마에서 땀을 몹시 흘리기에 나는 짐작을 했다오./”

“부처의 이마에서 땀이?”

“그래요, 땀도 보통 흘리는 게 아니라 땅이 흥건히 젖도록 흘렀다오./”

이 소리를 들은 청년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상왕산 산신령이 이 지방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었어./”

“맞아, 왜놈들의 포탄에서 보호하려고 대포소리를 낸 거야./”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사실 그랬습니다. 왜병들이 우리 서산지방에 가까이 왔을 때는 안개가 자욱히 낀 아침이었습니다.

“자 단숨에 쳐들어 가, 집집마다 뒤져 있는 대로 다 빼앗아라./”

“예./”

“전군 앞으로 돌격./”

왜놈들은 착한 백성의 물건을 뺏는 일도 꼭 싸움터로 나

가듯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 난데없이 상왕산에서 대포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 대포소리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포 보다 더 크고 위력이 있는지 그 소리가 몹시 큰 것에 왜군의 장교는 놀래고 말았습니다.

“저것이 무슨 소리인고?”

“대포소리 같습니다./”

“대포소리?”

“대포소리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조선 군사가 저 산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 대포소리가 저렇게 크지?”

“아무래도 우리것 보다 더 좋은 대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동네로 갔다가는 우리가 죽게 될지도 모르잖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다시 산에서 하늘이 떠나갈 듯한 대포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르릉 쿵./”

이 소리에 왜병들은 혼비백산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도망가자./”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당한다./”

이렇게 해서 서산 지방은 왜놈들의 행패에서 벗어날 수 있었읍니다.

그 후로 주민들은 이 일에 감사해서 해마다 산에다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임진왜란 동안 아무 변란 없이 무사히 넘겼다고 합니다. ■



장작불에 탄 뱀의 그림

■ 뱀의 그림을
불에 태웠지만
뱀모양은 타지않고
그대로 남았다는
신기한 이야기

장작불에 탄 뱀의 그림

안면읍 황도리에는 해마다 당제를 지내고 있는데 이 당제는 뱀의 신을 모셨다는 사당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당주는 음력 12월 15일부터 당제 준비를 위한 대동회에서 선정한 사람들로 이 사람은 당제가 시작되는 1월 2일까지 부정한 것을 보아서도 안되고 그런 일을 해서도 안되는데 당제를 지내고 나서도 일년 동안 집 대문에 금줄을 띄우고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도리의 당제가 생기게 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랜 옛날, 나주 정씨와 해주 오씨가 이곳 황도리로 와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두 씨족들은 이곳에 정착하면서 무엇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까 생각 중이었습니다.

“농사 지을 농토는 없고, 그렇다고 바다에 나가 고기잡을 배도 없으니 어떻게 한가지요?”

“고기를 잡아야지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지요!”

“그러나 배가 없지 않소?”

“배를 만듭시다.!”

“그럼시다. 마침 이 섬에는 소나무가 많이 있으니 베어다가 배를 만듭시다”

지금은 소나무가 별로 없지만 그때는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연장으로서는 쉽게 배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겨우 배가 만들어졌고, 배가 완성 되던 날,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배가 만들어졌다.”

“이제는 고기잡이를 할 수 있어.!”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배를 만들어 처음으로 고기잡이를 나갔던 사람들은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슬픈 일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배가 너무 작는데다가 하필이면 풍랑이 심한 날에 바다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가.!”

“어쩌면 좋지요,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게 돼요, 이곳을 떠납시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야 있나요, 다시 배를 만듭시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힘을 내어 배를 만들어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다시 풍랑을 만나 배는 깨어지고 선원들은 물 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다행이도 선원 중에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선원은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반갑네, 이 사람아, 죽을 고비에서 얼마나 고생했나!”

“고생이야 했지요, 그러나 죽은 동료들을 생각하면 살아 돌아온 게 죄스럽기만 합니다!”

“무슨 소리, 그래 풍랑이 심했지?”

“심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하다니?”

“처음에, 배가 포구를 빠져 나갈 때는 날씨가 좋지 않던가요?”

“그랬지, 그런데?”

살아온 선원이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배가 흰돛을 달고 포구를 나갈 때는 쾌청한 날씨였습니다. 바닷물은 비단처럼 곱고 맑았으며 잔잔한 물결 위에 갈매기의 노래소리만이 정답게 들렸습니다. 거기다가 조용히 흐르는 바람은 고깃배를 가볍게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날씨 참 좋다!”

“좋은데요!”

“오늘은 고기를 많이 잡을 것 같아,여보게들 그렇지 않은가?”

나이 많은 어부는 다른 동료들을 돌아보며 얼굴에 웃음까지 띄었습니다.

“그렇것 같아요,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 고기도 많이 잡힐 것 같아요!”

신바람이 난 어부들이 뱃노래 부르며 낚시터를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 때, 갑자기 배 앞을 가로질러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요?”

“글쎄, 뭐가 저리 빠르지?”

“긴 짐승일쎄!”

“긴 짐승이라니?”

“뱀이야, 뱀!”

“뱀이요, 아니 바다에도 뱀이 있나요?”

“뱀이 있나요가 뭐야, 원래 바닷뱀은 크고 빠르다네!”

선원들이 배 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는 사이에
저쪽으로 갔던 그 뱀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원들의 눈은 모두 그쪽으로 쏠렸고 그러는 순간, 뱀의
꼬리가 물 위로 올라오면서 좌우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뱀의 꼬리가 흔들리는 대로 파도
가 일기시작하면서 하늘에는 먹구름이 덮이고 천둥이 치



는가 하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괴변이야.!”

“이거 심상찮은데.!”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배를 돌려 집으로 갑시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몰아친 파도에 배는 산산조각이 났고 선원들은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저런.!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살아왔어?”

“그게 또 이상해요, 나도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뱃조각 하나가 내 앞으로 떠 오고 있었어요, 나는 죽을 힘을 다하여 그 뱃조각에 몸을 의지하고 육지를 향해 손으로 물을 헤쳤지요.!”

“그랬구먼, 그렇게 해서 살아났구먼.!”

“그러나 저러나 이상하지 않은가, 왜 그 뱀이 그런 짓을 했을까?”

“모를 일이구먼, 혹시 우리가 부정한 짓을 하고 바다에 나간 것은 아닌지 몰라.!”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제일 나이 많은 노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더니, “잘 들으시오, 나는 이 섬에 사는 뱀의 왕이요, 당신들이 아무리 고기잡이를 하려 해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될 것이요.!”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간단하오, 이 섬에다 당을 짓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시요./”

“그럼 됩니까?”

“한가지 더 부탁할 게 있소”

“그 게 됩니까?”

“이것이요, 이것을 당에다 걸어 놓고 제사를 지내야 하오”

“이게 됩니까?”

“잘 보시오./”

노인은 주머니에서 하얀 종이를 꺼내 마을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마을 노인이 그 종이를 받아 펴보니 거기에는 큼직한 뱀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걸 걸어 놓고 제사를 지내란 말이지요?”

“그렇소”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을 노인이 그 뱀의 그림을 공손히 받아 든 순간, 그 흰옷을 입은 노인은 사라지고 마을 노인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상한 꿈도 다 꾸었다. 그, 꿈에 나타난 노인이 뱀의 왕이랬지, 그렇담 배가 파산한 것은 그 뱀왕의 짓이었던가./”

그러나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손에 흰 종이가 쥐여 있었고 그 종이는 바로 꿈에서 받은 뱀의 그림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곤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이나 배가 전복한 까닭이 뱀왕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은 때문이군요.”

“그런 모양이야./”

“그렇다면, 꿈에서 말한 대로 당을 짓고 뱀그림을 걸어 놓고 제사를 지내야 되겠군요./”

“그래야 할 것 같아./”

동네 사람들은 그 날부터 산 위에 사당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사당은 완공됐고 그 사당 안에 꿈에 노인이 준 뱀그림을 걸어 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뱀왕도 다시는 심술을 부리지 않겠지요, 배를 만듭시다. 그리고 고기잡이를 합시다./”

“해야지요./”

동네 사람들은 힘을 합하여 다시 배를 만들었습니다. 전보다 더 크고 튼튼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향해 힘차게 노를 저었습니다.

“자, 낚시질을 합시다./”

선원들은 괜히 신이났습니다. 이제는 풍랑같은 것은 없

으려니 생각하니 힘이 더 났습니다.

그래서인지 고기는 낚시를 드리울 때마다 잡혔습니다.
몇 시간을 낚은 고기는 어느덧 만선이 됐고, 어부들은 돛
대에 기를 꽂고 포구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원
들이 무사하게 돌아왔고 또, 고기도 배에 가득하였기 때문
입니다.

“정말, 뱀왕이 있긴 있는 모양이구먼!”

“그러게 말이야!”

그 후로 이 황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열심히 일
한 어부들은 가난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은 많이 흘렀습니다. 처음 이 마을에 이사왔던 사람
들은 늙어 거의 죽었고 그 다음 세대들이 살고 있던, 그러
니까, 한 세대가 흐른 어느 해였습니다.

그 날은 마침 추운 겨울날이라서 마을 사람들은 고기잡
이를 나가지 않고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의 사랑방에 모여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돌아오는 봄에
고기잡을 설계에서부터 총각들은 장가 가는 이야기까지 하
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야기는 또 당에 걸려 있는 뱀
왕의 그림 이야기로 바뀌어졌습니다.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거짓 말이야!”

“뭐가?”

“당집에 걸려 있는 뱀그림말야./”

“뱀그림? 그 게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야?”

“뭐, 꿈에 뱀왕이 직접 주었다는 허황된 말 말야”

“그렇지만, 오래 전부터 그렇게 전해 오고 있는데?”

“누가 그걸 보았나, 그 할아버지가 괜히 거짓으로 말한 거야./”

그러자 다른 청년들도 그 말에 동조를 했습니다.

“네 말이 맞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꿈에 준 그림이 자고 깨 보니 손에 쥐어져 있었다구? 하하하, 누굴 어린애로 아나”



“그래, 그건 어린애도 곧이 듣지 않을 소리야.!”

“우리 그 그림을 없애자?”

“그렇까, 하지만 동네 할아버지들이 알면 꾸중을 할텐데?”

“몰래 없애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그렇까”

청년들은 방에서 우루루 몰려 나가 당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방긋이 열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안은 캄캄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뱀귀신이 나와서 ‘요놈’ 하고 소리칠 것 같은 그런 으스스한 밤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뱀그림은 흐끄프레하게 보였습니다.

“무서워할 것 없어, 이까짓 그림이 뭘데.!”

“그래 무서울 게 뭐람.!”

청년 중에 담력이 큰 바우가 성큼 뱀그림 앞으로 다가가 나뻐했습니다.

“봐라, 뭐가 무서워, 야 네가 뱀왕이냐, 나와 내가 혼내줄 터이니”

청년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며 그림을 높이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찢어버려.!”

“아니야, 물에 떠내 보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자”

“어떻게?”

“불에 태우는 거야.!”

“불에?”

“그래야 흔적이 남지 않거든”

“좋아, 태워버리자.!”

청년들은 주머니에서 부싷돌을 꺼내어 불을 붙여 가지고는 그림을 태웠습니다. 얇은 종이는 삼시간에 후루루 타읍니다. 그런데, 다 타버려야 할 그림이 타지 않는 부분이 있었읍니다.

“아니, 이젠 왜 안타지?”

“안탈리가 있나, 다시 태워 봐”

청년 한 사람이 다시 부싷돌을 켜 불을 붙였지만 그것은 타지 않았읍니다.

“거참 이상하다. 이 얇은 종이가 왜 타지 않는 거지?”

“그 게 어느 부분이야?”

“바로 뱀의 모양이야.!”

“뱀의 모양이 타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렇대두.!”

“그렇다면 이 뱀그림의 전설이 정말인가”

“그렇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한다지?”

“땅에 묻어 주자?”

“그렇게 하자”

청년들은 그 뱀의 모양이 불에 타지않는 궁금증을 풀지 못한 채, 그것을 땅에 묻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이 뱀왕이 다시 나타났는지 또, 어부들이 풍랑을 자주 만났는지 알수 없으나 그 뱀신을 걸었던 사당은 지금도 남아 이곳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나가기 전에는 이 당에 모여 당제를 지내는 풍속만이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

효자와 집터

■ 효성이 지극한 청년에게
산신령은 집터를
잡아주고 잘 살게
했다는 이야기

효자와 집터

남면 몽산리에는 문씨(文氏)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처럼 문씨가 많이 살게 된 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옛날, 홍성군 어느 곳에 문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효성이 지극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효성도 지극하였거니와 형제간에도 우애가 두터웠으며 동네 어른들께도 예의가 바르고, 또,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문씨의 효행은 홍성 뿐만 아니라 먼곳에까지 널리 알려졌는데 그 효행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겨울철에 조기 낚시

문씨에게는 늙으신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느날, 어머니가 병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문씨는 날마다 정성껏 간호해 드렸지만 어머니의 병은 더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문씨를 불렀습니다.

“애야./”

“예 어머님./”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지?”

“고생은요, 어머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제가 고생은 왜 합니까”

“이 늙은 것이 죽어야 하는데 죽지는 않고 먹고싶은 것만 많구나”

“돌아가시다니요, 그런 말씀은 생각지도 마세요, 그보다 잡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요 어머님?”

“하지만 이 겨울에 그런것이 있을까?”

“글쎄 말씀해 보세요, 잡숫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예 어머님?”

“지금 그게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공연한 말을 했지, 조기가 이 겨울철에 있을리가 없는 것을 ……”

“어머니, 그럼 잡숫고 싶으신 게 조기란 말씀이지요?”

“그렇다니까, 그것도 생 조기로 만든 매운탕 생각이 나는구나, 내가 망녕든 게지 이 추운 겨울에 생조기 생각이 난담./”

“어머니, 제가 한 번 구해 볼 게요”

문씨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추운 날씨에 어디 가서 조기를 구하나 하고 생각하

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잡숫고 싶다고 하시는 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지, 구하는데까지 구해 봐야지.!”

문씨는 이렇게 다짐하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닷가에는 매서운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고 있어 조기는커녕 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즈음 같으면야 냉동된 조기가 사철있지만 그 당시에는 냉동기술이 없어 제철이 아니면 생선은 먹을 수 없고 여름에 말려논 굴비가 고작이었습니다.

헌데, 어머니가 먹고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린 굴비가 아니라 생 조기 매운탕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조기를 구한담.!”

문씨는 바닷가를 배회하다가 문득 낚시를 하고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누가 아는가 ……./”

그렇지만 문씨에게는 낚시대가 없었습니다. 문씨는 생 각 끝에 가까운 집으로 갔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낚싯대를 구할 수 있을까요?”

“낚싯대라니요?”

“고기를 낚는 낚대 말씀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이 추운 겨울에 낚싯대를 어디에 쓰려고 그러십니까?”

“낚시를 하려고 그러합니다./”

“어디 가세요?”

“바닷가에서요.”

“뭐요,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겠다구요? 여보시요 지금 이 어느때인데 낚시를 해요?”

집 주인은 이 사람이 정신이 돌지나 았았나 하고 의아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문씨는 자초지종을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어머니께서 병환이 생겨 누어계신데 생조기 매운탕을 먹고싶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집 주인은 문씨의 효성에 감동했지만 그렇다고 이 추운 날씨에 낚시를 하겠다는 문씨가 어쩐지 애뜻하게만 보였습니다.

“낚싯대는 있습니까만 조기가 잡힐까요?”

“혹시, 누가 압니까 잡힐는지 …… ”

낚싯대를 받아 든 문씨는 뛰다싶이 바닷가로 갔습니다. 현대, 미끼가 없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미끼가 있어야 하는데 문씨는 미쳐 그것도 생각 못하고 낚싯대를 구한 것만 기뻐서 그냥 온 것입니다.

“어쩐담./”

“나도 정신이 없지 미끼도 없이 낚시하러 오다니./”

문씨는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미끼를 구할 수가 없

었습니다. 망서리던 문씨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좋아 빈 낚시로 그냥 해보는 거다.!”

문씨는 미끼가 없는 그대로 낚싯대를 물에 담갔습니다. 겨울철에, 그것도 빈 낚시로 낚시질을 한다, 참으로 어이 없는 짓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성한 사람으로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씨는 빈 낚시에라도 조기 한 마리만 물리기를 염원했습니다.

“한 마리만.!”

“제발 한 마리만 돌려 주세요.!”

문씨는 누구에게인지 모를, 아무데나 빌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씨의 간절한 소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다. 해가 뉘엿 뉘엿 넘어가려고 해도 빈 낚시에는 아무것도 걸려들지 않았습다. 거기다가 손과 발이 시려 올고싶을 정도였습니다.

“아이 추워, 조기는 영 잡을 수가 없나 보다.! 한 마리만 낚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문씨는 안타까와 하면서 낚시줄을 건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 낚싯대가 묵직해 오며 무엇이 걸려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행여나! 문씨는 낚싯대를 힘껏 나꿔챘습니다.

“푸드득”

낚시에 걸려 나온 것은 문씨가 그렇게 바라던 조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조기다! 조기가 잡혔어!”

문씨는 필쩍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이 건 필경, 하늘이 도운 거야!”

문씨는 하늘을 향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후, 바빠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 위에는 조기매운탕이 올려 있었습니다.

“애야, 이 귀한 것을 어디에서 낚느냐?”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맛있게 드셨습니다. 문씨는 어머니께 지금까지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효성이 지극하니 하늘이 감동한 게다. 애야 참으로
고맙구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 여름에 홍시를 찾는 사람

먹고싶은 조기를 잡수면 행여 병이 나을까 싶었으나 어머니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 어느덧 삼복 더위에 이르렀습니다.

문씨는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구해다 드렸고 좋은 음식이란 음식은 다 대접했지만 어머니의 병은 더해만 갔습니다.

“내, 정성이 부족한 탓이야,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담.!”

문씨는 자나깨나 어머니의 병이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문씨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그래”

“왜요, 무슨 할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지난 겨울말이다”

“예, 어머니님”

“지난 겨울에 먹었던 조기매운탕은 참 맛이 있었어.!”

“그리셨어요. 왜 조기매운탕이 잡숫고 싶으세요?”

“아니”

“잡숫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요즈음은 조기 구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아니야, 조기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도 주책이지, 왜 없을 때만 먹고싶담!”

“그 게 뭔데요?”

“말해도 소용없어!”

“그래도 말씀해 보세요. 지난 번 조기도 생각지 않게 구하지 않았어요”

“하긴 ”

“말씀해 보세요, 그 게 뭔가”

“홍시야!”

“홍시요, 홍시라면 물렁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 그러나 이 삼복 더위에 그런것이 있을 리가 없지 않!”

“어머니 제가 한 번 구해 볼게요”

“ ”

문씨는 홍시를 어디를 가야 구할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고 밤이 되어 이슬하도록 생각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든 문씨는 홍시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녘이 다 되어 어렴푸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씨 앞에 머리가 하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리고 문씨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냐?”

“예, 저는 저의 어머니의 병환이 빨리 쾌유하기를 바라
고, 또 어머니께서 홍시를 잡숫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
더운 여름에 홍시를 구할 수가 없어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런데 너의 어머니 병은 쉽게 나을 병이 아
니란다. 내가 보아하니 네 효성이 칭찬할만 하니 내가
구하는 홍시는 내가 구해주마 너는 내가 이르는 대로 하



면 구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지금 곧 일어나서 산 너머 동네에 가 보아라, 그 동네에 가서 집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에 가면 홍시가 있느니라!”

“지금 곧 가야합니까?”

“그렇다 늦으면 안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그건 알 것 없다”

그리고는 온데간데 없이 할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문씨는 잠에서 깨어나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꿈 속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산 너머 동네로 갔습니다. 과연 그 동네 모든 집은 불이 꺼졌는데 한 집에서만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불빛이 보이는구나 빨리 가 봐야지!”

문씨는 그집 문 앞에 이르러 주인을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주인 계십니까?”

그러자, 방 안에서 금방 대답이 들려나왔습니다.

“누구시오?”

“예, 말씀드릴 게 있는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시오”

새벽녘이 된 이 시간, 찾아온 손님을 아무 의심없이 주

인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문씨가 방에 들어가 보니 방 안에는 큰 상이 있었고 그 상 위에는 여러 가지 음식이 가득 차려 있었으며, 또 그 음식 가운데는 문씨가 찾는 홍시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요?”

“홍시를 구하러 왔습니다./”

“홍시를요?”

문씨는 지금까지 자기가 왜 홍시를 구하는가를 자세히 이야기 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분이시군요, 효성이 그처럼 지극하니 꿈에 신령이 나타난 게요, 실은 오늘 저녁이 저의 부친님 제사날입니다. 나도 평소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홍시를 잘 보관했다가 제사상에 놓아 드린 것입니다. 몇 개 가지고 가지지요.”

주인은 선듯 홍시 몇 개를 내주었습니다. 문씨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한 뒤,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홍시를 가져왔습니다./”

“고맙다. 애야./”

어머니는 효성스런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 손가락을 잘라서

이런 아들의 효성에도 아무 효험 없이 어머니의 병은 점점 더해만 갔습니다. 병을 얻은지 꼭 1년이 되는 추운 겨울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더니,

“아무래도 나는 죽는가 보다 너의 그 효성도 보람이 없구나. 내가 죽더라도 너는 늘 그런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한 어머니는 세상을 하직하려고 했습니다.

“안돼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돼요!”

문씨는 울면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어머니는 거의 숨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옳지,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이면 살아난다고 했지!”

문씨는 부리나케 부엌으로 들어가 칼을 가지고 와서 무명지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피를 어머니 입 속으로 넣었습니다.

얼마후,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간신히 한 마디,

“고맙다. 아들아!”

하는 말만 했을 뿐, 기어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문씨의 슬픔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나실 리 없습니다.

문씨는 따뜻한 묘자리를 찾아 어머니를 장례지내고 삼

년 동안 그 묘 앞에서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문씨는 이웃 동네 예쁜 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동자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 그러니까 아들을 낳던 해, 나라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은 오랑캐가 쳐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오랑캐가 쳐들어 왔대./”

“젊은 여자들은 다 잡아간대./”

“여자 뿐인가, 집안에 있는 값진 물건까지 모두 빼앗아 간대./”

오랑캐들은 문씨가 사는 동네에까지 쳐들어와 갖은 행패를 다 부렸읍니다. 사람들은 산으로, 또는 이웃 동네로 피난가기에 바빴고, 그래서 동네는 온통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문씨도 아내와 함께 아들을 데리고 산 속에 숨었습니다. 얼마의 양식과 반찬을 가지고 산에 들어왔지만 여러 날이 지나니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랑캐들은 떠나갈 줄을 몰랐읍니다.

4. 다시 나타난 노인

“여보 큰일이군요,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동네로 내려가 보리다, 혹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나”

“그건, 안돼요, 지금 내려가면 오랑캐에게 붙들려 죽고 말아요, 또 붙들리지 않는다 해도 동네에 먹을 것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건 그래,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야 없지./”

“내일까지만 기다려 봅시다. 무슨 수가 있는가……./”

문씨 부부는 움막에서 이런 말을 주고 받으며 혹시 좋은 소식이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았습니다.

그날 밤,

문씨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골돌이 생각하다 잠이

들었는데 꿈 속에서 지난 번, 흥시감 있는 곳을 일러 주었던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또 오셨군요./”

“그래요, 내가 또 왔소, 고생이 많지?”

“고생하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저 오랑캐들이나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테지, 아마 머지 않아 저놈들은 도망가게 돼”

“그렇게 될까요?”

“그럼, 그러나 저러나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드니 나를 따라와요, 내가 살기 좋은 곳으로 안내해 줄터이니”

“그런 곳이 있나요?”

“있지, 우선 자네 혼자 나를 따라와요”

이렇게 말한 노인은 앞장서서 갔습니다. 문씨는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할아버지의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문씨는 숨을 헐떡이며 쫓아갔습니다.

“가면서 길을 잃지 않게 눈여겨 봐요, 그래야 다음에 찾아오기가 쉬울테니까”

“예, 할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노인은 어느 곳에 이르자 문씨에게 말했습니다.

“자, 다 왔어,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라구, 바로 여기야, 여기에다 집을 지어, 그리고 저쪽, 바로 저기에다 는 우물을 파고, 그리고 또 저기 보이는 저 들에다가 농



사를 지으라구, 알았지?”

“예, 할아버지!”

노인은 문씨에게 이렇게 일러 주면서 일러 주는 곳마다 지팡이를 들어 땅을 움푹움푹 파 놓았습니다.

문씨는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알려준 땅을 보니 기름진 땅이었고 집터나 우물터 역시 문씨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럼, 난 간다”

“가시게요, 그런데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누구셔요, 지난 번 홍시도 쉽게 얻을 수 있었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어요!”

“그래,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는 알것 없어, 그보다도 내가 한 말 잊지말고 그대로 해./”

“예, 할아버지./”

문씨가 너무 감사하여 땅에 엎드려 큰절을 하고 일어나 보니 할아버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에 계세요, 할아버지/”

문씨는 자기가 소리치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이상도 해라, 그 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일까?”

문씨는 궁금했지만 그보다도 날이 새면 할아버지가 일러 준 곳을 찾아가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비록 꿈에서 일러 준 곳이지만, 가는 길도, 또 그곳 지리도 다 알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문씨는 길을 떠났습니다.

“다녀 오리다”

“조심해서 다녀 오세요./”

문씨는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웬지 힘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꿈에 본 길이 그대로 있었고, 또 집터니 우물터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파 놓은 표시가 그대로 있어 문씨를 감동시켰습니다.

“이럴 수가./”

“그 할아버지는 누구인가./”

문씨는 다시 한 번, 할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문씨는 그곳에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효성스런 문씨에게 하늘이 복을 내려 주었다고 부러워 했습니다.

그 후, 이 마을 이름을 몽대(夢垓)라 이름을 지었는데 이는 꿈에 집터를 잡아 주었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며 지금은 남면 몽산리(南面 夢山里)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

✱ 잠깐 여기를 *****

○ 효심은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날 나아 기르신 부모님의 은공이 얼마만큼 클까요?

도 장 바 위

■ 마음씨 착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요술방망이처럼
복이 굴러온다는
이상한 도장 이야기

도 장 바 위

운산면 용현리에는 보원사지라는 여러가지 문화재가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보원사지 입구에서 보면 바른쪽에 조그마한 돌이 있습니다.

얼핏 보아, 도장처럼 생긴 이 바위는 생긴 그대로 이름이 지어졌는지 도장바위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장바위(印岩)라는 이름은 돌 모양이 도장처럼 생겨서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그런 이름이 지어지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랜 옛날, 어느 곳에 부족(部族)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쪽에 있는 부족과 동쪽에 있는 부족은 늘 싸우며 지냈습니다.

그런, 북쪽에 있는 부족의 족장이 너무 욕심이 많아 싸움이 자주 일어난 것입니다. 그 족장은 남쪽에 있는 부족이 잘 사는 것도 시기했고, 또 때를 보아 남쪽 부족을 쳐서 자기의 영토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반면, 남쪽의 족장은 마음씨가 착하고 부족을 잘 다스려 날마다 평화로왔으며 살기가 좋았습니다.

족장의 마음이 좋아서인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정의롭고 착했습니다.

집안에 평화가 있으면 잘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남쪽의 부족은 점점 그 힘이 강대하여졌고, 북쪽의 부족은 점점 나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도는 말로는 남쪽의 부족이 것처럼 잘 사는 이유는 남쪽의 족장이 가지고 있는 도장이, 이상한 도장이어서 그 도장의 힘으로 잘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장은 아무나 가질 수 없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 가져야 힘이 생기지 마음씨가 나쁜 사람이 가지고 있

으면 오히려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은 북쪽의 족장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거 참, 이상한 도장이구나./”

“그렇습니다 족장님./”

그 도장을 빼앗을 수는 없을까?”

“그야 전쟁을 해야지요, 우리가 쳐들어 가서 그 도장을 빼앗으면 되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이다. 그럼 곧 쳐들어 갈 준비를 하자./”

“그런데 족장님”

“왜 그래?”

“그 도장은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 가져야 그 힘이 생긴다는데 그 도장을 빼앗아도 될까요?”

“뭐야, 그럼 나는 마음씨가 나쁘단 말이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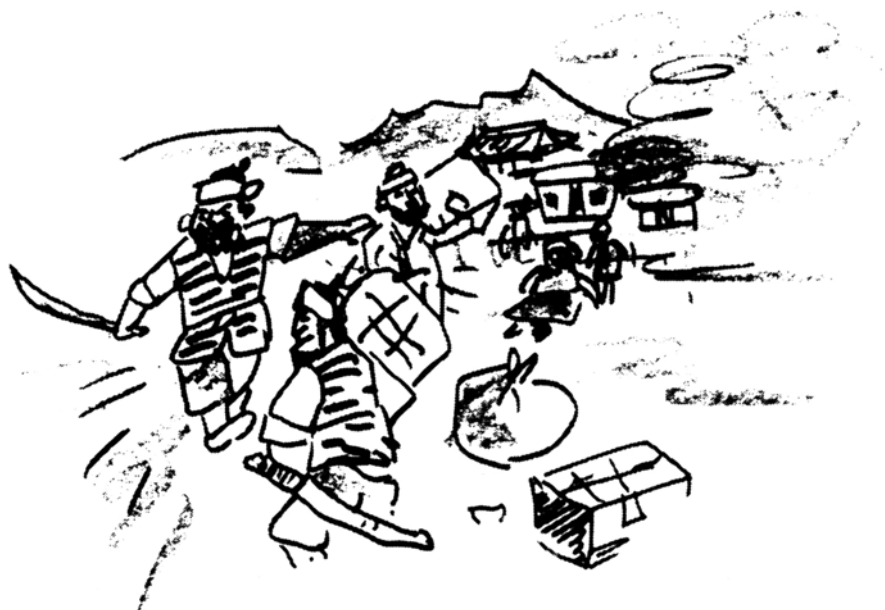
족장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부하가 걱정되어 말했지만 족장은 화를 내며 부하를 꾸짖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쳐들어가 그 도장을 빼앗읍시다./”

이렇게 하여 북쪽의 부족에서는 군사를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쪽의 부족에서는 전과 같이 열심히 일하며,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북쪽의 부족이 쳐들어 온 것입니



다.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북쪽에서 쳐들어 왔대!”

아무 준비도 없이 곤히 자고 있던 남쪽에서는 우왕좌왕
어찌할 줄을 모르고 찢찢매었습니다.

남쪽의 족장도 난리가 났다는 소식에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느 새 왔는지 충성스런 부하들이 근심 어
린 얼굴로 모여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다니 무슨 소리요?”

“북쪽에서 쳐들어 온 모양입니다!”

“음, 그자가 기어히 쳐들어 왔군, 평소 마음씨가 나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누가 알았나./”

“전부터 계획하고 쳐들어 온 모양입니다. 군사들이 어찌나 날쎄지 우리가 도저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놈들이 무엇 때문에 난리를 일으킨 거야?”

“도장이랍니다./”

“도장이라면?”

“족장님이 가지고 있는 도장이지요, 그 도장이 잘 살게 하고 또, 평화를 가져다 주는 도장이란 걸 안 모양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큰 일이지, 이 도장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할까요?”

“숨겨야 해, 누구 말을 잘 타는 사람을 시켜서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추고 오도록 해라./”

이렇게 하여 말을 잘 타는 사람은 그 도장을 가지고 전쟁터를 빠져 나와 운산면 용현리 보원사지가 있는 바위 밑을 파고 숨겼습니다.

북쪽 추장이 들이닥쳤을 때는 이미 도장은 멀리 가고 없었을 때입니다.

“도장을 내 놓아라./”

“없다./”

“없다니, 다 알고 왔다. 만일 거역하면 목숨을 빼앗을 테다.!”

“그래도 없다.!”

“그럼 넌 죽고 만다.!”

북쪽의 족장은 칼을 들어 남쪽의 족장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 때,

“족장님, 족장님.!”

북쪽 족장의 부하가 다급히 다가오며 불렀습니다.

“왜 그래?”

“도장을 가지고 멀리 도망갔다고 합니다.!”

“도망을 가?”

“예.!”

“고얀 놈, 빨리 뒤를 쫓아라.!”

북쪽의 족장은 남쪽의 족장을 죽이려던 칼을 멈추고 부하를 재촉하여 도장을 가지고 달아난 남쪽 족장의 부하를 쫓아갔습니다.

“전 속력으로 가라.!”

“더 힘껏 뛰어라.!”

북쪽의 족장은 말 위에서 부하를 독려하며 말을 몰았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쫓아갔지만 벌써 도장은 바위 밑에 숨겨 놓 뒤였습니다.



“저 바위 밑에 숨겨 놓 것 같다 ,바위 밑을 파 보아라.”

북쪽 족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부하들이 팽이와 삽을 들고 바위 밑을 파기시작했습니다. 헌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뇌성벽력이 일어나고 산에서 돌이 날아오는가 하면 회오리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리고는 공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놈들, 꼼짝마라, 만일 도장을 파내면 화가 있으리라 /”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산이 울렸습니다. 부하들은 이 뜻하지 않은 호통에 너무 무서워 혼비백산 달아났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그 도장이 예사 도장이 아니라고

한마디씩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도장인데 하늘에서 소리쳐?”

“그 도장이 예사것이 아니라, 마음씨가 나쁜 사람이 가지면 화를 당한다는 거야!”

“그럼, 마음 착한 사람만 가질 수 있구먼, 그 도장을 가지고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구별 할 수도 있겠네?”

“아무렴, 그보다도 그 도장을 간직하고 있으면 부자가 되고 나라가 평화스럽게 된대!”

“거 참, 희한한 도장이구먼!”

그후, 사람들은 그 근처에 아무도 얼씬하지 못했습니다. 그 도장이 욕심이 났지만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 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을의 원님도 많이 바뀌고 세상도 많이 변했습니다.

어느 날, 부성태수로 임명된 태수는 보원사지 근처를 지나다가 이상하게 생긴 도장바위를 발견했습니다.

“저 바위가 참 이상하게 생겼구나 저 게 무슨 바위지?”

“예 도장바위라 하옵니다”

“도장바위? 그렇구나 도장처럼 생겼구나!”

“그 게 아니오라 …… ”

“그 게 아니라면?”

“그 도장바위에는 이상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상한 전설이 무엇이고?”

태수를 모셨던 나졸은 도장바위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 건 말쟁이들이 만든 말에 불과한 것일 게다./”

“아니옵니다. 그 도장은 아무나 가질수 없고 마음이 착한 사람의 것이라 하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마음이 착하니 내가 가져야 겠다. 여봐라, 이 바위 밑을 파도록 해라./”

태수가 명령하자 나졸들은 마음이 꺼림직했지만 누구의 명이라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팽이와 삽을 든 나졸들이 바위 밑을 파고 있었습니다. 땅을 파는 나졸들의 마음이 조마조마 했지만 별일이 없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야./”

“이만큼이나 뺏는데도 아무 일이 없잖아?”

“그렇게말야./”

“전설은 믿을 게 못돼./”

“누가 아니래./”

나졸들은 땀을 흘리며 열심이 뺏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이고 소나기가 쏟아지며 천둥과 번개가 치며 회오리바람이 모래를 날려 바위 밑을 파던 나줄들을 덮쳤습니다.

“사람 살려!”

“.....!”

나줄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파던 팽이와 삼을 팽개치고 도망갔습니다. 어쩌면 그 부성태수도 마음이 그리 곱지 못한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그 일 후로, 사람들은 아무도 그 바위 밑을 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로는 그 때, 나줄들이 파던 팽이와 삼이 그 속에 들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파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 바위는 오랜 세월 속에 이처럼 이상한 전설을 몸에 지닌채 비바람에 깎이여 조금씩 조금씩 모양이 변하여 가고 있고 이 수수께끼같은 얘기만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피로감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

막대기 장군

■ 갓난 아이가
재주를 부리는 것이
두려워 부모는 울면서
아들을 다듬이 돌로.....

막대기 장군

태안읍을 뒤에서 안고 우뚝 솟아 있는 백화산은 우리고장 명산(名山)중의 하나입니다.

나무보다 바위가 많은 이산에는 계곡마다 맑고 시원하고 물맛 좋은 물이 사철 흐르는 때문에 여름에는 계곡을 찾는 피서객도 많습니다.

백화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서쪽으로 능선이 쭉 뻗어 있으며 그 능선을 타고 내려가다 보면 계곡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을까지 이어진 작은 냇물이 흐르는데 이 냇물에는 여름철 아이들의 수영장이 되고 또,봄철부터 얼음이 얼기 전까지 마을 아낙네들의 빨래터가 되기도 하며 이 물을 이용하여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처럼 유익하게 이용되는 이 냇물에도 알고 보면 기이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냇물이 생기기 전 오랜 옛날, 그 때는 이곳에 큰 동네가 있었는데 이 동네에는 주로 “방”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동네를

방가뭇 ' 또는 '방가맛' 이라고 부르는데 방씨가 많이 살고 있던 관계로 그런 이름이 지어졌으며 '뭇' 이니 '맛' 이니 하는 동네 이름은 지금 소개해 드리려는 이야기 속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해 봄, 방씨 성을 가진 젊은 부부에게 남자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아기는 나면서부터 건강하고 눈빛이 빛나며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난지 겨우 사흘이 됐는데도 벌써 저벅저벅 걷는가 하면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이한 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아무래도 기인이 났어./”

“기인이 아니라 영웅이 될지도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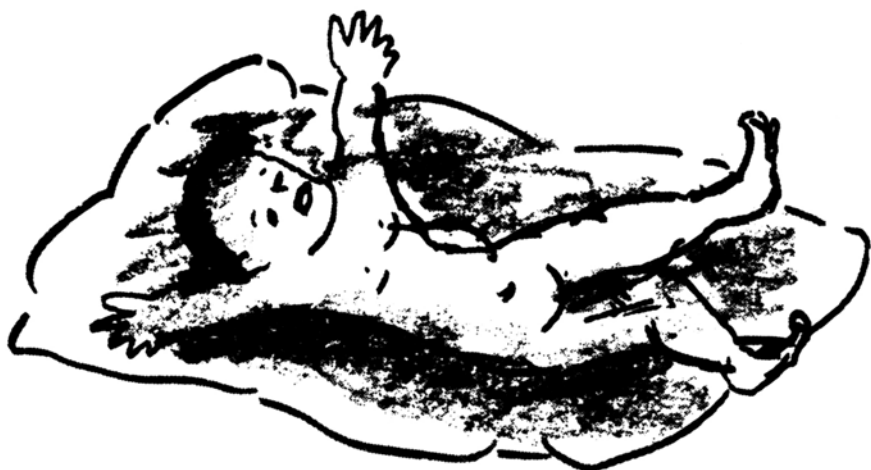
“그 반대로 요사스런 인간이 아닐까?”

“이건 변고야 변고./”

동네 사람들은 이 이상한 아기의 일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 모인 곳마다 화제의 꽃을 피웠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키도 컸고 하루가 다르게 힘도 셧었습니다.

부모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라는 것을 볼 때는 기쁘고 대견스럽다가도 사람들 말대로 요물이니 요사스러니 하는 생각에 이르면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여보 걱정이예요!”

“누가 아니래!”

“장차 저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알면 누가 걱정을 하겠나!”

부모들의 입에서는 한숨이 끊이지 않았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유난히 날씨가 쾌청하여 아기의 어머니는 집 앞에 있는 우물로 빨래를 하러 나갔읍니다. 나갈 때 보니 아기는 곧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읍니

다.

“아기가 자는 동안 빨리 빨래를 해가지고 와야지”

어머니는 샘가에서 부지런히 빨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빨래감 한 가지를 덜 가지고 온 것이 생각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나머지 빨래감을 가지고 나오던 어머니는 아기가 지금도 잘 자고 있는가 궁금하여 살며시 방문으로 다가가 찢어진 문틈으로 방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방안에 있던 아기는 온데간데 없고 웬 젊은 청년이 갑옷을 입고 긴 칼을 차고 어깨에는 활을 메고는 무엇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서움과 호기심과 그리고 야릇한 기분에 감싸여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엿보았습니다.

늠름하게 생긴 그 청년은 개신장군이냐 되는 듯이 위험이 있어 보이고 눈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청년의 손에는 막대기가 여러 개 들려졌는데 청년은 그 막대기를 보고 무슨 말인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주문을 외우고 있는 모양인데 도대체 저 청년 장수는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우리 아기는 어디로 갔담 /”

어머니는 궁금증으로 마음이 조였지만 지금 방으로 들

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이 막대기를 보며 한참 동안 주문을 외우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막대기였던 것들이 꿈틀 꿈틀 움직이더니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아니라, 사람으로 변한 그 사람들은 어느새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병사들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럴 수가!”

“이게 무슨 변고람!”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닌가!”

어머니는 너무 놀라와 정신을 수습할 길이 없었습니다.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숨은 턱밑까지 차 올랐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러나 놀라운 일은 여기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청년 장수의 입에서 벽력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 차렷./”

그러자 병사들은 일렬 종대로 쭉 늘어섰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들은 이 나라를 위하여 싸워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가진 병사들이다. 오늘부터 내가 대장이 되어 훈련을 시킬터이니 내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알았나?./”

“예, 대장님./”

군사들은 목청을 돋구어 힘있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갓./”

“뒤로 돌아 갓./”

“우향 앞으로 갓./”

“좌향 앞으로 갓./”

병사들은 발걸음 하나 틀리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칼쓰는 법을 배운다 모두 칼을 뽑아라./”

“쟁강./”

“쟁강./”

“쟁강/”

칼 뽑는 소리도 요란스럽게 병사들은 칼을 뽑아 들고 대

장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활쏘는 훈련이다.!”

그러자 병사들은 활에 살을 재어 벽에 걸려 있는 과녁을 향해 당겼습니다. 화살은 하나도 빗나감이 없이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어머니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훈련을 하던 병사들은 대장이 다시 주문을 외우자 모두 막대기로 변했습니다. 대장은 그 막대기들을 아기가 낮잠 자던 포대기 속에 넣고는 다시 이상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이젠 또 웬일입니까. 그 대장이 갑자기 몸이 작아지면서 아기로 변하더니 포대기 속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럼 그 대장이 아기였단 말인가.!” 이럴 수가……”

어머니는 ‘이럴 수가’를 연발하면서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두려움을 아기는 모르는듯, 평화스럽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맥이 풀리고 정신을 가다듬을 수가 없어 빨래할 일도 팽개친 채, 아기의 일로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때, 남편이 돌아오자 어머니가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 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농담하고 있는 거요?”

“농담이라니요?”

“농담이 아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거짓말도 끝이 들을 말을 해야지 그런 엉터리 얘기가 어디 있소?”

“아이 참 ………”

어머니는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통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일어난 일은 아무도 끝이들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당신이 정 못믿으시겠다면 내일 우리 같이 보기로 합시다!”

“내일도 또,그짓을 할까?”

“누가 알아요, 오늘 그런 일을 했으니까 내일도 할는지”

“그럼 내일 한 번 보기로 합시다”

그날 밤, 어머니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이 들려고 하면 낮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밥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아기가 낮잠을 자거든 내게 알려주세요. 나는
들애 나가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약속을 하고, 아버지는 들애 나가고
어머니는 다시 빨래를 하러 우물로 갔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가 집에 와 보니 아기가 낮잠을 자고 있
었습니다. 어머니는 들애 있는 아버지께 알렸습니다.

“여보 아기가 자고 있어요!”

“그래, 그럼 가 볼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가 잠든 방문 앞에서 방안을 향
해 귀를 기울렸습니다. 이윽고, 방안에서 두런두런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
다. 그랬더니 어제와 같은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아기는 장군이 되고, 그리곤 손에 든 막대기를 향해 주
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막대기들은 병사로 변했
고 아기 장군은 어제처럼 병사들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갓!”

“뒤로 돌아 갓!”

“쟁강쟁강!”

“획, 획!”

칼이 부딪치고 화살이 나르고,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읍니다.

아버지는 이 기막힌 광경에 넋을 잃었고, 어머니는 근심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보았읍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방안이 갑자기 잠잠해진 것을 보니 이제 훈련이 끝난 모양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방 안을 들여다 보니 아기는 언제 그런 일을 했느냐는 듯이 여전히 자고 있었읍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도깨비에 홀린 게 아닐까?”

“이런 대낮에 도깨비가 뭐예요, 난 어제도 보았는데”

“그러게 말야, 도깨비에게 홀린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변고람!”

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쉬었읍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에게 말했읍니다.

“내일 한 번 더 봅시다. 내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요, 어쩌면 집안이 망할 징조인지도 몰라요!”

“집안이 망할 징조라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기가 장군이 되고 막대기가 군사가 된단말이요, 이건 아무래도 귀신들의 장난이 분명해요”

“귀신이!”

그러나 다음 날도 아기는 여전히 병정놀이를 하다가 잠

을 자곤 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어머니는 밤새 의논을 했습니다. 아기를 어떻게 할까 하는 의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기를 죽여야 할까 봐요./”

“뭐라구요, 아기를 죽인다구요?”

“그래요, 죽여야 해요./”

“그건 안돼요./”

“안되다니, 그럼 우리가 역적으로 몰려서 삼족이 망해도 종단 말ियो?”

“왜 우리가 역적으로 몰려요?”

“아니, 보고도 몰라요, 저놈이 막대기 군사들을 훈련하는 것은, 아무래도 임금을 몰아내고 제가 임금 노릇을 하려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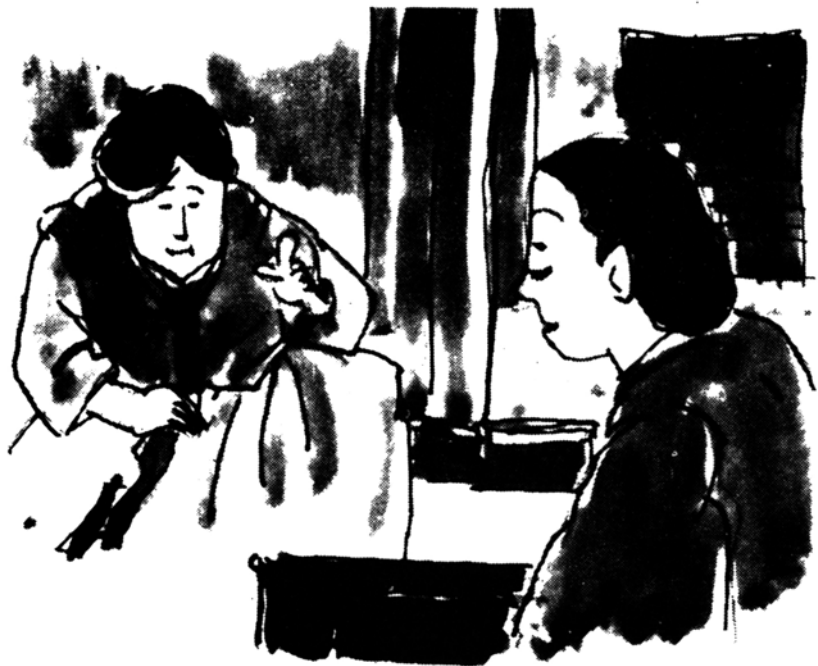
“그래서라니, 만일 그런 짓을 하다 실패하면 아기가 죽는 것은 물론, 우리 가족도 죽는 것은 뻔한 일이고 당신의 친정도 모두 죽음을 당하고 말게요”

“그러나 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반대라니?”

“우리 아기가 임금님을 도와, 나라를 위하여 큰 공을 세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



“왜요?”

“큰 인물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구, 훌륭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정상으로 커야지 저렇게 엉뚱하게 큰 사람은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단 말이요!”

“그럴까요?”

“그럴까요가 뭐야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아깝지만 큰 화를 당하기 전에 아기를 죽입시다!”

“그러나 어떻게 아기를 죽여요!”

어머니는 소리 없이 밤새 울었습니다. 아기를 죽여야 하다니! 그러나 아버지의 말처럼 나중에 역적으로 몰리면 차라니 죽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아기는 병사들에게 훈련을 시키고는 곧히 자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어, 지금 죽어야겠어!”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방구석에 있던 다듬이돌을 들어 아기의 목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까지 아기가 그 이상한 재주를 부린 힘으로 보아서는 그까짓 다듬이돌 쥘은 쉽게 밀치고 일어날 것도 같았는데 아무 반항 없이 죽어갔습니다.

아기의 죽음을 보자 어머니는 통곡을 하였고 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더 기이하고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던 아기가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갑자기 날개가 달린 백마로 변하더니 머리를 숙여 아버지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히히힃! 히히힃! 슬피 울더니 백화산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깜짝놀라 백화산을 바라보니 이건 또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맑던 하늘이 먹구름이 덮히고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백화산 꼭대기가 짝 갈리면서 백마는 그 속으로 들어가고 난데 없는 물줄기가 솟아났습니다.

그 물줄기가 어찌나 크고 힘이 센지 삼시간에 백화산을 갈라 골자기를 만들고 아랫동네를 홍수로 휩쓸게 했습니다.

“물이다!”

“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다니!”

“산신령이 노한 게야!”

동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로
찢절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은 모두 아기가 죽은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아까운 아이를 죽였어!”

“영웅을 죽인 거여!”

“하지만 누가 아나, 그 아버지 말대로 역적이 된다면 차
라리 죽인 것이 나을지도 모르지!”

막대기 장군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후, 그러니까 아기가 죽고 백화산이 갈라져 물이 흐르
던 그곳에는 큰 냇물이 흘렀고 오랜 세월이지만 지금도 조
그마한 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태안 중. 고등학교 뒷쪽으로 흐르는 냇물이 바로
그때 생긴 냇물이며 그 동네 이름도 ‘방가못’ 또는 ‘방
가맛’ 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방씨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이
며 ‘방가’ 라는 이름 위에 ‘못’ 이니 ‘맛’ 이니 하는 말
이 붙은 것은 그때 생긴 냇물을 막은 ‘못’ 또는 ‘맛’ 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잠깐 여기를 *****

-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것은 큰 잘못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 한번 더 생각하는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싸우다 망한 두 스님

■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둘다 망한다는
지영대사 이야기

싸우다 망한 두 스님

옛날 팔봉산에는 「경수암」이란 절이 있었습니다.

이 절에는 지영대사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는데 이 지영대사는 학식이 많고 재주도 좋을 뿐만 아니라 앞날까지 훤히 내다보는 도통한 스님이었습니다.

특히, 이 스님은 지리학에 밝아 지영대사가 잡아주는 땅에 집을 짓거나 묘를 쓰면 그 자손은 번창하고 훌륭하게 되어 사람들은 이 지영대사에게 묘자리나 집터를 보아달라고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영대사에게 하나의 나쁜점이 있는데 그것은 남을 깔보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수암 바로 너머에는 이름은 잘 알 수 없지만 큰 절이 있었는데 이 절은 스님이 한 200명쯤 사는 절이어서 사람들은 이 절을 큰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큰절의 주지 스님도 지영대사만큼이나 재주가 있고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스님 역시 남을 미워



하고 시기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절 주지스님과 지영대사는 서로 자기가 제일이라고 교만하였으며 서로 잘되는 것을 시기하며 살았습니다.

어느날, 지영대사가 외출을 하기 위하여 암자를 나서면서 데리고 사는 종자에게 말했습니다.

“애야, 내가 오늘 먼곳을 다녀올려고 하는데 나 없는 사이에 큰절 스님이 와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듣지 말아야 한다. 그 스님이 하는 소리는 모두 거짓말이거든, 그러니까 절대 그 말을 들어서는 안된다. 알았지?”

“예, 염려말고 다녀오세요. 큰절 스님이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저는 그 소리가 모두 거짓말이려니 하고 귀

담아 듣지 않을게요”

“웁지, 그래야지, 그럼 난 다녀온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지영대사가 나간지 몇 시간 지난 후였습니다. 전에는 잘 오지 않던 큰절의 주지스님이 이날따라 경수암에 찾아왔읍니다.

“너의 선생님은 어디 계시냐?”

“예, 먼곳을 다녀 오신다고 얼마 전에 나가셨는데요”

“그러나, 어참 이곳까지 오느라고 힘이 드는구나, 목도 마르고, 애야 너 부엌에 가서 시원한 물 한 그릇만 떠다 오 목이 마르구나”

“물어요, 물 없어요.!”

“물이 없어?”

“예.!”

“이놈아, 사람 사는 집에 물이 없다니 너는 물도 먹지 않고 사느냐?”

“먹긴 먹지요”

“그런데?”

“우리절은 우물이 없어서요, 저 아랫 마을까지 가서 물을 길어다 먹는답니다. 제가 끽끔거리고 간신히 한번 길어오면 겨우 밥을 하기도 부족한데 남는 물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럼 너 고생이 말이 아니구나. 어때,내가 우물을 하나 파주고 갈까?”

“소용 없어요./”

“왜?”

“이곳은요, 아무리 파도 물이 안나와요”

“그렇지 않아 내가 우물을 하나 파줄게 호미를 가져와봐”

“호미요? 하하하, 스님도 웃기시네 팽이로 파도 안나오는데 호미로 파요?”

“이녀석이 못밧겠으면 네가 직접 파 봐./”

“제가요?”

“그래, 호미를 가지고 와서 멀리 갈 것도 없어,바로 부엌 귀퉁이를 파 보아라”

“좋아요, 그러나 물이 안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이 안나오면 내가 매일 너 대신 물을 기러다 주마”

“정말이지요?”

“그렇다니까./”

소년은 신이나서 호미를 들고 부엌 귀퉁이를 팠읍니다. 그러자 이게 웬 일입니까. 갑자기 물줄기가 펄펄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야, 물이다. 물이야 이제 저 아랫마을까지 가지 않아도 되겠네./”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예, 정말이네요, 스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난 간다”

큰절 스님은 우물을 파 주고는 휘적휘적 큰절로 갔읍니다.

“야 신난다. 스님이 오면 자랑을 해야지, 내가 우물을 팠다고./”

소년이 이렇게 신이나서 싱글벙글하고 있는 동안에 지영대사는 불 일을 보고 암자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암자가 보이는 산등성이에서 잠시 쉬었다 가려고 앞서서 암자를 보니 암자를 둘러싼 산이, 기운을 잃고 죽어 있었습니다.

“아빨싸, 내가 없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지영대사는 걸음을 재촉하여 암자에 당도하니 종자가 마중을 나오며 소리쳤읍니다.

“스님, 우물을 팠어요, 물이 어찌나 시원한지 한 번 잡춰보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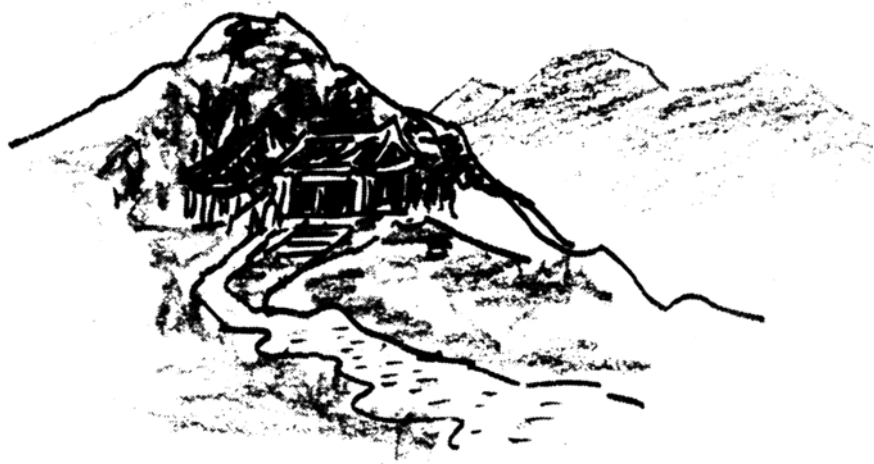
“뭐야, 우물을 파?”

“예./”

“누가 너 보고 시키지 않은 일을 하라고 했니?”

“큰절 스님이요”

“그랬구나, 그놈이 나를 망하게 한 거야./”



“왜요, 우물을 파면 안되나요?”

“이놈아, 우리 절터는 배모양을 한 배형국이란다. 배에 밀창이 뚫여 물이 들어오니 그 배는 이제 가라앉게 돼,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됐구나!”

“그런줄도 모르고 전 물이 하도 귀해서 하라는 대로 했군요, 죄송합니다. 스님!”

“아니다. 속인놈이 나쁘지!”

그 후로 지영대사의 절은 스나브로 망해갔습니다.

“이놈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줄 알구!”

어느날, 지영대사는 변장을 하고 큰절을 찾았습니다.

큰절에는 200명이나 되는 중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

침밥을 하기 위하여 쌀을 씻는 쌀뜨물이 양회다리 (지금의 어송리) 까지 흘렀읍니다.

“음, 과연 큰절이구나 그러나 이 절도 망할 날이 머지 않았어./”

지영대사는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밥짓는 젊은 스님을 불렀읍니다. 그런데 그 젊은 스님의 손가락 사이가 많이 진무러 있었읍니다.

“네 손가락 사이가 왜 그렇게 진무러 있느냐?”

“예, 날마다 이 많은 식구 밥을 하다 보니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어 이렇게 진무르게 됐어요./”

“그래, 그럼 그 손을 내가 고쳐줄까?”

“어떻게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단다.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일이야”

“쉬운 방법이 있다구요? 좋은 약은 다 발라보았는데 안 나아요 그런데 무슨 쉬운 방법이 있겠어요”

“있다니까./”

“그럼 가르쳐 주श्य요?”

“저기 보이는 저 바위 있지?”

“예, 저기 산을 받치고 있는 듯한 여러 개 바위 말인가요?”

“그래, 그 바위 중에 한개만 빼버려라, 그럼 네 손이 나

을 거야.!”

“바위 하나만 빼버리면 손이 나아요? 그럴리가 ……”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할까 봐? 시키는대로 해”

“좋아요.!”

“그런데 한가지 주워해야 할 게 있어.!”

“그게 뭔데요?”

“밤에 몰래 해야 하는 거야, 아무도 안 볼 때, 팽이를 가지고 가서 바위 하나만 빼면 돼”

“손만 낫는다면야 그야 어렵지 않지요.!”

“그럼 난 간다.!”

그날 밤, 식사를 맡아 하던 젊은 중은 바위가 가지런히 서 있는 곳으로 가서 바위 하나를 빼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손이 낫는다고 했지.!”

좋아하는 젊은 스님을 저쪽에서 몰래 숨어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지영대사였습니다. 지영대사는 젊은 중이 바위를 빼버리자 얼굴에 웃음을 가득담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다. 이 절도 곧 망하게 돼, 이 절터는 옥녀탄 금형이거든 옥녀가 거문고를 타는 형국인데 거문고 줄을 받치고 있는 돌을 빼냈으니 거문고 소리가 제대로 나 올리 없지, 히히히, 이놈아 네가 나를 망하게 했으니 너도 망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 지영대사는 어두운 산길을 터덕터덕 내려

가고 있었읍니다.

그 후로 웬지 모르게 이 큰절은 점점 망해갔고 그러다 보니 중들도 이곳저곳 뿔뿔히 헤어져 몇 사람만 남게 됐읍니다.

이렇게 되자 밥짓는 스님의 손도 점점 나아가고 있었읍니다. 그것은 밥을 많이 할때는 손에 물기가 마를 날이 없었으나 식구가 적어 밥을 조금하게 되니 손이 마르게 되고 물기가 없으니 진무른 곳이 나올 수 밖에 없었읍니다.

얼마후, 큰절도 망하고 말았읍니다. 지금도 팔봉산에 올라가면 지영이절터라는 곳이 남아 있고, 큰절터가 남아 있어 때로는 기와장도 발견되고 주춧돌로 발견되는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못살게 하면 모두가 망한다는 교훈만 남긴 채,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의 발길에 채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가족에

■ “사람의 욕심은
가족에 있고
개의 욕심은
고기에 있느니라.”
어린 송관하 군수의
명패한 재판－.

사람의 욕심은 가족에

독자 여러분은 우리고장 전설집 제 1집에서 열 다섯 살의 송관하 태안 군수의 이야기를 읽어 알고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어린 나이에 군수로 부임해서,아전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깔보는 것을 질그릇갓을 쓰게하여 버릇을 고쳤다는 통쾌한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송관하 군수가 어린 나이지만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는 명재판관으로도 유명한데 그 이야기를 여기 소개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송군수가 부임하러 오는 도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서 여러 날을 걸려 지금 팔봉면과 부석면의 사이에 있는 배재라는 곳에 통비주막 (지금은 없음) 이라는 주막이 있었는데 이 주막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때, 송군수의 외삼촌인 최판서도 따라왔었는데 어린 조카가 염려되



어 따라왔던 것입니다.

군수 일행이, 피곤한 몸을 쉬려고 주막집 방에 앉았을 때, 포수 한 사람과 농부 한 사람이 뛰어오더니 군수에게 절을 하고는 포수가 먼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 이런 억울할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원래가 총을 잘 쏘아서 오늘도 지나가는 수달피를 총으로 쏘아 잡았는데. 아,글쎄 이 농부가 자기집 개가 잡았다고 우기고 있으니 누가 옳고 그른지 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농부가 손으로 땅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오라 우리집 개가 이 수달피

를 몰고 가서 막물어 잡으려 하는데 이 포수가 염치없게도 총을 쏘고는 자기가 잡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의집 개가 잡은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아전들이나 외삼촌인 최판서도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될까 머리를 갸웃등거리며 군수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었읍니다.

한참 동안 묵묵히 앉았던 어린 송군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읍니다.

“사람은 수달피를 죽이고
개는 수달피를 쫓으니
사람의 욕심은 가죽에 있고
개의 욕심은 고기에 있다.
가죽은 사람에게 주고
고기는 개에게 주어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 명재판에 눈을 둥그렇게 뜨고 군수를 바라보았읍니다.

“거참, 현명한 재판이구나./”

최판서도,

“우리 조카가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수달피의 가죽은 포수가, 수달피의 고기는 개임자에게 돌아갔읍니다.



이런 재판도 있었읍니다.

송군수가 부임한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읍니다.

아전들은 송군수가 나이가 어린데도 너무 영특하여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러워도 하고, 때로는 놀려줄 생각도 하던 때였는데 그 날도 아전들은 장기를 두면서 군수를 놀려줄 일이 없나 의논하던 중이었읍니다.

“여보게, 지금 군수께서 뭐하고 계신가?”

“응 책을 읽고 있더군”

“뭐 골려줄 일이 없을까?”

“뭐야, 골려주다가 또 질그릇갓을 쓰고 오라고 하면 어쩔려고?”

“또 그러리라고, 하여튼 군수를 멋지게 골려줄 일이 있으면 사흘을 굶어도 배가 안고프겠다”

“그래, 그럼 군수 골려줄 일을 찾아볼까”

이렇게, 아전들이 수근거리고 있는데 병어리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손짓 발짓을 하며 떠들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알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됐다. 이놈을 군수에게 보내자”

“좋아, 제아무리 영특한 군수지만 병어리 말까지 들을 수 있을려고./”

“히히히, 군수 놀려줄 일이 생겼구나 이놈이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는 모양인데 소지(고소장)도 없으니 이놈에게 흰종이나 한장 들려서 군수에게 보내자./”

“좋은 생각이야, 아무 글씨도 없는 소지를 보고 군수가 뭐라고 할까?”

아전들은 신이나서 떠들고는 병어리에게 흰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안으로 들어가면 머리에 갓을 쓴 군수가 있으니 들어가서 얘기하라고 손짓 발짓을 하여 병어리를 군수에게 보냈습니다.

병어리가 군수에게 종이를 보이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고 또 소지가 빈 종이라 이것은 분명히 아전들이 자기를 놀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아전들에게 호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예, 예./”

아전들이, 그러면 그렇지 어린 군수가 무슨 수가 있겠는가 하고 군수 앞에 가 머리를 숙이니,

“이놈들아, 어찌 소지가 한 종이나, 이것은 네놈들의 짓이렸다. 지금부터 이 병어리를 따라가 병어리가 가리키는 사람을 잡아오너라./”

하면서 병어리에게 뭐라고 손짓 발짓을 하니 병어리가 오던 길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아전들이 그 뒤를 따라가 보니 병어리가 어느 부자집 주인을 가르키며 소리소리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전들이 군수의 명령대로 그 부자집 주인을 끌고 와 군수 앞에 부복시켰습니다.

“네이놈, 내가 다 안다. 네 죄를 자백하렸다./”

군수의 입에서 추상같은 명령이 내리자, 그러지 않아도 명재판관이라 소문난 어린 군수임을 안 부자는 별별 떨며 자백하는 것입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래 무슨 죄를 저질렀지?”

“예, 이 병어리를 10년 동안 부려먹으면서 한 푼의 품삯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 뿐인가?”

“예, 병어리가 말을 듣지 않을 땐, 장가를 들여준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그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품삔도 안주면서 장가 들여준다고 속여? 이놈, 아무리 말못하는 병어리라고 사람 대접은 커녕, 거짓말로 속였으니 네 죄가 크다. 법대로 한다면 네 볼기가 성하지 못하겠지만 당장 이 병어리에게 품삔을 따져 주고 또 장가까지 들여준다면 용서하겠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품삔을 따져 주고 장가도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송군수는 또 한 사람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군수를 골려주려던 아전들도 군수의 영특함에 혀를 내둘렀으며 다시는 군수를 놀려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수가 부임할 때 쉬어갔던, 그리고 그곳에서 수달피 사건을 해결했던 통비주막 자리에 송군수 송덕비가 무쇠로 만들어 세워졌다 하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고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감직했던 15세 군수의 이야기만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

소탄산이 명산

■ 홍수가 나자

사람들은 산으로 피했지만
남매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

소탄산이 명산

옛날, 우리 서산지방에는 9년 동안이나 장마가 저서 큰 홍수가 났었는데 그 장마에 얽힌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서산군에는 부석면과 해미면과 서산면이 서로 연결해 있었는데 각 고을마다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석면에는 「되비산」(도비산)이라 불리는 산이 명산이요, 해미면에는 「개산」(가야산)이 명산이요 서산면(이 서산면은 나중에 서산읍에 편입됐음)에는 소탄산이 명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되비산이니 개산이니 소탄산이니 하고 이름이 붙여졌느냐 하면 위에서 말한 9년 동안의 장마로 큰 홍수 때문에 생긴 이름이어서 재미가 있습니다.

아득한 옛날,

갑자기 하늘이 시종먼 구름으로 덮히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는 하루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도 끊이지 않았읍니다.

“젠장, 무슨 비가 이렇게 오래 온담! 어디 사람이 견
더날 수가 있나!”

“누가 아니라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두 달이 넘
었으니 이런 장마가 어디 있겠나!”

그러나 두 달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년 이년, 삼년
…… 구년, 비는 구년 동안이나 내렸습니다.

“홍수다!”

“물난리가 났어!”

“산으로 달아나자!”

동네 사람들은 서둘러 산으로 피했지만 물은 산을 덮어
사람들 모두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상이 온통 물바다가 됐고 산이란 산은 다 물에 잠겼는데 부석에 있는 되비산은 뒷박 하나 올려놓을만큼 육지가 남아 있고, 해미면에 있는 개산은 개 한 마리 앉을만큼 육지가 남아 있었으며, 서산면의 소탄산은 소 한마리 앉을만한 육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소탄산 아래에는 남매가 함께 살았는데 홍수 때문에 이 소탄산 꼭대기까지 몸을 피하여 간신히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남매가 소탄산 꼭대기에서 사방을 보니, 부석면에 있는 되비산에는 뒷박 하나 올려놓은만큼 남아 있었고 해미면의 개산에는 개 한 마리 올라 앉을 자리가 남아 있었으며 자기들이 앉은 소탄산에는 소 한 마리 앉



을 정도의 육지가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산 이름을 되비산, 개산, 소탄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며칠 후, 물이 다 빠지고 마을에 내려와 보니 동네 사람 모두가 다 죽고 자기들 남매만 남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만 남았군요./”

“그렇구나, 우리만 남았어./”

남매는 이 무서운 상황에 몸을 떨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남매가 이제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자기들만 남고 모두 죽었으니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글쎄 다 섹시감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

“먼곳에 가면 있지 않을까요?”

“먼곳에? 그러나 어디에 사람이 사는지 알 수가 없구나./”

“그렇군요, 홍수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텐데./”

“우리끼리 결혼할까?”

“그건 안되요./”

“안되겠지, 그러나 우리가 늙어 죽고 나면 세상에는 사람이 없을 게 아니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

“우리집에 맷돌이 있지요 ?”

“있지”

“그 맷돌을 들고 우리를 살게 했던 소탄산으로 감시다”

“그래서 ?”

“암맷돌은 내가 굴리고 솟맷돌은 오빠가 굴리श्य”

“그래서 ?”

“맷돌이 둘로 갈라지면 하느님이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고, 하나로 합해지면 결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렇게 하자.!”

남매는 맷돌을 들고 소탄산으로 올라갔읍니다. 그리곤 맷돌을 굴렸읍니다. 그랬더니 맷돌은 하나로 합해졌읍니다.

“결혼하라는 뜻이구나.!”

“그렇군요.!”

남매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어느 산이 명산이냐고 따졌읍니다.

“되비산일쎄.!”

“아니야, 개산일쎄.!”

“무슨 소리, 소탄산일쎄.!”

“어째서 ?”

“뻔하지 않은가”

“뻔하다니 ?”

“아따 이사람, 되비산과 개산과 소탄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 어디지?”

“그야 개산이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되비산이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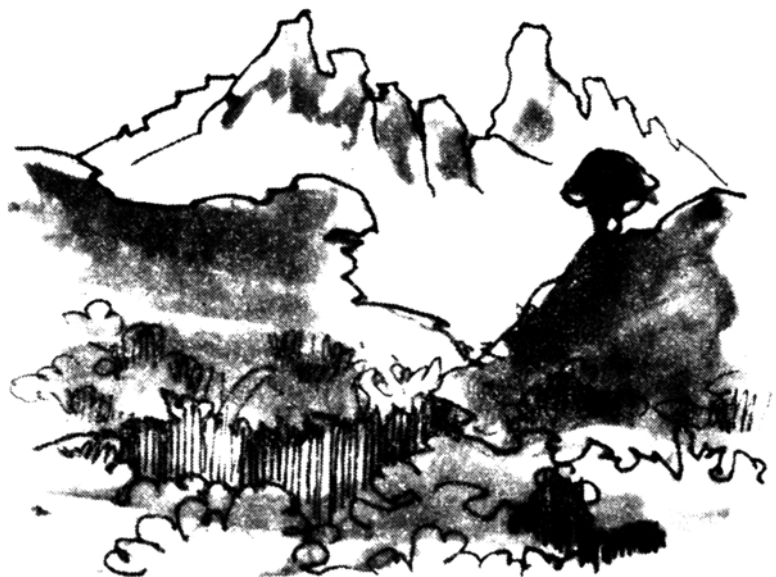
“그럼 제일 낮은 산은 소탄산이 아닌가?”

“그야 그렇지”

“그러니까 소탄산이 제일 명산이야”

“산이 높고 낮음이 왜 명산과 관계가 있나?”

“생각해 보라구, 제일 낮은 소탄산이 물에 잠기지 않은 부분이 제일 넓지 않은가, 되비산은 뒷박만큼 남았고 개



산은 개가 앉을 자리만큼, 그러나 제일 낮은 소탄산은 소가 앉을 자리가 남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렸거든 그러니 소탄산이 명산이 아니구 무엇이겠는가! ”

“하긴 그렇구먼! ”

“그 말이 맞아! ”

그래서 소탄산 주위에 사는, 그러니까 장리, 덕지내에 사는 사람들은 소탄산을 명산이라 생각하고 소탄산에는 명당 자리가 있을 꺼라고 여겨왔습니다.

어쩌다 동네에 전염병이 들거나 가뭄이 심해서 흉년이 들면 산이 덧나서 그렇게 됐다고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는가 하면 또 누가 몰래 산소를 써서 이런 재앙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소탄산에 명당이 있는데 그 명당자리에 산소를 쓰면 그 집안은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동네 사람들에게겐 재앙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탄산에는 산림이 울창하여 그옛날 홍수이야기를 숲속에 감추고 푸르름을 자랑하며 우뚝 서 있습니다. ■

염라대왕을 고발한 사나이

■ 남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언젠가는 자기에게도
그만큼 화를
당한다는 이야기

염라대왕을 고발한 사나이

신라시대 최치원이라는 훌륭한 문장가가 계셨습니다. 호를 고운이라고 한 이분은 신라 경문왕(28대)때 당나라에 유학, 과거에 급제하였고 당나라에 있는 동안 황소라는 도둑이 난을 일으켜 당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토 황소격문」이라는 글을 써 황소가 항복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인데 신라에 돌아와 벼슬자리를 주었으나 사임하고 글을 쓰는데 전념하였습니다.

그분이 쓴 책으로 “계원필경집”과 “사록집” 등이 있는데 모두 유명한 책입니다.

최치원이 잠시 서산군수로 와 계셨었는데 이 이야기는 서산군수로 있을 때의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원북면에서 사는 60세쯤 되는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예, 군수님 이런 억울할데가 있습니까?”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다름아니오라 소인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밤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요, 거참 안됐군요, 얼마나 슬프십니까, 뭐라 위로해 드려야 할지 ……”

“이 쌍둥이 아들은 내가 나이 늦게 얻은 아들인데 염라대왕도 너무하시지 그래, 쌍둥이 아들을 한꺼번에 가져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군수님을 찾아 뵈온 것은 다름이 아니고 염라대왕을 걸어 고소를 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염라대왕을 걸어 고소를 한다는 말씀이요?”

“그래요, 그러니 군수께서는 염라대왕을 불러, 어째서 아

들 들을 한꺼번에 가져갔는지 재판을 하여 만일, 염라대왕에게 잘못이 있다면 아들 모두를 되돌려 주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참, 어려운 재판을 하게 됐군요 사람끼리라면 몰라도 염라대왕을 불러다 재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훌륭하신 군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알겠소, 집에가서 3일만 기다리시오, 염라대왕을 불러 재판정에 오게 되면 연락해 주겠소”

노인이 물러가자 주위에 있던 아전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무리 영특하고 훌륭한 군수로 이름은 났지만 세상에 염라대왕을 불러 오다니, 아무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수님, 아무래도 잘못하신 게 아니십니까?”

“뭐가?”

“염라대왕을 재판하는 일 말입니다”

“너희들은 걱정할 게 없느니라, 그 보다는 우리고을에 발이 빠르고 기운이 센 천리마가 없겠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엇에 쓰시겠습니까?”

“염라대왕을 마중가는 것이니라, 내일 너는 그 말을 타고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염라대왕을 모셔오너라”

“소인더러 열라대왕을 모셔오라는 것입니까? 열라대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모셔오라는 것입니까?”

“염려할 것 없다. 너는 내일밤 자정이 되거든 말을 타고 운산쪽으로 20 리를 가거라, 그러면 거기에 말 위에 젊잖은 분이 앉아 있을터이니 그 분에게 이 편지를 주고 모셔오도록 해라!”

“그럼 그 분이 열라대왕입니까?”

“그렇다니까!”

노인과 약속하고 사흘이 되던 날, 아전은 군수가 시키는 대로 천리마를 타고 운산쪽을 향해 20 리를 달렸습니다. 그



때는 길도 험하고 더우기 그날은 꺾은비가 내려 천지를 분간 못할만큼 사방은 어두었습니다.

아전은 어쩐지 으시시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사람을 만나러 간다면 몰라도 이 밤중에 염라대왕을 만나러 간다니 무서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아전의 등에서는 땀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러나 군수의 명령이라 되돌아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 때, 아전의 눈앞이 갑자기 환해지더니 웬 사람이 말을 타고 점잖게 앉아 이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옳지, 저 양반이 염라대왕이구나.!”

아전은 말에서 내려 공손히 절하고 군수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알고 있느니라,어서 가자.!”

“예.!”

염라대왕과 아전이 관하에 당도하니 아들을 잃었다는 노인도 와 있었습니다. 군수가 염라대왕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염라대왕님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이 너무 억울하다고 고소를 했으니 이고을을 다스리는 책임자로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감히 염라대왕님을 오시게 했으니 너그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군수께서 오라하니 내가

어찌 마다하겠소 그건 그렇고 저 노인이 억울하다는 것이 무엇이오?”

그러자 쌍둥이를 잃은 노인이 말했습니다.

“염라대왕님, 그걸 몰라서 물으십니까? 어떻게 해서 제 아들 둘을 한꺼번에 가져가셨나요?”

“그래, 하지만 그건 네 아들이 아니니라.!”

“어째서 제 아들이 아니라 하십니까 그 애들은 제가 50에 나서 올해 열살이 된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래도 너는 네 죄를 모르는구나. 그 쌍둥이 아들을 내가 데려간 것은 다 네 죄 때문이란다.!”

“무슨 말씀이시옵는지?”

“이놈아, 너 13년 전의 일을 잊었느냐?”

“.....?”

“너 13년전 원북땅에서 주막을 경영한 일이 있지?”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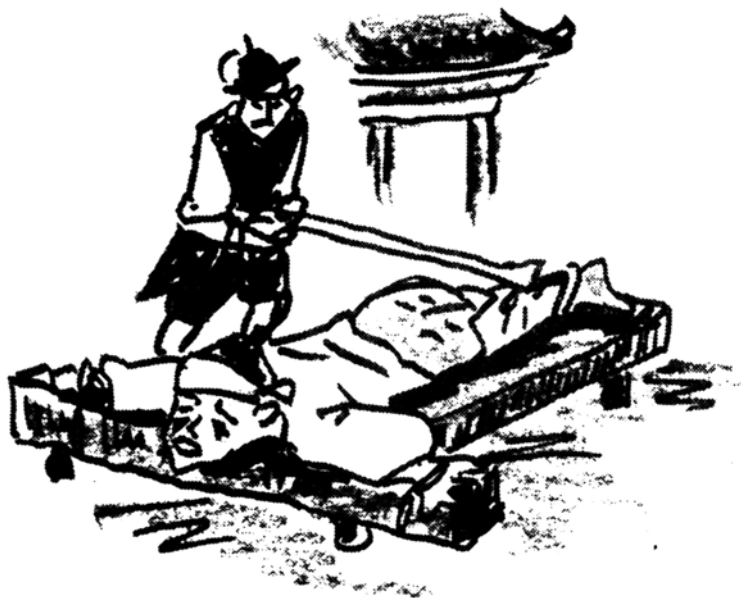
“그 주막을 하던 어느 날, 너의 집에 쌍둥이 등짐장수가 찾아왔느니라”

“......!”

“너는 그 쌍둥이 형제가 돈이 많은 것을 알고 그 돈이 탐이 나서 그들을 죽이고 돈을 빼앗고는 그 시체는 너의 집 부엌에 묻어 두었지?”

“......!”

“네 이놈, 왜 대답이 없느냐, 나는 너의 소행으로 보아서 당장 너도 죽이고 싶었으나 너의 명이 아직 남아있기에 그 대신 쌍둥이를 낳게 하여 다시 데려오므로 네게 고통을 주려고 한 것 뿐이니라, 이놈 그래도 나를 속이겠느냐?”



“대왕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네 죄를 묻지 않겠다. 하지만 여기 훌륭한 군수께서 법대로 네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염라대왕은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때까지 잠잠고 있던 최치원 군수께서 호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이 노인을 감옥에 넣고 너희들은 이 노인의 집 부엌을 파 보아라.!”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아전들이 노인의 집 부엌을 파 보니 과연, 거기에는 쌍동이 시체가 묻혀 있었습니다. 아전들은 시체를 거두어 장사지내 주었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노인은 억울하다고 염라대왕을 걸어 고소했으나 오히려 자기 죄만 들추어 내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죄를 숨겨도 어느 땐가는 들어나게 마련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최 치원 군수가 미리 이 노인의 죄를 알고 있었고 또 염라대왕은 군수가 재주를 부려 헛개비가 염라대왕으로 변신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 잠깐 여기를 *******

○ 명심보감에, 착한 일을 한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하늘의 화를 받는다는 말이 있
읍니다.

착하고 악한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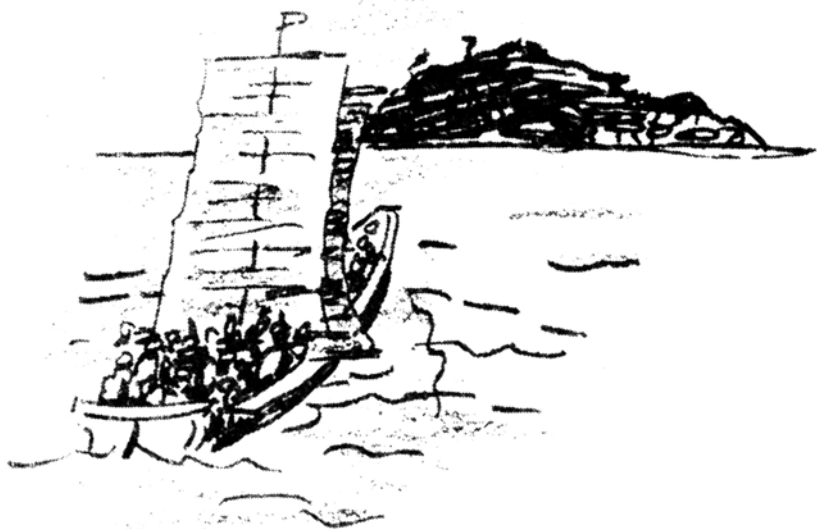
떡 바 위

■ 한사람의
책임없는 행동이
많은 사람을 죽게 했다는
남면에서
전해오는 이야기

떡 바 위

남면 몽산리 앞바다에는 떡바위라는 큰 바위가 밀물이 들어 오면 물속에 몸을 감추고 물이 나가면 몸둥이를 우뚝 들어내면서 오랜 세월을 거쳐오고 있습니다.

이 바위를 왜 떡바위라고 했는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습니다.



옛날, 남면 사람들은 굴을 따기 위하여 이 떡바위로 종종 갔읍니다. 이 바위에는 굴이 많이 돌아나 잠깐 동안에도 많은 굴을 딸 수 있기 때문이었읍니다. 그러나 바위가 바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걸어서는 갈 수가 없었읍니다.

물이 나간 때라도 바위의 윗부분만 들어나지 근처에는 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때 좋은 날이거나 날씨가 좋은 날이면 이 바위로 가곤 했읍니다.

굴을 따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들이어서, 아침을 먹고는 점심밥을 싸가지고 동네 여인들을 모아, 배를 타고 갔다 오곤 했읍니다.

그날도 날씨가 청명했읍니다.

“여봐요, 돌이 어머니”

“왜요?”

“오늘 굴따러 안갈래요?”

“가야지요,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그야, 저 바위로 가야지요”

“누구네 배가 간다던가요?”

“간대요, 철이네 배가 간다구 지금 갈 사람은 빨리 바닷가로 나오래요”

“그럼 갑시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바구니와 굴따는 기구를 챙겨 들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철이네 배가 흰돛을 올리고
출항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자, 빨리 타श्य요, 빨리 가야 굴을 많이 딸 수가 있어요”

여인들을 태운 배는 미끄러지듯이 잔잔한 물결을 가르며
바위를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잔잔한 물 위로 갈매기가 나르고 살랑 부는 바닷바람은
배에 탄 사람들의 기분을 들뜨게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노래 부를 사람 없나?”

“노래를?”

“그래, 공연히 흥이 나는구먼!”



“홍이 나? 그럼, 홍이 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거나?”

“그렇까”

한 아주머니가 노래가락을 흥겹게 부르자 다른 아주머니들도 덩달아 합창을 했습니다. 배 안에는 갑자기 노래소리로 일렁였고 누구는 뱃전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배는 큰 바위에 닿았습니다.

“자, 모두 내려서 부지런히 굴을 따시오, 그동안 나는 거아도에 좀 갔다 와야겠어요”

사공은 이렇게 말하고 배를 돌려 거아도로 가려고 했습니다.

“거아도에는 왜요?”

“잔치집이 있어요”

“잔치집이요?”

“그래요, 우리 친척인데 잠깐 다녀 올게요”

“빨리 와야해요, 들물이 들기 전에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린 물에 잠겨 죽고 말아요!”

“염려말아요”

“그건 그렇고, 올때, 떡좀 받아가지고 오세요”

“떡이요?”

“떡 뿐만 아니라, 뭐 먹을것 있으면 많이 받아와요”

“그렇게 할게요 ”

이렇게 약속한 사공은 배를 저어 거아도로 갔읍니다.

바위에 남은 여인들은 굴따기에 정신이 없었읍니다. 조금이라도 더 따야 그만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
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부지런히 굴을 탄 여
인들의 바구니에는 어느새 , 굴이 그득하게 담겨 있었읍니
다. 이제 집으로 가야 합니다.

벌써 , 밀물이 슬금슬금 들어와 큰 바위를 감싸 올라오
기 시작했읍니다.

“ 들물이 났어 ! ”



“그래, 그럼 빨리 가야지./”

“그런데 왜 배가 안오는 거야?”

“글쎄, 빨리와야 할텐데, 물이 이만큼 차 올랐는데 아직도 배가 오지 않으니 어떻게 된 거야./”

여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을 태우고 갈 배는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아니, 잔치집에 가서 얼마나 먹고 오길래 아직도 안와.”

“누가 아니래, 이거 술에 취한 게 아닐까?”

“설마./”

여인들이 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물은 벌써 바위를 덮고 사람의 발등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온통 망망한 바다였고 발붙일 곳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죽는 게 아닌가./”

하지만, 거아도에 갔다 온다던 배는 보이지 않고 물은 점점 더 올라와 사람들의 몸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거아도에 갔던 배는 잔치집에서 부지런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배가 빨리 나가지 않았습니니다. 잔치집에서 먹은 한 잔의 술이 아무래도 뱃사공의 힘을 빼앗은 모양입니다.

“빨리 가야하는데,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나 마음과는 달리 배는 더디게 더디게 움직였습니다. 사공의 이마에서는 비지땀이 흐르고, 등허리까지 땀으로 축축히 배어왔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사공은 이를 악물고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

바위에 있던 여인들은 모두 해엄을 칠 줄도 모르는데 다 종일 일을 했기 때문에 기진하여 물 속에서 한 번 허우적거리지도 못하고 들물에 떠 그냥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공이 힘을 다하여 바위까지 왔을 때는 이미 바위도 사람도 물에 잠기고 주위에는 갈매기들만 슬픈듯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이 바위를 「떡바위」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사공이 거아도로 떡을 얻으러 갔다가 여인들을 죽게 해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큰 떡바위는 남면 앞바다에서 그 애절한 전설을 간직한 채, 물에 씻기며 묵묵히 서 있습니다. ■

두명골의 두견새

■ 효성스런 청년을
사랑한 처녀가
두견새가 됐다는
이야기

두명골의 두견새

원북면 방갈리, 툽니바퀴 같은 해안을 따라 가다보면 유명한 학암포 해수욕장이 있고 그 학암포 원전에는 두명골이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두명골은 바다와 접해있고 지금은 국립 해안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경치가 아름답기로는 어느 곳도 따르지 못할만큼 좋은 경관을 가진 곳입니다.

이 두명골에는 천년 동굴이 있는데 입구가 겨우 사람 하나 드나들 수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큰 운동장보다도 더 큰 별천지가 나타나 보는이의 눈을 황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굴 안에는 박쥐가 살고, 종유석이 천정에 매달려 건드리면 아름다운 음율이 흘러나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즈음은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어두운 굴안에는 퀘퀘한 냄새만 풍기고 금방이라도 귀신이 나타날 것 같아 아무도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빌리면 그 동굴에는 큰 구렁이가 살

고 있어 사람이 들어가면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인지는 아무도 본 사람없고 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멍골에는 두견새가 많이 살고 있어서 밤마다 두견이 우는 소리가 너무 청아해서 이 두견의 울음소리가 관송팔 경의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관송”이란 원북면 황촌리와 방갈리를 일컫는 옛날 지명인데 이 관송의 여덟가지 경치를 관송팔경이라고 합니다.



그 여덟가지를 (八景) 여기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어도에 고깃배가 돛을 달고 깃발을 날리면서 들어 오는 모습

- ② 죽섬 앞에서 밤에 햇불을 가지고 낙지를 잡는 광경
- ③ 절골에서 은은히 울리는 종소리
- ④ 두멍골에서 두견새가 우는 청아한 소리
- ⑤ 모재라는 바닷가에 해가 지는 저녁놀
- ⑥ 학암포 앞바다에서 바라보면 가물가물 보이는 일곱 섬, (울섬 . 꽃섬 . 질마섬 . 대섬 . 새섬 . 거머섬 . 수레섬)
- ⑦ 바닷가의 해당화가 핀 명사 십리
- ⑧ 학암포 앞에 있는 분점이라는 섬, (이 섬이 안개로 덮혔을 때의 광경)

이 여덟가지 경치는 너무 아름다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황홀케 했습니다.

지금은 민어도의 돛단배도, 죽섬 앞의 햇불도 절골의 종소리도 모두 사라져 찾아볼 길 없지만, 이 팔경에 얹힌 전설은 지금도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멍골의 두견새에 대한 전설을 여기 옮겨보려 합니다.



옛날, 학암포에는 중국과 무역하는 배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청나라 배들이 드나들었다고 전해지는 것을 보면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무역하던 상품들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지

금 학암포 앞바다에는 청나라 배가 가라앉았는데 그 배에서 중국 도자기가 실려 있다는 소리에 몇년 전 어느 사람이 바다속을 조사해 보니 과연 배가 가라앉은 것을 확인하고 보물을 건지려다가 그만둔 사실이 있습니다.

학암포 옆 동네에 “개시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옛날이 개시내에서 중국 상품을 매매했다고 해서 개시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도 합니다.



그 무역선이 드나들 때의 이야기입니다.

“무역선이 들어온대.!”

“무역선이?”

“그래, 이번에는 비단을 가득 싣은 배가 들어온다는 거

야./”

“그렇담, 나도 비단쫄 사야지”

“나두

과연 해가 뉘엿뉘엿할 때쯤, 붉은 기를 단 세뚝박이 중
선배가 물결을 가르며 학암포 포구를 향해 들어오고 있었
읍니다.



아까부터 배가 들어오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한 청년이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 배좀 한 번 타 봤으면, 그래서 중국에도 가 보고, 또 돈도 벌어서 어머니께 효도도 하고 ……”

이렇게 말하는 청년의 얼굴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 청년은 개시내에서 사는 사람인데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어머니가 병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의원을 모셔온다. 좋은 약을 구해다 드린다. 갖은 정성을 다 쏟았지만 어머니의 병은 더 해만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처럼 효성이 지극한 아들에게 칭찬하고 있었지만 도와줄 길이 없었습니다.

그 때, 누군가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중국에 가면 좋은 약이 있대./”

“중국에 가면 약이 있대요?”

“그래, 무슨 병이든 잘 낫는 약이 있다는 거여./”

“누가 그러던가요?”

“중국사람이지, 저 무역선을 타고 온 선원이 그렇게 말했어./”

“그 사람좀 만나볼 수 없을까요?”

“만날 수 있지, 저 피돌이네 주막집에 묶고 있으니 그 집에 가 봐”

“고맙습니다!”

아들은 중국사람이 묶고 있다는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중국사람의 말은 어렵다는 이야깁니다.

“중국에 가면 약이 있기는 있지, 그러나 어떻게 간담, 우리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또 간다해도 약값이 너무 비싸서, 쌀 열 가마 값을 주어야 할텐데?”

“우선 중국에 갈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아저씨 배를 타고 가면 안될까요?”

“그건 안돼, 왜 안되느냐 하면, 우리 선원이 아닌 사람이 중국에 들어가면, 그것도 다른나라 사람이 들어가면, 몰래 숨어 들어온 사람이라고 벌을 받게 되거든!”

“아저씨, 벌을 받아도 좋으니 저좀 데려다 주श्य, 전, 약을 구해다 어머니 병을 고쳐드려야 해요!”

“하지만, 중국에는 우리배로 간다손 치더라도 너에게 약값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나 방법이 있겠지요, 제가 품팔이를 해서라도 그 약은 꼭 구해야 해요!”

청년의 효심에 중국 선원은 같이 갈 것을 승락했습니다.

“좋다, 다른 일이라면 어렵도 없다만 자네의 그 효성에 내가 어떻게 모른체 하겠나, 배를 태워 줄터이니 약

을 구하는 일은 알아서 하거나”

“고맙습니다./”

다음 날, 청년은 중국인 배를 타고 청나라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배는 중국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친절하게도, 중국 선원은 좋은 약이 있다는 큰 약국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약국 주인은 청년의 말을 듣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이 있긴 있지, 그러나 너무 비싸거든, 웬만큼 비싸면 그냥도 주겠지만 그럴 수도 없고 ……./”

“의원님, 저도 댓가없이 그냥 얻으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건 정성이 아닐뿐더러, 약효도 없을지 몰라요 제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약값을 꼭 드릴터이니 방법이 없을까요?”

청년의 애절한 간청에 약국 주인은 담담히 생각하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겠나?”

“어떻게요?”

“마침, 우리집에 일손이 부족해, 약 주문한 곳에 날라다 주기도 해야 하고 또, 약도 썰어야 하고 청소도 해야하고 ……….”

“하겠습니다. 약을 구한다면야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집에서 일하도록 하게 ”

이렇게 해서 청년은 약국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아침에도 남보다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약을 썰고, 또 심부름도 하고, 하루 종일 궁둥이를 땅에 붙일 사이도 없이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청년의 성실한 모습에 약국 주인은 청년을 믿었습니다.

“거참, 훌륭한 청년이야, 효성스럽고, 성실하고, 마음씨 착하고 사위감으로 꼭 마음에 들거든./”

약국 주인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에게 딸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은 벌써, 청년을 마음에 두고 있었읍니다.

인물이 잘생기고, 믿음직스럽고, 또 인정이 있고 효성스런 청년을, 처녀는 늘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청년이라면 한평생을 같이 살아도 좋아./”

처녀의 사랑은 날이 갈 수록 더해만 갔읍니다.

이런, 처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청년은 성실히 일만 했습니다.

“빨리, 약값을 벌어야 해, 그래서 약을 가지고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야만 해./”

청년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했습니다.

이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날은, 약국 뒷뜰 정원에 모란이 환하게 웃고 있었읍니다.

그 모란꽃 옆에서 청년은 약초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뒤돌아 보니 거기에는 주인집 딸이 모란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읍니다.

“저, 드릴 것이 있는데요”

“무슨 ……./”

청년이 어물어물하자, 처녀는 손에 쥐고 있던 쪽지를 건네주고는 황하니 안으로 들어갔읍니다.

청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따금 먼빛으로 보아온 주인집 딸이 예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일하는데 정신이 팔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쪽지를 받고 보니 가슴이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을까./’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읽어보았읍니다.

그 쪽지에는, 자기는 청년을 사랑하고 있다는 애기며, 결혼하여 여기서 함께 살자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읍니다.

청년도 평소, 주인집 딸을 멀리서나마 보고는 아름다운 처녀라고 생각했었는데 처녀의 구혼을 받고는 싫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처녀를 좋아하고 있어, 하지만 안돼, 나는 빨리 약을 구해가지고 어머니 있는 곳으로 가야 해’

다음 날, 청년은 처녀를 만나 자기의 처지를 말했습니다.

자기도 처녀를 좋아하지만 여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고향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병든 어머니가 계시고 자기는 하루 빨리, 약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갔다 올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가서 살면 안되나요?”

“그야, 어렵지 않지만 지금은 안됩니다./”

“왜요?”

“지금, 내게 가장 급한 것은 어머니 병환이 빨리 쾌하시는데 있습니다. 약을 구하여 어머니께 드리고 어머니께서 건강을 찾으시면 그 때, 다시 오지요 그 때까지는 아무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제가 아버님께 말씀 드려서 약을 가지고 빨리 다녀오시도록 하면?”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버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제게 맡기세요”

처녀는 자기 아버지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평소에 청년을 좋게 보아온 약국 주인은 선뜻 승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병이든 다 낫을 수 있다는 그 약을 기름종이에 정성스레 싸주면서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다녀오게, 그리고 우리 딸을 데려가게!”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된 다음의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병이 완쾌하셔야 다시 오겠습니다. 만일 어머니의 병이 그대로이면 전 올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네, 이 약을 드시고 어머니의 병이 빨리 쾌차하

시기만 바라겠네”

청년은 이렇게 약속하고, 무역선을 타고 우리 나라로 떠났습니다.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약을 소중히 품에 안고 배를 탔습니다.

청년의 마음은 설레였습니다. 집을 떠난지 한 달이 더 지났고, 또 병든 어머니 혼자 두고 왔다가 이제 약을 구하고 가게 되니 저의기 흥분까지 됐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 병세는 더하지나 않으신지 ……’

청년의 마음에는 고향에 대한 만가지 생각과, 또 눈앞에선 학암포며, 두멍골이며 개시내, 거기다가 친구와 동네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빨리 가야 할텐데, 이 배는 왜 이렇게 느리담! /’

청년의 마음은 급하고 초조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이런 마음과는 달리 바다의 물결은 사납게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큰 파도가 금방이라도 배를 덮칠 듯이 으르렁거렸고 하늘에는 먹구름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태풍이다! /”

“폭풍이야! /”

“이제는 죽었구나! /”

벧사람들은 갑자기 닥친 어려움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선장이 소리쳤습니다.

“갑내지 말고 배에 있는 물건을 모두 밖으로 던지시오.”

선장의 지시대로 사공들은 배에 실려있는 물건들을 바다로 던졌습니다.

배에 실려 있는 물건들은 모두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비단, 도자기, 금과 은, 무역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귀한 것들이었지만 사람이 살기 위하여 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청년도 힘을 합하여 벧사람들을 도왔지만, 워낙, 바람과 파도가 심해서 배는 점점 파도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보니 배는 어느 섬, 모래땅에 걸려 있었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언제 이처럼 무서운 폭풍우가 있었느냐는 듯이 하늘은 맑게 개이고 바다는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어요? 모두 이쪽으로 모여 보시오.”

선장의 소리에 벧사람들은 모두 모였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도,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이런 감사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다.

“내 약./”

청년은 잊고 있던 약이 생각나 품안을 살펴보니 약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용기를 내십시오, 다시 항해를 계속합시다./”

선장은, 선장답게 용감히 일어서더니 사공들을 격려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배도 파손된 곳이 없어, 사람들에게 안도의 숨을 쉬게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지요?”

“조선으로 갑시다. 조선 땅이 가까우니 조선으로 가서 우선, 먹을 것도 얻어야 하고 물도 얻어야 합니다./”

뱃사람들은 다시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 때문에 며칠을 더 걸려 배는 겨우 학암포에 도착했습니다.

청년은 배에서 내리자 말자,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어머니 소식부터 물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님 어떻시지요?”

“..... ./”

“저의 어머니님 그냥 앓고 계시지요?”

“늦었네./”

“늦다니요?”

“자네를 기다리다 3일 전에 돌아가셨어./”

“예! 뭐라구요! 그게 정말입니까?”

“어제 장례를 모셨다네, 자 내가 자네 어머니 산소에 데려다줄테니 따라오게!”

동네 사람의 뒤를 따르는 청년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품에 있는 약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은 바다가 보이는 병랑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곳에 묻어달라는 유언대로 이곳에 장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으니 눈을 감지 못하겠소, 언제 아들이 돌아올지 모르니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죽어서라도 보게 바닷가 병랑 위에 묻어주소!”

청년은 어머니 무덤 앞에 이르자 어머니! 하는 한마디 울부짖음을 애처롭게 토하고는 그 자리에 쓸어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울던 어느 날,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회오리바람이 일더니 어머니의 무덤과 청년을 한꺼번에 말아 하늘로 올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큰 동굴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여!”

“누가 아니래!”

“청년의 효심에 하늘이 감동했나?”

“아닐지도 모르지, 앓고 있는 어머니를 혼자 두고 멀리 갔다 왔다고 별을 준 것이 아닐까?”

“그럴리야 없겠지”

사람들은 이 이상한 일에 영문을 모른채 모이는 곳마다 동굴 이야기로 꽃을 피웠읍니다. 그리고는 여러 달이 지났읍니다.

청나라에 있는 처녀는 이제나 저제나 매일 청년을 기다렸지만 감감소식이었읍니다.

“나를 잊은 거야,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던 말도 모두 거짓이었어. 아, 나는 어떻게 한다지!”

처녀는 매일 울다가 그만 병이 들었읍니다. 처녀의 부



모들은 처녀를 달래고 위로하고, 또 약을 썼지만 자리에 누운지 며칠 후, 처녀는 기어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애절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처녀는 두견새가 되었습니다. 두견이 된 처녀는 사랑하는 청년이 있는 조선땅, 두명골로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청년은 없었습니다. 두견은 밤마다 두명골을 돌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 때 부터 두명골에 두견이 울었다는 얘깁니다.

지금은 두명골에 두견의 울음소리도 뜸하고 동굴 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는지 모르는채, 애절한 전설만이 파도 소리에 실려 멀리 멀리 퍼지고 있습니다. ■

瑞 山 的 傳 說

編 者 者：崔 周 淵

印 刷 日：1995年 8月 1日

發 行 日：1995年 9月 1日

發 行 處：瑞 山 文 化 院

發 行 人：金 顯 龜

印 刷：瑞 山 印 刷 公 社

連絡處：충남 서산시 읍내동 268

서 산 문 화 원

☎ (0455) 65-5050

FAX (0455) 65-4567

